

ACTS 40년사

ACTS 40년사 편찬위원회

ACTS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40 Years History of ACTS

Edited by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40 Years History of ACTS

ACTS
40년
발자취



서대문 캠퍼스 종강예배(1975. 6. 19)



서대문 캠퍼스 기공식(1977. 3)



1977년 서대문 캠퍼스 수업



1978년 서대문 캠퍼스 피어스 홀 전경 및 웨어하우스 홀 신축 현장



제1회 학위수여식(1977. 10. 13)



1970년대 ACTS 외국인학생



개교 6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강연회(1980. 5. 1)



제1회 학부 입학식(1982. 3. 4)



양평 캠퍼스 착공예배(1981. 10. 5)



제6차 아시아신학연맹 신학자협의회 및 제3세계 신학자대회(1982. 8. 27)



개교 10주년 기념 및 재상봉예배(1984. 5. 1)



교수 취임 예배(1986. 5. 27)



1985년 ACTS 교수진
(정규남, 나일선, 잭함, 한철하, 에쉬나워, 안봉호, 유광웅, 전호진, 이명수)



신앙수련회(1986. 9. 3)



학위수여식(1987. 9. 20)



학위수여식(1990. 2. 20)



아세아복음화 기념비 제막식(1988. 5. 3)



제4회 전국목회자 하기 수련회(1990. 7. 3)



생활관 개관식(1990. 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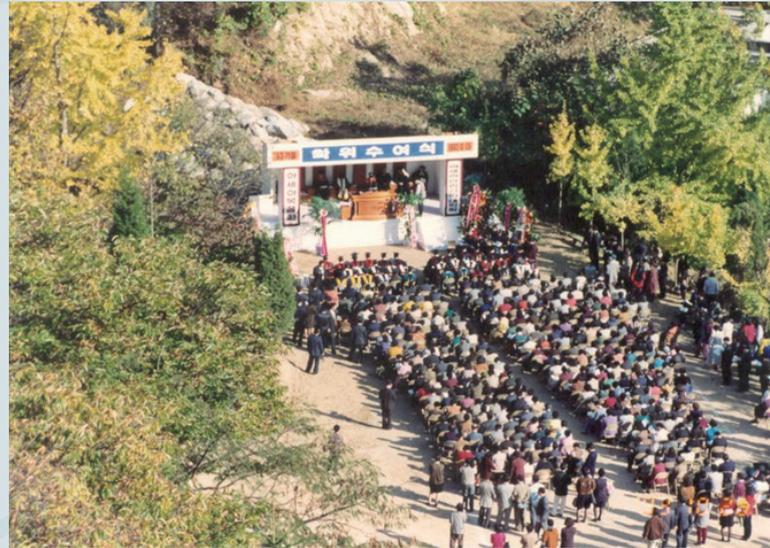
아세아 선교의 날(1992. 10. 2)



선교대학원 기공예배(1992. 8. 14)



개교 제19주년 감사예배(1993. 5. 3)



학위수여식(1993. 10. 26)



서대문 캠퍼스 웨어하우스 홀(1995. 1. 11)



개교 20주년 기념예배(1994. 5. 2)



서대문 캠퍼스 피어스 홀 리모델링 개관식(1996. 10)



외국인학생 신앙수련회(1996. 10. 22)



국가별 선교연구원 현판식(1997. 10. 30)



선교대학원 준공 감사예배(1997. 10. 30)



임옥 목사 기념예배실 현판식(1997. 10. 30)



아프리카복음화를 위한 오찬기도회(1998. 8. 11)



제8회 세계칼빈학회(2002. 1. 23)



제23회 선교대회 각국 선교연구원 보고(2001. 9. 17)



도서관 기공예배(2002. 9. 13)



목회학박사 동문회 운영이사 추대식(2003. 5. 2)



ACTS 심포지움(2009. 5. 1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004. 2. 20)



학생관 개관식(2010. 10. 26)



제7대 이사장 홍성개 목사 및 제8대 총장 김영욱 박사 취임(2011. 3. 15)



제8대 이사장 최남수 목사 취임(2013. 3. 5)



신앙수련회(2011. 9. 1)



국제교육원(AIGS) 외국인학생(2013. 3. 11)



토마스 선교사 기념비 제막식(2013. 8. 27)



ACTS 영국기독교선교팀 웨스터minster 채플(2013. 9. 17)



강당 증축 현당 예배(2013. 9. 3)



제35회 ACTS 선교대회(2013. 10. 22)



학위수여식(2014. 2. 18)



ATA 국제학술대회(2014. 8. 11)



Theo-Drama "Imago" 공연(2014. 6. 10)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2014. 12. 5)



ACTS 40년사

발간사

김영욱 박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가 창립된 지 40년을 넘어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벅차오릅니다.

다사다난했던 우리 대학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모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ACTS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도 하였고, 잠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시금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였습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우리 ACTS를 주님이 이끄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세아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우리 대학은 “나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학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 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20여 개국에서 온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아세아복음화”라는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또한 23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영국을 품고 기도선교를 다녀 온 “2013년 영국기도선교”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학교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년 우리 대학과 함께 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ACTS를 통하여 전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 『ACTS 40년사』의 발간은 우리 대학이 발전해 온 지난 40년의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꿈꿔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축사

최남수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장

할렐루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40년 전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지금껏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개교 40주년을 맞아 그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여깁니다. 지난 40년 동안 본 대학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더불어 초대 학장이셨던 한철하 명예총장, 역대 총장,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많은 분들의 충성어린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써 오늘날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든든히 서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세워졌던 우리 대학의 설립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6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남태평양 전도대회에서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은 아세아복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세울 것을 결의하였으며 우리 대학은 그 계획에 따라 세워진 국제적이고 복음주의적이며 교회연합적인 대학교입니다. 아세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세워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국내·외로 걸출한 복음의 역군들을 배출

해 오며 지난 40년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주님의 종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각 나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겸비한 공동체의 일원임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인 또한 이러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이사장으로서 김영욱 총장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가며, 미래에 당면한 난제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40년의 역사를 닫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아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는 말

박응규 교수

ACTS 4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1974년에 설립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ACTS)는 1971년 세계복음주의협의회(World Evangelical Fellowship: WEF)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북미 등 6개 지역의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지역의 복음주의 신학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태동되었다. ACTS의 기원은 WEF의 아시아 지역 신학위원회의 결정과 계획에서 연유된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아시아에 신학연구기관을 싱가포르에 세우려고 했지만, 위원회에 참석한 한철하 박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들의 제안에 따라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¹ 이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선교적 책임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70년대에 이르게 되면, 한국 교회는 괄목할만한 교회성장과 함께 선교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한국 교회의 선교적

¹ "부르스 니콜스 박사님과의 인터뷰", ACTS NEWS 41(2014.10.11), 1971년 WEF 신학위원으로 활동했던 부르스 니콜스(Bruce J. Nicholls) 박사의 증언이 인터뷰에 언급되어있다.

사역은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신학선교라는 차원에서 선교적 책임감을 감당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교육을 능동적으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고자 숙고하고 있었다.²

즉, “아시아 사람들에 의한 아시아 선교”라는 중차대한 사명의식이 무겁게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가왔다. “아시아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고, “아시아의 사활은 기독교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소명의식이 불타올랐으며, “새 아시아 건설”에 일조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강해졌다.³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 중의 하나가 1974년 ACTS, 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설립으로 표면화되었다.

비록 아시아 기독교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20세기 중반에 아시아 대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의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었다. 아시아의 교회 지도자들을 아시아에서 신학을 교육하고자 하는 열정이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공유되면서 이러한 신학 및 선교기관 설립은 매우 빠르게 가시화되었다.

그런 면에서 ACTS의 설립과 지난 40년의 역사는 세계 기독교 역사와 한국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고도 의미 있는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신학적 갈등이나 교단 분열의 부산물로 신학교나 신학대학이 세워지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면서 복음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 지도

² Chul-Ha Han, “The Need and Scope of an International Theological Establishment in Asia” (Planning Papers for an Asian Christian International Institute, January 1972), 2.

³ “아세아연합신대 설립 주도”, 『국민일보』, 1997.4.28.

자들과 신학자들이 선교적 차원에서 세워진 신학연구 및 교육기관이라는 면에서 ACTS의 존재는 그 교회사적 의미가 매우 지대하다.

또한 교회연합으로 세워진 국제적인 복음주의 신학대학교로서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선교적 사명에 관련된 학술연구와 교육을 지난 40년간 올곧게 수행해 오으로써 수많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다는 면에서 그 교육적 공헌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립된 ACTS는 어언 40년의 역사를 지닌 신학 및 선교교육 기관으로 지금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세계 교회 앞에 결코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40주년을 맞이한 ACTS는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를 고찰하고 평가함으로써 부여된 사명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재도약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부단히 개혁하고 새롭게 갱신되지 않고는 교회나 학교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주면서, 과거의 발자취를 냉정하게 고찰하고 현재의 위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며,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ACTS 40년사』(40 Years History of ACTS)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집필되었으며, 7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그러한 수고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수하였다.

편찬위원회는 지난 ACTS 40년의 역사를 태동기(1968-1981)/한상화, 확립기(1982-1987)/안경승, 특성화 구축기(1988-1997)/정홍호, 확장기(1998-2005)/원종천, 박응규, 권오윤, 시련기(2006-2010)/정홍열, 그리고 재도약기(2011-2014)/박응규로 구분하여 맡은 집필자들이 각각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하였으며, 초고가 완성된 후 모든 편찬위원들이 함께 숙독하며 전체 내용을 점검하고 개정 또는 보완하는 과정을 거

쳐 집필의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지난 40년을 회고해 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을 연상하듯 많은 고난과 시련이 ACTS의 역사 속에도 존재했다.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시련을 통한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광야생활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잘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입성한다는 뜻도 “40년”이라는 숫자 속에 내포되어 있다.

“ACTS 40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가슴은 감사의 마음으로 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 함께 뛰어야 한다. “신본주의, 복음주의, 그리고 아세아복음화”라는 ACTS의 본질적 사명과 본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지나간 ACTS 역사의 발자취, “가슴 뛰는 40년”을 진술한 것이 『ACTS 40년사』라면, 앞으로 “함께 뛰는 40년”, 아니 그 이상의 미래의 역사는 또 다른 세대를 통해 기록될 것이다. 아무쪼록 『ACTS 40년사』가 ACTS의 계속되는 역사행전에 귀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목 차

사 진 (ACTS 40년 발자취)	05
발 간 사 (김영욱 박사 _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31
축 사 (최남수 목사 _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장)	33
여는 말 (박응규 교수 _ ACTS 4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35

제1장 태동기(1968-1981)

1. ACTS 설립배경	43
2. ACTS 설립과정의 두 갈래	45
3. 개원(1974년 5월 1일)	49
4.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립까지(1974-1981)	51
4.1 재단법인과 학교법인	51
4.2 학교 재정 및 건축	55
4.3 학사	60
5. ACTS와 선교	
5.1 아세아복음화 조찬기도회 / 아세아복음화 장학위원회 / 아세아복음화위원회 / 아프리카복음화위원회	67
5.2 아세아 선교의 날	70

제2장 확립기(1982-1987)

1. 대학과 대학원 인가	73
1.1 대학 설립	74
1.2 대학원 설립	79
2. 교사 신축	83
2.1 준비과정	83
2.2 준공과 증축	84
3. 신학운동과 선교	87
3.1 신학적 방향	87
3.2 신학선교 활동	90

제3장 특성화 구축기(1988-1997)

1. 선교의 비전 확립	95
2. 격동의 바람	98
3. 아세아복음화기지 건설	100
4. ACTS 신학과 선교의 기틀 확립	109
5. 특성화 준비	131

제4장 확장기(1998-2005)

1. 대학종합평가와 학교발전계획	142
2. 선교중심의 대학 특성화 확립	151
3. 대학 학과 신설 및 교과 과정 개편	153
4. 대학원 신설 및 확장	155
4.1 국제적 대학원 교육	156
4.2 선교대학원	159
4.3 선교사연장교육	160
4.4 각국 선교연구원	161
4.5 평신도선교훈련원 및 ACTS 선교대회	163
4.6 교육대학원 설립	165
4.7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한국어 과정 신설	168
4.8 상담대학원 설립	169
4.9 복지대학원 설립	170
5. 시설 및 기관의 확장	172
6. ACTS 신학연구원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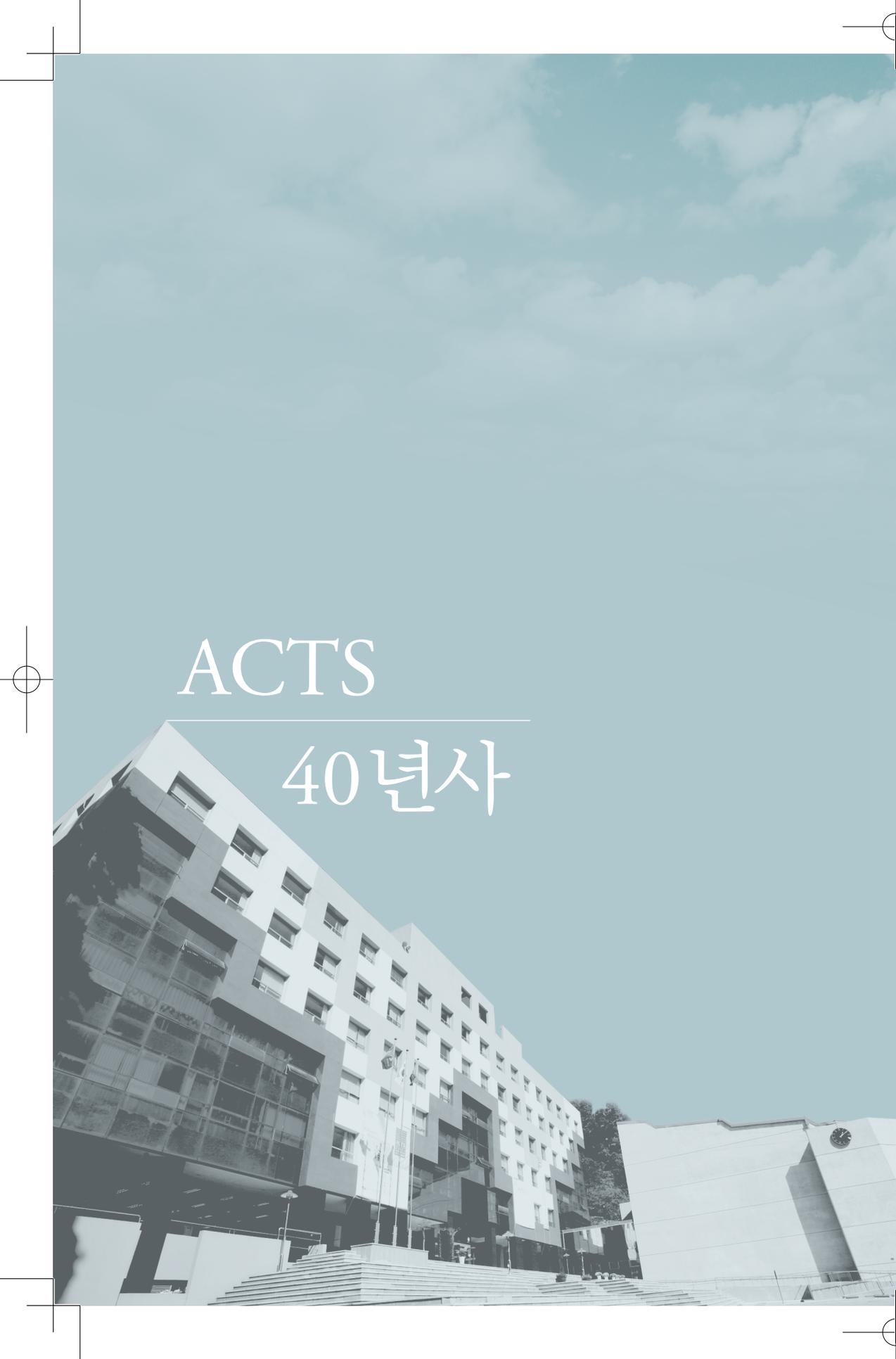
제5장 시련기(2006-2010)

1. 2005년 대학종합평가부터 립택권 총장 퇴임까지	194
2. 고세진 총장 취임부터 김삼환 이사장 사임까지	194
3. 이사회 기능마비: 파행적 학사운영(2007-2009)	202
4. 학내사태 해결과 그 이후의 과제	208

제6장 재도약기(2011-2014)

1. 재도약기의 서곡	213
2. 학부 및 대학원 재정비	217
3. AIGS 개원, ATA 그리고 선교대회 개최	227
3.1 AIGS의 개원과 발전	227
3.2 AIGS 세계석학 초청 세미나, 국제포럼	230
3.3 ACTS 후원운동의 확산	232
3.4 ACTS와 아시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 ATA)	236
4. 다시 열린 “ACTS 선교대회”와 “2013 영국기도선교”	238
5. ACTS의 지역 사회 봉사의 확대	246
6. ACTS 신학운동과 신학연구원 그리고 「신학과 선교」 복간	248
7. ACTS 예배의 전당, 강당 증축 공사 재개 및 완공	253
8.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ACTS, “가슴 뛰는 40년, 함께 뛰는 40년”	255

달는 말	261
부 록	265
색 인	294

The image shows a modern, multi-story building with a glass facade and a large set of stairs leading up to the entrance. The sky is a clear, light blue with some white clouds. The text "ACTS 40년사" is overlaid on the image in a white, serif font.

ACTS 40년사

제1장

태동기(1968-1981)

1. ACTS 설립배경

ACTS의 설립은 20세기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결실로서 큰 교회사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한국의 선교 역사 가운데서 해외선교의 초석을 놓는 깊은 의미를 가진다. ACTS의 설립배경은 196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세계전도대회”(World Evangelism Congress)로부터 기인한다. 이 대회는 부흥운동가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 주도로 “한 인류, 한 복음, 한 의무”라는 주제 하에 동서로 분단된 베를린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열린 국제대회이다.¹

이후 본 대회의 4개 대륙의 지역적 표현 중 하나로서 1968년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남태평양 전도대회(Asia-South Pacific Conference on Evangelism)가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가 바로 ACTS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남태평양 전도대회는 1968년 11월 5일부터 13일에 걸쳐 싱

¹ “선교대회로 본 선교 역사”, <http://www.omygod.us/mission/appendix/C5.htm>

가포르에서 열린 전도대회로서 “아시아를 찾는 그리스도”(Christ seeks Asia)라는 주제로 아시아 24개국에서 1,1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세계복음화의 과제를 인구폭발과 사회적 변동이 심한 아시아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기도하고 논의한 회의이다. 아시아-남태평양 지역의 20억 영혼 구원 사명의 긴박성을 확인하고 이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복음화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대회 목표였다. 본 대회 고문은 미국의 스텐리 무니햄(W. Stanley Mooneyham) 박사였고, 대회 의장은 한국의 한경직 목사, 부의장은 파키스탄의 찬두 레이(Chandu Ray) 주교였다.²

ACTS 설립에 있어서 본 대회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세아복음화의 일환으로 아시아 교회들이 연합하여 신학연구센터(Center for Advanced Theological Studies: CATS)를 건립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후에 실제로 실현된 것이 ACTS이다. 이와 같은 결정을 주도한 인물은 본회의 의장, 부의장과 더불어 인도의 유니온성서신학교 교장 싸피르 아티알(Saphir Athyal),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 신학분과 총무 부르스 니콜스(Bruce J. Nicholls) 등이었다. 또한 CATS 설립을 위하여 15인의 “장소 선정 위원”을 뽑아서 싱가포르 교회 지도자들과 싱가포르 정부 당국과 교섭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이 중에 한국의 대표적인 세 신학대학의 학장(서울신학대학 학장 조종남 박사, 고신대학 학장 오병세 박사, 장로회신학대학 학장 이종성 박사)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세아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학연구 기관을 한국에 설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적 섭리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회의는 당초 CATS의 설립 예정지로 제안되었던 싱가포르가 정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달리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해산되었다.³

² "Asia-South Pacific Congress on Evangelism(1968: Singapore) in Wheaton College Archives & Special Collections" <http://archon.wheaton.edu/?p=creators/creator&id=227>

³ 『ACTS 신학과 선교 30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소 편, 2004, 13-14.

2. ACTS 설립과정의 두 갈래

ACTS의 설립과정은 두 갈래의 흐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제적으로 진행된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과정이다. 이와 같은 흐름을 살펴볼 때, 실로 우리 대학의 설립은 하나의 교단이나 재단이나 개인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계복음주의 운동의 결실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반향으로서,⁴ 피선교지에서 선교지로 발전하는 한국 교회의 성숙해 가는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ACTS의 국제적 설립과정은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산하⁵ “동아시아교회협의회”(East Asia Council of Churches) 주최로 1970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시아복음주의신학자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참석한 WEF 국제신학분과 총무 부르스 니콜스와 아시아신학분과 총무 싸피르 아티알이 주축이 되어 “아시아복음주의신학협의회”를 소집하여 제1회로 모인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⁴ 충신대 교회사가 박용규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 교회를 깨운 복음주의 운동』(서울: 두란노, 1998), 126에서 ACTS의 설립은 한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그의 저서 98쪽에서 우리 대학의 설립을 미국의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설립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1947년에 풀러신학교가 설립되어 복음주의 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과 같이, 한국에서의 ACTS의 설립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 복음주의 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음주의 운동사를 개관하면서 ACTS의 중대한 의미를 정확히 간파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1972년에 조직된 “한국복음주의신학위원회”를 1981년에 공식적으로 결성된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전신으로 인식하고 제 모습을 갖춘 복음주의연맹 기구가 결성되기까지 10년의 성숙기가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했다(99쪽). 동서 138쪽부터 143쪽까지는 우리 대학 설립과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이 한국과 아시아의 복음주의 운동에 기여한 공헌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⁵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일부로서 WEA가 1846년 영국에서 창설되었다면, 1951년 네덜란드에서 영미 등 21개국 복음주의 대표자들 91명이 참석하여 결성한 WEF를 통해 공식적인 세계기구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2001년 이후에는 다시금 WEA로서 복음주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WEF는 1951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복음주의 운동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복음주의 운동은 한편으로는 각 시대, 각 지역의 선교대회들이나 전도대회들을 통해 발전되고 확산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중심 기구인 WEA를 통하여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CC)와는 다른 신학과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WCC 주도 선교대회들과는 차별화된 복음주의적인 선교대회들을 주도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학 설립이나 한국의 복음주의신학회의 설립도 이 기구의 영향력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당시 WCC 신학의 흐름과 달리 아시아에 맞는 복음주의 신학의 토착화가 시급함을 절감한 이들은 이 협의회를 통해 지난 1968년 아시아-남태평양 전도대회 때 시도했다가 중단되었던 아시아의 전문신학 연구기관(CATS)의 설립을 다시금 결의하였다. 이듬해 1971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제2차 “아시아복음주의신학협의회”에서는 CATS 설립을 위한 국제이사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⁶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복음주의신학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실제로 ACTS의 설립은 이 위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결성은 WEF 대표자들의 한국 방문의 열매였다. 1970년 5월 4일 WEF 총무 데니스 클라크(Dennis Clark) 박사가 내한하였을 때 당시 조동진 목사가 담임하던 후암교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신학자들(박형룡, 최의원, 김의환, 조동진, 조종남, 한철하 등)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서 데니스 클라크 박사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historic christian faith)에 입각한 토착신학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달 후 WEF 아시아신학분과 총무 싸피르 아티알 박사의 내한에 앞서 준비모임으로 6월 1일 YMCA 별실에서 박윤선, 김의환, 조동진, 조종남, 한철하 박사 등이 모여서 데니스 클라크 박사가 역설했던 바와 같이 자유주의적 토착화 신학이 아니라 복음을 사수하는 복음적 한국 토착화 신학에 대한 이해와 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일치하는 모임을 가졌다. 6월 4일 싸피르 아티알 박사가 내한하여 후암교회에서 정식 모임을 가졌는데, 이 때 싸피르 아티알 박사는 아시아 그 어디보다도 한국에 보수신학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 토착의 복음주의 신학의 정착을 위하여 위원회를 조직하여 아시아 교회에 공헌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실제로 한국복음주의신학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1970년 7월 24

6 『ACTS 신학과 선교 30년』, 14.

일 후암교회 모임에서였다. 이 모임에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아시아복음주의신학자대회”에 대하여 보고 받고, 싸피르 아티알 박사가 요청한 바에 따라 “복음주의신학한국위원회”(Evangelical Theological Korea Commission)를 조직하였는데,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경우와 같이 한국에도 4명의 대표위원을 두기로 하고 총신대 최의원, 장신대 한철하, 서울신대 조종남, 고신대 오병세 박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한철하 박사를 코디네이터 및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⁷

이 위원회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또는 협의회”(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로 명명하지 않고 “복음주의신학한국위원회”로 한 것은 앞서 국제적으로 결성된 “아시아복음주의신학협의회”의 요청으로 조직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미 한국에 존재하고 있던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⁸를 의식하여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⁹

제1회 한국복음주의신학위원회는 1970년 8월 3일 상도동 한철하 위원장 자택에서 열렸고, 이 회의에서는 한국 신학의 기초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중요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교류하고 또한

7 위원들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깊이 관련한 김의환 박사는 총신대에서 박형룡 박사에 의하여 신복음주의자로 낙인찍혀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교수직에서 해임당하고 도미하였다. 최의원 박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고 한다. 도미한 김의환 박사는 WEF 동북아시아신학 총무로 복음주의 운동에 앞장섰다.

8 전국신학대학협의회는 1965년 5월에 창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육기관 협의체이다.

9 이 위원회의 명칭에 대해 한철하 박사 자필 기록과 회의록에는 “복음주의신학한국위원회”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 위원회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신학자대회 등 대외적으로는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인 “한국복음주의신학위원회”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위원회는 ACTS 설립뿐 아니라, “동북아시아복음주의신학자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여 1971년 6월 4일, 5일 양일 간 워커히에서 “급변하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복음 선교”(Evangelism in Asian Crisis)라는 주제 하에 아시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였다. 이때 순서지에 나와 있는 아시아의 학자들은 조나단 차오(Jonathan Chao), 야우췌 쇼지(Yauch Shoji), 탄자 빈(Tanja Bin), 슈수무 우다(Susumu Uda) 등이다. 이 대회 순서지를 보면 주최가 이 위원회인데 그 명칭은 국문으로는 한국복음주의신학위원회로 되어 있고 영문으로는 Evangelical Theological Korea Commission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 신학자대회는 1970년대 초 복음주의 신학 진영에서 개최한 첫 국제대회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신학 저작물들을 번역하는 사업 등 주요 사업 계획들을 논의하는 가운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점은 1970년 7월 싱가포르 아시아복음주의신학회에서 건립하기로 결정한 “아시아신학연구센터”(CATS)를 한국 내에 설립할 것을 “아시아복음주의신학협의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한철하 위원장은 싸피르 아티알 박사에게 편지하여 결의 내용을 알렸고, 다음해 CATS 국제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하여, 1972년 4월 4일 CATS 국제이사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다. 본 이사회는 운영이사회를 조직하여 가칭 “한국연합신학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¹⁰ 이 첫 국제이사회 개최 예배는 한국 세계선명회 채플에서 드렸는데, 싸피르 아티알 박사가 사회를 보았고, 존 파오(John Pao) 박사가 설교하였으며, 당시 문교부 장관 민관식 박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다.

이 국제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973년 10월 19일 제1회 한국연합신학대학원 운영이사회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모여서 임시 의장인 한철하 박사의 사회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한경직 목사를 초대 이사장으로, 칼 헨리(Carl F. H. Henry) 박사를 원장으로, 한철하 박사를 부원장으로 선임하였다. 한 달 후 11월 26일 서울 유니온클럽에서 개최한 제3회 이사회에서 그동안 정관위원회가 준비한 정관을 채택하면서 이사회 명칭을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회”로, 학교 명칭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약칭 ACTS)으로 확정하고 재단법인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결의하였다.

채택된 정관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이사회의 모든 임원과 위원은 자동적으로 해임되고 새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장에 한경직 목사,

¹⁰ 이 때 초대 이사로 추대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경직, 마삼락, 한철하, 조종남, 길보륜, 송상섭, 홍반식, 정진경, 김윤찬, 이영수, 김의환, 부르스 니콜스, 이시드로(Isidro), 빌리 그레함, 필립 텡(Phillip-Teng), 스텔리 무니헨.

서기에 조종남 박사, 회계에 길보륜(Elmer Kilbourne) 선교사를 임명하였고, 이사로는 한경직, 마삼락(Samuel H. Moffett), 김의환, 홍반식, 송상섭, 한철하, 길보륜, 조종남, 정진경, 김윤찬, 이영수 목사 등을 임명하였다. 원장으로는 장기 궤석한 칼 헨리 박사를 대신하여 마삼락 박사를 선임하였고 부원장으로 한철하 박사를 선임하였다.

개원까지의 주요회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68년 11월 아시아-남태평양 전도대회 : CATS 설립 결의
- 1970년 7월 제1차 아시아복음주의신학협의회: CATS 설립 재결의
- 1970년 8월 제1차 한국복음주의신학위원회: CATS의 한국 설립 제안 결의
- 1971년 6월 제2차 아시아복음주의신학협의회: CATS 국제이사회 조직 결의
- 1972년 4월 제1회 CATS 국제이사회
- 1973년 10월 제1회 한국연합신학대학원(가칭) 이사회
- 1973년 11월 제3회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회”로 개칭

3. 개원(1974년 5월 1일)

이와 같이 국제적, 국내적 진행 과정과 절차를 거쳐 1974년 5월 1일에 ACTS는 바야흐로 서대문 캠퍼스에서 개원식을 하였는데¹¹ 이는 실질적인 재정적 후원과 기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3회 이사회 회의

¹¹ 개원 이후의 대부분의 활동 상황은 이사회 회의록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록을 보면 데이빗 웨어하우저(C. Davis Weyerhaeuser) 장로가¹² 15만 불, 선명회 본부(World Vision International)가 2만 5천 불, 1973년 서울 전도 대회를 성황리에 이끌었던 빌리 그래함 목사가 도서기금으로 10만 불을 기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진심어린 기부와 한국 이사회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7번지에 교지 781평과 건물 248평을 월드비전 본부로부터 구입하여 수리한 후에 개원할 수 있었다.

당시 기록들을 보면 개원하기까지 마삼락, 길보륜, 조종남, 한철하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많은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관 기초 작업이나 재산 매입 추진 등에 조종남 박사가 상당부분 기여했고, 건물수리 및 국제 인사관계는 길보륜 박사, 교과 과정은 한철하 박사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사회 구성이나 이사회 규칙 및 학칙 그리고 재정 및 인사관리 등 모든 부분에 원장 마삼락 박사와 부원장 한철하 박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개원을 준비하였다.

개원 당시 등록 학생은 총 14명이었고 그 중에 2명은 외국인 학생이었으며 첫 두 주간은 그 당시 내한하여 체류 중이었던 칼 헨리 박사가 “기독교 사상과 현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당시의 학적부를 살펴보면 외국인 학생은 대만에서 온 왕 웬유(Wang, Wen Yu, 1974-1975)와 미국 선교사 모펏 에일린(Moffett, Eileen F., 마삼락 박사의 처, 1974-1980)이었고, 모든 과목들은 Th.M. 수준의 영어강의로 이루어졌다.¹³

¹² 웨어하우저(C. Davis Weyerhaeuser, 1908-1999) 장로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워싱턴 주 타코마 지역의 삼림을 토대로 목재와 재질 사업에 크게 성공한 재벌인데, 인도네시아에서 3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삼림을 사들여 50년 주기로 벌목하여 세계적인 목재 왕으로 명성을 굳혔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C. Davis Weyerhaeuser 청지기기금”(The Stewardship Foundation)을 창설하여(1947) 미국 사회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기부를 통해 참다운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장로이다. 오랫동안 ACTS의 국제이사로서 늘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¹³ 1974년에 개원 당시 개설된 과목들은 “Kingdom Proclamation & Mission Strategy”, “Changing Asia”, “Facts and Factors for Effective Mission”, “Gospel As It Confronts Asia” 등과 저명한 학자들 초청으로 이루어진 특강들이다. 1975년 공동학위 과정 Th.M. 과목의 제목들을 열거해 보면 “The Idea of God in Western and Oriental Philosophy”, “Issues in Contemporary

당시 학생들 입학 조건은 정규 신학교에서 B.D.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 소지자였고 한국 학생의 경우 한국의 대학령에 준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문학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다.

교과 과정을 준비할 때도 해외의 저명 교수인 랄프 윈터(Ralph Winter), 아더 그라서(Arthur F. Glasser),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스텐리 무니햄(선명회 총재) 등과 수차례 협의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의 대표적인 신학교 학장들로 구성된 학사자문위원회¹⁴를 구성하여 명실 공히 인정받을 수 있는 학사운영을 하였다.

4.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립까지(1974-1981)

4.1 재단법인과 학교법인

ACTS는 아시아 교회 지도자 양성이라는 국제적인 시야의 목표를 가지고 개원했으나 그 당시 대한민국 교육법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였다.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대학원대학”의 인가가 가능하고 사회 전반적 시류가 국제화로 향하고 있어 국제학생 유치와 해외 우수대학들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였다. 우리 대학은 시대를 앞서서 이미 국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으나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상 학부 없이 대학원 자체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초반기부터 적합한 법적

Missiology”, “Revolution and Social Change in Modern Asia”, “Asian Church History”, 1976년도에는 “Kingdom of God in Biblical Perspective”, “Eschatology and the Evangelization of Asia”, “Existentialism and Christianity”, “Biblical Hermeneutics”,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등이다.

¹⁴ 총회신학대학장, 고려신학대학장, 장로교신학대학장, 서울신학대학장, 침례교신학대학장, 구세군사관학교장, 감리교신학대학장 그리고 KAATS 대표 등이다.

지위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던 흔적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서울신학대학 내에 부설로 하여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한 것인데 1974년 4월에 양쪽 학교 대표들의 직인이 찍힌 약정서까지 마련하여 법적인 절차를 시도했었으나 이루지 못하고, 다시금 숭전대학교(현 숭실대학교)와도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그도 이루지 못하였다.

1975년 10월 31일 제11회 이사회에서 ACTS의 설립 목적은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원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타 대학에 부설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시 현실적 상황이 이를 이루기 불가능함으로 준비 단계로서 “대학에 준한 각종학교 설립” 즉, 신학연구원 설립으로 문교부 인가를 받도록 추진하기로 가결하였다.

1976년 3월 이사회에서는 학교법인 설립 인가는 학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일단은 문교부 산하 교육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문교부에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으로 설립 신청을 하였고, 1977년 1월 17일에 재단법인 인가를 받게 되었다.

당시 이사들의 상황에 관하여는 개원 후 창립 이사 중 김의환 이사와 이영수 이사가 사임하고 김성섭 장로가 대신 선임되었다. 1975년 당시 이사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경직, 길보륜, 라의도(Paul A. Rader)¹⁵, 김세진, 이봉수, 김성섭, 조종남, 홍반식, 정진경 이사 등이고 감사이사는 김종호 장로와 오재경 박사이다. 1976년 7월에 한익하 장로가 이사로 추가 선임되었고, 1977년 11월 제18회 이사회에서 김인득, 김치복, 최

15 라의도(Paul A. Rader) 구세군 학교 교장은 초창기부터 우리 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회 멤버로서 늘 참석하였고 선교학 강의를 하였다. 1934년 뉴욕에서 태어나 애즈버리 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하고 1962년 한국의 구세군 학교로 파견되어 오랫동안 섬기면서 한국어도 능숙하게 되었다. 1971년에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후에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구세군 세계 대장으로 섬겼다.

창근, 최태섭 이사가 선임되어 원장(당연직 이사)을 포함한 재단법인 이 사수 15명이 총원되었다.

ACTS의 초창기가 비록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상 대학원에 준하는 학교법인으로 인가 받지 못하고 재단법인 연구원으로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ACTS는 아시아인의 교육을 위해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또한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선교에 주력하도록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의 협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본래 목적에 맞는 많은 활동을 하며 발전하여 갔다.

무엇보다 학사 운영에 있어서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신학적 바탕 위에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목뿐 아니라 아시아 선교 상황에 맞는 과목들을 제공하였고 당시 최고의 교수들과 강사진을 갖추어 자타가 인정하는 대학원 수준의 국제적인(영어) 신학교육을 하는 최초의 신 학교였다. 이와 같은 공인된 사실 때문에 개원 직후 1975년 9월 1일부터 서울신학대학교와 장신대학교와 협약하여 아시아인 교육을 위한 공동석사 학위 과정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1978년 9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3회 통합총회에서 우리 대학을 인준하는 결 의를 하였으며, 1979년 4월에는 아시아신학연맹(ATA)¹⁶에서 ACTS를 M.A., M.Div., Th.M.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교로 인준하였다.

ACTS는 국제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해외 유수의 학교와도 공동학위 과정을 추진하였는데, 1979년 5월에 미국 캘리포 니아 주 파사디나 소재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와 공동 으로 목회학박사 학위 과정과 선교학석사 학위 과정을 설치하기로 양 자가 합의하여 그해 9월 학기부터 공동학위 과정을 실시하기 시작함으 로써 한국과 미국의 많은 한인 목회자들의 재교육과 재충전에 큰 공헌

16 ATA(Asia Theological Association)는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에 헌신되어 있는 아시아 전역의 신학교육기관들의 협의체로서 1970년에 결성되어 학위 인준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 현재 27개국의 212개의 신학교가 멤버로 소속되어 있다.

을 하였다.

ACTS는 재단법인 취득 후 학교기금 증식 및 교사를 신축하는 등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는데, 1980년 8월 5일 제27회 이사회에서 대학원 인가를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추진 위원회로 이봉수, 길보륜 이사과 마삼락 원장과 한철하 부원장을 선임 하였다.

제2 캠퍼스를 위하여 교지확보추진위원회를 최태섭, 이봉수, 최창근, 김성섭, 한익하 이사 등으로 구성하였고, 재단법인의 목적 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학교법인의 이사를 구성하기 위한 이사선정위원회를 김세진, 최태섭, 정진경, 마삼락, 한철하 등으로 구성하였다. 1980년 12월 26일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가칭) 이사회가 조직되어 제1회로 모여 정관을 채택하고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의 하였다. 신설된 학교법인 이사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세진, 최태섭, 정진경, 최창근, 한익하, 최순영, 마삼락, 한철하, 김성섭, 김동수, 길보륜, 라의도, 박조준, 이봉수, 김창인(충현교회) 이사 등이고, 감사이사는 오재경 박사, 박태진 장로이다. 이에 대해 1981년 12월 26일에 문교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학교법인을 신설할 당시부터 본 대학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은 같은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동일체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제28회 이사회(1980. 12. 12) 회의록, 제29회 이사회(1980. 12. 26) 회의록 등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으며 우리 대학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은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출산하여 양육한 요람과도 같은 법인체로서 이 둘의 동질성은 매우 사실적이며 한국 교회 역사 뿐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운동사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우리 대학의 발자취이다.

1982년 10월 14일에 열린 제33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재단법인의

전 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경영의 문제와 재정보조의 필요성에 따라 재단법인을 학술연구 및 선교단체로서 계속 유지하면서 학교의 설립을 위한 수익용 재산으로서 학교법인을 보조하기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재단법인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의 수익의 경상비를 제외한 전액을 신설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 보조하기로 하다.” 이러한 사실은 마땅히 존중되어서 학교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¹⁷

1981년 2월에 김세진 목사가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동년 5월에 한철하 박사가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4.2 학교 재정 및 건축

4.2.1 보조비

“ACTS 사업의 첫 기증자는 빌리 그래함 목사였고 그의 도서기금 10만 불은 ACTS 창설의 주춧돌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웨어하우스 장로의 서대문 캠퍼스 구입비 15만 불 기부로 ACTS는 설립되었다.”¹⁸ ACTS는 창설 당시 전적으로 국제 보조와 국내 보조비로 경상비 및 재정 유지가 되었다. 국제 보조의 커다란 몫은 역시 웨어하우스 장로의 기부금인데, 1975년 3만 불, 1976년 4만 불, 1977년 3만 불,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연 5만 불,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연 3만 불,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연 1만 6천 불을 보조하였다. 서대문 캠퍼스 교사를 건축 할 때도 35만 불을 보조하였다.

ACTS 재정은 후원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국 교회가 교파를 초

¹⁷ 이러한 사실은 『ACTS 요람 1991』, 28-30에 잘 설명되어 있다.

¹⁸ 『ACTS 요람 1991』, 32. 이 소책자는 초창기 ACTS의 활동 상황과 대외 관계, 실천 이념과 신학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얼마 없는 소중한 ACTS 초기 자료 중 하나이다. 이 초창기 ACTS의 재정에 대한 부분은 이 소책자 32쪽부터 42쪽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월하여 후원했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 1974년 개원 초에 동신교회가 5천 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함으로서 큰 힘이 되었으며, 초창기 연차별 한국 교회 보조 상황은 1974년 2백 35만 원, 1975년 6백 30만 원, 1976년 7백만 원, 1977년 1천 4백만 원, 1978년 2천 3백만 원, 1979년 3천 3백만 원, 1980년 3천 5백만 원, 1981년 6천 9백만 원으로서 해마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한국여성복음봉사단의¹⁹ 꾸준하면서도 정성어린 헌금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데, 1979년 36만 원, 1980년 1백 40만 원, 1981년 8백 20만 원으로 시작된 이후 1990년대까지 꾸준히 후원되었다.

4.2.2 기금

1977년 재단법인 취득 후 인가 조건으로서 학교의 기금 4억 원 증자 계획에 따라 많은 기금들이 세워졌는데 총 16가지의 기금으로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빌리 그레함 도서기금(1977)
- ② 길균 아세아연구기금(1975)
- ③ 대학원기금(1977)
- ④ 아세아복음화 장학기금(1976)
- ⑤ 아세아연합신학원기금
- ⑥ 마펏기금(1976)
- ⑦ 밥 피얼스기금(1977)
- ⑧ 대균기금(1978)

¹⁹ 신일학원 설립자이며 본 대학 이사이기도 했던 이봉수 장로의 처 김신영 권사가 창설하여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을 역임하며 이끌었던 많은 장학사업과 선교사업을 돕는 기독교 여성들의 사회봉사단체이다.

- ⑨ 웨어하우저기금(1979)
- ⑩ 정규봉 아세아 선교여행기금(1980)
- ⑪ 평북노회 장학기금(1980)
- ⑫ 퇴직기금(1981)
- ⑬ 교수 후생복지기금(1981)
- ⑭ 공산권 선교연구기금(1981)
- ⑮ 최영 아세아 선교기금(1985)
- ⑯ 김세진 이사장 기념 장학기금(1988) 등²⁰

그 중 빌리 그레함 도서기금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기금은 1975년 산정현교회 한익하 장로의 처 고 신길균 여사의 신덕을 기념키 위한 “길균 아세아 지역 연구기금”으로서 1천만 원을 기증 받아 세워진 “길균 아세아연구기금”이다(제12회 이사회 결의). 모든 기금들이 독지가의 고귀한 뜻이 담겨 세워져 초창기 ACTS가 운영되는 데 힘이 되었는데 그 중 1976년에 조성된 아세아복음화 장학기금은 제1회 아세아 선교의 날 회비 76만 8천 5백 원을 장학기금으로 세워 그 후에 유지들의 기증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웨어하우저기금과 함께 후에 1990년대에는 가장 큰 액수로 운용되었던 기금이다.

4.2.3 건축

1977년 재단법인 취득 후에 우리 대학은 서대문 캠퍼스 신축교사 건축에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 이 신축교사는 게스트하우스가 겸비된 다목적 교사로서 총 60만 불 예산 가운데 미국의 웨어하우저 장로가 35만 불을 회사함으로 반 이상을 담당했고 한국 이사회에 배당된 액수는 10만 불, 즉 환율로 5천만 원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김진수 집사와

²⁰ 각 기금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ACTS 요람 1991』, 부록 83-87 참조.

조상원 집사가 1천만 원을 회사함으로 이사회에 배당된 금액은 4천만 원이었다. 다음은 서대문 캠퍼스 신축교사를 위한 기부자 명단과 액수이다.

기부자	기부금
웨어하우저	35만 불
선명회	18만 불
빌리 그레함 협회	10만 불
김진수, 조상원	1천만 원
최태섭, 이봉수 (한국유리)	2천만 원
한익하	5백만 원
최창근	5백만 원
김성섭	5백만 원
한철하	1백만 원

1980년 8월 20일자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학보 “아세아복음화”를 보면, 우리 대학은 개원 이래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최신식 4층 교사가 완공되었는데, 당시 준공까지 4억 원이 투입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서대문 캠퍼스는 지상 4층과 지하 1층의 교사로 건평 1천 53평으로서, 4층은 수양관 즉 인터내셔널 게스트하우스로 운용되어서 가족실, 3인실, 2인실, 1인실 등 모든 문화시설을 구비한 객실이 23개 있고, 3층은 아시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시설완비 되어 있다. 2층은 사무실, 강의실, 도서실 및 원장실과 교수연구실로 되어 있으며, 1층은 강당(예배실) 회의실과 강의실, 식당, 주방 등이 있으며 지하는 기관실과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원 회의실, 강의실 및 강당, 식당 등은 각종회의, 세미나, 결혼식 등에 임대가능하며 강당은 총 250-300명 수용할 수 있으며 4층 게스트하우스에는 약

60명이 유숙할 수 있다. 서대문 캠퍼스는 서울의 중심, 교통이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어서 설립 목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 학교발전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학교법인 취득 후 ACTS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가 산기슭에 8만 평 부지를 마련하여 제2 캠퍼스 건축을 시작했다. 1981년 10월 5일에 양평에서 교사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새 교사는 783.4평의 아담한 건물로서 경희대학교 조창한 교수가 계획, 설계를 하였고, 총 공사비 5억 원을 들여 효성건설에서 건축하여 1982년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다음은 1981년 양평 캠퍼스 건설비를 위한 기부자 명단과 액수이다.

기부자	기부내역
최창근	1만 5천 평 대지 기증
최순영	2억 원
최태섭	2천만 원
한익하	2천만 원
김동수	2천만 원
동신교회(한기원)	1천만 원
영락교회(박조준)	1천만 원
신촌교회(정진경)	6백만 원
충현교회(김창인)	5백만 원
복음봉사단	3백만 원
김세진	1백만 원
한철하	1백만 원
한국 교회	9천 1백만 원
교직원 및 학생	1억 1천 5백만 원
합계	4억 9천 2백만 원

4.3 학사

4.3.1 교수진

개원 후 해마다 유능한 교수들이 채용되었는데, 1975년도 학사보고에 의하면 학생 수가 24명으로 배가 되었고 전임 교수로 손봉호 박사와 이종윤 박사가 영입되어 전임 교수 수가 총 4인으로 강화되었다고 했다. 1977년에는 김철현 교수와 선명회에서 파송된 나일선(Marlin L. Nelson) 교수가 채용되었고, 1978년 9월에는 김세윤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이 외에도 국내·외 유능한 강사들이 학기마다 기용되어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었다.

1978년 봄학기 강의자들은 문희석, 이상훈, 손봉호, 전재옥, 칼 헨리, 한도성, 이원휘, 한상일, 이원설, 존 그레이션, 노봉린 박사 등이고, 1978년 가을학기에는 손봉호, 서광선, 한도성, 헤르드쿤, 서정운, 이원순, 김정준 박사 등이다. 1979년 겨울학기에는 손봉호, 김정준, 한태동, 박대인, 한도성, 한기원 박사 등이 강의하였다. 1980년에는 정규남 박사를 교수로 청빙했고, 1981년 12월 28일 제34회 이사회에서는 이진태, 전호진, 더크 넬슨(Dirk Nelson) 박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1982년에 이르러서는 마삼락, 한철하, 손봉호, 이종윤, 김철현, 나일선, 김세윤, 이진태, 전호진, 더크 넬슨 등 가히 “최강의 교수진”²¹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전임 교수진을 확보하였다.

4.3.2 외국인 학생

우리 대학을 찾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인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복음화의 이념에 동감하여 그러한 교육을 바라는 사명자들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교지향적이

21 1980년 8월 20일자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학보 “아세아복음화” 1면에 있는 그대로의 문구이다.

며, 초교파적이며, 국제적인 우리 대학의 특성을 좋아하고 지향하여서 교육을 받고자 지원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대학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이르러 변함이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한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바람 앞에 위기를 맞이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학이 계속 살아남아 본래의 사명을 다하려면 처음부터 지녀 온 우리 대학만의 정체성과 특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은 또한 21세기의 새로운 역사적 정황과 시대적 특성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그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발전방향일 것이다.

우리 대학은 처음부터 아시아 교회 지도자 양성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사를 운영해 왔다. 이 태동기에 그러한 목표에 부응하여 ACTS에 적을 두었던 수많은 국내 졸업생들은 국내·외 여러 신학교의 교수로 사역하거나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다.²²

외국인 학생의 경우 1974년 개원 당시 두 명, 대만인 왕웬유와 미국인 모펫 에일린이 입학하였다. 1975년에 입학한 학생으로는 연구원 과정에서 1년간 공부하고 돌아 간 스리랑카에서 온 벤자민 리디아(Benjamin, Lydia)²³와 1976년까지 수학한 대만인 첸 칭충(Chen, Ching-Chung) 외에 신학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인도 출신 겔간 일라이자(Gergan, Elijah Spalbar, 1975-1979)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으로서 첫 졸업생은 이듬해인 1976년에 신학석사 학위 과정에 등록한 서사모아에서 온 사무엘루 아페레티(Samuelu, Afereti, 1976-1977년)이다. 사무엘루 아페레티는 겔간 일라이자 보

22 이 시기의 국내 학생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고 『ACTS 요람 1991』, 59-67에 있는 1990년대까지의 한국 동문명단이 가장 유용한 자료이다.

23 이후 명단은 학적부에 기록된 순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순서가 아닌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쓰는 순서를 따랐다.

다 1년 늦게 왔으나 먼저 졸업하여 항상 첫 졸업생으로서 명명되는 영예를 갖게 되었다. 1976년에 신학석사(Th.M.) 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은 사무엘루 아페레티외에도 인도에서 온 키쇼레 두타(Kishore, Dutta, 1976-1978), 대만에서 온 밉구 린 (Ming Hu, Lin, 1976-1978), 인도네시아에서 온 죠수아 티모시(Joshua, Timothy, 1976-1978) 등 세 명이다.

1977년 가을학기 입학하여 1981년에 신학석사(Th.M.) 학위를 취득한 학생으로는 필리핀에서 온 림 데이빗 썬(Lim, David Sun)이 있고, 또한 동년에 같은 과정에 입학한 같은 필리핀인 니썰르 에메리토 크루즈(Nicer, Emerito Cruz)는 3학기 즉 1978년 봄학기까지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싱가포르에서 온 운 허버트(Woon, S. N. Herbert)는 1977년 1년 동안 종교학 문학석사(M.A. in Religion) 학위 과정에서 과정만 수료하고 돌아갔다.

1978년에 신학석사 과정에 입학한 인도네시아에서 온 안토니 안(Antoni, Yan)은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1980년에 학위를 받았다. 동년 종교학 문학석사(M.A. in Religion) 과정에 입학한 인도에서 온 자야싱 죠수아 마틴(Jayasingh, Joshua Martin)은 1978년 1년간 세 학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 학기 이수와 논문을 마치고 1983년에 학위를 받았다.

1979년 가을에 신학석사 과정에 입학한 인도네시아에서 온 말레아 키 아구스티누스(Maleachi, Agustinus)는 모든 과정을 잘 이수하여 1981년 가을에 학위를 받았다. 동년 봄학기에 종교학 문학석사(M.A. in Religion) 과정에 입학한 대만에서 온 코 칭유안(Ko, Ching Yuan)은 1981년에 학위를 받았다.

1980년 봄학기에 종교학 문학석사 과정에 입학한 인도에서 온 에파 오 베프라리(Epa, Veprari)는 1981년 봄학기까지 네 학기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본국으로 갔다가 1987년 봄에 학위를 수여받았다.

1981년 봄학기에 신학석사 과정에 입학한 방글라데시 출신의 비스와스 월터 딥티 란잔(Biswas, Walter Dipty Ranjan)은 1982년 가을학기까지 코스워크를 마치고 1984년에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동년 가을에 신학석사 과정에 입학한 서사모아에서 온 아미투아나이 테비타(Amituana'i, Tevita)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1983년에 학위를 받았다. 인도인 구즈테 카이사송(Guzte, Kaizason)은 1981년 가을에 신학석사 과정에 입학하기를 받고 1983년 봄학기까지 신학석사 과정을 이수하였다.²⁴

1981년 겨울학기에 종교학 문학석사 과정에 입학한 인도에서 온 실라스 싸이 S. 라우투(Silas Sai, S. Routhu)는 1982년 12월에 학위를 받았고, 동시에 같은 과정에 입학한 역시 인도에서 온 쉐바라지 카루티아 데이빗(Selvaraj, Karuthiah David)은 1983년 1월에 학위를 받았다.

이상은 개원 후 1981년까지 석사 학위 이상의 과정에서 공부한 외국인 학생들의 현황이다. 1980년대, 1990년대 우리 대학의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은 더욱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갔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신학 분야에 고학력 학위를 수여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 역시 요즘처럼 박사 학위 수여자들이 흔치 않은 당시 상황에서 그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우리 대학이 담당할 교육을 통한 선교사역은 선구자적이며 의미 깊은 일이었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신학사(B.Th.) 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한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밤방 드위 비안토로 라덴(Bambang Dwi Byantoro Raden, 1979-1983), 아프리카 말라위 출신 반다 파트 마요와(Banda Pat, Mayowa, 1980-1983), 방글라데시 출신 바로이 수브로토 쿠마르(Baroi Subroto Kumar, 1981-1982), 아프리카 탄자

²⁴ 이 학생의 성적표와 학위증 등이 분실되어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남아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1983년 봄학기까지 이수한 증명서가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상기한 내용은 사실이다.

니아 출신 비아퉁구 매튜(Bya-Mungu Matthew, 1981-1984) 등인데, 반다 파트 마요와를 제외한 이상 세 명은 학사 학위를 받았다.

우리 대학은 개원 후 정규 학위 과정 외 선교사 훈련 과정(Missionary Training Program)도 계속 시행해 왔는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Diploma)을 수여한다.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이 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한 외국인 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만의 이 밉시웅(Lee Ming-Hsiung, 1976-1978), 인도의 존 세반티(John Sevanti, 1978), 홍콩의 로 슈 추(Lo Shu Chu, 1978), 인도의 슈반 다니엘(Subhan Daniel, 1978), 스리랑카의 아라사라트남 데이빗 야두라이(Arasaratnam David Iyadurai, 1978-1979), 파키스탄의 넬슨 나심(Nelson Nasim, 1979-1980), 라오스의 타오 방루에(Thao Vang Lue, 1979-1980), 인도의 썩 슈칠 쿠마르(Singh Shuchil Kumar, 1979-1980), 파키스탄의 샤힌 카우사르(Shaheen Kausar, 1980), 태국의 타이와트차 라마스 닐루본 풍사구아타이(Thaiwatcharamas Nilubon Phongsaguanthai, 1980-1981), 인도의 코디아투 폴 바르키(Kodiyattu Paul Varkey, 1979-1980), 대만의 리 푸치우안(Lee Fwu-Chyuan, 1981-1982) 등이다.

이 디플로마 과정이야말로 초기에 가장 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훈련 받은 과정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목회학석사(M.Div.) 과정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40년이 지난 현재 석사나 박사 과정의 지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분명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학생 상황을 종합해 보면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입학하여 공부하고 간 외국인 학생들은 모두 38명이다.

그 명단을 학위별로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 신학석사(Th.M.)

졸업자	국가	재학기간
Gergan, Elijah Spalbar	인도	1975-1979
Samuelu, Afereti	서사모아	1976-1977
Kishore, Dutta	인도	1976-1978
Ming Hu, Lin	대만	1976-1978
Joshua, Timothy	인도네시아	1976-1978
Lim, David Sun	필리핀	1977-1981
Antoni, Yan	인도네시아	1978-1980
Maleachi, Agustinus	인도네시아	1979-1981
Biswas Walter Dipty Ranjan	방글라데시	1981-1984
Amituana'i, Tevita	서사모아	1981-1983

• 종교학 문학석사(M.A. in Religion)

졸업자	국가	재학기간
Jayasingh, Joshua Martin	인도	1978, 1983 (본국)
Ko, Ching Yuan	대만	1979-1981
Epao, Veparari	인도	1980-1981, 1987 (본국)
Silas Sai, S. Routhu	인도	1981-1982
Selvaraj, Karuthiah David	인도	1981-1983

• 신학사(B.Th.)

졸업자	국가	재학기간
Bambang Dwi Byantoro Raden	인도네시아	1979-1983
Baroi Subroto Kumar	방글라데시	1981-1982
Bya-Mungu Matthew	탄자니아	1981-1984

• 선교사훈련원(Missionary Training Program)

졸업자	국가	재학기간
Lee Ming-Hsiung	대만	1976-1978
John Sevanthi	인도	1978
Lo Shu Chu	홍콩	1978
Subhan Daniel	인도	1978
Arasaratnam David Iyadurai	스리랑카	1978-1979
Nelson Nasim	파키스탄	1979-1980
Thao Vang Lue	라오스	1979-1980
Singh Shuchil Kumar	인도	1979-1980
Shaheen Kausar	파키스탄	1980
Thaiwatcharamas N. P.	태국	1980-1981
Kodiyattu Paul Varkey	인도	1979-1980
Lee Fwu-Chyuan	대만	1981-1982

• 기타 과정

졸업자	국가	재학기간
Wang, Wen Yu	대만	1974
Moffett, Eileen F.	미국	1974-1980
Benjamin, Lydia	스리랑카	1975
Chen, Ching-Chung	대만	1975-1976
Nicer, Emerito Cruz	필리핀	1977-1978
Woon, S. N. Herbert	싱가포르	1977
Guzte, Kaizasong	인도	1981-1983
Banda Pat, Mayowa	말라위	1980-1983

5. ACTS와 선교

5.1 아세아복음화 조찬기도회/아세아복음화 장학위원회/아세아복음화 위원회/아프리카복음화위원회

ACTS의 시작은 국외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지만, 개원 후 ACTS는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존속되었다. ACTS를 위하여 기도해 오던 개인과 교회 대표들은 1976년 5월 12일 제1회 아세아복음화 조찬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 조찬기도회는 ACTS의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의논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ACTS와 한국 교회를 연결하여 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이 조찬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ACTS 사업 참여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ACTS의 모든 사업의 영적 기초를 이루는 중대한 모임이었다.”²⁵

이 조찬기도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아세아복음화 장학회가 조직되어 아시아 각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976년 9월 30일 제1회 아세아 선교의 날에 모인 헌금으로 “아세아복음화 장학기금”을 조성한 이래 2억 원이 넘는 기금이 운용되었다. 설립 당시 장학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김세진 목사
- 부회장: 김성수 장로, 임옥 목사, 송치현 목사
- 총 무: 정진경 목사
- 서 기: 김경래 장로
- 회 계: 최창근 장로

²⁵ 『ACTS 요람 1991』, 15.

“아세아복음화 조찬기도회의 사업 중 최대 사업은 ‘아세아복음화위원회’를 통한 각종 아시아 선교사업이다.”²⁶ 이 아세아복음화위원회는 사실상 1977년 제2회 아세아 선교의 날이 계기가 되어, 세계선명회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에 1백 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79년 7월 2일에 조직되었는데 그 창립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 원 장: 김세진 목사
- 부위원장: 박종렬 목사 (중동지역 책임)
 - 임옥 목사 (회교권 동남아 책임)
 - 신동혁 목사 (불교권 동남아 책임)
 - 송치현 목사 (동북아 책임)
 - 양성람 권사 (남아시아 책임)
- 서 기: 김영수 목사
- 회 계: 김정래 장로
- 총 무: 임춘복 전도사

이 위원회는 인도네시아 100개 교회 개척운동뿐 아니라 지역을 확대하여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등지에 교회 개척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1980년 2월 28일에는 인도네시아선교여행단 파송예배가, 동년 3월 31일에는 인도네시아선교여행단 보고예배가 기록되어 있고, 교회 개척 상황 및 한국의 참여 교회 명단 및 헌금 등 많은 선교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982년 10월 14일에 100개 교회 개척 목표에 도달하였는데 마지막으로 개척된 1백 번째의 개척 교회는 자바섬의 자카르타와 말라카 지역 중간에 위치한 “까랑공당교회”이다. 필리핀의 경우 본

²⁶ 『ACTS 요약 1991』, 17.

래 50개 교회를 개척하고자 목표로 삼고 추진하였는데 1982년 12월 8일로 52개 교회가 개척되어 당초에 목표한 수보다 2개 교회가 더 개척되었다. 태국의 경우 3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하였으나 특별히 여러 난관들을 맞이하여서 16개 교회 개척에 그쳤다.

그러나 태국에서의 교회 개척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개척이 성장한 5개의 태국 현지 모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9명의 전도지를 파송하여 16개의 교회 개척을 이루어 냈는데, 그 새로운 신자수가 182명에 이르게 되었다.²⁷ 1983년 1월 22일자 아세아복음화 학보에 실린 국가별 개척 상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국 가	개척목표	현재 개척된 교회 수	아직 지원받지 못한 교회 수
인도네시아	100개 교회	100개 교회	18개 교회
필리핀	50개 교회	52개 교회	16개 교회
태국	30개 교회	16개 교회	2개 교회

1980년 여름에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다니엘 커프라(Daniel Y. Cofflah) 목사가 ACTS를 방문하여 선교사 파송을 호소함으로써 이에 응하여 아세아복음화 조찬기도회 모임에서는 1980년 12월 29일에 “아프리카복음화위원회”를 창립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구성하였다.

- 위 원 장: 김성옥 목사
- 부위원장: 김국도 목사
 - 신의경 권사
- 회 계: 박태진 장로

²⁷ 상기한 상황은 1983년 1월 22일자 아세아복음화 학보를 참조하여 기술되었다.

·서 기: 김창식 목사

·부 서 기: 함유순 권사

이 위원회에서는 1984년 7월 2일에 유부웅 선교사를 아프리카 케냐의 키스무신학교 교수로 파송하여 아프리카 복음화에 종사하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2년에 걸쳐 영국 버밍햄대학에서 박사 학위 과정 수학을 지원하였다.

아세아복음화 조찬기도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아세아복음화 장학위원회, 아세아복음화위원회 그리고 아프리카복음화위원회는, 단순히 ACTS의 재정을 후원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ACTS가 그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시아 선교를 실천하는 발자취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 선교를 위하여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써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선교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ACTS는 본래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세워졌으나, 그들을 후원하는 장학사업과 아울러 직접 그리스도 교회를 아시아 지역 곳곳에 세우는 일에 동참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 복음화까지 그 지평을 넓혀서 후에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매진하는 선교센터로서의 기능도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아세아 선교의 날

1976년 7월 1일 제2회 아세아복음화 조찬기도회에서는 매년 9월 30일을 아세아 선교의 날로 정하고, 아시아 선교를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을 초청하여 ACTS 공동체와 함께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집회와 세미나 및 각종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1976년 9월 30일 제1회 아세아 선교의 날을 개최하였다.

아세아 선교의 날에는 ACTS 이사진은 물론 교수, 직원, 학생 및 ACTS 공동체 모두와 ACTS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개인 및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1부는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나 교회 지도자를 초청하여 대 집회를 가지고, 2부는 ACTS의 교수진 및 선교연구원 참여 목사들을 중심으로 각국에 대한 선교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3부는 ACTS의 각종 선교사역을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4부는 ACTS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준비한 축제 순서를 진행하였다. 실로 초창기 아세아 선교의 날은 ACTS 선교의 중심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행사였던 것이다.

1976년 9월 30일 제1회 아세아 선교의 날에는 450명이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가운데 아세아복음화 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1977년 9월 30일 제2회 아세아 선교의 날에는 선명회 총재 스텐리 무니햄 박사와 사무엘 카말레이슨(Samuel Kamaleson)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했는데 총 436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역시 성대하게 행사가 치러졌다.

1978년은 아시아연구의 해로 정하고 1978년 9월 30일 제3회 선교의 날 집회에는 총 493명이 참석하여서 4개 분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1분과 - 세속화 과정 속에 있는 아시아와 아시아인에 대한 복음화 전략(한철하 박사)
- 2분과 - 공산권에 대한 복음화 전략(손봉호 박사)
- 3분과 - 불교권에 대한 복음화 전략(김세운 박사)
- 4분과 - 회교권에 대한 복음화 전략(전재욱 박사)

또한 3부에는 8개 분과(인도, 북한, 네팔,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방글라

데시)로 나누어 각국의 복음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였다.

1979년 9월 29일 제4회 아세아 선교의 날에는 550명이 참가하였는데 당시 인도네시아 100개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다수 입학하였다.

우리 대학은 일찍이 1970년대 중반부터 전문인 선교의 요람과 같은 역할도 감당하였다. 한철하 박사의 지도 아래 당시 하용조 전도사(전 온누리교회 담임목사)가 1976년 3월 7일 ACTS 서대문 캠퍼스에서 개척 예배를 드림으로 연예인교회(현 예능교회)가 시작되었다. 연예인교회는 1978년 서대문구 대신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서대문 캠퍼스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렸다.

또한 1975년부터 ACTS에서 의료선교학을 연구하며 한국 교회 의료선교와 치유선교학 분야를 개척한 이명수 박사(ACTS 의료선교학과 초대 학과장 역임)는 28명의 의료인들과 함께 1981년 9월 13일 서대문 캠퍼스에서 의료선교교회(현 의선교회)를 설립하였고 우리 대학 교수인 정규남 박사가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1981년부터 1년간 임직하였으며, 이어 전호진 박사가 임시 당회장으로 임직하였다.

ACTS의 선교 발자취를 돌아보면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복음 전도의 중심을 확실하게 가지고, 1970년대 당시 아직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 눈을 뜨기 이전 시대에 선구자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한국 교회들을 선도하여 해외 교회 개척 사업에 앞장서고 단기 선교 여행단을 파송하는 등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의미심장한 일들을 감당했다.

ACTS의 태동기는 ACTS의 고유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아세아복음화를 위해 아시아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선교를 실행하는 센터로서 국제적이며 교회연합적인 특성이 뚜렷하게 자리 잡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확립기(1982-1987)

이 시기는 우리 대학이 대내·외적으로 한국 내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준을 받고 출발을 하게 되는 전환기였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과 대학원 설립인가가 이 기간에 이뤄졌고, 학교의 부지가 서울 서대문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설립인가, 부지확보 및 신축교사의 준공, 교수 충원 등 여러 면에서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가 확립된 시기이다. 학문적으로는 복음주의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며, 바른 신학 위에 학교를 세워가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또한 학교의 설립이념이자 비전인 아시아 선교를 위한 아시아와 한국 교회의 중심기지로 발전해 가는 기틀을 마련한 기간이다.

1. 대학과 대학원 인가

우리 대학은 1979년부터 아시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 ATA)이 인준하는 M.A., M.Div., Th.M. 과정을 운영했고 1984년 이후에는 D.Min. 학위를 수여하였다. 세계 교회가 연합하여 아시아의 자

국 복음화 역군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세워진 우리 대학이 그 역할과 위치를 아시아 교회와 신학연맹을 통해 확보해 온 것이다. 반면에 연구원으로 시작된 우리 대학은 한국 내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국내의 위상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1.1 대학 설립

1980년 8월에 대학원 및 대학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이봉수 이사, 길보륜 이사, 마삼락 원장, 한철하 부원장으로 구성되었고, 그해 12월에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으로서 15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선정하였다. 1년 후인 1981년 12월에 우리 대학은 문교부(현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설립허가 및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마삼락 원장에 이어 1981년 5월부터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한철하 박사는 대학의 신설과 함께 제1대 학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학장 취임과 함께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부의 운영 및 교과 과정과 관련하여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삼중구도를 역설하였다.¹ 즉 신학(Theology), 선교학(Missiology), 아시아지역학(Asian Studies)이 학습되고 심화된 아시아를 위한 복음의 일꾼을 키워내는 것이 주된 그림이었다. 아시아 지역의 역사, 특성과 현황을 충실히 파악하고 복음주의

1 이후 한철하 박사는 삼중구도를 이렇게 평가한다. “ACTS가 걸어가야 할 길은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밟지 말아야 할 그릇된 길은 첫째로, ‘인본주의(Humanism)’의 노선입니다. … ACTS는 때때로 인본주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삼중연구구조, 즉 성서신학 - 아시아학 - 선교학(Biblical & Theological Studies - Asian Studies - Mission Studies)이란 잘못된 철학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학부에서 신학과 다음으로 아세아학과를 개설하였으나 이 학과는 결국 아세아에 관한 일반 지역학의 성격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세아학(Asian Studies)과 선교학(Mission Studies)을 합하여 마침내 아세아선교학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철하, “21세기를 위한 ACTS의 신학”, 『ACTS 신학과 선교 30년』, 110.

신학으로 준비된 아시아를 위한 선교사를 키워낸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 학부과정의 시작된 첫 해인 1982년에는 학부에 신학과를 신설하였고, 1983년에는 아세아학과가 신설되었다. 1982년 3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은 52명의 신학과 학생을 모집하고 첫 학기를 서대문 캠퍼스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원보인 「아세아 복음화」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본 신학대학은 금년 봄에 처음으로 신학과 학생 52명을 모집하여 개강을 하였다. 이제까지 외국인 학생과 대학원 2백여 명의 목사, 전도사를 상대로 하던 학교로서 젊은 대학생들을 맞이한 본 신학원은 새로운 생동감으로 넘친다. 본 신학원은 1974년 봄에 개교를 한 이래 계속 아세아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으나 이제 미래의 아시아 선교의 역군이 될 젊은이들을 맞이하여 액쓰(ACTS) 전 가족은 아세아복음화의 새 희망에 더욱 부풀고 있다. 교과별로 분류하여 볼 때 이들은 장로교 34명, 감리교 8명, 성결교 1명, 기타 2명이다. 본교의 특색인 초교파 국제 교육의 특이성이 금번 신학과 학생들의 교육내용에도 반영되고 있다.²

1982년 8월 양평 캠퍼스 교사가 완공되었고 전원 기숙사 입사 원칙에 의해 모든 학생들은 교사 3층에 위치한 생활관에 입사하여 그해 9월부터 양평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신학과 1기 입학생들의 4년간의 교과목에는 일반 교양과목 외에 신학, 선교학, 아시아지역학이 개설되었다. 신학은 각 분야를 개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성경신학(신약개설, 구약개설, 구약신

2 “신학과 52명 입학: 신본주의 신앙 훈련 심오한 학문에 열중”, 『아세아복음화』, 1982.7.1.

학, 신약배경사, 구약배경사, 바울신학), 조직신학(기독교 교리, 신론의 위기, 성령론, 현대신학개설, 조직신학 서론, 구원의 실재), 역사신학(교회사, 한국교회사), 실천신학(교회음악, 예배학, 목회실천, 교회성장원리) 분야의 과목이 전공 필수로 개설되었다. 선교학 관련 과목 역시 강조되었다. 문화인류학, 선교학개론, 복음과 교회와 선교가 개설되었고 아시아지역 연구를 위해 아시아연구와 아시아선교운동이 개설되었다.

일년 후에 신설된 아세아학과도 이러한 학교의 교육목적 하에 학생을 모집한 것이었다. 1983년 신학과를 포함하여 91명의 학생들이, 당시 안식년 중인 한철하 학장을 대신하여 직무대행 역할을 했던 김세운 교수의 사회로 3월 4일 입학하게 되었다. 또한 3월 21일 양평 캠퍼스의 제2 생활관 입관식이 거행되었다. 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기가 시작되고 2주가 지난 후에 입사가 가능했고, 그 기간 중에 2학년들은 강의실에서 숙박을 해결했었다. 생활관 사감이었던 이진태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아신(亞神)학도는 아신(我新)정신”으로 세 가지 실력자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첫째는 기도의 실력자요, 둘째는 말씀의 실력자요, 셋째는 인격의 실력자가 되어 좁은 반도정신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제정신을 이 동산에서 싹트게 하여 키우고 가꾸어 세계적인 일꾼이 되자”고 하였다.

당시의 제2 생활관은 이후에 신축될 건물에 앞서 임시적인 가건물로 마련되었다.³ 총 건평 1백여 평에 15개의 방이 복식으로 꾸며지고, 각 방에는 4명이 배정되었다. 가건물인 관계로 방음도 되지 않았고 험한 등산로 수준의 연결통로, 물 공급의 어려움 등이 있었지만, 초창기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영성 훈련장이 되었다.

이 시기 교과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신학과나 아세아학과 학생 모두가 신학과 선교학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학에 대한 강의를

3 이 곳이 가건물인 관계로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에 의해서 “닭장”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듣고 아시아를 알고 품을 수 있는 실제적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아세아학과가 세워졌지만, 초창기에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일부 진통이 있었다. 아세아학과라는 학과명이 일반 지역학처럼 이해될 수 있었고, 학생들 역시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단지 학문이나 취업 자체를 위한 신학이나 아시아학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신학이고, 선교를 위한 지역학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견지되었다.

한철하 박사는 개교 30주년 기념 책자에 기고한 “ACTS의 나아갈 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ACTS 존립의 신학적 의미를 지금까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교과 과정 속에 반영시키며 실천하기 힘써 왔습니다. ACTS 개원한 이후 7년 동안 계속 하여 매 학기마다 7회 정도씩 모두 약 150회 개최하였던 연구프로젝트는 기독교 복음과 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연결하는 소위 “Cross-Department Seminar”(각 분야 연합세미나)였습니다. 우리는 그 세미나를 통하여 아시아의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 정치, 문화, 사회의 처지가 기독교 복음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탐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아시아의 구체적인 상황과 처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또한 그러한 처지에 놓인 아시아인들은 복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신학의 모든 분야가 동원되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최고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 권위 있는 일간지의 논설위원, 심지어는 이슬람교 사제까지도 초청하여 참여케 하였습니다.⁴

4 한철하, “21세기를 위한 ACTS의 신학”, 『ACTS 신학과 선교 30년』, 104-105.

학부의 신설과 함께 서구(미국, 영국, 독일)와 아시아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진의 충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기존의 한철하 박사(조직신학), 이종윤 박사(신약신학, 1976년 임용), 나일선(Marlin L. Nelson) 박사(선교학, 1977년 임용), 김세운 박사(신약학, 1978년 임용), 정규남 박사(구약학, 1980년 임용), 김성철 박사(아시아지역학, 1980년 임용), 박용만 박사(신약학, 1980년 임용), 전호진 박사(선교학, 1981년 임용), 안봉호 박사(조직신학, 1981년 임용)에 이어 매년 각 분야의 전공교수가 초빙되었다.

1982년에 이진태 박사(구약학), 1983년에는 김기홍 박사(교회사), 1984년에는 유광웅 박사(조직신학), 루트 에쉬나워(Ruth Eshenaur) 박사(커뮤니케이션), 잭합(Jack P. Hahm) 박사(아세아학)가 임용되었다. 이후에도 이명수 박사(의료선교), 김종일 박사(아시아지역학), 더크 넬슨(Dirk Nelson) 박사(기독교교육학), 홍성현 박사(기독교윤리학), 손석태 박사(구약학) 등이 임용되었다. 1987년의 자료에 따르면 12명의 교수가 재직하게 되었다.

1980년 초·중반에 걸쳐 충원된 교수진의 학문적 탁월성은 국내 신학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초기 재직했던 다수의 교수들이 복음주의 학문 영역의 탁월한 학문성과 지도력으로 우리 대학의 교수사역 이후 국내의 여러 학교에서 원장이나 총장직을 역임한 것을 보게 된다. 이진태 박사(개혁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종윤 박사(전주대학교 총장), 정규남 박사(광주신학대학교 총장), 김세운 박사(총신대학원장), 전호진 박사(피어선대학교 총장, 고신대학교 총장), 손석태 박사(개혁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에 이들 교수진이 대부분 복음주의권에 속한 신진학자들이었지만, 신학적 방향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대학 신약학 교수인 장해경 박사는 최근의 글에서 이렇게 평가한다.

신학적 동질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필자가 알았던 80년대 중반의 ACTS 교수진은 상당히 다양한 색깔의 스펙트럼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들의 신학적 성향은 각자가 성장한 소속 교회, 유학한 나라와 학교, 지도교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각자의 개성과 기질도 그들의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복음주의라는 넓은 기반 위에서 대체로 보수적이었던 당시의 교단 신학교들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며 가르쳤던 것 같다. 소수이지만 그들 중에는 신학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를 떠난 이들도 있었다.⁵

1.2 대학원 설립

이후 우리 대학은 1986년 문교부(현 교육부)로부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7년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1987년에 모집한 신학대학원 내의 신학석사 과정에서는 모집정원 10명에 17명의 학생이 지원했다. 문교부 인가과정은 아니지만 연구원 과정 역시 목회학박사, 신학문학석사, 선교학신학석사, 선교학문학석사, 신학사, 신학연수 과정, 의료선교학 과정, 평신도 과정 등이 개설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창립 이후부터 이어져 온 연구원 과정은 우리 대학의 아세아복음화의 비전을 한국 교계의 지도자와 다양한 분야의 사역자들과 공유하는

5 장해경, “ACTS 신학의 회고와 전망”, 개교 40주년 기념학술대회, 2014.10.3. 이후 한철하 박사는 교수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ACTS 교수진의 선발 기준도 단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대학에서 박사(Ph.D.) 학위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교수라면 기본적인 학구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기준을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기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학문적 능력과 업무를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 인본주의적 전제와 방법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ACTS에 합당한 교수가 아닙니다. 학문의 길에 있어서도 구원의 진리를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 ‘오로지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철하, “21세기를 위한 ACTS의 신학”, 『ACTS 신학과 선교 30년』, 110-111.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당시 한국은 선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넘어 당위성이 증대되는 시점이었는데, 우리 대학은 선교를 설립이념으로 둔 독특하고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한국 교계에 신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간 것이다. 교회연합적이면서 복음주의와 신본주의의 바른 신학 위에 신학과 선교를 공부할 수 있는 한국 내의 신학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갔다고 볼 수 있다. 평신도를 포함하고 교단을 망라하여 기독교계의 지도자에게 선교를 중심에 둔 사역과 학문에 대한 도전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근 30년간의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의 발전에 우리 대학이 직·간접적으로 한 몫을 담당했음을 알게 된다.

설립 초기부터 우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몇 년 전에 작고(2012년)한 나일선 박사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우리의 모체가 아시아 선교인 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시아의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외국인이든, 한국 학생이든 가리지 않고, 선교지에 세워진 그들의 민족교회를 협력하는 선교사의 자세를 주로 교육했지요. 이미 존재해온 교회가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갱신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선교지에 발생하는 문화적인 요소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⁶

우리 대학은 아시아 선교를 위해 자국 선교의 후보생들을 모아 선교와 신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선교센터로 세워졌다.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평균 3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아 왔다. 1986년 1학기 재학생 현황을 보면 연구원에 269명, 대학에 284명 그리고 외국인 학생은 25명이 재학하였다. 외국인 학생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인도(8명), 필리핀(1명), 인도네시아(3명), 서사모아(1명), 우

6 "한국신학의 맥: 아시아권 선교의 구심점",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178.

간다(1명), 버마(1명), 네팔(4명), 중국(1명), 잠비아(1명), 파키스탄(1명), 일본(1명), 방글라데시(1명), 태국(1명) 등이었다. 점차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만이 아니고 국내의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졸업생이 배출되고 이들이 선교단체나 선교지의 사역자로 한국의 선교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

1982년 처음으로 D.Min. 학위를 이수종 목사에게 수여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내의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지도자들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⁷ 여러 교단의 지도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대학이 교회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외국의 우수한 신학교와의 공동학위 과정을 개설해서 국제적 학교의 위상을 확립하고 학문의 내용에 있어서 앞서 가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선교지향적인 학교로 인정된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와의 목회학박사 공동학위 프로그램은 선교와 사역의 면에서 몇 걸음 앞서간 현장의 선교와 사역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철하 박사는 이렇게 회고한다.

또 다른 면에서 ACTS의 존립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ACTS와 Fuller의 목회학박사 공동학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재정적으로 심히 어려웠을 때 어떤 학기에는 그 프로그램의 수입이 결정적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ACTS와 한국 교회 사이의 유대를 매우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다는데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ACTS와 교회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게 되듯이

7 이수종 목사의 논문 제목은 "교회성장에 미치는 치리장로의 역할-한국장로교회를 중심으로-"로 이종윤 교수가 지도하였다.

ACTS의 존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와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⁸

1982년 Th.M. 선교학 전공으로 최초로 학위를 받은 박기호 목사는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풀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다.⁹ M.A. 선교학 과정에서 1982년 최초로 학위를 받은 이동휘 목사는 한국 선교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전주안디옥교회를 시무하다가 은퇴 후에도 바울선교회 대표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M.A. 치유선교학 과정 역시 1985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며 의료, 영성, 상담과 선교를 통합하는 기독교적 돌봄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1984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개교기념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첫 날에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포함하여 3백여 명이 모여 개교 1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정규남 교무처장의 사회로 임옥 목사의 기도에 이어 나일선 교수의 성경봉독, 학부 학생성가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 날 설교는 초대 이사장이었고 명예이사였던 한경직 목사가 담당했고, 요한복음 4:31-38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학교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경직 목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지 말고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눈을 들어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전하였다. 아시아는 무지와 죄악과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대륙이며 이러한 어두움의 대륙을 구하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을 역설한 것이었다.

10주년 기념패 및 감사패 증정에서 개인으로는 김동수, 김진수, 조상원, 최순영, 최창근, 최태섭, 한익하, 한경직이 그리고 단체로는 한국어

⁸ 한철하, “21세기를 위한 ACTS의 신학”, 『ACTS 신학과 선교 30년』, 107.

⁹ 1982년 7월 1일 최초의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박기호 선교사는 이종윤 교수의 지도하에 “필리핀에서의 제자배가운동 -필리핀에서의 제자훈련 전략-”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성복음봉사단, 해외선교회 도원회가 수상하였다. 이튿날까지 이어진 기념강연회에서는 피터 툰(Peter Toon) 박사가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김기홍 교수가 “복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학생 학술발표회 역시 있었는데 김형도(신학과 3학년), 여철원(신학과 3학년), 신명균(신학과 3학년) 학생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2. 교사 신축

2.1 준비과정

문교부가 인정하는 대학과 대학원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축교사 등기 완료가 1980년에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할 하는 교사의 건축이 시급했는데, 영락교회의 최창근 이사가 약 1만 5천 평을 헌납함으로써 양평 캠퍼스의 부지가 확보되었다. 그는 영락교회 담임목사였던 한경직 목사가 전해 준 “아세아복음화를 실천할 지도자 양성”이라는 비전과 사명에 공감하여 헌신하게 되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¹⁰

1980년까지 이사장직을 맡았던 한경직 목사 이후에 김세진 목사가 1981년부터 이사장을 맡았고, 한철하 원장이 학교 내·외의 중책을 맡아 학교의 태동에 기여를 하였다. 1981년 이사회 내에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고, 그해 10월 5일 교사건축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배는 한철하 원장의 사회와 김세진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자”(고후 6:1)란 제목의 설교가 진행되었다.

¹⁰ “한경직 목사 50주년 보좌한 최창근 장로의 헌신 인생”, 『국민일보』, 2010.4.8.

건축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이사진과 후원자들의 힘이 조금씩 모아졌지만, 부채 역시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대학의 장소가 된 양평군 옥천면 지역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남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었다. 비교적 수도권과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교통이 여의치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도 양평군 내에 대학이 없을 정도로 고등교육기관의 부지로는 어려움이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이었다. 산을 깎아 내고 건축 터를 마련하는 초기 과정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수맥이 가까운 관계로 교사 내의 방수처리 문제 역시 쉽지 않은 난제 중의 하나였다. 이런 여러 어려움과 5억 원이 초과되는 건축 비용에도 불구하고 교사 신축은 진행되었다. 경희대학교의 조창한 교수가 설계를 하였고, 효성건설(민석홍 대표, 안국동교회 장로)에서 건축을 담당하였다.

2.2 준공과 증축

마침내 1982년 8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151-1번지에 교지 15,583 평에 신축교사 783.4 평을 완공하였다. 9월 16일에 삼백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감사에배가 드러졌다. 김세진 목사의 사회와 김창인 목사(충현교회)의 “보다 더 성공하려면”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진행되었고, 2부 순서로는 한철하 박사의 학장 취임과 이진태, 이종윤 박사의 교수 취임식과 기념강연이 있었다.

우리 대학의 초기 건축물의 특징은 자연친화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었다. 강과 산에 둘러싸인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외벽은 벽돌로 처리를 하였다. 통행로나 계단 역시 돌을 이용하여 자연 속을 걷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아직 주변 환경과 교통 여건이 열악한 상태였지만, 수려한 경관과 자연 속에서 학생들이 경건과 학문에 매진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 완공된 한 동의 신축교사 내에 강의실, 기숙사, 행정실, 교수실이 모두 위치하고 있었다. 특별히 교사 내의 맨 위층 예배당은 다락방 형태로 시공되었고 이후 ‘다락방’으로 명명되었다. 우리 대학의 공식적인 이름 중의 하나인 ACTS(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는 성경의 사도행전을 일컫는 명칭이기도 하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제자들의 모임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제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 1:12-14).

당시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학보는 신축교사 완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남한강 푸르고 넓은 물가, 아름다운 언덕 골짜기에 조화 있게 자리잡은 7백 50평의 건물이 그 윤곽을 드러내었다. 지층인 식당의 각 창가에서 시작해서 각층 어디서나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푸른 강물을 낀 아름다운 경치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옥상층에 다락방으로 꾸며진 예배당은 외부에서도 언제나 올라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한 기도의 다락방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 세계복음화의 기점이 되었던 것처럼 이 곳이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모

여운 가운데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다락방이 될 것이다. 이 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먼저 능력을 받고 또 각국 사람들이 복음의 큰 확신 가운데 아시아의 각 나라 복음화 운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¹¹

교사건축에 머리를 맞대었던 이들은 우리 대학이 바야흐로 본격적인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와 선교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던 다락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건축에 담아낸 것이다. 강당이자 예배의 장소인 그 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에 구령의 열정이 품어지고 능력과 지혜로 선교현장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락방 형태의 예배당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다락방의 벽 한 곳에는 완공 될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세계지도가 있다. 이 지도는 한국과 아시아를 중심에 둔 오대양 육대주를 그리고 있고,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아시아”라는 표어를 새겨 놓고 있다. 건축이 완성되고 예배가 시작된 그 때부터 지금까지 다락방에서는 밤과 새벽과 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의 기도의 열매가 지금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맺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교사가 완공된 후에도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서 학교 건물의 확충이 중대한 숙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신앙훈련과 학업을 위해 개교 때부터 강조해 온 ‘전원 기숙사 입사’라는 원칙을 가능하게 할 기숙사 건축의 필요성이 즉각 대두되었다. 기숙사 건축 등을 위해 추가적 교지 확보가 필요해 지면서, 1987년 최창근 장로로부터 기존의 교지 옆에 6만 평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1986년 6월 착공되었던 또 다른 신축교사가 1987년 봄 입학식과 더불어 문을 열었다. 연 건평 250평의 신축교사는 총 공사비 1억 4천 3백 여만 원을 들여 7개월의 공사 과정을 걸쳐 준공에 이르게 되었다. 1층

11 “본교 신축교사 완공 박두”, 『아세아복음화』, 1982.7.1.

은 96석의 계단식 강의실, 2층은 4개의 강의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3층은 식당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은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 눈에 조망되는 그 곳을 ‘스카이라운지’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¹²

3. 신학운동과 선교

3.1 신학적 방향

우리 대학의 창립과정을 통해 담아진 독특한 비전과 창설 이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틀은 바른 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한철하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창설과정에서 ACTS는 이같이 세계와 한국을 소란케 하였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신학적 내용입니다.” 이 때 당시 우리 대학의 신학적 방향과 토대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한철하 박사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ACTS의 각 분야 연합세미나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서양신학의 모방이 아닌 아시아의 상황에 부합하는 복음적 신학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ACTS의 신학적 사명이 서양신학의 내용을 아시아에 도입하거나 소개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역설한다. “ACTS의 고유한 사명은 결코 그러한 아류에 속한 모방 작업을 통해서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역설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ACTS가 아시아의 처지에 있어서 세계의 그 어떤 신학도 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누구나 ACTS에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신축교사 준공 모습 드러내 ‘스카이라운지’라 명명”, 『아세아복음화』, 1987.4.1.

1984년에 창간하여 현재 17권까지 출판된 ACTS Theological Journal은 당시로는 보기 드문 영문저널로 아시아와 세계 신학계에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4년과 1986년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신학, 선교학, 아시아 지역학을 아우르며 영어권 독자들에게 한국의 신학적 흐름과 아시아의 상황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¹³ 또한 아시아 교계 지도자들과 신학생들이 기독교 학문분야를 발 빠르게 접하고 배우는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아시아 지역은 복음이 척박했을 뿐 아니라,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도 혼합신학이 뿌리를 내렸던 신학의 불모지대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의 복음주의적 신학에 근거한 사역의 접근과 학문은 직·간접적으로 아시아 교회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담당한 것이다. 1993년 한 기독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교학 교수들(나일선,

¹³ ACTS Theological Journal 1, 2권에 수록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ACTS Theological Journal v.1(1984): Preface/ The of Evangelical Theology, Han Chul-Ha, Th.D.; The Literary Structure of Genesis 1:1~2:3, Lee Jin-Tae, Ph.D.; 구약신학의 과제와 방법론, Jung Kyu-Nam, Ph.D.; Leben-Jesu-forschu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 F. Strauss, Lee Jong-Yun, Ph.D.; The Eucharistic Words of Jesus as thek Words of "the 'Son of Man' ", Kim Seyoon, Ph.D.; A Critical Evaluation of Western Theology toward a Reappraisal of the Biblical Faith, Han Chul-Ha, Th.D.; Ein Horizont der Theologie Barths, Ahn Bong-Ho, Th.D.; An Ecclesiological Perspective on Presbyterian Fundamentalism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Kim Ki-Hong, Th.D.; The Modern Non-Western Mission Movement, Marlin L. Nelson, D.Miss.; A Comparative Study of Bavinck's View of Dialogue with the WCC's, Jun Ho-Jin, D.Miss.; Factors of Universalistic Value Commitment among Middle Management Personnel in Thailand, Kim Sung-Chul, Ph.D.; Can Biblical Teaching Produce Behavioral Change? Dirk Nelson, Ed.D.

ACTS Theological Journal v.2(1986): The Problem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Fourth Kingdom in Daniel Seven, Jung Kyu-Nam, Ph.D.; Christianity and Culture in Korea: Nationalism, Dialogue, Indigenization and Contextualization, Seyoon Kim, Ph.D.; The Holy Spirit and Church Renewal, Kenneth N. Leestma; Knowing Jesus, Eugene P. Heudeman, Ph.D.; The Crisis in the Doctrine of God the Creator and Redeemer in Modern Western Theology, Han Chul-Ha, Th.D.; "Tao" und "Te" bei Laotse Als "Religion" und "kultur" in der Terminologie Paul Tillich's, Yu Kwang-Woong, Dr.theol.; An Exposition and Evaluation of Whitehead's Philosophical Theology, Peter Ying-Yuk Au; Machen's Struggle for a Doctrinally Pure Church, Kim Ki-Hong, Ph.D.; Some Assumptions on Health and Healing, Lee Myung-Soo, M.D., D.M.Sc.; Some Strategies for the Evangelization of Asia, Marlin L. Nelson, D.Miss.; Kuts, The Rituals of Mudang-An Anthropological Point of view, Kim Jong-Il, Ph.D.; The Church as Community: A Biblical Source for Relational Christianity, Dirk Nelson, Ed.D.; To Be Or Not To Be A Leader? A Christian Perspective, Jack P. Hahm, Ph.D.

노봉린, 전호진, 안영권)은 이렇게 입을 모아 말한다.

개혁주의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믿으면서 선교해 왔지만 타종교의 사람들과 이제는 십자군식의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써 대화를 통해 전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궁극적인 설득자는 성령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는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을 삼가기도 합니다만, 선교는 타종교와의 조우임을 알아야 합니다 ... 최근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학계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세계 기독교 운동에서 볼 때 역사적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것으로, 우리들의 선교를 위협하고 있는 사상으로 일단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도,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서도 혼합신학이 넓게 퍼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배격하거든요. 아직 아시아권에서는 선교신학이 정립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혼합신학에서는 구원과 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약화를 초래할 위험을 가지기도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타종교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¹⁴

둘째, 아세아복음화를 이루는 ACTS의 신학적-선교적 과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중점을 둔 중심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진리가 성경이 증거하고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류구원의 유일한 길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살 길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중심진리를 강조한 우리 대학의 신학은 1985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노력들을 통해 학문과 실재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¹⁴ "한국신학의 맥: 아시아권 선교의 구심점",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179, 181.

3.2 신학선교 활동

우리 대학은 이러한 신학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단지 교내의 모토로만 삼지 않고 국내·외적인 신학계의 발전과 건설적 연합에 적극 참여하여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대학은 1981년에 한국복음주의신학회(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KETS)가 정식으로 발족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초기 임원진에 우리 대학 교수들이 회장(한철하)과 총무(이종윤)로 적극 참여하면서 한국 내의 복음주의 신학의 정립과 정진에 기여한 것이다. 매년 봄, 가을로 모이는 신학발표회를 1982년부터 시작하였고 1983년에는 「성경과 신학」이라는 표제의 신학논문집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¹⁵

1990년까지 학회의 임원과 학회지의 편집인 다수가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었다. 당시 6개 분과의 29명 회원 중 9명이 우리 대학 교수였고, 그 밖에 합동신학원(9명), 총신대(2명), 고신대(2명), 이화여대(2명), 장신대(2명), 한국외대(1명), 숭전대(1명), 목회자(1명) 등이었다. 지금까지 한국복음주의신학회는 발전을 거듭하여 35개 회원교와 1천여 명에 가까운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국내적으로 KETS의 태동과 발전에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국외적으로 아시아와 서구 신학계와도 활발한 교류를 나누며 적극적인 교류를 지속하였다. 아시아신학협회의 회원교로 ATA 인준 학위 과정을 개설하였고, 1982년 한철하 박사가 ATA 회장으로 피선되기

¹⁵ 당시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활동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1회 신학공동발표회(1982년 4월, 충남도고); 제6차 아시아신학연맹 신학자협의회와 제3세계 신학자 대회 주관(1982년 8월); 신학논문집 「성경과 신학」 1집 발간(편집인: 김명혁, 손봉호, 이종윤); 제2회 신학공동발표회(1983년 10월, 온양, 한철하 박사 “신학교육과 신본주의” 발표); ATA와 함께 신학연구발표회(1983년 12월, 대만); 제3회 신학공동발표회 및 제2차 정기총회(1984년 9월, 대전 유성, 회장: 한철하, 부회장: 오병세, 정진황, 총무: 김명혁, 서기: 정규남, 회계: 손봉호);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의 공개신학강좌(1984년 6월, 서대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제4회 신학공동발표회(1984년 11월, 부산); 신학논문집 「성경과 신학」 2집 발간(편집인: 김명혁, 손봉호, 이종윤, 이형기).

도 하였다. 1982년 8월에는 우리 대학의 서대문 캠퍼스에서 제6차 아시아신학연맹 신학자협의회(ATA, 8월 28일-31일)와 제3세계신학자대회(주제: 우리의 처지에 있어서 성경과 신학, 8월 27일-9월 5일)를 한국복음주의신학회와 함께 개최하였다. 대학 학보는 이렇게 기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교권, 힌두교권, 이슬람교권 등 여러 종교 문화권에서 형성된 다양한 아시아적 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함께 공산권 내에서의 복음주의적 신학정립과 선교전략의 구체적인 토의를 통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3개항으로 나뉜 동 보고서의 내용은 ‘서론’, ‘오늘에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아시아의 상황에서의 복음주의적 신학의 모색’ 등이다. 또한 복음주의 신학이 당면한 공동과제를 다뤘던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학자들 간의 신학정보와 구체적인 상호협력 방안이 모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제적 행사가 본교 교수들의 주도적인 준비와 운영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¹⁶

1986년에는 한철하 박사가 ATA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AGST(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우리 대학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AGST(아세아신학대학원)은 1984년 한철하 박사가 설립모체인 ATA의 회장으로 있을 때 설립한 것으로 아시아 전역의 신학교들의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신학대학원을 말하는 것이다. 1986년 당시 AGST에는 아시아에서 총 17개교가 참여하고 있었다.

¹⁶ ”3대 국제규모회의의 성황: 보고서 채택, 구체적 상호협력방안 모색”, 「아세아복음화」, 1983.1.22.

- 한 국: 아세아연합신학대학
합동신학교
피어선신학교, 하나님의교회신학교(준회원교)
고신대학교(참가 예정교)
- 일 본: Kobe Lutheran Theological Seminary
Osaka Christian College and Seminary
Tokyo Christian Institute
Tokyo Biblical Seminary(OMS)
Immanuel Bible College(Observer)
- 필 리 핀: Alliance Biblical Seminary
Asia-Pacific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Asia Theological Seminary
Far East Advanced School of Theology
International School of Theology-Asia
- 인도네시아: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of Indonesia
Institut Alkitab Tiranus
Institut Injil Indonesia
South East Bible College and Seminary
Jaffray Theological Seminary

우리 대학이 개교 초창기부터 지속해 왔던 신학 활동 중의 하나는 해외의 우수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마련한 것이다. 1982년에서 1987년 사이에는 18명의 학자들이 특강과 강의를 인도하였다. 초창기에는 주로 외국의 선교학 교수가 초빙되어 선교와 관련된 강연을 하였

는데, 폴리신학교의 아더 그라서(Arthur F. Glasser) 박사에게 이어 폴 피어슨(Paul E. Pierson) 박사, 1986년에 폴 히버트(Paul Hiebert) 박사가 초청되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기독교계 내에 상담학의 연구가 미미한 현실에서 기독교 심리학자인 뉴톤 말로니(H. Newton Malony)와 존 핀치(John G. Finch)가 우리 대학에서 특강을 인도한 것이다.

초청된 강사를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1982년에 폴 피어슨 박사, 홍창표 박사(Moorhead State University)와 아시아 신학자인 피터 장(S. Peter Chang) 박사가 초청되었다. 1983년 5월 12일에는 우리 대학의 설립 모임의 일원이기도 했던 칼 헨리(Carl F. H. Henry) 박사의 “현대 학문의 위기”라는 강연이 있었다. 6월 8일에는 무디성경신학교(Moody Bible Institute) 학장인 조지 스위트링(George Sweeting) 박사가 “삶의 용기와 목적과 과정”이라는 강연을 하였다.

또한 독일 튀빙겐대학교(Tübingen University)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한 오토 베프(Otto Betz) 박사가 객원교수로 초빙되어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5주간에 걸쳐 “복음서들에 나타난 예수의 치유기적”과 “신약과 유대교”라는 두 과목을 집중 강의하였다. 4월 25일에는 공개 강연을 통해 “신약신학의 동질성”을 발표하였다. 1983년 겨울에는 인도 WEF의 부르스 니콜스(Bruce J. Nicholls) 박사가 초청되었다.

1984년 5월 1일에는 개교 10주년 기념예배에 이어 기념강연회로 피터 톤 박사가 “그리스도의 승천”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피터 톤 박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서포그(Suffolk)에서 복스포드교회(Boxford Church)를 시무하고 있었다.

1985년 9월 16일에는 미국개혁교회 총회장인 유진 하이드만(Eugene P. Heideman) 교수와 미국개혁교회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인 케네스 리츠마(Kenneth N. Leestma) 교수가 “미국개혁교회 정신”과 “성령과 교회 갱신”이라는 주제로 신학공개강좌를 열기도 하였다. 10월 28일에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공개강좌가 한철하 박사의 사회로 서대문 캠퍼스에

서 열렸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의 신약학 교수인 리처드 개핀(Richard Gaffin) 박사의 “신약교회와 현대교회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강의에 이어 참석자와 강사의 질의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1986년 5월 9일에는 주한 스위스 대사로 근무하던 버나드 프리먼드(Bernard Freymond) 대사가 “서구교회의 현실에 비추어 본 한국 교회의 진로”라는 강연을 하였다. 그 밖에도 폴 히버트 박사와 독일의 알브레흐트 벵겔 하우스(Albrecht-Bengel-Haus)의 게르하르트 마이어(Gerrhard Maier) 박사가 초청되었다. 1986년 가을학기에는 칼 헨리 박사가 한 번 더 방문하였고, 일본 니혼 키리슈토 교카이 신학교(Seminary of Nihon Kirishuto Kyokai)의 와타나베 노부오(Watanabe Nobuo) 박사가 초청되었다. 1987년에는 독일 뮌스터대학교(Münster University)의 노이저(W. H. Neuser) 박사가 특강을 인도하였다.

또한 ACTS의 선교적 비전에 동참한 개인과 교회의 대표들이 아세아복음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교제하던 아세아복음화 조찬기도회가 아세아 선교의 날(현재는 ACTS 선교대회)로 진행되었다. 이 선교의 날에 참여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아세아복음화 장학회”, “아세아복음화위원회”와 “아프리카복음화위원회”가 조직되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지에 교회 개척 사업을 하였다. 1984년 7월에는 유부웅 목사를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파송하여 교회 개척 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제3장

특성화 구축기(1988-1997)

1. 선교의 비전 확립

이 시기에 ACTS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88년 4월 제50회 이사회에서 당시 한철하 학장은 “연합선교대학원” 설립안을 보고하고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특히 우리 대학은 명실상부하게 선교지향적인 대학교로서 설립이념에 따라 선교교육을 추진해 오던 중, 선교대학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때였다.

선교대학원은 단지 교육기관으로서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기관으로서 교회, 선교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여 본 선교대학원 건물 안에 각국 선교연구원을 건립할 것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학생 수가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 기숙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기숙사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조성되었고 최태섭 부이사장과 한철하 학장이 이 일을 위임받아 시행하게 된다. 건축비는 당시 문교부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차입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선교대학원 설립의 중요성이 부각된 해였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51회 이사회에서 재미 이사회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다. 이 당시 이사회가 공식 중이었기 때문에 이사들 중 최태섭, 이영덕, 오재경, 최창근, 김창인(광성교회) 5인이 전권위원이 되어 새로운 이사장 선임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1987년 8월 17일 미국 타코마에 등록된 ACTS in U.S.A, Inc.를 인수하였고 1988년 1월 29일 몬로비아에서 제2차 회집을 하여 ACTS in U.S.A.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ACTS에 교수 1인을 파송키로 하여 나일선 박사에게 월급 3천 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마펏 선교학 교수 석좌기금”을 설립하고 “마펏 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이후 안타깝게도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사회 조직을 보면, 이사장 페드 앙스트롬(Fed Engstrom) 박사, 부이사장 알렌 핀리(Allen B. Finley) 박사, 서기 나일선 박사, 회계 존 맥클로우(John H. McCullough) 목사, 이외에 마삼락(Samuel H. Moffett), 웨어하우저(C. Davis Weyerhaeuser), 존슨(G. S. Johnson) 목사가 참여하였다. 그 이후 재정지원 실적을 보더라도 1988년에 4만 5천 불, 1989년에 4만 6천 불, 1990년에 4만 5천 불을 후원하였다.¹

또한 재미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이사로 김계용 목사와 한진관 목사,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로 김의환 목사와 림택권 목사를 파송하여 아세아복음화라는 우리 학교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재미 한인교회가 큰 공헌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철하 학장이 요청하여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 특별히 선교에 뜻을 둔 15개 교회의 담임목사들이 1988년 7월 26일 미국 일리노이 주 휘튼에 있는 휘튼대학에 모여서 “연합선교대학원”(United Graduate School of Mission)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고 1991년 3월에 개원

1 『ACTS 요약 1991』, 14.

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정은 재미 이사회 이사장 김계용 목사, 서기 림택권 목사의 서명을 받아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회와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이사회에 문서로 발송되었다. 내용 중에 특이사항은 미국에 있는 그 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시아에 있는 30억 생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하였으며, 이 목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세아복음화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아세아복음화 조찬기도회”에서 “아세아복음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활발히 진전시켜 왔고, 1988년 7월에 선교대학원 교수진 양성의 일환으로 이교육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하여 태국선교연구와 함께 태국 교회 개척 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1988년 7월 26일 미국 휘튼에서 “연합선교대학원” 이사회가 조직되어 재미 한인교회 15개 교회의 목사 15인을 이사로 추대하게 된다. 당시의 임원을 보면, 이사장 김계용 목사, 부이사장 임동선 목사, 원장 김의환 목사, 부원장 림택권 목사, 서기 장영춘 목사, 부서기 고인호 목사, 회계 한진관 목사, 부회계 정인영 목사였다. 그 외에 이사는 고인호, 이승제, 이승운, 정인영, 정영환, 김상복, 김원기, 이병희 목사였다.

1988년 10월에 개최된 제52회 학교법인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선임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받았던 전권위원으로부터 최순영 장로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한 “아세아복음학사”(양평 캠퍼스 기숙사) 건축을 위해 한철하 학장이 건축위원을 선정해 줄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김동수, 임용의, 한익하, 장점연, 강안삼 이상 5인을 건축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한 가지 고무적인 일은 김창경 장로가 고 김세진 목사 기념 장학금으로 3천만 원을 기증함에 따라 고 김세진 목사 기념 장학기금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2. 격동의 바람

1988년은 ACTS가 성장을 하는 데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으나, 이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게 된 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에 여러 다양한 학과를 만들어 학교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실용적인 주장이 강력하게 등장하였던 것이다.

8월 18일부터 총학생회의 주도 아래 등록거부 및 수업거부를 행사함으로써 학내문제가 본격화 되었다. 총학의 요구사항은 첫째, 학교이념을 추구하는 재력있는 이사장 선임, 둘째, 학부와 연구원의 분리독립, 셋째, 아세아학과 교수충원과 4년제 교과 과정의 확정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에 큰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다.

독점적 학교운영과 학사행정에 대하여 반발해 온 김세운 교수와 손석태 교수가 9월 27일 학장의 처사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내에서 학장퇴진을 외치며 학장퇴진운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교수진들 사이에도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누어지게 되고 학생들도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학사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철하 학장, 김세운 교수, 손석태 교수 모두가 학교에서 물러나기로 잠정합의를 하게 되었고, 당분간 김기홍 교수가 학장대리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런 학내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11월에 열린 제53회 이사회에서는 현 학교사태에 대하여 최창근 이사와 김기홍 학장대리의 보고를 받았고, 최태섭 이사장 권한대행으로부터 한철하 학장의 사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뒤이어 학내사태와 관련하여 김세운 교수와 손석태 교수가 1989년 2월 28일까지 사표를 제출키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최창근 이사가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학장의 사표는 두 교수의 사표와 함께 수리할 것을 가결하였다.

이로써 학장과 관련한 일련의 학내사태는 마무리 되어가고 있었다.

1988년 12월 제54회 이사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소재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ACTS)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서대문 캠퍼스”라고 호칭하고 그곳에서 모이게 되었다. 이런 호칭을 하게 된 배경은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과 같은 기관이며 모든 운영 체제가 ACTS라는 공동체 아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ACTS 요람』에는 이 서대문 캠퍼스에 대하여 이렇게 찬미하고 있다.

西大門 캠퍼스는 진실로 ACTS가 韓國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搖籃이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1) 大서울의 중심에 자리잡은 據點으로서 (2) 언제나 쉽게 각종 모임을 가질 快適한 집이요 (3) 大서울을 상대로 하는 각종 敎育, 講義, 세미나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研究院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ACTS의 삶의 空間이 될 것이다. 大서울의 가장 편리한 중심에 자리잡은 이 아름다운 캠퍼스가 어찌 多樣한 그리고 價値있는 創造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開發 育成시켜 나갈 좋은 장소가 아니될 것인가?

이어서 장점연 이사로부터 양평 캠퍼스 학부 기숙사 건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예산을 벗어난 건축에 관련한 모든 결정은 건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총무처장이 공석이었는데 김기홍 학장대리로부터 새로운 학장이 취임할 때까지 교무과장인 이영학 씨를 총무처장 대리로 임명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1989년에 들어서서 2월 13일에 개최된 제55회 이사회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학내사태의 중심에 서있던 김세운, 손석태 교수들로부터 사

2 『ACTS 요람 1991』, 25.

임할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최창근 이사가 보고를 하였다. 이에 이전 이사회의 결의대로 1989년 2월 28일까지 모든 학사운영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월 27일과 28일 연속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영덕 이사가 학내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으로 김세운 교수가 한 학기 동안 강의만 하고 그 후에는 유급휴직을 하여 1990년 2월말까지 사임한다는 각서를 받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하고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사장에 관한 건은 최순영 이사를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이사장 서리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학내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된 학장에 대하여는 안식년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후의 처리를 이사회의 양해 아래 이사장 서리에게 일임하였다. 결국 학장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두 교수들만 학교에서 떠나는 것으로 사태의 결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학내 보직임명 건 및 예산편성 건은 학장과 이사장 서리에게 일임하는 형식으로 1988년도 학내 사태는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1991년 『ACTS 요람』에서 이 상황을 “1988년 소요사태는 ACTS를 일개 대학으로 단순화시키려는 유혹을 극복하고 그 본래적 성격과 사명을 견지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3. 아세아복음화기지 건설

1989년에 들어서서 학교운영 체제를 새롭게 갖추게 된다. 민순구 총무처장이 임명되었고 최순영 이사장 서리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김창인(충현교회) 이사가 사표를 내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림택권 목사와 김계용 목사를 이사로 받아들였다. 이에 5월 중, 연합선교대학원 이사회와 국내 이사회가 함께 만나 차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ACTS의 설립정신을 분명하게 구현해 가는 데 있어서 진일보한 결정이었으며, 앞으로 한국 선교에 공헌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할 ACTS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 특히 선교대학원 안에 각국선교연구원을 두어 각각 특정지역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연관된 한국의 교인들에게 그 지역에 관한 선교교육을 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의 어떤 신학교나 선교단체에서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결정이었다. 각각의 선교연구원들이 협의체가 되어서 선교현장의 현지 교회와 한국 교회가 교제권을 형성하고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간다는 발상은 매우 새로운 선교전략의 발전이었던 것이다.

1989년은 전년도에 발생하였던 학내사태를 수습하고 회복기로 접어들었음과 동시에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워가는 해이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철하 학장은 그대로 직임을 맡게 되었고 김세운 교수와 손석태 교수는 학내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1989년 5월 2일 한국에서는 “선교대학원” 이사회가 조직되어 15개 국가에 대하여 각국 선교연구원을 설립하였는데, 많은 관심있는 교회와 개인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사회의 조직구성을 보면 이사장 임옥 목사, 부이사장 방해주 장로, 원장 박조준 목사, 부원장 김홍도 목사, 서기 김문희 목사, 부서기 원광기 목사, 회계 장점연 장로, 부회계 강안삼 장로가 임원을 맡았고 그 외에 이사로 추대된 분들은 최태섭, 임영수, 송치현, 이형자, 이광선, 황철수, 정문호였다. 당시 아세아복음화기지 건설을 위한 5단계를 보면 그 진행사항을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제1단계(1973년) 도서기금확보 및 서대문 캠퍼스 구입

빌리 그래함 도서기금	10만 불
대지	7백 90평
건물	2백 50평
소요경비	27만 5천 불
- 제2단계(1977년) 서대문 연구원 및 국제영빈관 확장

건물	1천 50평
소요경비	6억 6천만 원
- 제3단계(1981년) 양평대학 건설

교지	1만 5천 평
아세아복음화 다락방	783평
소요경비	6억 5천만 원
- 제4단계(1987년-1989년) 아세아복음화기지 확장 및 아세아복음화

제1 학사(기숙사)건축	
기지확보(층)	7만 8천 평
다락방 별관	2백 50평
기숙사	5백 26평
소요경비	12억 원
- 제5단계(진행중) 선교대학원 및 AGST 건립

선교대학원	1천 5백 평(19억 원)
AGST	3억 원(광성교회, 명성교회)
오수정화시설	3억 5천만 원
총경비	25억 5천만 원

제58회 이사회(1989. 11. 2)에서는 재미 연합선교대학원 이사 중에서 림택권 이사를 대신하여 장영춘 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에 국내 선교대학원 이사회 조직과 규칙을 승인함과 동시에 학교법인

이사와 재단법인 이사로 임옥 목사와 박조준 목사를 선임하였다. 또한 기숙사 건축이 진행되면서 준공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정화조 시설이 필요하나, 공사비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문교부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추가로 용자를 신청하는 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이때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대학원 신학박사(Th.D./Ph.D.) 과정을 인가받게 되었다.

1990년에 들어서서 첫 번째 개최되는 이사회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이사장 서리였던 최순영 장로가 이사장이 되어 제59회 이사회 의사회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사장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서, 다시 제3대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기독교인 재벌 장로가 ACTS의 이사장이 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대하여 1991년 발행된 『ACTS 요람』에서 “基督敎人財閥參與”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ACTS事業에 대한 基督敎人財閥의 참여는 당시부터 계속 추구되어 왔다. 李奉守 長老님의 貿易大學設立 계획과 ACTS設立 계획을 조화시킴으로 수유리 信一캠퍼스 내에 ACTS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1980年度경부터 崔淳永 長老님의 참여를 받아 두 長老님의 ACTS事業참여를 회구하여 왔다. 崔長老님의 2억 원 보조 없이는 ACTS의 神學大學으로서 楊平에 建設되는 일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奇異하신 攝理 가운데 ACTS를 88년 당시의 큰 위기에서 구출한 은인으로서 理事長으로 세워주시었고 또한 매해 3억 원의 補助를 하여 주심으로 기숙사 건축, 정화시설설비 등으로 인한 근년의 ACTS의 재정적 危機를 넘길 수 있게 하시었다. 長老님의 참여는 ACTS財政의 安定基盤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ACTS의 存立과 발전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國內外 韓國敎會의 ACTS를 통한 榮光스럽고도 巨大한 亞細亞福音化 聖業

을 成功시킬 主動的役割을 하게 될 줄로 안다.³

한편, 이광선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신일교회의 변춘하 집사가 선교대학원 내 중국선교연구원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기증했다. 이에 그 재산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선교대학원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며, 그 헌납금은 “변춘하 아세아 선교기금”이라 이름하고 신일교회 중국선교연구원에 운영권을 일임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또한 선교대학원 교사 신축과 관련하여 재미 연합선교대학원 이사회(이사장 김계용)와 한국에 있는 선교대학원 이사회(이사장 임옥)에서 각각 120만 불과 9억 원을 모금하여 건축비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건축과 관련된 진행사항이 구체화되면서 1990년 5월 1일에 기공예배를 드리기로 하였고, 건축위원으로 임옥 이사, 강안삼 감사, 민순구 총무처장을 임명하였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된 한철하 학장을 3대 학장으로 다시 추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학장 중심의 행정 체제가 확고하게 세워지면서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사회 안에서는 학교 재정과 관련하여 서로가 어려움을 부담하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에 이사분담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남한강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약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함을 총무처장이 보고를 하였다. 우리 대학은 어느 교단의 신학교도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이 소유한 사학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늘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사 분담금이라는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이며, 또한 이사라면 당연히 학교의 발전과 재정의 어려움을 담당해야

3 『ACTS 요약 1991』, 36.

한다는 당위성으로 보더라도 마땅히 결정되었어야 할 사안이었다.

1990년 4월에 개최된 제60회 이사회에서는 먼저 1990학년도 재단 법인과 학교법인의 자금운용예산을 심의한 결과,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6억 3천 6백여만 원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3억 3천 8백여만 원을 통과시켰고, 이를 이사분담금으로도 충당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또한 제59회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던 최순영 이사를 교육부에 승인받기 위한 절차로 다시금 선임할 것을 가결하였다. 이는 ACTS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목사가 아닌 장로가 이사장으로 세워진 것이며, 교단에 속하지 않은 규모가 작은 신학교로서 재정적인 부족을 느끼고 있던 차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이사장이 되면 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두 법인에 대한 예산을 관리감독하며 시행하기 위한 예산대책위원으로 이영덕, 임옥, 최창근, 박성수 이사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최순영 장로가 이사장이 된 이후에 이사들을 세우는 문제와 총장 선임 문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잡음이 생기게 되었다. 결론론적이긴 하나, 결국 그 후 최순영 장로는 ACTS의 몇몇 교수들과 함께 햇불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라는 새로운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ACTS는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개인이나 교회를 바라보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경고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990년 경상비 적자충당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기숙사 건축(6억 원 소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여러 후원의 손길이 있어서 충당할 수 있었다. 최순영 3억 원(할렐루야 교회의 1억 원 보조 포함), 최태섭/이봉수 4천만 원, 김동수 2천만 원, 강안삼 1천 7백만 원, 임옥 1천만 원, 장점

연 7백만 원, 이영덕 2백만 원, 박성수 2백만 원, 한철하 3백만 원, 영락교회 3천만 원, 명성교회 1천만 원 등의 후원금으로 1990년 9월에 생활관 교사 5백 26평을 완공하였다.

1991년 3월에 열린 제61회 회의록에서는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과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라는 두 법인이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이 명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달리 말하면, 두 법인체는 서로 다른 기관이 아니라 항상 함께 운영되어 왔고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명문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1980년 12월 26일 제29회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과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의 동일성을 재확인하고 동일 이사회로서 계승하기로 하다”와 1987년 2월 13일 제45회 이사회에서 “공동 이사회를 통하여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을 운영하기로 하다”라는 문구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결의함으로써 이제는 서로 달라진 두 이사진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ACTS 이사회를 구성하여 연구원과 대학 두 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ACTS 理事會는 單一 理事會로서 사실 그 태반 理事들은 두 法人 理事會에 다 속하고 一部 理事들은 學校法人 理事會에만 또 一部 理事들은 財團法人 理事會에만 속하나, 이 모든 理事들이 다 ACTS 理事會 理事들임으로 ACTS 理事會의 議決은 學校法人이나 財團法人 理事會의 의결을 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⁴

1990학년도 결산심의를 보면, 연구원의 수입액이 6억 4천 9백여만 원이고 지출액은 수입액의 전액이 사용되었다. 이 중에는 대학전출

4 『ACTS 요람 1991』, 29.

금으로 1억 7천 6백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학의 수입액은 11억 5천 9백여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8천 3백여만 원이었다. 이어서 1991학년도 두 기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한 결과, 총수입액은 15억 3천 8백여만 원이고 지출액은 18억 5천 7백여만 원이 되었다. 따라서 부족액 3억 1천 9백여만 원에 대하여는 이사분담금으로 1억 원을 충당하고 1억 5천만 원은 차입금으로, 나머지 6천 9백여만 원은 학장이 모금하는 것으로 충당할 것을 심의 통과시켰다.

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자, 정관연구위원으로 임옥, 이영덕, 박성수 이사를 세우고, 이들에게 관련 사무를 일임하여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이사 정수에 대하여는 15인에서 17인으로 개정을 하였고 늘어난 정수에 보선 및 후임이사로는 김홍도, 길자연, 임옥, 김창인(광성교회), 김삼환, 한기원, 임영수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봉수, 임용의, 한익하 이사는 정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1991년 9월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외국에 거주하는 이사들 몇 사람은 이사취임이 늦어지는 관계로 취임수속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사로 대우를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영덕 이사는 전임 국무총리로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관계로 우리 대학에 교육연구원을 설립하기 원하였다. 이로써 이영덕 박사를 교육연구원 특임교수로 추대하여 이 일을 담당하기로 임옥 이사가 동의하고 최태섭 이사가 재청함으로 가결을 하였다.

특임교수라 함은 “학계와 교육계에 공로가 인정된 원로교수로서 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위임된 특수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정관 제43조 제7항에 삽입함으로써 교육연구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관 제8장을 신설하여 이사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취임과 동시에 우리 대학에 마련한 신앙고백서에 서명한 후 취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는 ACTS

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를 기치로 세워진 교회연합적 대학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립이념을 지켜가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91년도에 학교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있었고 등록하여 다니고 있는 학생 수도 명확하게 집계되어 있었다.⁵

• 이사회

명예이사장: 한경직

이 사 장: 최순영

이 사: 최태섭 최창근 한철하 정진경

김동수 이봉수 이영덕 장영춘

박조준 장점연 임 옥 길자연

한익하 박성수 임영수 김삼환

김명로 임동선 임응의 김홍도

감 사: 오재경 강안삼

• 교 수

명 예 원 장: 마삼락

학 장: 한철하

교 수: 김상복 나일선 노봉린 정규남 롯데쉬나워

박용만 김기홍

부 교 수: 유광웅 주준희

조 교 수: 강창희 원종천 우심화 안영권 권형기

전임대우교수: 손봉호 이명수

5 『ACTS 요약 1991』, 51-57.

• 학 생

연구원생으로 등록된 학생들은 미국 풀러신학교의 공동학위 과정인 목회학박사 과정을 포함하여 한국어 강의 300명과 주로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 강의 33명, 합계 333명이 등록하였다. 대학원생들은 신학박사 과정 3명을 포함하여 전체 22명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었다. 그 외 신학대학원생 21명이 등록한 상황이었다.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은 선교학과 신설되어 1학년에 신학과 56명, 아세아학과 42명, 선교학과 20명, 2학년은 신학과 41명, 아세아학과 38명, 3학년은 신학과 43명, 아세아학과 36명, 4학년은 신학과 42명, 아세아학과 38명, 전체 356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4. ACTS 신학과 선교의 기틀 확립

1992년도에 있었던 중요한 사항은 선교대학원 및 연합선교대학원에 관한 보고와 교육연구원에 관한 사항이었다. 드디어 그해 8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양평 캠퍼스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및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38개 선교연구원을 수용하는 선교대학원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는 한국 교회사와 신학대학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교의 디딤돌이 되었다.

선교대학원과 연합선교대학원의 자금 현황을 보면 선교대학원 2억 8천 2백만 원, 연합선교대학원 1억 1천 3백여만 원이 수입총계로 되어 있으며, 지출로 건축계약금 2억 원, 설계비 일부로 3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2년 전체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이 특별모금 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22억 9천 1백만 원이 책정되었고, 총지출은 강당건축비를 포함하여 전액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이사항으로는 1990년 9월 1일 당시 미주 이산가족 북한 방문 차

50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던 나성영락교회 김계용 목사가 평양 도착 사흘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북한의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제5회 연합선교대학원 이사회에서는 그 사이 소천한 김계용 목사를 대신하여 한진관 목사를 연합선교대학원 이사로 보선하고, 연합선교대학원 파송이사로 한진관 목사가 임명되었음을 보고받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동안 학교의 토지구획이 양분화되어 있어서 단일 필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6호선 국도변경에 따른 진입로를 개설하는 관계로 공공시설 입지변경 승인신청 건을 재검토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종전에 43,885㎡이었던 것이 57,436㎡가 증가한 101,322㎡가 되어 경기도청에 협의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무엇보다도 선교대학원 참여교회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다. 6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확정된 교회 및 단체로는 영암교회(임옥 목사), 갈보리교회(박조준 목사), 금란교회(김홍도 목사), 잠실교회(원광기 목사), 동안교회(송치현 목사), 신일교회(이광선 목사), 왕성교회(길자연 목사), 아름다운교회(김기홍 목사), 아세아선교회(강안삼 장로), 한 국기독교선교원(이형자 권사), 여전도회전국연합회(김옥인 권사), 최태섭 장로, 방해주 장로, 장점연 장로가 있었고, 대신감리교회(김문희 목사), 오류동감리교회(안행래 목사), 배광감리교회(황방남 목사)는 각각 2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6천만 원을 기부해 줄 것을 교섭 중인 교회로는 할렐루야교회(김상복 목사), 영락교회(임영수 목사), 응암교회(황철수 목사)가 있었다.

1993년 3월 22일 “ACTS 교수 주례세미나”에서 한철하 박사는 ‘ACTS 신학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는 교단의 배경이 없는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신학의 방향을 강조한 것이었다.

여기서 한박사는 ‘ACTS 신학건설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안하였다.⁶

제안(一) : 겸손

구도자는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진리 앞에 언제나 승복할 자세이다. 배우는 자세에 서지 않고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숨은 교만은 구도자에게 합당치 않다. 반면에 진리탐구에 열심을 가져야 한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어떤 적은 현상이 일어나든지 즉시 그것을 증시해서 신학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data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과의 관계가 분명히 될 때까지 그 data를 계속 문제로서 나의 영혼 속에 잊지 않고 품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정확을 위해서 계속 일생동안 노력해야 한다.

제안(二) : 성경 의존

성경 의존이라 함은 진리의 판정이 성경에서 난다는 뜻만이 아니고 성경이 중시하는 것을 나도 중시하고 성경이 경히 다루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에서 우리가 ACTS 신학의 중심 내용이라고 제안한 것이 성경이 그와 같이 여기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그의 의”는 성경의 중심내용이다. 이 일의 “진리확정”을 주축으로 모든 다른 가르침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의 중심이었고 우리는 같은 내용을 구약에서도 중심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제안(三) : “그러나”가 아니고 “그러므로” 방법

하나님도 크시고 그의 세계도 크다. 진리의 세계는 그만치 크고 또 그 속에 유형 무형의 모든 개체들과 의미들과 가치들이 다양하고 또

6 한철하, “ACTS 신학건설의 과제와 그 방법론”, 미출간물(1993.3.22).

한 다원적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통일의 원리를 분명히 하여 주었다. 서양신학에서든지 또는 우리에게 새로 비추어 주신 진리의 빛으로든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든지 그것을 ACTS의 신학으로 편입시키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ACTS 신학의 중심내용으로 본 것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holy agreement에 이르렀다고 할 때 “그러므로”의 논리의 연쇄로서 연합함으로써 서로 화답하고 서로 감사로 넘쳐야 할 일이지 “그러나”를 마음 속에 품고 자기의 “새 진리”를 “새 발견”으로 내놓으므로 ACTS의 unity를 깨고 자기의 교만을 만족시키려 들지 말자. 우리와 성경과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리스도’도 ‘성령’도 잊지 말아야지”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까지 또 ‘성령’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나!!!” 할 것이요, ACTS와 루터와 성경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할 때 “그러나 ‘사랑’도 강조해야지” 속으로 말함으로 화합을 깨틀지 말고 그 ‘믿음’으로만 ‘사랑’을 가능케 하시니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서 오히려 화합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제안(四): 비판적 종합의 방법론

입장들을 갈라놓는 방법을 transcendent criticism(超切的 批判)의 방법이라고 하자.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이 기본동기와 그 기초(ground motive)를 공평하게 평가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의 위치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종합하여 나가는 방법을 쓰자. 예) ACTS가 초교파적 입장(interdenominational)을 취한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독교 안에 일어난 모든 역사적 교파들에 대해서(헬라 정교, 로마 가톨릭, 루터교, 개혁신교, 웨슬레이파 등) 일치를 시도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신학들에 대해서 역시 일치의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기독교의 핵심에 있어서의 일치와 각기의 강조점에 승인의 양식으로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는 비판적 종합적 방법론으로 일치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1993년 4월 7일 재정대책위원회로 최창근, 임옥, 한철하, 박성수, 강안삼 이사들이 모인 가운데 예·결산 보고를 받고 통과시켰다. 특히 한철하 학장으로부터 이사정수를 21인으로 증원하는 것이 당국으로부터 승인되었음을 보고 받고 후임이사로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와 정운근 장로(서울중앙교회)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의 명칭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로 변경하고 학장 대신 총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이것은 당국의 권장사항으로 모든 대학들이 그 제도를 따르게 되었다.

이어서 일주일 뒤에 제64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때는 이사의 정족수가 늘어나서 참석이사로 임옥, 정진경, 이영덕, 장영춘, 박성수, 한철하 이사과 오재경 감사가 참석하였다. 불참하게 되어 위임한 이사로 최순영, 최태섭, 최창근, 김창인(광성교회), 박조준, 김동수, 장점연, 길자연, 김홍도, 임영수, 김삼환, 한진관, 김영조 이사과 강안삼 감사였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선교대학원 건축 현황을 보고받고 교육연구원 원장인 이영덕 이사로부터 교육연구원의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때 1992학년도 결산을 보면 총수입예산액이 22억 9천여만 원이었으나 총수입 실현액은 21억 2천여만 원이었다. 1993학년도 예산안으로는 총수입액이 24억 8천 7백만 원 정도였고, 이중에 이사헌금 1억 원과 학교에서 모금하는 1억 원으로 특별모금 항목 2억 원이 포함되었다.

1993년 마지막 이사회에서는 우리 대학 이사로 수고하는 김창인 목사(광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이 당시 신학대학교 안에 항공선교사훈련원이 세

워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항공선교라는 것이 한국 안에서는 생소하였는데 당시 우리 대학의 김영욱 교수가 한국항공선교회를 조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항공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때였다. 선교지향적인 ACTS였기에 항공선교훈련기관을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였던 것이며, 아울러 신학교 안에서 항공훈련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서 차기 총장(1994년 3월-1998년 2월)으로 한철하 총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1994년 5월에 열린 제66회 이사회에서는 신입이사로 정필도 목사(부산 수영로교회)와 신성종 목사(충현교회)가 추대되었다. 특히 우리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역의 진전과 발전을 위해 곡성 아세아 선교기금 및 교육연구원기금을 만들기로 하고 이에 따른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선교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의 교명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로 변경하였다.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학교의 발전을 위해 선교실을 통해 ACTS 발전헌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기로 하였다. 1993년부터 시작된 발전헌금은 1994년 11월까지 7천 2백 2십 7만 5천 원을 모금하였다(ACTS 總同門會報, December 1994).

무엇보다도 ACTS를 설립할 때부터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강조해 왔다. 이에 한철하 박사는 1994년 8월 “교수주례세미나”에서 “ACTS 신학공관”(Theological Synopsis)을 제안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1994년은 ACTS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앞으로 ACTS 신학의 방향을 확립해야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미 1988년에 발간된 ACTS Theological Journal Vol. 3에서 한철하 박사는 다음의 세 편의 논문들을 통해서 ACTS의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The Need and Scope of an International Theological Establishment in Asia”, “The Need for a New Theological Basis for the Evangelization of Asia: A Cross-Cultural Approach or a Historical Approach?”, “Meaning and Reality to the Theology of the Evangelization of Asia”.

이 논문들의 중심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확장으로 아시아의 역사적 특성에 맞고도 국제적인 성격의 신학기관이 아시아에 세워져야 하겠고 그곳은 국제적인 신학연구와 선교의 중심지여야 하며 아울러 평신도, 선교사, 목회자들의 훈련 및 영성 재충전의 기능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② ACTS의 모토인 ‘아세아복음화’는 기존의 타문화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ACTS에서 아시아 각국의 교회 지도자를 선발, 훈련하여 자국으로 돌려보내 자국민에 의한 선교를 하도록 지향하는 새로운 선교신학적 의미를 지닌 선교적 과업이다.
- ③ ACTS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과 복음 중심의 신학이어야 하고 특별히 구원론에 집중되어야 하며 복음사역을 위한 실제적이고도 실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신학적 방향이 선교학, 아시아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기독교사회윤리학의 모든 영역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⁷

“ACTS 신학공관” 제안은 ACTS의 설립이념을 확고히 하려는 시도이며 바른 복음주의 신학을 정립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ACTS의 모든 교수진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ACTS의 신학을 확

7 『ACTS 신학과 선교 30년』, 31-32.

립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다. 한철하 박사는 1986년에 이미 제안한 바가 있었고 7년이 지난 그 때 ACTS 신학의 중심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정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ACTS 신학의 기본틀(basic frame of reference)은 변함이 없으나 그 중심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던 것이다. 그는 “ACTS 神學共觀 提案”이란 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신학적 방향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⁸

기독교종교의 중심진리를 ACTS의 신학으로 확립하는 일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의 공의로우심과 영광을 견지하는 일이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 세계에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고 전제한다. 기독교의 중심진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예정선택과 죄 사하심과 중생케 하여 자녀를 삼으시는 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죄를 씻으시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중생함을 얻지 못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 ACTS 신학공관(Theological Synopsis)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기독교의 기본은 ①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이고, ②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였다는 것이며, ③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죄 사함을 주시어 새사

8 한철하, “ACTS 神學共觀 提案 -A Proposal for ACTS Theological Synopsis-”, 미출간물 (1994.8.28).

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복된 소망 가운데서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ACTS는 오늘날의 처지를 볼 때, 이를 널리 세계에 선양하기 위한 신학확립에 전진하는 동시에 “ACTS 신학공관”을 온 세계에 널리 선포함으로써 교회의 신앙확립에 이바지하여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1995년 1월에 개최된 제67회 이사회에서는 선교대학원에 관한 자세한 건축 진행보고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한철하 총장은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3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참여한 총 건축비 약 35억 원으로 건축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특별히 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해외에 있는 교회들의 중심축에 있는 장영춘 목사와 전체적인 일을 맡아 수고하고 있는 임옥 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선교대학원 건물은 ACTS의 설립이념에서 볼 때 매우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이며, 한국선교의 방향성과 선교연구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선교대학원 안에 세워지는 각국 선교연구원은 우선적으로 ACTS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면 그 연구원을 위한 기금 내지 후원금의 운영권은 그 기관의 설립자에게 보장해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당시 학교법인 정관 제7조 제4항을 보면 “個人이나 教會나 宣敎團體가 本大學內에 宣敎機關을 設立할 때에는 그 機關施設의 使用權과 그 機關의 運營權을 일임한다. 단 그 機關 運營規則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ACTS는 教會의 歷史上 처음으로 사도바울의 이방선교(롬 15:16)의 열매인 이방 教會들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진 첫 宣敎研究 및 敎育機關이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宣敎는 他文化圈宣敎이던 것과 달리 亞細亞의 각 민족 教會가 自己民族을 福音化하는 과업을 이루기

위한 研究와 教育을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던 主 예수의 “크신 분부”를 시행하는 일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무 다를바 없다. 다만 “他文化圈 宣敎” 대신에 각 민족의 自己民族福 音化를 통한 亞細亞福音化를 성취 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 외에 50여 한국 교회가 ACTS안에 自體機關을 설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ACTS가 한국 교회와 不可分離的으로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ACTS 存立이 한국 교회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한국 교회와 더불어 亞細亞福音化의 필수적 課業을 성취하여 나가게 됨을 의미한다.⁹

한철하 박사는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를 두 축으로 하여 신학과 선교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선교대학원의 건립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학교의 교지인 「아신 12호」에서 “21C 아시아 선교와 ACTS 선교대학원 센터의 역할과 기대”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한철하 박사는 ACTS가 세계 교회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선교의 요람이 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선교대학원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여기서 그 비전과 방향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 글의 일부를 발췌 수록할 필요가 있다.

1) ACTS 선교대학원 하나님의 기적

ACTS는 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ACTS에 아시아의 약 30개 국가에 대한 복음화 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CTS에만 오면 아시아의

9 『ACTS 요람 1991』, 40-41.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연구 자료들이 풍부히 장서되어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전문연구교수가 있어서 그 나라 복음화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만 한다. ACTS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6개 국가 내지 지역에 대한 46개 연구원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ACTS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 359개 이상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큰 기적을 이룩하고 있다. ACTS 선교대학원의 설립은 참으로 21세기를 바야흐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큰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ACTS 선교대학원의 구성

(1) 31개 시설

ACTS 선교대학원은 현재까지 모집되어 있는 46개 각 나라 선교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이 31개 “시설”을 46개 연구원이 나누어서 쓰게 될 것이다. 어떤 연구원은 단독으로 한 개 “시설”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어떤 연구원들은 공동으로 한 개 “시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2) 도서

연구원이 갖추어야 할 것은 도서와 연구교수이다. 먼저 각 나라 선교연구원이 갖추어야 할 도서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현재 각 연구원에 대해서 매년 300권 이상의 도서를 장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6개 연구원 중 제일 먼저 설립된 연구원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기념 태국선교연구원”이다.

이 도서는 각 나라에 대한 지역연구 자료와 선교연구 자료로 구분될 것이다. 예컨대 “태국선교연구원”에서는 태국에 관련된 언어, 인종, 지리, 역사, 문화, 사회 등 지역연구원에 필요한 도서들이 수집될 것

이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역사와 현실과 미래에 관련된 선교연구 자료들을 수집하게 될 것이다. 이 도서들은 우선 태국어 도서들로 장서할 것이며 또 외부인을 위해서 영어나 한국어 자료도 장서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료는 도서뿐만 아니고, 각종 연구논문이나 각 선교단체의 선교관계 각종문서 또한 태국의 민속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것이다.

(3) 연구교수

연구원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연구교수이다. ACTS 선교대학원 교수의 자격은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해당국의 유명대학에서 2년 이상 수학하고 관계 분야에 대한 석사 학위 소지자이다.

3) ACTS 선교대학원의 선교 기능

(1) 세계 교회와 아시아 선교의 두뇌 구실

ACTS 선교대학원은 아시아 각 나라에 대한 복음화 연구기관이다. 위에서도 본대로 아시아 각 나라에 대한 지역연구 자료와 선교연구 자료를 풍부히 소장하게 될 것이며 수년 내에 30여 명의 각 나라 복음화 전문 연구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공히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귀중한 선교 두뇌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두뇌는 첫째로 기억의 저장소이다. 각 나라의 선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 두뇌 속에 저장된 것이다. 두뇌는 이와 같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경험하게 되는 사실들을 평가한다. 두뇌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한다. 이와 같이 ACTS 선교대학원 산하 각 나라에 대한 선교연구원은 해당국의 선교경험들을 컴퓨터에 기억시킬 것이며 진행되는 복음화 과정들을 평가할 것이며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한 선교계획들을 창출해

낼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에 대한 선교 두뇌는 한국과 세계의 모든 교회에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2) 아세아복음화 세력 형성

① 자국 복음화 세력 형성

ACTS는 시초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각 나라로부터 자국 복음화 요원을 모집 훈련하여 보내왔다. 000명의 ACTS 동문은 자국 복음화 역군들로서 각기 자기나라 교회의 요직에서 사역하고 있다. 앞으로 46개의 각 나라 선교연구원에서는 해당국에 대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당국 복음화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진행하는 것과 같은 각종 학위 프로그램 이외에도 “주교 교사” “장로” “여전도회 지도자” 등에 대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은 자국 복음화를 위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② 선교세력 형성

ACTS 학부학생들은 아세아선교학과 학생은 물론이요, 신학과 학생들까지도 각기 관심있는 각국 선교연구원에서 그 나라 복음화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ACTS의 전 학부학생을 아시아 각 나라에 대한 선교세력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ACTS에서 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게 될 것이며, 선교사가 현지에 파송되지 않더라도, 소속 교회에서 관심있는 국가에 대한 선교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하게 될 것이다.

선교대학원의 대학원 과정도 각 나라 선교에 관심있는 평신도들을 각 교회에서 모집해서 “선교학석사” 과정에서 관심있는 나라에 대한 복음화 연구를 하여 일반직업을 가지면서도 해당국 선교에 평생토록 종사하는 선교세력으로 형성될 것이다... 물론 각국 선교현장에서 이미 선교사로 활동하는 선교사의 재교육이나 선교지를 새로

이 떠나는 선교사들에 대한 해당국 복음화 연구를 시켜서 해당국 복음화 세력으로 삼는 일은 선교대학원이 해야 할 일 중 주종을 이루게 될 것이다.

(3) 아시아 각국에 대한 선교협의운동 전개

ACTS가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제 ACTS 선교대학원이 전개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선교협의운동을 통해서이다. 선교대학원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선교 두뇌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은 주로 이 선교협의운동을 통해서다. 즉 ACTS 선교대학원이 아시아 한 나라에 대한 한국 교회의 선교협의에 응해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각 나라에 대한 선교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실제로 선교하도록 충전하는 일이다. 이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고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대학원 산하의 각 나라 선교연구원에서는 항상 또 연례적으로 해당국에 대한 선교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예컨대, 태국선교연구원에서는 태국선교에 관심있는 신도, 선교단체, 교회들을 상대로 항상 “태국선교 세미나”를 개최하여 태국선교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태국복음화사역을 하도록 촉구하고 또 그 선교를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례 선교협의회이다.

- ① 매년 가을에 연례 태국선교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태국선교에 관심있는 교회들을 초청하여 태국선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 대회에 연구교수는 태국선교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구체적인 선교사업안을 제출하여 참가교회들로 하여금 다음 해의 선교사업을 채택케 하고 선교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 ② 연초에 가서 선교대회를 통해서 채택된 선교사업들을 파악하여 각 나라 선교연구원에서는 일년 동안 그 채택된 선교사업들의 진

행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특히 여름에는 선교현지를 방문해서 그 진행상황과 복음화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여 연례 선교대회에 제출한 평가서와 새 선교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③ 제2차 연도 선교대회에서는 필히 전년도에 참여하였던 모든 교회들과 또 더 많은 교회들을 채택하여 각 나라에 대한 선교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리 준비된 a) 전년도에 채택되었던 선교사업들에 대한 선교진행 보고, b) 그에 대한 평가서, c) 수정된 새로운 선교계획서들을 제출하여 참가교회들로 하여금 다음 해의 선교사업으로 채택하도록 할 것이다.
- ④ 이와 같이 하여 선교대학원 산하 각 나라 선교연구원에서는 각각 해당국에 대한 선교협의운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책임 선교단체 등의 교회가 성장하고 그 나라 모든 심령들이 구원 얻기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겠다.
- ⑤ 선교협의운동은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각 나라 선교프로젝트에 대한 선교협의뿐만 아니라 해당국 복음화사역에 대한 해당국 복음화협의회, 또한 해당국 선교단체들로 구성되는 선교협의회, 또는 한국 교회 지도자와 피선교지 교회 지도자 간에 해당국 “복음화협의회” 등 다양하게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⑥ ACTS 선교대학원 산하 46개 선교연구원이 00개 국가에 대한 선교협의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켰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각 도시, 캐나다, 남미, 유럽 등 전 세계에서 ACTS 선교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진실로 ACTS는 첫째, 세계복음화 연구의 중심이 될 것이고 둘째, 세계복음화 세력형성의 귀감이 될 것이고 세계 교회의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다가올 21세기에 참으로 ACTS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크게 진전되

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한다.¹⁰

또한 선교대학원 안에 아세아신학대학원(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GST)을 세워서 아시아의 선교연구를 위한 대학원을 만들기 로 하였다. 건립을 위한 기금은 광성교회에서 1억 5천만 원, 명성교회 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AGST가 ATA의 인 준 아래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한국 정부에서 인정한 대학원이 아니라 는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선교대학원 건물 안에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유명무실해져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이미 대학원 안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된 면이 있었고, 외국인 학자들을 초빙하여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재정보조의 어려움과 학사행정의 중복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학교 건물과 주변환경의 외형적인 변화도 많았다. 교내 적으로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일이 있었고, 교외적으로는 학교에 들어오는 길이 좁은 2차선 도로에서 캠퍼스 북단의 산허리를 뚫는 4차 선 국도로 확장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국도가 만들어지면서 학교의 진입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30억 원의 건설비가 필요하였다. 다행히 이영덕 이사의 수고를 통해 정부가 진입 로를 만들어 주었고 그 위로 육교가 세워졌는데 그 이름 또한 “복음교”라 명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이 진입로가 우리 대학을 출입하는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대학에 학부 과정으로 입학정원 80명(신학과 40명, 선교학과 40명)의 야간학부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대학원 및 신학대학원생 약 100여 명을 증원하기로 하였다.

10 "21C 아세아 선교와 ACTS 선교대학원 센터의 역할과 기대", 「아신 12호」

야간학부 신설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의 요구로 정규남 부총장과 우심화 학생처장이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총학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야간 학부 설치에 대하여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학교측이 설명하였다. 하나는 학부 운영의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신학에 열의가 있으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아신학보」, 제35호, 1994. 11. 21).

이때는 교육부의 제재가 심하지 않은 때이어서 반드시 우리 대학의 양평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ACTS는 법인체는 달랐지만 ACTS라는 이름 아래 함께 운영 관리해 온 서대문 캠퍼스가 있었기에 야간학부 수업을 그곳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구분없이 건물과 장소를 사용하여 수업도 하였지만, 그 후 교육부로부터 법적인 제재가 한국의 대학교에 강력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곳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교라는 특성으로 볼 때, 서대문에 소재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였다면 학교발전에 크게 유익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한 선교발전의 일환으로 ACTS에 항공선교학과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무디항공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항공사 교육 과정이며 ACTS에서 2년의 예비교육 과정을 마친 후 선발 과정을 거쳐 무디항공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무디항공대학에서 항공사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미연방 조정사, 정비사, 통신사, 계기 면허, 교관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미국국제항공선교회(MAF)와 한국항공선교회(MAFK, 대표: 김영욱 교수)의 파송을 받아 37개국에서 항공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신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

우리 대학은 교단의 배경이 없는 교회연합적인 대학인데다 개인 후원자들이 적은 상황에서 1992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ACTS 후원회 회장 임옥 목사,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박조준 목사 등 여러 이사들이 있기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무사히 넘어올 수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1995학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액이 ACTS 후원회의 3억 원을 포함하여 32억 1천 3백여만 원이 책정되었다.

이 당시 ACTS는 소속 교단이 없는 관계로 바른 신앙과 신학을 견지해 가는 데 있어서 교회적 배경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에 한철하 총장은 세계 신학계의 흐름을 우려하면서 신앙적 혼란이 우리 대학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교수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게 된다.

우리는 “ACTS 신학운동”과 “신학운동”을 마치 전혀 새로운 것처럼 세계를 향해 외치고 선양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 오늘날 서양 신학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계의 전반적인 신학계와 교계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할 때 그들이 역사적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해 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대의 신학계와 교계는 여전히 종래의 기독교 종교 형식들(성경, 신앙고백문, 예배, 의식 등)을 취하며 다루고 있지만 그 종교의 핵심 내용은 망각해 가는 추세에 놓여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학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그 방법론이 또한 그릇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기독교 안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판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아무리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선교’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진정한 능력과 부흥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¹¹

이와 같이 한철하 총장은 ACTS의 신앙과 신학의 기틀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시급함을 역설한 후, 이사들 중에서 임옥, 김창인(광성교회), 이영덕, 길자연, 김홍도 5인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의 합법성을 확립하기 위해 강안삼 감사를 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

ACTS는 복음주의 신학을 근간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 대학 교수들의 바른 신앙과 신학을 고취한다는 명분 아래, 이사회 안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에 삽입하기로 하고 위에서 언급한 교수징계위원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5인이 그 일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재임용된 교수로는 글렌 젠트(Glenn Jent) 및 김영욱 교수가 있었고 승진 및 재임용 절차를 밟고 있었던 원종천, 안영권, 우심화 교수에 대하여는 한철하 총장이 이사회에 임면권(任免權)을 위임함에 따라 이사 5인 위원회(임옥, 김창인, 이영덕, 길자연, 김홍도)에서 처리기로 하였다. 1995년 9월 29일부로 이사장과 총장은 동시에 사임하고 이사장이 추천하는 4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는 이사장과 총장의 합의서 건은 일단 두 사람의 임기까지 시무하도록 결의하였다. 이후 다시 수정이 이루어져 이사장과 총장이 함께 이사장 임기까지 시무하도록 결정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최순영 이사장과 한철하 총장과의 갈등 관계가 표출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이런 분위기 가운데 교수들도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였다. 특히 그

11 『ACTS 신학과 선교 30년』, 27-28.

중심에는 일방적으로 한철하 총장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박용만 교수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대다수 교수들이 박 교수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있던 터라 부득불 박용만 교수로 하여금 안식년을 갖게 하고 연구비 지급은 총장이 권한을 갖고 결정하도록 제70회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1995년 3월 13일 교수회의에서 한철하 총장은 강창희 교수를 학감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3월 20일 교수회의에서 몇 가지 주시할 사안들을 한철하 총장은 언급하고 있다.

첫째, 안식년 중인 안영권 교수는 부총장과 대학원장에 의해 인정된 두 편의 소논문을 제출함으로써 다시 가르치게 된다는 조건을 언급한다. 두 논문의 제목은 “기독교 신학의 일치성”(The unity of Christian theology)과 “선교학과 관련한 ACTS의 신학적 공관”(ACTS' theological synopsis in relation to missiology)이었다.

둘째, 박용만 교수가 보내온 사직서를 즉시로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유광웅 교수와 안영권 교수를 다시 받아들여지는 몇몇 교수들의 청원에 대하여 승진의 때가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넷째, 유광웅 교수의 경우는 이사진의 결정에 대하여 모든 교수들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해 3월 27일 교수회의에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노봉린 교수를 원장으로 하여 한국세계선교사훈련원을 개설하게 된다. 선교후보생들이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될 때 학점을 부여하며 나중에 ACTS의 학생으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과목에 대하여 학점비를 내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현실성이 없고 현행 교육제도상 실제로 적용이 어렵게 됨으로 이 프로그램은 사멸되고 말았다.

1995년 8월 교수회의에서는 2학기에 대학원생 63명이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한철하 총장은 리더십의 문제와 소송문제로 관계가 어려워졌던 유광웅 교수와의 문제를 사과하였고 유 교수

가 2학기부터 다시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박용만 교수는 사직하게 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교수들 간의 갈등관계는 일단락되어가는 듯 싶었다.

1995년 9월 18일 교수회의에서는 가을학기에 등록된 총학생 수는 400명이고 졸업후보생은 27명이 됨을 보고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학기에 돌아오게 된 유광웅 교수가 마무리 기도를 하였다. 그해 전호진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일부가 ACTS의 교수들이 인도네시아로 와서 선교사들을 위해 수업을 개설하는 선교사연장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현재로는 교수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결정을 하였다. 1993년부터 서대문 캠퍼스에서 시작한 ‘선교사연장교육’의 선교지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이때부터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마지막 교수회의에서는 다음 해부터 한국어 논문집 『ACTS 신학저널』(ACTS Theological Journal)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중에 한국어 논문집은 『신학과 선교』로 이름이 붙여진다.

1996년에 들어서서 2월 교수회의를 통해 선교사연장교육이 태국 방콕에서 6월 10일에서 21일까지 열리게 되는 것을 인준하였다. 물론, 선교사연장교육의 학위 과정은 한국의 교육부와 무관한 아시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 ATA) 인준 학위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서 겨울학기에는 M.A.와 Th.M. 과정이 필리핀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을 5월 교수회의 때 보고하였다.

이 당시 미국의 풀러신학교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던 때이었는데, 신학사(B.Th.) 학위만 소지한 자가 목회학박사(D.Min.)에 지원할 경우 2년 과정의 M.A. 신학 과정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또한 목회학박사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적어도 1천 명 이상의 교인이 있는 교회의 목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선교사연장교육에 대한 이수학점을 확정하였다. Th.M. 과정

은 학위논문 6학점을 포함하여 32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M.A. 과정은 논문 2학점 외에 3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2학기부터 새로운 보직발표가 있었다. 대학원장 노봉린 교수, 교무학생처장 안영권 교수, 외국인 학생(Overseas Student Association: OSA) Director 최종태 교수, 야간학부담당 김영옥 교수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교수회의 서기 임무를 글렌 젠트 교수에게 맡겼다. 이 당시에는 외국인 교수들이 함께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기 때문에 교수회의록을 영어로 기록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아세아학과와 선교학과를 아세아선교학과로 통합하여 1997학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결정이었다. 학과의 특성상 아세아학과 선교학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공통되는 연구의 분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세아선교학과와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언어를 강화하였다. 4년간의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힌디어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ACTS는 설립초기부터 매년 ‘선교대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특히 1976년부터 제정하고 실행해 왔던 아세아 선교의 날은 제 17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때는 선교예배, 각국 선교협의회 및 선교보고(아세아복음화위원회, 아세아복음화 장학회, 아프리카선교위원회)가 있었다.

1996년 10월 10일에 개최된 선교대회 때에는 각 교수들이 하나의 선교그룹을 맡아 그 선교지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참여하게 한다는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 한편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풀러신학교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인 D.Min. 과정과 관련하여 관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안영권 교수가 보고하였다. 아울러 당시 치유 선교(Healing Ministry)와 관련된 교수들은 B.A. 혹은 B.S. 학위를 소지한 자가 그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

1996년 11월 제71회 이사회에서는 향후 ACTS가 가야 할 방향을 결

정하는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였다. 이사장과 총장의 갈등관계와 교수들의 내분이 겹쳐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선임을 위해 이영덕, 장영춘, 김삼환, 길자연 이사가 공천위원이 되어 토의 후, 김홍도 이사를 차기 이사장에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인 최창근, 정진경, 이영덕, 한철하, 김창인(광성교회), 박성수에 대하여 재연임할 것을 가결하였다.

이때 우리 대학의 토지 일부가 새로운 도로 건설에 따라 건설부에 수용되면서 양서면 북포리에 걸쳐 있는 임야 일부를 매각하고 약 3천 8백 8십여만 원의 보상액을 받게 되었다. 또한 1996년 9월 1일부로 한상화, 이교육 교수가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장해경 교수가 전임강사로 재임용 되었다.

5. 특성화 준비

1997년 2월에 열린 제72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학교법인에서 6억 8천 8백여만 원의 수입과 대학교에서 47억 5백여만 원의 수입이 책정되었고, 사학진흥기금에서 예상보다 3억 원이 더 배정되어 선교대학원 모금액 중에서 3억 원을 정문 진입로 및 운동장 조성비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이사장 제도가 만들어져서 학교법인 내에 최태섭 부이사장, 해외이사 대표 및 목사 대표로 장영춘 이사를 부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이사회 안에는 “신학위원회”와 “학교발전 및 재정위원회”가 신설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신학위원회는 이사회 수준에서 ACTS의 신학적 입장을 명시하고 바른 신학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지도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학교발전 및 재정위원회는 학교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재정운영을 관장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각 위원회의 선임은 이사장과 총장이 전권을 갖고 결정하도록 위임을 받았는데, 신학위원회 위원으로 장영춘, 길자연, 한철하 이사를 선임하였다가 3개월 후에 열린 제73회 이사회에서 박조준 이사를 추가하였고, 학교발전 및 재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삼환, 한진관, 정필도 이사를 선임하였다. 아울러 교육시설(강의실 및 도서실 신축)로 6억 원, 학교진입로 및 운동장 조성공사비로 3억 원, 합계 9억 원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용자를 받도록 결의하였다. 1996학년도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결산을 보면, 학교법인에서 8억 6천 9백여만 원의 수입과 지출이, 대학교에서 5십억 1천여만 원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 점차로 학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해 3월 교수회의에서 노봉린 교수가 보고하기를, 그동안 풀러신학교와 ACTS가 D.Min.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풀러신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더 이상 이 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다는 것이었다. ACTS에서는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원한다는 교수진의 뜻을 풀러신학교 측에 전달하였으나 결국 중단됨으로써 새로운 학생들을 받지 못하고 이 프로그램은 단절되었다. 5월 교수회의에서는 학생들에 의해 교수들도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공지하였고 「ACTS Journal」에는 영어로 논문을 제출해야 하고 복음주의 관점에서 공관(synopsis)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수들에게 요구하였다. 이 당시 학부생들은 전체 640명 중에서 594명이 등록을 하였다. 한철하 박사는 1997년 4월 25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KETS) 주제발표를 통해 “신학공관”(Theological Synopsis)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게 된다.¹²

¹² 한철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학공관 제안”, 미출간물(KETS 제29차 논문발표회, 1997.4.25).

이 일이 필요한 것은 기독교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오늘의 세계신학계에서 완전히 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세계 교회로 하여금 이 가장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내용을 되찾도록 하게 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는 위에서 이 중심진리가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실천 분야 전체를 일관하는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유일의 진리가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실천신학을 일관하는 중심진리라면 신학의 이 각 분야에서 마땅히 이 중심진리를 선양하는 일을 주요 과업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KETS의 저 각 분야에서 저 중심진리를 공관하게 된다면 이것은 KETS가 세계신학계를 향하여 또 전 세계 교회로 하여금 21세기를 준비시키는 크고 필수적인 중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교육 이념의 불확실성입니다. 무릇 인간교육의 성패는 전적으로 확고하고 소신있는 또 비전에 찬 신학교육이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광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은혜의 내용(Christ and all his benefits)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복음신앙”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말씀사역”을 교회 안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와 교사(pastor and doctor)를 또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것들을 교육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fides ex auditu) 옴으로 우리는 소신에 찬 은혜의 말씀 사역자들을 키워서 이 일을 감당케 해야 하겠습니다.

점차로 ACTS 신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신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사회 내에 5인 연구위원(김홍도, 이영덕, 장영춘, 김삼환, 길자연)이 세워지고 앞으로 복음주의 신학을 견고하게 지켜가겠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로 인한 교수진도 보강하게 되면서 정홍호, 신치용, 김창용, 박일철 교수가 신규 임용되고, 주준희 교수가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또한 글렌 젠트, 정혜립 교수가 재임용되고 전호진 교수가 다른 대학으로 이직함으로써 우리 대학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학교의 리더십에 관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수들 안에서도 어려운 관계가 지속되었고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유광웅 교수에 대한 징계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자진사퇴의 방향으로 타협을 이루어가며 징계의결은 유보하기로 하였다.

선교대학원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로부터 선교대학원 인가를 받았다. 입학 정원은 36명으로 중국선교학 전공 12명, 베트남선교학 전공 12명, 태국선교학 전공 12명이었다. 또한 새로운 이사로 선임된 이의숙 이사가 1억 원을 헌금하였고 이를 “이성봉 목사 기념 ACTS신학연구원 운영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숙사를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학생 생활관을 건축하기 위해 총공사비 약 30억 원 중 20억 원을 사학진흥재단에 용자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현 총장의 임기가 점차로 만료되어가는 가운데 후임총장 선임을 위하여 김홍도, 임옥, 장영춘, 이영덕, 한철하, 김삼환, 길자연 이사들 7인이 선정되었다.

특이사항으로 정관 제3항 (1)조 ②호 전임연구교수의 임면 사항에 “단 연구능력이 활발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교수 정년은 만 65세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서 임의로 만든 것임으로 결국 실질적인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여 사문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1997년 6월 23일 교수회의에서 치유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선교학과 사이에 정체성과 상호관계성에 관한 문제는 그 영역에 관련된

교수들에게 맡겨져야 하고 대학원장이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계속해서 ATA(아시아신학연맹) 인준 학위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ATA 인준의 M.A. 학위 과정은 학위논문을 출간할 필요 없이 주심 한 사람의 지도와 승인으로 끝마치고 구두시험도 치루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교육부 인정의 M.A. 학위는 기독교교육학과에만 해당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신학과 선교학 분야에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신학과 선교를 확립해 가는 과정 가운데 1997년 가을학기 교수퇴수회(홍천 대명콘도)에서 “Wesley 信仰覺醒運動과 ACTS 神學運動의 方向(I)”을 한철하 박사는 제안하였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존 칼빈의 신학을 근간으로 하여 요한 웨슬리의 신앙운동을 접목시키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갔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의 복음주의운동과는 달리 18세기의 경건주의운동, 각성운동은 오히려 기독교 종교의 중심에 충동을 받은 신앙운동으로서 역시 성경과 어거스틴-종교개혁의 중심을 잇는 복음의 핵심에 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신앙운동이 필립 스펜너(Philip J. Spener, 1635-1705), 어거스트 프란케(August H. Franke, 1663-1727)의 맥을 잇는 독일의 경건주의운동의 영향을 받은 하나의 신앙각성운동으로서 그 근원을 칼빈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Doctrines and Discipline of the Methodist Church)에 나타난 감리교 속회운동의 기원에서 18세기 복음주의신앙운동도 역시 기독교 종교의 전 역사를 일관하는 동일한 “복음주의신학운동” 선상에 섬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1944년판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총칙(The General Rule) §91-§97에는 다음과 같이 감리교 속회운동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37년 말경 런던에서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구속받기 위해 신

음하는 8인 내지 10인의 사람들이 웨슬레이씨를 찾아 왔다. 이들은 웨슬레이씨에게 어떻게 장차 임할 진노(the wrath to come)를 피할 수 있을지 기도와 충언을 청하였다. 이들은 마치 그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의 머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hanging over their heads) 같이 보였다. ‘이제 임할 진노에서 피하여 저들의 죄에서 구원얻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는가?’(a desire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to be saved from their sins)이다. 이와 같은 열망을 가지게 될 때 열매로서 그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사실 내가 일생 장로교인이었으나 감리교로 새로 입교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감리교인이 되어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운동은 칼빈신학의 중심인 코람데오(Coram Deo) 즉 하나님 존전에서의 심각한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일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봅니다(한철하, 1997. 4. 25)

무엇보다도 1997년 10월 30일 양평 캠퍼스에서 선교대학원 준공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기로 “신학과 선교”라는 균형이 잡힌 두 가지 중심축을 확고히 실현해 나가게 된다.

선교에 대한 ACTS의 비전은 선교대학원을 시작하면서 구체화되었다. 1988년 7월 26일 한인세계대회 시에 김철용 목사 외 10여명이 휘튼(Wheaton)에 모여 ACTS 연합선교대학원 이사회를 발족한 후 89년 5월 2일에는 한국에서 임옥 목사 외 18명의 목사, 장로가 세계선교대학원 이사회를 조직하여 선교대학원이 창설되었다. 그 후 남미,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및 한국 내 293개의 교회 및 선교단체 및 개인의 참여로 1997년 10월 양

평 ACTS 캠퍼스에 선교대학원 준공 감사 및 개원예배를 드림으로 ACTS의 연구 및 교육의 이중구조가 가시화되었다. 선교대학원은 ACTS 선교의 핵심이며 ACTS의 선교적 본질의 구현체이다. 선교대학원은 각국 선교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교육, 협의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¹³

1997년 11월 교수회의에서 한철하 총장은 선교대학원 이사회의 승인 아래, 각 전임교수들이 각국 선교연구원 사무실에 배정될 것이며, 그 업무와 관련한 연구원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공시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ACTS 선교연구원 운영규칙”이 만들어졌다. 이를 근거로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각 선교연구원 연구교수의 자격 및 인사절차를 언급하고 각 연구원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독립운영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신학교 안에 각국 선교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계획은 어느 신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구상이었으며 선교연구에 아주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구조를 확립하였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1997년은 1998학년도 대학종합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에 힘을 기울인 한 해였다. 1997학년도 초에 자체평가를 위한 준비를 시작으로 총장의 지휘 아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해 6월에는 전 교수 및 교직원들에게 자체평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11월부터 자체평가 연구위원으로 임명된 교수들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3 『ACTS 신학과 선교 30년』, 74.

● 자체평가 위원

· 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창희 교학처장

위 원 원종천, 안영권, 김영옥

· 연구위원회: 위원장 강창희 교학처장

위 원 오춘희, 이숙경, 우심화, 원종천, 안영권, 정홍호

· 실무위원회: 위원장 김동일 교무과장

위 원 위현숙



자체평가위원회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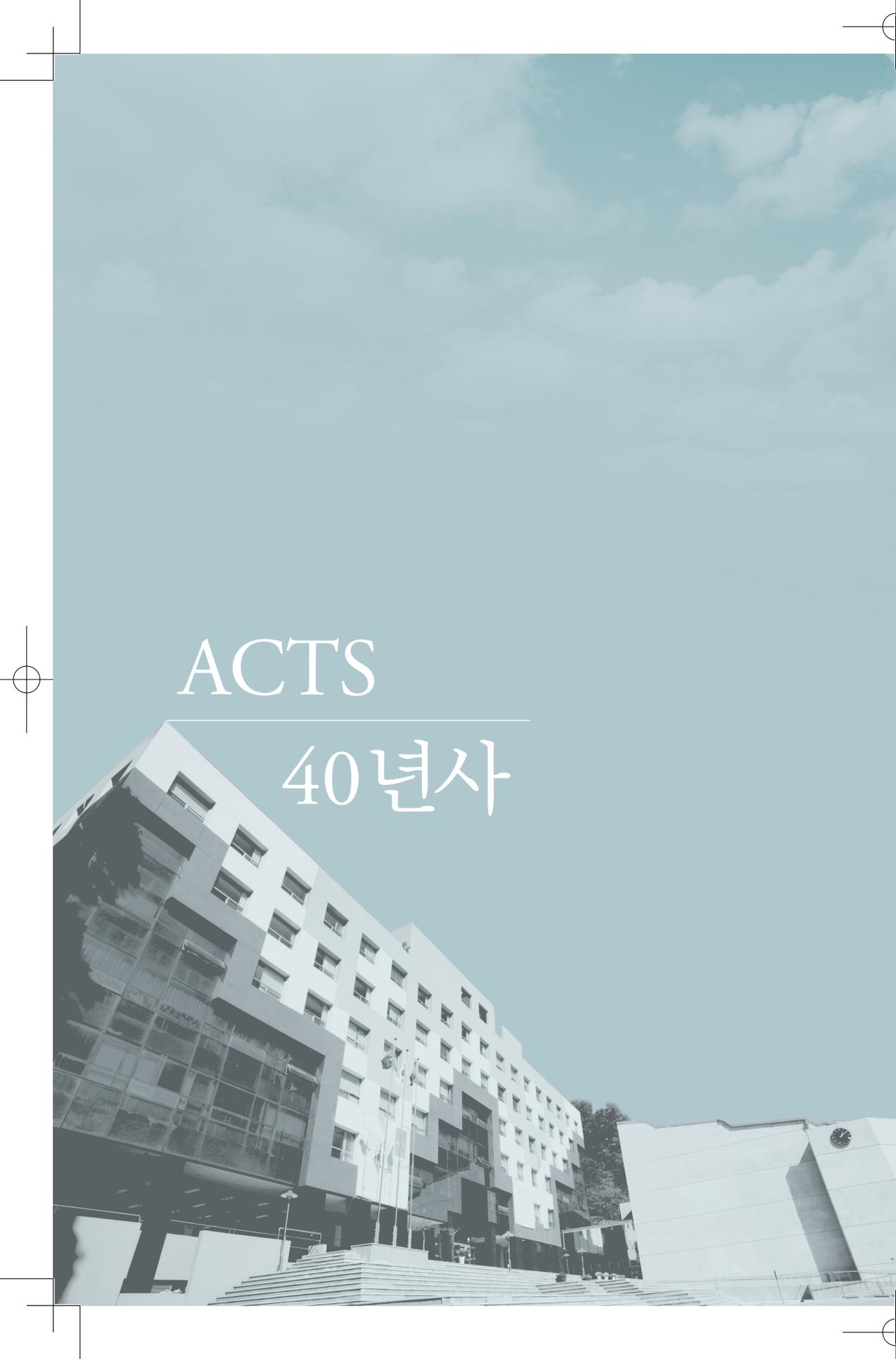
우리 대학은 소규모의 신학대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분류를 하기 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총장을 수반으로 하는 교수회와 각종 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대학과 대학원으로 분류를 하였다. 이때 전임교원은 21명이었으며 이 중 보직교원 수는 3명에 불과하였다.

교수회와 각종 위원회는 학내 중요 안건들을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제안 내지는 의결을 하였다. 당시 위원회의 종류를 보면 입학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대학원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학보·교지출판위원회, 기숙사위원회, 도서관위원회, 목회위원회,

논문집·학교안내문출판위원회, 장학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논문위원회 등이 있었다.

1997년 당시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신학대학원이 있었다. 선교실은 각국 선교연구원과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후원 교회의 확보 및 학교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 선교홍보실로 명칭을 바꾸고 그 기능이 확장되었다. 당시 조직상 3개의 연구소, 즉 공산권선교연구소, 아세아학연구소, 신학연구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신학연구원만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로 선교대학원이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각국 선교연구원(현 세계지역연구소)을 만들게 됨으로써 다른 선교연구소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ACTS 신학 건립의 중요성과 바른 복음주의 신학의 인식과 전파가 시급한 상황에서 신학연구원의 기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인 외국인 학생(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 ISA)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이 점차로 확산되고 학생 수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영어수업 과정에 한국 학생(Korean English Students Association: KESA)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처음으로 KESA 학생 21명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정홍호 교수의 지도 아래 중국 북경으로 단기선교실습을 다녀오기도 했다.



ACTS 40년사

제4장

확장기(1998-2005)

우리 대학이 개교한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세계의 동향도 크게 변하였고 한국의 상황도 매우 달라졌다. 특히 21세기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돌입하였고 각 분야에서 무한경쟁을 펼치게 되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세계의 흐름을 내다보는 안목과 변화가 있어야만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는 우리 대학이 시대와 현실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며 또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본 대학의 복음적 사명과 시대의 필요에 적합한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간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 우리 대학은 1997년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담임)의 제4대 이사장 취임과 더불어 림택권 목사(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의 제5대 총장 선임 그리고 학교 설립 때부터 25년 동안 본 대학을 위해 헌신해 온 한철하 박사의 명예총장 추대로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고 우리 대학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확장의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1. 대학종합평가와 학교발전계획

이 시기에 우리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대학종합평가(1기 1998년, 2기 2005년)와 교양교육 분야 평가를 받았고 이와 더불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큰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1.1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

1998년 11월 16일, 17일 2일 동안 실시한 대학종합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인정”을 받았다. 특히 재정, 경영 영역은 우수 대학으로 “인정”되었고 행정 및 인사 영역은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연구, 사회봉사, 시설 설비 영역에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우리 대학은 1999년부터 연구 영역을 강화하기로 하고 연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다. 아울러 교원의 자질 함양과 연구를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 강의평가제를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였으며 정교수 승진기준도 강화하였다. 행정과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직을 최대한 간소화하였고 직원인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대학종합평가에서 학생상담실 개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1999년 3월 학생상담실을 개원하고 1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하여 전 교생을 대상으로 학업 및 신앙, 진학, 취업 등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차기 대학종합평가를 대비하여 교육시설과 학생복지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강당의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0년 6월 28일부로 이사회에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2 교양교육 분야 평가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를 거치면서 우리 대학은 교양교육 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의 역사는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올바른 국가관을 지닌 교양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양교육 설립기(1982-1988년)
- ② 폭넓은 지식을 지닌 교양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양교육의 확장기(1989-1993년)
- ③ 전공과 연계된 기초 소양을 강조하는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한 기초 소양 강조 교양교육기(1994-1998년)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으나 개교 이래 교육환경은 급속도로 변하였다. 이에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을 견지하고 구현하면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1998년 11월 교과과정위원회 내에 교양과정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교양과정소위원회는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교양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와 교양교육 발전을 각 분야별 발전계획과 조율하는 임무를 맡고 우리 대학에 적합한 교양교육 과정, 가칭 “ACTS 교양교육 과정”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ACTS 교양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을 반영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기독교 지성인을 키우는 것이다.

ACTS 교양교육 과정은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춘 기독교 지성인”을 양성한다는 교양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강한 삶, 생각하는 삶, 섬기는 삶의 3가지 큰 영역으로 교과목

들을 나누었다. ‘건강한 삶’에서는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과목들을, ‘생각하는 삶’에서는 가치혼란의 시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분별력을 키우는 과목들을, ‘섬기는 삶’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교역자의 자세와 덕목을 익히는 과목들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교양교육 과정 개편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1년 10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교양교육 분야 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았다.¹

1.3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우리 대학은 2005년 10월 두 번째 대학종합평가를 받았다. 대학종합평가의 종합결과는 학부 및 대학원이 각각 “인정”을 받았고, 평가영역별 결과는 발전전력 및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학생 및 교수-직원 영역에서 각각 “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았다.² 대부분의 요소에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강점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본 대학의 관계자들은 종합평가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수렴하여 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내용들을 개선하기로 논의했다.

교육(학부) 영역에서는, ACTS의 교육 과정들이 기독교 신학과 신앙 중심의 교과편성에서 과목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선교를 위해 비기독교인들의 삶과 정서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넓은 교양과목이 필요하고 심지어 교양과목에 자연과학과 체육 등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아시아 선교를 지향함으로 학부 교육 과정에 아시아 관련 과목을 증설할 것을 계획했다. 영어과목은 시간만 늘

1 제80회 이사회 회의록(1999.5.4).

2 「2005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위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종합평가보고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output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학부에 ‘연계전공’을 제도화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계전공은 최근에 여러 대학에서 대학원의 ‘협동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다. 학사 경고자는 추후 관리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담임교수제를 통해 예방차원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방차원에서 “학습클리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교과 과정에 관한 과목별 평가와 연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회봉사 영역에서는, 평생교육원이 양평균과 더욱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아울러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사회봉사가 아니라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생(학부) 영역에서는, 학부 졸업생에 대한 평판도 조사의 표집인원을 50명 이상으로 늘릴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담임교수제는 졸업생들을 계속 관리해 주는 평생담임제로 가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고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취업과 관련하여 학생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외부에서도 직접 취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계획하기로 했다.

교수(학부) 영역에서는, 교수 인사와 관련해서 ‘특채’를 활용하여 공채의 자격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학교가 꼭 필요한 사람을 뽑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승진재임용 평가에서 ‘사회봉사’의 비중을 높이는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원 영역에서는, 직원(학부)의 ‘업무실명제’를 실시해서 그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조언을 받았다. 현재 직원의 평가기준이 소위 ‘전문성’ 위주로만 되어 있고, 상급자 평가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원의 ‘서비스 태도와 질’이 주된 평가기준이 될 전망임으로 직원 평가 체제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작은 규모 대학에서 갖추어야 할 직제가 많은 이유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학교 크기에 비해 직원이 과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수(대학원) 영역에서는, 교수 확보율은 높는데 반하여 시간강사의 존율이 높은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수도 너무 높은 것을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교육(대학원) 영역에서는, 대학원 교과 과정의 개편주기가 현재 4년이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주기에 따라 2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고 고려하기로 했다. 타신학대학원들과의 교류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³

1.4 학교발전계획

우리 대학은 1973년에 아세아복음화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도서관금 확보와 캠퍼스 구입 및 확장을 위한 제1단계, 제2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1982년 대학인가를 받은 후에는 아시아 선교를 위한 지도자 양성이라는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3단계, 제4단계 학교발전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아시아 선교를 위한 교육의 기본구조로 신학과, 아세아학과, 선교학과와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교수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였다. 1990년에는 본 대학의 교육목표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5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제5단계 발전계획은 원래의 목표에 입각하여 학교를 건설하게 확장하고 질적인

³ 「2005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위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종합평가보고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 당시 토의 자료.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선교대학원 건립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1997년 말 선교대학원 완공으로 본 대학의 시설 환경이 크게 향상되었다.

1.4.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

1998년에 수립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은 21세기에 우리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여 육성해 나갈 특성항목으로 선교를 재천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선교는 사실 우리 대학의 목적이자 정체성이면서 세계화를 향하는 시대적 요구이며 교육의 모든 다양성을 취합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라 우리 대학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학과와 기관의 다양화를 이루었다. 학부와 대학원에 학과를 증설하였고 도서관을 신축하고 생활관을 리모델링하는 등 학교 기반시설을 보충하였다. 2003년 3월 평생교육원을 개원하였고 2005년부터는 한국 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받아 신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학점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 대학은 현대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학교의 제반 업무를 전산화하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보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1.4.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 2004-2012

(ACTS Mission 2012)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동향은 급변하였고 현대 사회의 교육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시대와 현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학교발전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우리 대학 각 구성원의 의견과 선교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장·단기 발전 계획 2004-2012”(ACTS Mission 2012, 이하 ‘장·단기 발전계획’)를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선교를 대학 특성화 목표의 중심 분야로 확정하고 본 대학이 국제적인 선교중심 대학으로 위상을 굳건히 확립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는 선교지향적인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 대학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분명히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 장·단기 발전계획 재정립의 필요성 및 방향⁴

① 장·단기 발전계획 개선의 필요성

정보화 및 세계화 등 21세기의 시대적 흐름은 대학교육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즉 대학은 지금보다 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대량정보의 흐름과 공유화의 시대 속에서 차별적인 특성화를 통해 각 대학의 고유한 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아시아 각 지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아시아 각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다양하고도 새로운 요구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아세아복음화를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선교전략과 선교 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이미 신학대학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여타 신학대학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대학이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 가는 능동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4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서 2004-2012」(ACTS Mission 2012), 22-23.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 대학은 본래의 설립목적을 견지하고 구현하면서 또한 주변의 변화에 바로 대처하고 교육의 현실적인 조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대학은 2004년 2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2004-2012)”(이하 “발전계획”)을 새롭게 확정하였다.

② 새로운 장·단기 발전계획의 방향

발전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수립되었다.

첫째, 21세기 복음의 진리를 필요로 하는 아시아와 세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필요한 복음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을 우선한다.

둘째, 우리 대학의 역사를 통해 축적된 선교적 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셋째, 향후 선교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수요가 높은 분야와 교육을 중점으로 한다.

넷째, 교회연합적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다양한 교단과 교회들, 선교단체들과의 협력 및 연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선교중심의 특성화와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구조개편을 통해 기존 체제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연구 및 교육 역량을 선교에 집중시키며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발전계획은 신학과 선교의 훈련기관으로서의 우리 대학이 선교특성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 연구 그리고 실천 분야인 선교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목표에 따라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시설을 확충하며 정보화 체제를 확장시키고 교육 체제를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발전계획의 구현을 통하여 우리 대학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선교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선교지향적인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여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영역별 발전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 ① 대학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국제적인 선교교육 인프라 구축)⁵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학생중심의 교육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 ② 교육의 강화(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교육)⁶
신학적 기초를 확고히 하는 한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교육의 내용을 제고하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학생들의 수월성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한다.
- ③ 연구의 강화(현장 적용적 연구)⁷
신학 및 제반 학문 분야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연구와 교육의 통합, 연구와 현장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선교중심의 특성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서 2004-2012」, 34.

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서 2004-2012」, 41.

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서 2004-2012」, 46.

④ 실천의 강화(선교지향적 그리스도인 양성)⁸

위 대학의 설립 목적인 아세아복음화가 더욱 활발히 구현되도록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확충시켜 나간다.

2. 선교중심의 대학 특성화 확립

우리 대학은 이미 설립 초기부터 다른 대학과 차별되는 아세아복음화라는 특성화된 설립 목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설립 이념을 진취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특화된 역량을 육성함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의 상황 가운데 21세기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 특성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1 특성화 목표 및 전략 수립 배경

설립 이후 우리 대학은 태동기(1968-1981), 확립기(1982-1987), 선교 특성화 구축기(1988-1997)를 거쳐 1998년부터 확장기에 접어들게 된다. “장·단기 발전계획(1998)”에서 제시된 선교중심의 특성화 정책이 제 1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장·단기 발전계획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현장 중심적이면서도 국제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집중화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특성화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변화하는 지역 사회와 넓게는 아시아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무 중심적인 국제적 교육이 특성을 이루어

8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서 2004-2012」, 50.

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3년 우리 대학은 국제적 교육환경을 더욱 내실화하고 지역 사회와 아시아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본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재수립에 착수하였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걸쳐 2004년 “장·단기 발전계획 2004-2012(ACTS Mission 2012)”가 수립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학 특성화 계획 2004-2008”을 수립하였다.⁹

2.2 특성화 목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우리 대학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신학을 신학연구와 교육의 기초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이 개인과 가정과 지역 사회를 회복하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삶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와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학의 신앙화를 가능하게 하는 우수한 현장 사역자를 배출하고 그들이 지역과 아시아의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대학의 교육 목적은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다. 신학연구와 교육 그리고 현장 지향적 학습을 통해 기독교사역 현장인 국내외 선교지에 적합한 역량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첫째,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신학적 소양을 가진 교회 지도자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둘째, 현장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적인 사역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얻게 하며, 셋째, 복음사역에 적합한 사역자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신앙과 인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⁹ 2005년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을 위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2005.9.10), 52.

이에 기초하여 우리 대학은 첫째, 선교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신학연구기관으로의 도약, 둘째, 현장 지향적 교육 체제의 확립이라는 특성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특성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추진 목표와 다섯 가지의 추진 전략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¹⁰

- 추진 목표 1. 현장 중심 연구역량 극대화
 2. 교육지원체계 강화
 3. 인프라 환경 구축

- 추진 전략 1. 정보화 구축
 2. 연구 활성화 지원
 3. 목표중심 관리체계
 4. 현장학습 지원체계
 5. 국제화 훈련

3. 대학 학과 신설 및 교과 과정 개편

3.1 학과 신설

우리 대학은 국제적, 교회연합적, 복음주의적 신학대학교로서, “새 아시아의 수요에 부응하여 아시아 선교와 관련된 제반 연구의 수행과 선교교육을 통한 새 아시아 건설의 지도적인 인재를 양성함”을 그 목적

¹⁰ 2005년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을 위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2005.9.10), 54.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신학대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신학과 선교에 집중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립 때부터 신학과 선교에 관련이 없는 학과의 증설을 억제하는 것을 정책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규모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인 탐색과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고 또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학과들이 구비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시대의 다변화에 부응하고 아시아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1998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기독교교육학과와 선교언어학부 설치를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1999년 학부 야간 과정인 선교학과를 주간 기독교교육학과로 변경하였고, 선교학과와 연계하여 세계 각국의 언어를 공부함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선교언어학부를 신설하였다.

3.2 교과 과정 개편

우리 대학은 2004학년도에 교과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¹¹ 2004년 개정된 교과 과정은 교양 과정, 전공 과정, 일반선택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양 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여 1-4학년 전체에 걸쳐 개설하였으며 전공 과정은 전공별 교과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및 교내 실습과목들을 가미하여 기존에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특히 교양 과정과 전공 과정을 연계시켜 본 대학의 교육목적을 반

¹¹ 2005년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을 위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2005.9.10), 20.

영하는 특성화 과목들을 개설하였다. 또한 일반 선택과정은 복수전공, 부전공, 평생교육사, 사회봉사, 현장학습, 자유선택(타학과의 전공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 및 소명에 따라 다양한 과정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

또한 2004학년도부터 전공심화 과정을 도입하면서 졸업이수학점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였다. 종전에는 130학점 중 최소전공이수학점이 35학점이었으나 이를 45학점으로 상향 조정한 전공심화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였다. 이와 아울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에게는 종전의 최소전공이수학점인 35학점을 그대로 적용시킴으로써 제2의 전공 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4. 대학원 신설 및 확장

이 시기의 우리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다수의 특수대학원을 인가받았다. 1997년 10월 선교대학원 준공과 더불어 교육부로부터 선교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1998년 1학기에 개원하였다. 1999년 11월 교육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2000년 1학기에 개원하였다. 2001년 7월 상담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2002년 1학기에 개원하였다. 2002년 10월 복지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2003년 1학기에 개원하였다. 우리 대학은 이

¹² 2005년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을 위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우리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는 현대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섬기며 이끌어 나가는 균형 잡힌 기독교 성인의 양성에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은 2001년 교양교육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후에도 계속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참신한 교양과목들을 개발해 왔다. 일반교양과목들은 건강한 삶, 생각하는 삶, 섬기는 삶 등의 5가지 유형에 따라 각각 인성 함양, 전공기초 함양, 사회적 학문적 요구 부응에 적합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교육 과정은 학과별 교육목표에 따라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을 익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기간 동안 특히 대학원에 많은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교육내용과 규모 그리고 시설이 확장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4.1 국제적 대학원 교육

우리 대학은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한국에 설립된 국제적인 교육기관이다. 대학 설립해인 1974년부터 우리 대학은 영어로 신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학위 과정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했고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출신의 학생들도 들어와서 국제적인 학위 과정이 되었다.

외국인 학생들은 자신의 모임을 ISA(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라고 칭했고, 한국인 학생들은 KESA(Korean English Student Association)라 칭하면서 함께 공부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이들 대다수는 본 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자국복음화의 역군이 되었다. 2005년 당시 44명의 외국인 학생(ISA)과 42명의 한국 학생(KESA)이 재학하였다.¹³

우리 대학의 영어 과정은 자체적으로 대학원 모든 분야에 석사(M.A., M.Div., Th.M.) 및 박사(Ph.D.)의 모든 학위 과정을 가지고 있고 모든 학업을 영어로 진행하며 학문적인 수준의 유지를 위해 저명한 외국석학들을 초빙하여 특별 강의시간들을 가졌다.

1998년에는 독일 뮌스터대학교(Münster University) 교수이며 저명한 칼빈 학자인 노이저(W. H. Neuser) 박사, 1999년에는 미국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교수이며 신약 학자인 칼슨(D. A. Carson) 박사, 2000년에는 세계선교회(World Missions)의 부총장이며 선교학자인 존 반 스테판(John Van Stephen) 박사, 미국 웨스트

¹³ ACTS Catalog 2005-2006, 118-119. 국제교육원 registrars' office 보고자료, 2014년 3월.

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상담학 교수인 데이빗 폴리슨(David Powlison) 박사, 2001년에는 미국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의 구약 학자 빌렘 반게메렌(Wilem A. VanGemeren), 미국 프린스턴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의 조직신학 교수 이상현 박사, 요르단의 요르단복음주의신학교(Jordan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인 이마드 샤하다(Imad Shehadeh) 박사, 2004년에는 키리바티의 탕인테부신학교(Principal of Tangintebu Theological College) 총장인 조수아 페핀(Iosua Pepine) 박사, 독일 튀빙겐대학교(Tübingen University)의 바이어하우스(Beyerhaus) 박사 등 많은 석학들을 초빙하여 그분들과 교제하며 학생들의 학문의 세계를 넓히는 일에 매진했다.¹⁴

또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의미 있는 세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98년 8월에 본 대학 서대문 캠퍼스에서 제7회 세계 칼빈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전 세계 13개국에서 온 70여 명의 신학자와 한국 신학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칼빈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급성장한 한국 교회의 역량을 국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세계 칼빈 석학인 노이저 박사와 대회추진위원장인 임옥 목사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¹⁵ 또한 1998년 10월에는 몽골 선교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우리 대학이 몽골 울란바토르대학교와 협약체결을 맺고 학점교환 인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¹⁶

우리 대학 영어 과정 외국인 졸업생은 2004년 3월 현재 37개국 326명에 달했다. 이를 통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¹⁴ ACTS Catalog 2005-2006, 44.

¹⁵ ACTS Mission News, vol. 1, no. 3(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October, 1998), 4.

¹⁶ ACTS Mission News, vol. 1, no. 4(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December, 1998), 3.

방글라데시 8명, 브라질 1명, 중국 2명, 이집트 4명, 에티오피아 2명, 가봉 1명, 가나 2명, 인도 90명, 인도네시아 24명, 이란 2명, 아일랜드 1명, 일본 5명, 카자흐스탄 2명, 케냐 12명, 키리바시 1명, 라오스 1명, 말라위 1명, 말레이시아 1명, 미얀마 31명, 네팔 17명, 나이지리아 9명, 파키스탄 6명, 필리핀 25명, 루마니아 1명, 러시아, 2명, 싱가포르 3명, 스리랑카 7명, 수단 9명, 타이완 10명, 탄자니아 11명, 태국 1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우간다 5명, 미국 5명, 베트남 6명, 서사모아 5명, 잠비아 1명, 국적불명 1명이다.¹⁷

2004년 현재 326명의 외국인 졸업생들 중에서 자국으로 돌아가 목회사역을 하는 자는 90명, 교수사역을 하는 자는 110명, 선교사로 사역하는 자는 13명, 기독교기관 종사자는 17명, 나머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다. 교육 과정별 이수자는 다음과 같다.

철학박사(Ph.D.) 2명, 신학박사(Th.D.) 1명, 목회학박사(D.Min.) 21명, 신학석사(Th.M.) 76명, 선교학신학석사(Th.M. in Missiology) 23명, 목회학석사(M.Div.) 90명, 신학문학석사(M.A. in Theology) 13명, 선교학문학석사(M.A. in Missiology) 28명, 치유선교학문학석사(M.A. in Healing Ministry) 3명, 종교학문학석사(M.A. in Religion) 15명, 신학사(B.Th.) 9명, 훈련과정(M.T.P.) 14명, 연구과정(Research) 16명, 농촌지도자과정(Rural Program) 11명, 아세아교회지도자훈련과정(ACLTP) 3명, 비학위 프로그램(Special Program) 1명이다.¹⁸

¹⁷ 「ACTS 신학과 선교 30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원/선교연구원 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55.

¹⁸ 「ACTS 신학과 선교 30년」, 56-57.

우리 대학은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을 양육하여 교회지도자로 세우려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의 수업은 처음부터 영어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이 시작된지 오래지 않아 곧 한국인들도 본 과정에 입학하여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영어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한국인으로 최초 졸업생은 1981년 4월에 Th.M. 과정으로 입학하여 1985년 3월에 졸업한 김성봉 목사이다.

이 과정을 졸업한 한국 학생들은 2004년 3월 현재 총 124명이며, 과정별로는 Th.M. 4명, M.A. 3명, M.Div. 117명이다. 이들은 국내·외로 널리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이 목사, 교수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특히 이들 졸업생 가운데 우심화(1984년 3월 M.Div.), 장해경(1986년 3월 Th.M.), 정홍호(1989년 3월 M.Div.), 김운정(1997년 3월 M.Div.), 안효영(1999년 3월 M.Div.) 등은 본 대학의 전임교수로 사역했으며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¹⁹

4.2 선교대학원

우리 대학은 199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선교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1998년 3월에 개원했다. 선교대학원은 ACTS 선교의 핵심이며 ACTS의 선교적 본질의 구현체이다. 선교대학원은 각국 선교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교육, 협의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선교대학원의 개원을 계기로 ACTS의 목표인 아세아복음화가 구체성을 띠게 되어 지역선교학이라는 개념이 ACTS의 선교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선교대학원에 각국 선교연구원이 개원되면서 석사 과정 학생이 모집되어 11개 지역(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아랍, 태국, 아프리카, 북한, 인도, 시베리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관련 선교학 수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¹⁹ 「ACTS 신학과 선교 30년」, 66-67.

평신도 훈련과정이 ACTS의 캠퍼스가 아닌 학생이 있는 지교회에서 교류 선교, 기도 선교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선교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신학과 선교학 그리고 각국의 지역학이라는 3중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 3중 구조는 ACTS의 학부 선교학 교과 과정에서 시도되어 왔던 것이고 ACTS의 지역선교학이라는 선교철학의 핵심인 것이다. 선교대학원은 1998년 입학생을 받아서 2000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후 현재까지 Th.M. 50명, M.A. 106명이 졸업했다.

4.3 선교사연장교육

설립목적에 기반하여 선교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ACTS는 선교사의 재교육과 연장교육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고 선교사 연장교육을 1993년 여름에 서대문 캠퍼스에서 시작했다. 이 과정은 선교사사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1996년부터 선교지에서 공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학위 과정은 ATA 인준이며, 선교학문학석사(M.A. in Missiology), 선교학신학석사(Th.M. in Missiology), 선교학박사(D.Miss.)로 나누어진다.

강사는 ACTS 교수진과 국내·외 선교학자들이 참여하여 매학기 선교학 및 신학 1과목씩 강의하며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한 2주간의 집중강의 형태로 개설되었다. 한국에서는 ACTS 서대문 캠퍼스와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및 남미 등에서 수업을 했다. ACTS는 등록금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했고 과정을 마치면 상위학위로 진학할 수 있게 했다. 2004년까지 수강생은 270명이며 그 가운데 M.A. 107명, Th.M. 130명, D.Miss. 33명이다. 2004년 겨울에 공부한 학생은 M.A.

14명, Th.M. 15명, D.Miss. 20명이었다.²⁰

4.4 각국 선교연구원

선교대학원의 핵심은 각국으로 구성된 선교연구원이다.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선교교육과 선교센터로서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하여 세계복음화에 대한 열망과 그 연구의 중심이 되고자 1997년 10월에 18개 국가 및 지역, 32개 연구원으로 구성된 선교연구원을 개원하여 1998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선교대학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아시아와 세계복음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내용을 추진했다.

- ① 아시아 각국의 언어, 지역 및 선교연구
- ② 각 선교단체와의 선교정보 교환
- ③ 아시아 각국 교회 지도자 육성
- ④ 국내·외 한인교회의 아시아 및 세계 선교촉진
- 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언어, 지역, 선교 교육.

세계복음화를 목적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교회를 세워나갈 각국 복음화 역군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 나라의 복음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각 나라별 연구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연구소는 ① 신학연구, ② 아시아 각국에 대한 언어 및 지역연구, ③ 아시아 각국에 대한 복음화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

²⁰ 「ACTS 신학과 선교 30년」, 77-78.

다. 18개 국가 및 지역, 32개 연구원으로 시작된 선교연구소는 연구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각 연구원별 연구교수를 두었으며, 2004년 당시 23개 국가 및 지역을 위한 약 30개의 연구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설립 당시 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영암교회 중국선교연구원(영암교회), 갈보리교회 중국선교연구원(갈보리교회), 금란교회 방글라데시선교연구원(금란교회), 한국 아랍선교연구원(대신감리교회, 오류동감리교회, 배광감리교회), 잠실교회 필리핀선교연구원(잠실교회), 동안교회 북한선교연구원(동안교회), 청삼 말레이시아연구원(최태섭장로), 춘화 중국선교연구원(신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몽골선교연구원(여전도회전국연합회), 아름다운교회 태국선교연구원(아름다운교회), 왕성교회 북한선교연구원(왕성교회), 추곡 대만선교연구원(정운근 장로), 영사 이란선교연구원(김진수 장로), 영락교회 한경직목사기념 태국선교연구원(영락교회), 한국 방글라데시 선교연구원(방주교회, 천성교회, 참된교회), 수영로교회 중국선교연구원(수영로교회), AGST-6개연구원(명성교회, 광성교회), 나성영락교회 인도선교연구원(나성영락교회),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인도네시아선교연구원(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퀸즈한인교회 중국선교연구원(퀸즈한인교회), 퀸즈장로교회 북방선교연구원(퀸즈장로교회), 순복음뉴욕교회 일본선교연구원(순복음뉴욕교회), 볼티모어 벨엘교회 이란선교연구원(볼티모어벨엘교회), ARC 선교사훈련원(Christian Reformed Church), 나성미얀마선교연구원(동양선교교회, 한인등대교회, 오렌지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나성중국선교연구원(남가주동신교회, 헐리웃장로교회, 에벤에셀침례교회, 한미장로교회, 나성빌라델비아교회, 벨리연합장로교회,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 시카고 파키스탄연구원(헤브론장로교회, 시카고남

서부교회, 배송학 장로, 가나안장로교회).²¹

4.5 평신도선교훈련원 및 ACTS 선교대회

1998년 3월에 시작된 평신도선교훈련원은 개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CTS 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맡고 각 교회에서 해당국가에 대한 연구 및 선교학을 공부하고 해당국가를 직접 방문함으로 개교회에서 해당국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선교이념은 선교훈련과정을 통해 기도 선교와 코이노니아 선교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한국의 특정 교회는 선교지의 특정 개교회를 위해, 선교지의 특정 교회는 한국의 특정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눔으로써 기도를 통한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각 교회의 성도들은 선교지 교회를 방문하도록 하고, 선교지 교회 성도들은 한국 교회를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²²

평신도선교훈련원에 참여한 교회와 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노량진교회(강신원 목사)의 파키스탄연구원(연구교수 정홍호), 영락교회(이철신 목사)의 태국선교연구원(연구교수 이교육), 산곡감리교회(최성봉 목사)의 아랍선교연구원(연구교수 이동주), 구파발교회(임중현 목사)와 금호교회(이화영 목사)의 아프리카선교연구원(연구교수 김재혁), 양평장로교회(이영무 목사)의 중국선교연구원(연구교수 우심화), 잠실교회(원광기 목사)의 필리핀선교연구원(연

²¹ 「ACTS 신학과 선교 30년」, 80-82.

²² 「ACTS 신학과 선교 30년」, 78.

구교수 원종천), 온누리교회(이수중 목사)와 의림교회(김기태 목사)의 시베리아선교연구원(연구교수 김준수), 동안교회(김동호 목사)의 북한선교연구원(연구교수 김영욱), 방주교회(권영복 목사)의 방글라데시연구원(연구교수 한상화), 송월교회(박삼열 목사).²³

지금까지 졸업 및 수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1년 수료자(학위 과정 11명, 훈련원 23명), 2002년 수료자(훈련원 14명), 2003년 수료자(훈련원 7명).

2004년 4월 당시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방글라데시(방주교회) 15명, 아프리카 10명, 송월교회 3명, 태국(영락교회) 6명.²⁴

1976년에 “아세아복음화의 날” 행사가 처음 시작되었다. 이 행사에는 이사, 교수, 학생, ACTS 사업에 관련된 모든 교회들이 참여하여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집회, 선교세미나 및 기도회, 각종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날을 통해 “아세아복음화 장학회”가 만들어졌고 이 기금을 통해 ACTS의 각종 선교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선교의 날”은 1996년 10월 10일(목) 제19회를 끝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1997년 선교대학원 기공예배를 드린 이듬해 “선교의 날”은 “ACTS 선교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8년 10월 1일(목) 양평 캠퍼스에서 제1회 “ACTS 선교대회”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까지 8회의 선교대회가 진행되었다.²⁵

²³ 「ACTS 신학과 선교 30년」, 79.

²⁴ 선교실 보고자료, 2014.2.

²⁵ 「ACTS 신학과 선교 30년」, 86-89. 선교실 보고자료, 2014.2.

4.6 교육대학원 설립

ACTS는 1997년 선교대학원 신설에 이어 대학원 확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특수대학원들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먼저 1999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60명으로 교육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0년 봄 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교육대학원의 신설 배경은 다음과 같다. ACTS는 서대문 캠퍼스에 1991년부터 교육연구원(현 교육연구소)이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 연구원은 1991년 이영덕 박사가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직한 후 교육의 제반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다.

이영덕 박사는 교육연구원 원장직을 맡았고, 우리 대학의 전임교수 2인과 자원봉사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모임을 주도하였다. 그동안 교육연구원에서는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위해 집담회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왔고, 국내·외의 기독교학교 교육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연도 듣고 계속 토론하였다.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속된 토론과 연구는 기독교사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반향은 당시 기독교학교설립운동과 미션스쿨의 재구조화운동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ACTS 이은 대안학교의 운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그동안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소규모 대안학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설립을 격려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전인교육과 통합된 교과교육을 하는 소규모의 기독교학교를 세우려는 운동을 준비하는 작업에는 많은 기독교사들의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미션스쿨을 재구조화하고 새로운 소규모 기독교학교의 학교 행정과 경영을 준비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 과정을 준

비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대학원의 설립이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것은 현재 기독교사들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배경으로 ACTS는 교육부에 교육대학원 신설을 신청했고 1999년 11월에 교육부로부터 교육대학원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에 ACTS는 2000년도 봄학기부터 기독교사들을 위한 교육대학원을 서대문 캠퍼스에 개원하였다. 교육대학원에는 교육행정, 교육과정, 상담의 3가지 전공을 설치하였다.

교육행정 전공은 기독교학교의 교육행정을 위주로 소규모 기독교학교들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지, 기존의 미션스쿨들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독교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지도력을 개발하고, 고교특성화정책과 관련하여 소규모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전인교육의 이상을 진작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적인 정신이 학생들의 실제의 삶에 구현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새로운 학교 문화의 창조를 위한 학교운영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전공은 기독교학교 교육과정개발을 위주로 각 교과를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가르칠 수 있는지, 기독교학교에서 사용할 교재와 교육지침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내용, 교수방법, 평가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상담전공은 학교상담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가족관계에 초점을 둔 상담이론을 교육하는 것이다. 학교상담의 교육적인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기독교사들의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의 편의를 위한 학생 지도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심리적-영적인 상태에 대한 내적 치유를 중심으로 한 상담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한다.

교육대학원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① 신학기초과목: 조직신학, 교회사, 구약개론, 신약개론
- ② 교육학공통과목: 교육의 기독교 세계관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교육의 심리학적 기초, 교육 과정이론, 교육사회학적 기초, 학급경영과 교사, 한국교육의 문제점, 연구방법론, 논문
- ③ 교육행정전공과목: 기독교적 지도력, 영성과 교육, 교육법, 교육행정의 기초, 조직과 인사관리, 학교경영과 장학행정, 갈등과 위기관리, 재정과 운영
- ④ 상담전공과목: 기독교상담의 이론 I, 기독교상담의 이론 II, 기독교상담의 실제, 상담연습 I, 상담연습 II, 가족치료, 역기능가정의 문제, 집단상담, 심리검사
- ⑤ 교육과정전공과목: 교육과정분석, 교육과정개발, 교과교육론, Practicum(교재개발) I, Practicum(교재개발) II, Practicum(교재개발) III, Practicum(교재개발) IV, 수행평가방법.

재학기간은 5학기제로 하고, 졸업학점은 30학점 이상이며, course work은 매학기 6학점씩 4학기 총 24학점, 실습, 교수안 작성 및 공개강의 3학점, 졸업논문 3학점으로 정했고, 신학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기로 했다.²⁶

ACTS는 2000년 10월 교육대학원이 주도하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드림교사연수원”을 개설하기로 했다. 드림교사연수원은 기독교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을 위한 기독교적인 교사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학교교육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 교사들이 바른 교육을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것

²⁶ 대학원위원회 회의록(1999.8.23).

을 목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나누며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제반활동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드림교사연수원의 홍보를 통해 본 대학 및 대학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 연수인원은 매 기당 50명으로 하고 연수대상은 전국 초·중등 교사 및 예비교사로 했다. 학급편제는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을 두고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은 계절수업으로 하기로 했다.²⁷

4.7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한국어 과정 신설

ACTS는 1986년 8월 교육부로부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설립인가를 받고 신학과를 설치했다. 1999년 8월에는 신학대학원 입학정원을 기존 24명에서 16명 증원을 신청하여 1999년 11월 입학정원 총 40명의 허가를 받았다. ACTS는 교단신학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양성과정인 국내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과정의 활성화를 자제하고, 영어 과정으로 외국인 학생들과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인 학생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ACTS의 선교 지향적 성향의 목회와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준비하기 위한 목회학석사 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요청이 쇄도하면서, 국내인들을 위한 초교파적이고 교회연합적이며 신분주의와 복음주의를 가르치는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을 기도하며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ACTS는 1999년 9월 본격적으로 신학대학원 한국어 목회학석사(M.Div.) 과정을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2000년 봄학기부터 서대문 캠퍼스에서 시작했다. 모집인원은 40명이고, 6학기 3년 과정으로 이수학점은 96학점이며, 학위논문은 생략하기로 했다. 수업

²⁷ 대학원위원회 회의록(2000.10.9).

요일은 월, 화, 목, 야간으로 진행하기로 했다.²⁸

4.8 상담대학원 설립

ACTS는 선교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신설에 이어 지속적인 대학원 확장계획에 따라 2001년 4월 상담대학원을 신설하기로 결의하고, 2001년 7월 상담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상담대학원의 신설은 한국 교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요구로 말미암아 착안되었다. 특히 ACTS는 세속심리학적 상담보다는 성경적 상담을 구상했다. 우리 대학의 신학적 입장과 선교적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신분주의 및 복음주의 상담을 성경적 상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²⁹

ACTS 상담대학원은 구체적인 설립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 선교, 목양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사역자 양성 및 교회와 기독교 사회의 상담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에 따른 전문상담자 양성이었다. 상담대학원의 교육목표는 상담의 이론과 기술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인격을 겸비한 상담자들을 배출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가정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적인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청소년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특히 상담에서 내담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유도하며, 중요한 시점에서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ACTS 상담대학원은 가정상담학과와 기독교상담학과를 두기로 했다. 가정상담학과에서는 상담전공자들이 일반상담의 이론 외에 가정

²⁸ 대학원위원회 회의록(1999.9.21).

²⁹ 대학원위원회 회의록(2001.4.18).

사역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했고, 기독교상담학과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상담기술들을 전문적으로 연마하여 교회나 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자로 사역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출하기로 했다.

상담대학원 석사 과정의 이수학기는 5학기제로 하고, 수업형태는 야간(매주 월, 목 2일 수업)으로 하며, 학위 및 전공 분야는 상담학문학석사(M.A.), 전공 분야는 기독교상담과 가정상담으로 하고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이며 학위논문 작성은 없고 상담사례를 발표하도록 했다.

ACTS 상담대학원은 상담사 2급 자격증(한국상담대학원협의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독교상담 전문가 2급 응시자격(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자격(국가자격)이 부여되고, 건강가정사(국가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ACTS 상담대학원 졸업 후 진로는 상담관련기관 근무 또는 운영을 할 수 있고, 교회 내의 다양한 상담요구를 충족시키는 인력으로 활동 가능하며, 복지관 전담상담사로 근무하고, 청소년관련시설의 상담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³⁰

4.9 복지대학원 설립

ACTS는 아세아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일환으로 기독교복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2년 10월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복지대학원을 신설했다. 수업형태는 야간수업(매주 월, 목), 이수학기는 5학기, 이수학점은 30학점, 학위논문은 없는 것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대학원은 ACTS의 설립이념인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ACTS가 지향하는 기독교복지는 기독교적 세계관

³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과 가치를 중심에 둔 전문적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이는 인본주의적 사회복지가 아닌, 신본주의적 인간존중의 사회복지 추구에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대표적 문제 상황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신빈곤의 출현 및 빈곤의 양극화 현상,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당사자이자, 해결주체로서 기독교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도 지역 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을 이루어나가는,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다원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복음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ACTS 복지대학원은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기독교 사회복지 전문인들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쓰고 있다.

ACTS 복지대학원은 학위취득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 또는 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복지지도원, 가정건강사(가정가정지원센터 근무), 종합병원 사회복지과(실) 전담상담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교회내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NGO단체 활동 등을 통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다.³¹

³¹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5. 시설 및 기관의 확장

설립 초기부터 1998년까지 우리 대학은 대학의 기초를 닦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확인하며 구체화한 후, 그동안 충분한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던 시설 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98년 대학종합평가를 계기로 우리 대학은 “장·단기 발전계획”(1998)과 “장·단기 발전계획 2004-2012”(2004) 등을 수립하여 시설확장의 필요성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의 공간 확충과 신설 그리고 기존시설의 보수 등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5.1 도서관 신축 및 학술정보화체계 구축

우리 대학의 기존 도서관은 단독건물이 아니고 본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각종 대학원이 신설되고 대학에서도 새로운 학과들이 신설되어 기존 도서관은 증가하는 학생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 대학은 학교법인 이사장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담임)의 후원으로 2004년 3월 지하 2층 지상 3층의 도서관을 신축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우리 대학 도서관의 소장도서는 학문성이 뛰어난 전문도서 위주로 갖추어져 있고 특히 지역 선교학 분야에서 여타 도서관보다 질 높은 전문적인 도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다. 학술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의 단행본 자료의 확보와 아울러 국내외 타도서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자료 접근 등 도서관의 정보화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은 연구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5.2 학교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대학은 1999년 2월 말 Lan 설치를 완료하고 인터넷 전용선을 도입하여 1999년 봄학기부터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7월부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업계획서, 수강신청, 출석부, 성적처리 및 관리, 강의평가 등 모든 학사 업무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개인 ID를 발급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학사 행정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해당 자료를 검색하거나 자료 입력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다.

학생과 교직원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 편의 및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연구와 행정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생 교수의 쌍방향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교육정보 활용에 도움을 주었다. 2004년에는 학생 전산 실습실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5.3 아세아농촌진흥원 및 기타 기관

우리 대학은 새 아시아 건설의 지도적인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사회봉사 영역을 한국 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 교육적 차원의 교육을 전체 아시아인들을 위하여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대학은 아시아농촌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농기술을 익히고 이를 교인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4년 아세아 농촌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아세아농촌진흥원은 아시아농촌복음화를 위한 복음주의적, 국제적, 교회연합적인 훈련기관으로 아시아농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기초적인 신학교육과 함께 농촌실천과목, 농장실습을 통한 이론과 영농기술을 겸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농촌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스리랑카의 패시아 크리스찬(Fasih Christian)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아세아농촌진흥원을 수료하였다.

이 외에도 대외적인 관계와 협력을 위해 2004년 8월에는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조직하였고, 외부에 외국어 도움을 제공하고 내부적으로 영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4년 12월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Language Institute of ACTS: LIA)을 신설하였다.

5.4 생활관 리모델링 및 대강당 증축

대학이 설립된 1982년부터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재학하는 동안 경건과 학문에 매진하도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왔다. 2004년 당시 우리 대학에는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남자 생활관(1982년 준공, 현 강의동 3층)과 약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자 생활관(1990년 준공)이 있었다. 생활관 노후에 따른 시설보완과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은 2004년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여자 생활관을 리모델링하였다. 또한 2004년 겨울 방학에는 남자 생활관을 리모델링하여 2005년 1학기부터 새롭게 단장한 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생 전원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실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선교대학원에 부속된 강당을 증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5

년 7월 강당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동년 12월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담임)가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당초 8백 석 규모의 공사가 1천 3백 석 규모로 변경되었고 공사 도중 시공업체도 변경되면서 공사가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학내사태로 인하여 6년 동안 강당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교 정상화 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2013년 8월에 재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준공하게 되었다.

5.5 학생회관 건립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학생활동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학은 학생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2월에 학생관 신축허가를 받고 2006년 11월에 준공하였으나³² 학내사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학교가 정상화된 2011년에 비로소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대학 총학생회, 신학대학원 원우회 사무실을 비롯한 체력 단련실, 대학 학과 및 각종 동아리방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3층에 있는 'ACTS Cafe'(아카페)는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 본 대학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남한강을 내려다보면서 휴식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5.6 대학원 수업 장소의 이전

그동안 우리 대학은 서대문 캠퍼스에서 대학원 과정의 수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변경으로 말미암아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교 형식으로 진행하던 모든 대학의 대학원 수업을 본 대학으로 귀환하도록 함에 따라 서대문 캠퍼스에서 진행되던 모든 대학

³² 총무처 시설관리팀 보고자료, 2014년 4월.

원 수업을 2003학년도 1학기부터 양평에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우리 대학이 시작된 1974년부터 서대문 캠퍼스에서 진행되었던 30년간의 대학원 수업이 종료되고 대학원 수업의 양평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6. ACTS 신학연구원³³

6.1 ACTS 신학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1998년에 발족한 ‘신학연구원’(현 ‘신학연구소’)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ACTS의 신학운동과 신앙운동을 주관하여 온 정신적 산실이자 신학의 저장소라 할 수 있다.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던 신학연구원은 2006년 5월까지 운영되어오다가 학내사태를 맞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으나 2011년 봄 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였고, 그해 12월에 대학 부설 연구소로 재편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ACTS가 ‘신학연구원’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본 대학의 초교파적 설립배경과 관련이 깊다. 처음부터 국제적이고 교회연합적인 신학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출발한 ACTS는 국내 교단 신학교들과 달리 특정 교파의 신학노선을 표방하지 않고,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라는 설립이념과 ‘아세아복음화’라는 설립목표를 세웠다. ACTS는 선교지향적인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을 분명히 공표하면서 원칙적으로 세계의 모든 개신교 교파와 교단들을 향해 열려있는 기관이다.

³³ 이 글은 신학연구소 소장인 장해경 교수와 총무 및 서기인 한상화 교수가 초고한 것을 박용규 교수가 수정보완 하였다.

따라서 ACTS의 교수진과 학생들의 교파와 신학적 배경은 창립 당시부터 다양하였고, 교수들이 전공학위를 취득한 나라 역시 다양하였다. 대부분의 지역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아시아의 각국에서, 그리고 신학, 선교학, 교육학, 상담학 등의 분야의 교수들은 미국이나 유럽 또는 그 외의 서양문화권에서 유학하였다. 교수진의 다양한 신학적, 문화적 배경은 필연적으로 내적 일치와 연합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다.

특히 현대 서양의 신학과 기독교 학문이 역사비평학의 영향을 받은 이론과 방법론들을 기본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유학한 교수임용 대상자들의 신학적 입장이 우리 대학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심사해야 했으며, 전 교수진이 뚜렷한 복음주의 신학의 동질성과 선교적 사명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이 필요하였다.

ACTS 신학연구원은 이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제71회(1997년 2월) 이사회는 ‘신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 산하에 ‘신학연구원’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신학연구원의 업무는 “본 대학교의 신학적 입장 명시 및 신학 수립을 위한 연구와 지도”라고 규정하였다. 1998년 신학연구원 규칙에 의하면, 연구원의 조직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외에 “최소한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회사, 선교학”을 전공하는 “5인의 전임연구교수”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1998년 3월 초에 출범한 신학연구원의 초대 원장은 한철하 박사, 부원장은 박일철 교수(그해 2학기부터는 강창희 교수), 서기는 장해경 교수, 그 밖의 전임연구교수로는 최종태, 정홍호 교수가 있었다.

신학연구원이 주관한 두 차례의 정기모임은 먼저 전임연구교수들이 일반교수 4-5명과 매주 수요일 1, 2교시에 모이는 ‘주례신학연구원’(Weekly Study: WS)와 모든 교수들이 격주 수요일 4교시에 모이는 교수 세미나(Faculty Seminar: FS)이다. 매 모임은 정해진 의제에 따라 연구발표·질의응답·토론하고 서기가 내용을 프로토콜로 작성한다.

주례신학연구회는 본 대학의 신학적 입장 명시 및 수립에 관하여 연

구하는 것이 의제이고, 교수세미나는 전 교수진이 본 대학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합의 및 신학 수립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의제이다. 정기모임은 매번 예정된 담당자가 성경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경건회로 시작하였다. 초창기부터 신학연구원은 교수진 전체의 신학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신규 임용된 전임교수는 반드시 1년(두 학기)동안 주례신학연구회에 참여하여 본 대학의 신학적 입장에 대하여 공부한 후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개인적인 이해와 응답을 표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신입교수들이 없는 학기에는 기존 교수들 가운데 4-5인씩 한 학기 내지 일 년 단위로 주례신학연구회에 참여함으로써 본 대학의 신학 및 신앙운동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6.2 신학연구원을 통한 “ACTS 신학공관”운동의 전개 과정

1998년 봄에 한철하 원장은 “ACTS 신학공관 제안”(A Proposal for ‘ACTS Theological Synopsis’)이란 글을 통하여, 모든 교수들에게 공식적으로 “ACTS 신학공관”운동을 제안하였다. 그는 “신학공관”에 관한 글을 1994년 8월, ACTS 교수회에서 처음 발표하였고, 1996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복음주의신학회’(KETS)에서도 발표했는데, 이제 신학연구원에서 그 공동연구 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원했다. 따라서 이때부터 신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정기모임들은 “ACTS 신학공관”을 중심의제로 삼았다.

초기부터 신학연구원의 토의는 두 가지 초점을 견지하였다. 하나는 ACTS 신학운동인 “신학공관”이며, 또 하나는 ACTS 공동체의 “신학운동”이다. 처음부터 매 토론마다 신앙 부흥의 역사가 ACTS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열망하는 한철하 박사의 반복적인 강조와 여기에 전 교수들이 동의함으로써 경건회 준비 및 기도와 복음을 통한 구원 중심의 신학적 토의를 하였다. 한철하 박사는 신학연구원 설립연도인 1998년 1학

기에 “ACTS 신학공관 제안”이란 글과 “기독교 중심진리에 대한 보충 설명” 그리고 “An Unfinished Task of ACTS”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ACTS 신학공관”운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론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 종교에는 하나의 ‘중심진리’(central truth)가 있으며, 이 중심진리야말로 기독교를 참 기독교 되게 하는 본질이라고 전제한다.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진리’로서, 인간은 모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으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철하 박사는 초기에는 이 중심진리를 “이신칭의” 신앙이라고 하다가, 후에는 중생을 통해 이어지는 “성화”를 포함한 “복음 신앙을 통한 구원의 실재”라고 보다 광범위하게 진술하였다.

중심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주제인 동시에 성경의 계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나아가 이 진리는 교회사 전체를 통해 지켜온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특히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등 위대한 교사들의 신학의 중심이었다. 이 중심진리에서 떠난 신학과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 신학의 연구 대상을 왜곡하기 때문에 필연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한 박사는 “칼빈 신학의 웨슬리적 실천”이란 모토를 내세움으로 이 두 신학자의 일치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글들을 ACTS 신학운동의 중요한 기준과 지표로 삼아 고 강조하였다.

둘째, “ACTS 신학공관”은 말 그대로 신학의 각 분야들이 이 ‘중심진리를 공관(共觀, Synopsis)함’으로써, 서양신학의 잘못된 방법론과 방향을 바로 잡아 기독교회가 감당해야 할 현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신학의 각 분야에서 중심진리를 공관하는 작업

은 각 분과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연구사를 고찰'하여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중심진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ACTS 신학공관"의 참된 목적은 근대 이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서구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잡고, 21세기 인류를 구원하는 데 앞장서기 위함이다. 근대 이후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 점점 더 세속적 인본주의에 몰들어감으로써 그 면모를 잃어버렸고, 19세기에 제국주의의 팽창과 20세기에 1, 2차에 걸친 세계대전 등 참혹한 죄악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한 근본적 책임이 '신앙의 교사'들이인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있다고 보고, 특히 18세기 칸트 이후로 이성 중심주의를 학문의 기초 원리로 삼으면서 신앙을 신앙답게 세우지 못한 신학자들의 오류를 바로 시정하고자 한 것이다. ACTS는 신학공관작업을 통해 산 신앙을 세우는 바른 신학을 수립함으로써 교회를 일깨우고 21세기 인류를 복음으로 살리는 데 앞장서는 신학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6.2.1 ACTS 성경신학의 방향 수립

ACTS 신학공관 제안에 대하여 교수들의 응답은 긍정적이었다. ACTS Theological Journal, Vol. 7(1998)은 신학공관운동에 대한 교수들의 논문들을 실은 특집호로서, 신학연구원에서는 이 논문들을 위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1999년에는 대표적 미국 복음주의 신약학자인 카슨(D. A. Carson) 박사를 초청하여 이 운동에 대한 반응을 듣고 토의하였다. 카슨 교수는 이에 대해 긍정하고 찬동하는 점을 10가지로 언급하고, 이 운동이 보다 잘 진행되기 위하여 6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왜 굳이 칼빈과 웨슬리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그들보다 성경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둘째, 이 운동이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특히 공격받고 부정되는 복음

진리에 대해 더욱 몰두하고 부각시켜야 할 것인가?

셋째,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를 중심적인 신학체계에 따라, 그 신학적 중심을 분명히 하여 정의하고, 그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의미가 희석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넷째, "ACTS 신학공관"이 중심으로 내세우는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핵심임을 인정하면서도 "중심"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조심스럽게 정의해야 한다.

다섯째, "ACTS 신학공관" 작업에 있어서 조직신학 방법과 함께 성경신학 방법을 같이 사용하기를 권하였다. 즉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된 시간과 시제를 따라 기술하는 "통관적 성경신학"(Gesamtbiblische Theologie)을 제안한 것이다.

여섯째, 이 운동이 현 포스트모던 시대의 시대적 정신과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2000년도 1학기에는 한상화 교수의 "On the Identity and Nature of the Central Truth of the Christian Religion: A Response to Dr. Han Chul-Ha"를 읽고 토의하였다. 이 글은 기독교 중심진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논하면서, 중심진리는 복음신앙에 입각한 구원이라고 집약하고, 이와 같은 주장은 보수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주장으로서 다른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언급했지만, 한철하 박사의 독특성은 그것을 신학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과 그 제안의 심각성과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중심진리를 하나의 교리나 개념으로 이해하면 환원주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구원에 대한 실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심진리의 성격은 선형적(transcendental)이고,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며, 하나의 중심신앙으로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교리적 요소들의 다양성도 있으며, 모든 사실의 해석원리의 핵심(crux interpretum)이다. 이 논문에 대해 토론이 있던 후에 한철하 박사는 광범

위하게 전 신학계를 동원하여 잘 정리했지만 신앙적 경험 자체에 더 열심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 한철하 박사는 신학연구원의 논의를 이 신앙운동의 구체화와, ACTS 학생들에게까지 이를 확산시키는 방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그룹신앙운동 과목도 신앙운동 확산의 방안으로 잉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ACTS 신앙운동의 당면 과제”라는 글을 읽고 모든 연구교수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였고, ACTS 공동체 신앙의 합의(consensus)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후에 그는 이것을 호모로기아(homologia,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치성)라고 불렀다.

2002년 1학기에 들어서자, ACTS 신앙운동의 일환으로 한철하 박사는 “ACTS 신앙공동성 형성을 위한 신앙지침서”를 제안하고, 모든 교수들이 그 지침서에 따라 경건회와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독려했다.

주례신학회나 교수세미나의 경건회는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는데, 각각의 경건회의 메시지들에 대해서도 제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원진리와 연결시켜 통일성을 기하는 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신학운동에 대해서는 김준수 교수의 논문, “제이 아담스의 상담이론 요약”과 “제이 아담스의 심리학”을 읽고, 신학공관운동과 상담학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고하였다. 2학기에는 이숙경 교수의 “기독교의 중심진리에 기초된 기독교교육의 과제”를 읽고 기독교교육과 중심진리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철하 박사는 개념적 접근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2003년 1학기에는 한철하 박사의 “서양신학의 문제점”과 “신학의 과학성”이란 논문들을 읽고, 이어서 이전 학기 박응규 교수 논문 “George Whitfield’s View of New Birth Revisited in terms of the ACTS Theological Synopsis”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박응규 교수는 조지 윗필드야말로 칼빈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웨슬리적 실천을 한 역사적 실례

로 제시하며, 그의 신앙운동의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그 후 우심화 교수가 안식년 동안 연구한 논문 “John Wesley의 중심사상 소고”와 “칼빈의 인간론 연구”를 읽고 토론하였다.

2003년 2학기에는 성경비평학에 관하여 먼저 한철하 박사의 “성경비평학에 대한 ACTS 교수회 평가”를 읽고, 이한영 교수와 한상화 교수에게 연구논문을 위촉하여 발표케 하였다. 성경비평학에 대해 토의를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ACTS 신학공관운동이 성경 자체 보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신앙을 출발점으로 삼아 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다루어 왔지만, 근래의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떠나 잘못된 성경 비평학의 수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종교개혁의 핵심원리인 “오직 성경으로만”의 원리에 대해서 고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였다.

결론적으로 2003년 2학기 성경비평학 토론을 통해 보다 분명해진 것은,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과, 본래 목적을 바로 알고 신앙적 전제에 부합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신앙을 바로 세우는 성경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1학기에는 ACTS 신앙운동을 위해서 경건회 지침서를 보다 간략하게 작성하여 경건회 인도방법에 대해 생각하면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뜻하는 호모로기아(homologia)”을 재강조 하였다. 또한 주례신학회 신학토론은 한철하 박사의 “성경비평학에 대한 ACTS 교수회 평가”를 읽고, 계속 성경비평학에 대해 논의하면서 성경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금 상기하였다.

이후 한철하 박사의 “ACTS 구약성경 신학수립의 방향”을 읽고 토의하였다. 한 박사는 ACTS 신학운동이 서양신학계가 잃어버린 은혜를 증거하고 신앙을 세우는 구원의 신학을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하면서, ACTS 구약성경신학도 예수님이 세워주신 방향에 따라 은혜로운 성경

신학을 세우도록 당부하였다.

그는 누가복음 24:44 이하의 말씀을 구약 전체를 해석하는 예수님의 구약신학 해석의 열쇠가 담긴 말씀으로 강조하며, 구약성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말했다. 구약성경신학의 성경에 대한 접근은 신앙적 접근이어야 하며, 이성적, 비평적 접근이나 인식론 중심의 개념적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평적 접근의 오류는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역사비평이든 문학비평이든지 간에 성경의 본질인 하나님의 증거와 말씀을 말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CTS 신학은 18세기까지 살아있던 기독교 신앙을 되살리는 운동으로서, 21세기 인류의 살길을 제시하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교수가 구약 교수들의 공동의 응답을 “ACTS 구약성경신학의 방향”이라는 문서로 정리하였다.

2004년 2학기 주례신학회는 ACTS 신약성경신학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먼저 복음서는 허주 교수의 “ACTS 신약성경신학의 내용” (9월 15일), “사복음서의 중심 메시지”(10월 6일), 그리고 이 두 소논문을 종합하여 수정 작성한 “ACTS가 주창하는 신약성경신학의 방향과 내용 (I)”(10월 27일)과 (II)(11월 3일)를 읽고 토의하였다. 또한 참석자의 복음서 이해를 돕기 위해 칼빈의 “The Argument on the Gospel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Matthew, Mark, and Luke”를 읽었다. 이에 대해 한철하 박사는 공관복음이 첫째로는 복음이고, 둘째로는 그리스도라고 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공적인 나타남이며, 메시아가 오심으로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쁨의 메시지(a joyful message)이다. 공관복음이 성취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면 다른 신약의 책들은 그러한 역사의 능력과 유익을 말하고 있다. 또한 신구약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복음서의 완전한 유익을 얻으려면 구약과의 연관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신서는 장해경 교수의 “ACTS 신약성경신학의 내용(II): 바울서신”(11월 28일)을 읽고 토의하였다. 바울서신의 본문해석에 있어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할 요점은 첫째,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가졌다는 것과 둘째, 바울 신학의 본질적 성격은 목회적이며, 선교지향적이라는 점이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구원을 전 세계(특히 이방인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었고, 그의 편지들은 이러한 그의 선교적 관심에 따라 그의 수신 교회가 신앙과 삶에 부딪혀 온 문제들을 복음에 비추어 해결하려고 했던 목회적 사고와 실천의 산물이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바울서신들에서는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한 교리적 진술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고찰해 볼 때 칭의 교리를 전제하고 암시하는 진술들이 자주 발견되므로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하였다(고전 1:30; 6:11; 고후 3:6-11; 5:28-21; 엡 2:8; 빌 3:9; 딤후 1:12-16; 2:5-7; 3:16; 딤후 1:9; 딤후 3:4-7).

이에 대해 한철하 박사는 바울에게서 엿보이는 투철한 역사의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의식과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순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다는 의식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허주 교수는 장해경 교수의 바울 해석의 전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공관복음의 신학이 로마서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사도행전의 역사성이 그대로 바울서신에 나타난 것으로 보는 입장에 또한 동의하고, 사도사 안에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야말로 바울서신의 중심임을 언급했다. 바울의 복음 이해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한 이신칭의 교리이며 이것이 바로 ACTS 신학공관운동이 말하는 중심진리인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주례신학회 연구과정을 살펴볼 때, 성경비평학에 대한 ACTS 교수들의 입장이라는 주제에서 ACTS 성경신학의 방향수

립이라는 중요한 과제로 전향되어서, 성경신학 분야에서 기독교 중심 진리를 공관하는 것이 ACTS 신학공관운동의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2 ACTS 선교신학과 역사신학의 방향 수립

개교 30주년(2004년)을 앞두고 2003년부터 다음 해까지 ‘ACTS의 신학과 선교’라는 주제로 신학 분야에서는 가장 우선적 관심사가 되어 온 “ACTS 신학공관”운동의 ‘신학적-역사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성경신학과 역사신학 분야에서 3개의 강연을 개최하였다. 2003년 5월 28일, 오병세(전 고신대학교 총장) 박사의 “기독교 중심진리와 복음주의 구약연구의 과제”라는 강연이 있었고, 11월 17일에는 박형용(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사의 “신약의 중심진리와 신학공관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강연이 있었다. 2004년 4월 26일에는 김영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사의 “ACTS 신학공관의 역사적 의의”라는 강연이 이어졌다.

선교 분야에서는 개교 이래 오늘까지 아시아와 세계복음화에 힘써 온 ‘ACTS 선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면서 ‘21세기 선교를 위한 ACTS의 준비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3개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개교 30주년 기념일인 2004년 5월 3일에 선교현장에서 초빙되어 온 본 대학 출신 조수아 페핀(Iosua Pepine) 박사(남태평양 Kiribati, Principal of Tangintebu Theological College)가 “ACTS 선교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강연을 하였다. 5월 11일에는 선교단체에 있는 강승삼 박사(세계선교협의회[KWMA] 총무,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가 “21세기 ACTS 선교의 정책과 전략”이라는 강연을 하였고, 5월 20에는 선교학자인 이태웅 박사(GMTC 대표)가 “21세기 ACTS 선교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강연을 하였다.

2005년 1학기 주례신학회는 한철하 박사의 ACTS 신학의 정체성에

대한 강의로 시작했다. 칼빈이나 웨슬리 모두 기독교의 중심진리가 그들 신학의 중심이었고 이 점에 있어서 일치한다. 중심진리의 내용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받아 천당 가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중심이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로서 세계사를 보면 19세기와 20세기의 죄악의 서양사는 신학적인 문제였다. ACTS는 이 중심진리를 발견했기에 21세기 인류를 살릴 책임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사명이라고 했다.

선교신학 분야는 이교육 교수의 “성경적 선교신학과 전략”과 “회심선교와 성경적 선교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글을 읽고 토론하였다. 한철하 박사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이 로잔언약으로 집약되어 있기에 이를 검토할 것을 제의하여, 주례신학회는 로잔언약(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을 살펴보고, 정홍호 교수의 “로잔언약에 대한 평가”를 읽었다.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워싱턴 대회(1968년)와 방콕 대회(1973년) 등을 열고 전통적인 복음적 선교개념과 영혼구원개념을 왜곡시키는데 반대하여,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가 개최되었다.

로잔언약은 이 대회의 선언문으로 비기독교 세계에 대한 복음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믿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강조하면서, 복음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 교회 안에서의 연합, 세상을 향한 책임 있는 섬김이 있어야 함을 선포하였다.

정홍호 교수는 이 언약의 내용을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유일성,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음전도는 사회적 책임과 제자화 및 교회의 갱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요약하였는데, 남미 선교학자들에 의하여 보다 강도 높은 사회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로잔언약이 비기독교 세계를 향해 복음전도의 사명을 이루고자 열망하는 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CTS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천명하고 강조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그 후에 이동주 교수의 “복음의 유일성과 보편성의 성경적 의미: 타종교 세계관을 근거로”를 읽고 토론하였다. 총평으로 한철하 박사는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주 교수가 재해석하려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은 본래 교회가 필요 없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제시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교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 사회참여 등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논의도 많지만, ACTS 선교신학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참된 의(즉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지만을 보시기에, 기독교 선교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초점이 있음을 늘 강조하고 선교신학의 중심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회사 분야에서 원종천 교수는 교회사 방법론에 대한 그의 논문 “기독교 인식론과 교회사 방법론”에서 반틸의 인식론에 근거하여, 타락한 인간과 중생한 인간의 다른 전제에 입각한 다른 사고체계에 대해 설명한 후, 교회사 연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전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전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교회사의 연구대상은 단순히 교회 역사의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올바른 전제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역사를 주관하셨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사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성령사역의 증거들을 찾아야 한다. 교회의 역사를 알자면 교회를 알아야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인간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께서 세우신 것이다. 원 교수는 요약하여 결론 맺기를, 교회 역사 연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연구로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궁극적 대상은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철하 박사는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원리는 좋으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의 역사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사도 조직신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죄 사함과 회개를 일으킨다는 구조를 다루며, 이를 역사적인 지평 속에서 다루는 것이다. 그러한 교회사 방법론을 가지고 교회사 자료들을 좀 더 자세히 기술(elaborate)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후에 박응규 교수가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교회사를 보는 원칙에 대해 간략히 구두로 발표하였다. 원종천 교수의 인식론과 방법론을 토대로 ACTS 역사신학방법론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구원론적으로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재정리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교리나 주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통사적으로 고찰하고 재서술하는 과정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통사적 고찰 후에 시대적으로 각각의 이교사상이나 잘못된 흐름들에 의해 영향 받은 사례들을 시대별, 인물별, 사상별로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초대 교회는 영지주의나 헬라사상의 영향으로 삼위일체 교리에 중점을 두면서 구원론적인 초점이 약한 부분이 있다. 또한 중세 교회는 성례전적 교회관으로 인해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교리적 변질 및 구원과 그에 따른 변화가 미진한데 대한 규명과 서술이 필요해 보인다.

종교개혁 시대는 개혁자들을 통하여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고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중세 교회의 교리나 의식을 개혁해 가는 데 역점을 둔

것이라고 보기에 이를 강조하는 좋은 서술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근대
는 칸트나 산업혁명, 제국주의 등에 휩쓸릴 때 존 웨슬리(John Wesley),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등
영적 각성가들의 영향과 신학들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물
결이 일어나 제3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철하 박사는 기독교의 구원은 단체구원이 아니
라 개인구원이므로 이를 기억하여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ACTS
의 교회를 기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6.2.3 ACTS “신학공관” 및 “신앙운동”의 발전적 과제

ACTS 신학공관운동이 교수진 가운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징은 ACTS가 항상 두 가지 노
력, 즉 신학운동과 신앙운동의 노력을 함께 병행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ACTS 교수진은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신학적
통일성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철하 박사는 우리가 대망해야 할 신앙부흥의 역사는 사도행전 2:
37-39에 기록된 것과 같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면서, “ACTS 공
동체의 각 사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얻어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남”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에 ACTS 안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은 ACTS가 지난 36년간 ‘신
학수립’에 전념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신앙수립’에 미흡하였음을 보
여주었다. 기독교 종교를 신학적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잘 가르친다
해도, 그 핵심인 ‘신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와 마찬가지
이다. ‘신앙화’되지 않은 신학, ‘생활화’되지 않은 신앙의 비참을 우
리 모두는 절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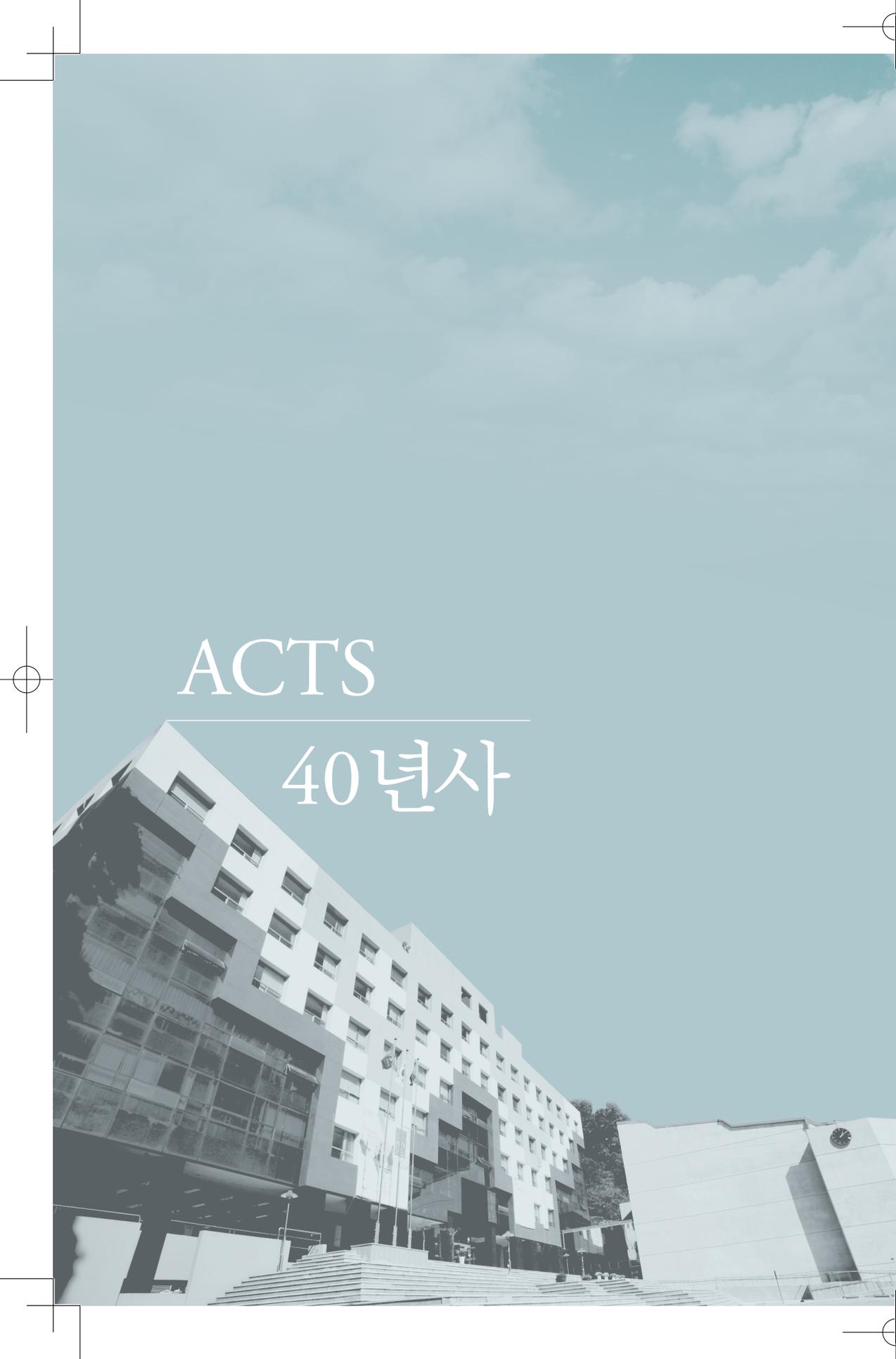
ACTS 안에 ‘산 신앙’을 확립하는 일, 즉 ‘신앙부흥’이 반드시 병행되
어야 함을 분명히 깨우쳐 주셨다.³⁴

그러므로 교수모임에서 경건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교수 전체
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며 일치된 신앙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 왔
다. 이를 바탕으로 ACTS 신학 및 신앙운동도 역시 구원중심으로 이루
어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학생들과 모든 구성원들에게 확산되
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또한 본 대학 교수진은 1998년부터 2006
년 학내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신학공관”에 대
한 연구 발표를 꾸준히 해 왔으며, 모든 글들은 『ACTS 신학과 선교』와
ACTS Theological Journal 이라는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다.³⁵ 이러한
교수들의 연구의 결과는 자신의 분야에 적용시키는 커리큘럼을 개발하
여 우리 대학의 특성화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개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ACTS 신학운동이 한철
하 박사에 의하여 제안되고 주도되어 하나의 강력한 지도력 하에 이어
져 왔지만, 교수진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계승해 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신학적 일치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결
코 용이한 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각고의 노력이
여러 방향에서 필요한 과제이다. ACTS 신학 및 신앙운동이야말로 본
대학의 설립이념인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에 충실하도록 견인할 뿐만
아니라, 설립 목표인 “아세아복음화”를 추진해 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³⁴ 한철하, “ACTS 신앙부흥지침” (2006.8), 1.

³⁵ 특히 ACTS Theological Journal 7(1998)과 『ACTS 신학과 선교』, 제2호(1998), 제4호(2000), 제5호(2001), 제6호(2002), 제8호(2004), 제9호(2005), 제13호(2013) 등을 참조하라.



ACTS

40년사

제5장

시련기(2006-2010)

1982년 양평 캠퍼스에 학부가 설립된 이래 우리 대학은 크고 작은 문제로 수차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소위 ‘학내사태 기간’이라 일컫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의 구성원이 겪었던 어려움은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고 학교의 존망이 걸린 시련기였다. 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총장퇴진을 주장하며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총장은 780여 명의 학생들을 일 년간 직권휴학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십 명에 대한 징계와 끝없는 법적 소송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대학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갈등이 이 학내사태 기간 동안 일어났다.

이 학내사태는 실로 엄청난 상처를 남긴 후에야 마무리 되었고 이를 위해 지불해야했던 대가는 너무나 컸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2005년 대학종합평가부터 립택권 총장 퇴임까지

2005년은 가을에 실시될 대학종합평가(이하 대총평)로 분주한 한 해였다. 이 해는 또한 립택권 총장의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해이기도 했다. 2005년 11월 말 김홍도 이사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김삼환 목사가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제99회 이사회에서는 고세진 교수를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학교 구성원들은 김삼환 이사장과 고세진 총장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학교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비약할 수 있는 용비의 날개를 단 것과 같다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2. 고세진 총장 취임부터 김삼환 이사장 사임까지

2.1 고세진 총장 체제 출범

고세진 교수는 우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지 3년 만에 김삼환 이사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제7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 고세진 총장은 “한국 최고의 신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최고의 수준을 향해 매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2006년 3월 5일 고세진 총장의 취임식이 명성교회에서 저녁예배를 통해 열렸다. 총장 취임식을 학교가 아닌 이사장이 목회하고 총장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열린다는 것이 다소 의외이긴 했으나 본 대학의 여건이 큰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다소 협소하다는 생각으로 대다수 학교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취임 후 개최된 첫 신앙수련회에서 고 총장은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던 중 갑자기 울먹이며 학교가 빛더미에 떠밀려 당장이라도 부도가 날

것처럼 말하면서 학교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희생이 요구된다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절차상의 논의도 없이 고 총장은 일방적으로 식비를 1천 8백 원에서 2천 5백 원으로, 버스비를 1천 9백 원에서 3천 5백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공지하였다.

이어서 총장은 강당건축을 위해 의자를 봉헌할 것을 제안하며 봉헌한 의자마다 기증자의 이름표를 붙여줄 것이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최소한 자신의 식구 수에 맞춰 의자봉헌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과 직원들은 추가로 스쿨버스 봉헌까지 서약하게 하였다.

또한 고 총장은 새로 임명받은 보직자¹들의 모임에서 자신과 김삼환 이사장의 긴밀한 관계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학교발전을 위해 1백억원의 기금을 명성교회로부터 받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이에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2.2 고세진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불신

제100회 이사회를 앞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이한영, 안경승 교수의 “부교수로의 승진 재임용”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제100회 이사회에서는 두 교수의 승진을 보류시켰다. 신학연구원에서 이사회에 “두 교수에 대한 조건부 승진”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이유로 고 총장이 두 교수에 대한 승진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회의 이 결정은 우리 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위배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고 총장은 승진 1년 유보의 결정을 4년 유보로 규정에 맞게 변경하도록 법인직원에게 지시를 하였다.

¹ 당시 주요보직자로는 대학원장 한상화, 교무처장 정흥호, 학생처장 정채욱, 기획실장 이장호, 교목 박해경 교수 등이었다.

이것은 또한 이사회의 결정 없이 총장이 임의로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였다는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2006년 4월 16일(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전에 배포된 명성교회의 부활절 행사 순서지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고세진)가 명성교회 산하의 부속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다수의 학교 구성원들은 명성교회로부터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서신을 발송할 것을 요구했고 총장실의 질의에 대해 명성교회는 아무런 사과 없이 단지 오타였다고 회신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접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은 고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학교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2.3 교수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학교의 정체성과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대다수 교수들은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2006년 5월 18일 교수협의회를 결성하였다.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전체 24명의 일반전임교수 중 안식년 중인 두 교수와 기타 2명을 제외한 20명의 일반전임교수들로 발족되었다.²

교협은 우심화, 원종천 교수를 공동대표로, 정홍열 교수를 총무로, 이숙경 교수를 서기로 선출하고 5월 30일 총장에게 1) 인사 관련 이사회 회의록 공개, 2) 정상비 적자 위기 속에서 모든 재정이 긴축되던 상황에서 총장 급여만 과도하게 인상된 사실에 대한 해명과 총장 급여

² 교수협의회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심화, 원종천, 정홍열, 이숙경, 강창희, 장해경, 정홍호, 한상화, 김준수, 이한영, 안경승, 이장호, 허주, 조휘, 김덕영, 금동철, 김성수, 정재욱, 김영희, 박해경 등 20인.

명세표 공개, 3) ACTS가 명성교회의 부속기관으로 소개된 진상규명, 4) 학교발전을 위한 청사진 등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고 총장은 6월 2일 전체 학생들을 소집하여 교협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 자리에서 두 교수의 인사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총장은 “법인사무국의 행정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총장의 급여액에 대해서는 “모금도 못하는 정교수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훨씬 낫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을 듣게 된 학생들은 고 총장의 인격과 자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총장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갔다.

고 총장은 곧이어 두 가지 인사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명성교회 부목사이면서 우리학교에서는 연구전담교원이었던 남병식 목사를 총장 부속실장으로, 또한 당시 명성교회 안수집사였던 최창덕 법인국장을 총무처장 겸직으로 발령을 내린 것이다. 이는 일반전임 및 대다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반 고 총장 그룹과 비전임 신분의 전담교원들 그리고 학교 직원들로 이루어진 친 고 총장 그룹으로 양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는 중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은 2006년 1학기말 시험기간 중에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학기말 시험 거부 및 학사 일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고, 학내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부 총학생회 및 각 대학원 원우회 임원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였다.³

교협과 비대위는 학내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의 정체성 수호를 외치며 고 총장 측과 대립했다. 학내사태 중 비대위 임원으로 활동했던 대다수의 학생들은 제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후에 법적 소송을 통해 학생 신분이 회복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와 졸업을 하

³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상대대학원 원우회 회장이었던 김기태 목사를 회장으로, 박용범 전도사를 총무로 선출하였다.

게 된 학생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된 학생들도 많았다.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과 교수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한 직원들도 일부 있었다.

한편 학교 밖에서 학교의 회복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문들이 있었다. 그동안 배출된 우리 학교의 졸업생은 결코 적은 수는 아니지만 학부 동문의 경우 대부분 자기 출신교단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여 각기 다른 교단에서 목회자로 활동 중이고 신학대학원 졸업생의 경우는 대부분 독립교단 소속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부와 신대원의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학내사태를 계기로 학부와 신학대학원 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학내사태 해결을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나가게 되었다.

학내에서는 교협과 비대위 그리고 교외에서는 동문 연합모임들이 서로 연대하여 교계를 향한 언론 인터뷰, 학교 회복을 위한 기도회, 성명서 발표 등을 기획하고 함께 추진하였다.

당시 학내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학교 홈페이지의 모글(MOGL)이라는 자유게시판에서의 설전이 큰 역할을 감당했다. 자유게시판의 이름이 모글인 이유는 선교를 강조하는 학교의 설립정신에 따라 자유게시판의 이름을 Mission Oriented Global Leadership의 첫 글자를 따와서 모글이란 말로 조합한 것이었다. 모글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교제하며 공감대를 넓혀 나갔던 소통의 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방어하는 격렬한 논쟁의 장 기능도 담당했다. 그런데 이런 자유언론의 통로였던 모글은 곧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되었다. 당시(2006년 8월) 상담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이

4 고세진 총장의 징계로 제적처분 되었다가 2008년 4월 11일 여주법원의 제적처분 무효판결(2007가합1196)로 징계가 풀린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 박용범, 신현석, 조민석, 양희승, 조동현, 권문연, 이원희, 신재술, 방제선, 최경식, 하대판, 김엘리, 김종명, 이영량, 정진호, 김정은, 조성용, 송관석, 김형진, 이현오, 전보경, 김영숙, 이재윤, 문태준 이상 25명.

혜인 학생이 모글에 올린 글을 일부 소개한다.

저는 학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상담대학원 기독교상담학3학기 차 이해인입니다.

저는 고백하건대 학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니다.

저에게 ACTS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춘천과 양평을 오고 가는 길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조퇴하며 일찍 나온 시간들을 당직으로 대체하고 연차로 반납하고, 야근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지만 제게 월요일은 너무나 감사하며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오는 길이 설레었고 교수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제겐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는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움의 곳이었고 좋은 교수님, 좋은 강의, 좋은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던 감사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학교를 사랑하진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학교에서 지내게 되면서 저는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니다.

관심사가 온통 학교인 학생들을 보면서,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위해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학교의 앞날을 위해 염려하며 눈물 흘리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학교는 배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에겐 학교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의 마음과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왜 학교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백하건대 부끄럽게도 학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사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학교를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비대위를 지지합니다(이하 생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된 이 글은 당시 학내사태 외중에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학내사태 기간 중 치열한 갈등과 싸움의 한복판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갖 희생과 협박 그리고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학교를 지켜냈던 사람들의 수고가 밑받침되어 결국 학교를 지켜내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2.4 학교사태에 대한 이사회의 인식변화

2006년도 1학기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체 학생 비상총회에서 약 1천 명의 학생들은 시험거부와 수업거부 그리고 등록거부를 결의하였고 2학기에 들어서며 학생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따라서 2학기 학사운영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인하여 교수들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한 두 주가 흘러가면서 학생들은 수업거부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등록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1차 등록기간이 지나고 2차 등록기간을 앞둔 시점부터 학교 측은 등록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직권휴학을 시키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체 학생들에게 하루에도 수차례씩 발송하면서 학생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약 800명의 학생들이 2차 등록기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총장퇴진을 요구했다. 고 총장은 2차 등록기간이 끝나자마자 9월 14일 등록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직권휴학 및 제적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전체 재학생의 약 70%의 학생들이 일 년간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학내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주장해 왔던 이사회도 대량 직권휴학사태가 발생하자 학내사태의 본질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태해결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2.5 교계에 대한 호소

종교개혁 489주년을 하루 앞둔 10월 30일 비대위 주최의 “범 ACTS 행동의 날” 대회가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학생들이 학내사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최초의 행사였다. 이 대회를 통해 대학원 원우회, 신학대학원 원우회, 학부 주야간 총학생회와 학부 및 신학대학원 동문들이 함께 모여 학내사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의 설립정신과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결의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이 날 대학 학보사가 발행한 「아신학보」는 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학내사태의 시작으로부터 전개과정을 소상하게 소개하였다.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학교의 재정에 관한 특집이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으며 학교 재정에서 등록금의 의존도와 학생들에게 되돌아오는 학생복지 예산집행에 대한 실상을 알

려주는 매우 유익한 기사였다.

그러나 총장은 「아신학보」를 불법적인 발행으로 간주하고 편집장 김 엘리(기독교교육학 4학년)를 제적시켰다. 이로 인해 학교가 정상화되고 2015년 가을 복간호가 나오기까지 무려 9년 동안이나 「아신학보」를 발행하지 못하였다.

2.6 김삼환 이사장 사퇴와 25명의 제적처리

학교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자 학교법인의 이사들은 학내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제101회 이사회에서 학내사태의 수습을 위해 이사장과 총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그러나 학내사태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자 김삼환 이사장은 제102회 이사회에서 사퇴하였다. 김삼환 이사장이 사퇴하자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들은 학내사태가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3. 이사회 기능마비: 파행적 학사운영(2007-2009)

3.1 일반전임교수들의 수난: 강의박탈과 재임용 탈락

김삼환 이사장의 사퇴 이후 학내사태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이 양분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회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회집하지 못했다. 이사회의 기능 마비는 결과적으로 파행적인 학사운영으로 이어졌다.

김삼환 이사장이 사퇴하자마자 고 총장은 곧바로 24명의 비대위 임원들을 제적하고 그 명단을 본관 로비에 공고하면서 이들의 학교출입을 금지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2월 1학기

시간표가 모두 공지되고 수강신청이 진행된 상황에서 고 총장은 전임교수 전원에게 학교강의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2007년 1학기 강의에서 모두 배제시키겠다고 통보하였다.

교협은 통보서를 받자마자 곧바로 법적 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 수업에 협조하는 것은 교수의 당연한 책무이고 따라서 이는 서명에 상관없이 이러한 요구를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므로 추가적 서명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의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오히려 총장이 교수들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같은 법적 자문에 의거해 교협교수들은 서약서에 상관없이 교수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임을 고 총장에게 공문으로 전달한 후 서약서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고 총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협소속의 모든 전임교수들을 2007년 1학기 강의로부터 배제시켜 버렸다.⁵

전체 전임교수들을 강의뿐 아니라 일체의 보직에서 배제한 고 총장은 연구전담 및 행정전담 교원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진 재임용 대상 교수들에 대하여 재임용탈락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재임용탈락을 제청하였다. 그러나 이사회는 개회정족수 미달로 교수임용건을 처리할 수 없었다. 이에 고 총장은 재임용 대상 교수들을 모든 학교행정 및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

2007년 1학기 김성수, 정채옥 교수를 필두로 2007년 2학기에는 정홍호, 조휘 교수, 2008년 1학기에는 장해경, 한상화, 금동철, 김덕영 교수, 2008년 2학기에는 허주, 김한성, 안효영 교수 등이 승진 재임용 심사를 받지 못하고 수업에서 배제되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⁵ 후에 법원은 이것은 명백한 교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교수 일인당 1백만 원씩의 위자료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사회가 승진 및 재임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야기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교수의 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결정문을 학교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고 총장은 이와 상관없이 강의는 물론 급여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당 교수들을 압박해 나갔다.

3.2 법적 공방사태

학내사태 기간 중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적 소송이다. 학내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자 끝없는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사실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일반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신학대학교의 교수들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법적 제재를 이겨내지 않고는 자신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됨으로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는 방어수단이였다.

처음에는 총장을 지지하는 학교정의추진협의회(이하 학정추)와 학부형행동연대의 주축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소고발을 하다가 후에는 총장이 직접 고소고발을 이어나갔다. 주로 자신들의 불법적인 조치들을 반대하거나 파행적 학사운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인하여 교수들이 강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심지어는 임기가 끝나서 비워 둔 총장실을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로, 그리고 본인의 수업을 받지 않겠다고 강의실 출입을 저지한 학생들을 폭력행위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고소고발하였다.

그리고 학정추 학생들은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인하여 강의를 하지 못한 교수들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교수들의 급여에 가압류까지 걸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형사 고소고발 건들에 대하여 법원은 모두 무혐의로 판결하였다.

3.3 ACTS 심포지움

학내사태의 와중에 교수들은 자신들의 강의가 박탈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강의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양질의 강의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고취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교가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오던 ACTS 신앙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겠다는 열망 등이 모여져 ACTS 심포지움이 태동되었다. 당시 ACTS 심포지움 총무였던 허주교수가 작성한 초대 의 글을 보면 ACTS 심포지움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ACTS 심포지움”초대의 글

— 한국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신학 이야기 —

1974년 국제적 복음주의 신학연구 및 선교교육 센터로 설립된 ACTS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동안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및 아프리카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더욱 책임 있게 감당하고자 ACTS 교수진은 지난 198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학술 논문을 통해 “ACTS 신학-신앙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제 ACTS 교수협의회는 국내 기독교 성도와 신학생 및 목회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함께 나누며 토론하고자 “ACTS 심포지움”을 2008년 2월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다변화되고 세속화 되어가는 오늘의 세대와 문화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정체성과 사명을 함께 고민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ACTS 재학생 동문을 포함한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 신학생, 목회자, 신학자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

대하면서 “ACTS 심포지움” 창립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8년 2월 12일

2008년 2월부터 첫째 마당 “한국 교회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둘째 마당, “한국 교회와 교육”까지 한성화교회에서 개최 한 후, 셋째 마당 “한국 교회와 예배개혁”부터는 이화여대 포스코 기념관에서 심포지움을 이어나갔다.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넷째 마당의 주제는 “한국 교회와 정신건강”이었고 2010년에는 “한국 교회와 헌금관”이라는 주제로 다섯째 마당이 열렸다.

그리고 학내사태가 해결됨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1년 5월 14일 서대문 캠퍼스에서 “ACTS의 어제, 오늘 & 내일”이라는 주제로 학부 1회 졸업생이며 현재 풀러신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광길 박사의 강의로 여섯째 마당이 열렸다.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ACTS 심포지움은 학내사태 당시 우리 대학의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나가야겠다는 뜨거운 책임감 등이 모여져서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된 학술 모임이었다.

3.4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와 총장 해임명령

2006년 학내사태가 시작되어 2007년 1학기부터 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파행적인 학사운영이 지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현 교육부)는 우리 학교에 대해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열흘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교과부는 2009년 12월 전 이사장 김삼환 목사를 제외한 14명의 이사들에 대하여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고세진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길자연

이사장을 비롯한 7인⁶의 이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교과부의 임원승인취소 처분은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고세진 총장 해임처분은 이 명령을 수행할 이사회의 기능 상실로 인해 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후에 학교가 정상화 된 이후에도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으로 교과부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며 연이어 입학생 정원감축 처분⁷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

3.5 총학 복구운동과 총장의 학생징계

2006년 말 고 총장이 비대위 임원들을 집단적으로 징계 한 후 학생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고 총장을 반대하며 등록을 거부했던 790여 명의 학생들은 모두 직권휴학을 당해 2007년에는 학교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몇몇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11월 21일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총학을 재구성하였다. 이 학생총회는 직권휴학을 당한 학생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총 415표 중 386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총학생회장으로 허용범, 부회장으로 문난영을 선출하였다.

고 총장은 학교 측이 인정하지 않는 총학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총학 임원에 대하여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가 이들이 교계언론과 인터뷰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다시 제적이라는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학생들은 징계의 부당함을 들어 법에 호소하여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여주지방법원 2008카합540)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풀지 아니하였고 학생들은 본안소송에서 승소(여주지방법원 2009가합296)하여 2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학교에 돌아올 수 있었다.

6 길자연, 한철하, 장영춘, 이영덕, 정필도, 박성수, 강안삼

7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미이행으로 교과부로부터 2012년 입학정원 2% 감축, 2014년 입학정원 5% 감축되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4. 학내사태 해결과 그 이후의 과제

4.1 고세진 총장의 퇴임과 임시이사 파송시기

교과부 종합감사를 통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정작 그 명령을 수행할 이사회의 기능마비로 고 총장은 임기만료 시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다가 2010년 2월 28일 4년간의 총장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고 총장의 퇴임 후 이사장 직무대행 길자연 목사는 학교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김영옥 법인국장서리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김영옥 총장직무대행은 당시 법적으로 임용상태를 유지하던 8명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수회의를 통해 학사업무를 정상화하였다. 그러나 당시 학교의 직원들은 길자연 이사장 직무대행과 김영옥 총장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를 거부하여 학교는 사실상 행정공백 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학교업무는 8명의 교수로 구성된 교수회의와 업무를 거부한 직원을 대체하여 임명된 행정조교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학내사태 기간 동안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채 대부분의 이사들이 임기만료되자 2008년 8월 제105회 이사회에서는 이사 전원이 사퇴하기로 하고 홍성개 목사 등 10인의 후임이사를 선출하여 교과부에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김삼환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송하려 하였다.

이에 교협과 비대위 그리고 동문들은 서로 연합하여 주요 일간지에 임시이사 파송을 반대한다는 광고를 게재⁸하고 백주년 기념관에서 연

8 2009년 10월 21일 조선일보와 10월 27일 동아일보 각각 사설란 하단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

합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임시이사 파송의 부당성을 교계와 정치권에 역설⁹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교과부의 공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❶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 10인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지난 8월 20일 이사회는 등기부재자 14명 중 9인의 이사가 참석하여 8인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이사 10인을 선임했습니다. 교과부가 이와 합법성을 인정하고 속히 선임이사승인을 해 주는 것이 본교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조치입니다.

❷ 외부세력의 학교 사유화를 위한 부당한 개입 의혹의 여지를 제거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이사승인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임시이사 파견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학교 사태의 발단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온 교계 특정 세력의 사유화 시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공정한 행정을 통하여 이런 의혹의 여지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❸ 임시이사 파견을 결사반대합니다.

신임이사승인을 통한 학교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교과부의 임시이사파견에 대한 고려는 학교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자생 가능한 사학을 무너뜨리는 유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부 총동문회 회장 임명희목사 신대원 원우회 회장 박미숙	교수협의회 회장 우상희교수 정상화 협의회 대표 안창성목사	신대원 동문회 회장 박근섭 목사 제 29 대 총학생회 회장 허용범
------------------------------------	------------------------------------	---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광고

4.2 수업정상화의 진통

김영옥 총장직무대행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했던 사안은 수업정상화였다. 우리 대학의 학칙에 수업개설은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내사태 기간 동안 고 총장은 단 한 번도 교수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모든 수업을 결정하고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직원들은 학교행정 최고 책임자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 총장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그 결과 고 총장은 임기만료 시까지 대다수 일반전임교수들을 배제한 채 소수의 계약직 교수와 외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학사행정을 운영하였다.

교의 정상화를 위한 교과부의 공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9 2010년 4월 23일 백주년 기념관.

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2010년 3월 1일부로 이사회에서 임명된 김영욱 총장직무대행은 본 대학 규정대로 교수회를 소집하고 학사업무를 수행하였다.

2010년 1학기말에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임시이사 파송이 결정되었다. 교과부에서 선임한 임시이사들은 2010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모두 7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학교 정상화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임시이사 파송자체가 행정심판에 의해 무효화 되어 2010년 12월 교과부에 의해 모두 해임되었다.

4.3 임시이사 파송 무효판결과 학교회복

본래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송은 법적으로 무리수였다. 학교법인은 2008년 8월 제105회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인 총장 1인과 개방이사 4인을 제외한 10인의 후임이사를 선출하고 교과부에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김삼환 목사를 제외한 14명의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후임이사의 임원취임승인 또한 거부했다. 그리고 2011년 6월 우리 대학에 15인의 임시이사를 파송했다.

이에 길자연 이사장을 비롯한 7인의 이사들은 교과부를 상대로 임원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389)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리고 새로 선임한 10인의 이사들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이행해 달라는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03048)을 제기했다. 아울러 교과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선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 24357)도 제기했다.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건의 행정소송과 한 건의 행정심판에서 모두 승소하게 됨으로 교과부에서 파견했던 임시이사는 6개월 만에

모두 해임되었다. 2011년 1월 우리 학교법인에서 선임했던 10인¹⁰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게 됨으로 그동안 이사회가 회집되지 못함으로 심화되었던 학내사태가 해결되었다. 새로 선출된 10명의 이사들은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장으로 김영욱 전 법인국장(본 대학 은퇴교수)을 제8대 총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어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장영춘, 박기호, 최경욱, 김인성 목사 등 4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하였다. 이로서 학내사태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4.4 해결해야 할 과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은 학교법인의 모체이며 학교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유지재단의 성격으로 운영되었다. 학내사태 중 본 대학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파송이 무효판결되고 학교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김삼환 전 이사장은 임시이사파견이 무효판결 되기 직전인 2010년 12월 21일 재단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교법인과 상관없는 새로운 인물들로 재단법인 이사 전원을 교체 선임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김삼환 목사는 재단법인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회 자체가 무효라고 확정판결하였다.

재단법인은 재적이사 5인을 학교법인의 이사들 중에서 선임해 왔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겸하였고 총장이 재단법인 신학연구원장을 겸하면서 당연직 이사가 되었다. 나머지 3인의 이사는도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선임해 왔다. 그러나 학내사태의 와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김삼환 목사가 사퇴하였고 이영덕, 최창근 이사가 소천하여 재단법인 이사 중에는 2013년 1월 당시 한철하, 고세진 2인

¹⁰ 홍성개, 이수영, 원광기, 강신원, 이용남, 김성길, 김관선, 김경윤, 최남수, 노원복.

만 남게 되었다. 이에 두 이사는 각각 법원에 임시이사선임을 요청하여 한철하 이사가 요청한 학교법인 이사장 최남수 목사와 고세진 이사가 요청한 최인석 집사, 그리고 법원에서 선정한 김광수 변호사 등이 임시 이사로 선임되었다.

2015년 4월 현재 법원에서 선임한 이사의 적법성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루 속히 서대문 재단법인도 정상화 되어 학내사태로 야기된 모든 문제들이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학내사태 기간 중 학생들은 이 학내사태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과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고민해 왔다. 그 고민을 아래의 한 문장으로 구성된 표어로 제작한 바가 있었다.

“누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ACTS를 보게 하라!”

이 표어의 글귀처럼 우리 대학의 학내사태는 당시 한국 교회가 안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학교 문제 안에 압축적으로 표현된 상황이었다. 학교 안팎의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얽히고 설켜 결국은 임시이사까지 파송되어 학교로서는 큰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지키려고 했던 대다수 학교 구성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학내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다. ACTS 학내사태가 한국 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그대로 드러나 보여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 앞에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여줄 책임과 과제가 놓여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재도약기(2011-2014)

1. 재도약기의 서곡

1.1 제7대 이사장, 홍성개 목사와 제8대 총장 김영욱 박사의 취임

2011년은 여러모로 재도약기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약 5년간의 학내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뒤로 하고, 학교 구성원의 간절한 기도와 기대대로 본 대학 이사회의 정상화가 완료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현 교육부)는 2011년 1월 27일부로 2009년 8월 20일에 열린 제105회 이사회에서 선임한 신임이사 10명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2010년 6월 교과부에서 선임하였던 임시이사 체제는 6개월 만에 종료되었으며, 학교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어 정상화에 박차를 기하게 되었다.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회에서는 동년 2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동도교회 홍성개 목사를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연이어 2월 17일 이사회에서는 김영욱 박사를 제8대 총장으로 임명하기

로 결의하였다. 이어 새로운 이사진 구성도 완료되었다.¹ 이사진이 마무리됨에 따라 학교는 정상화의 길을 빠르게 밟기 시작하였다. 정관의 변경, 대학의사 결정의 신속화, 보류되었던 교수들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예·결산의 승인 그리고 학내 구심점 역할 등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처리해 나갔다.

또한 김영욱 총장은 3월 1일부로 2011학년도 보직교수 및 주요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학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² 또한 학교가 정상화 되면서 새로 선임된 이사장 및 총장 취임예식은 3월 15일 본 대학 캠퍼스에서 거행되었고, 오랜만에 학교 공동체의 환한 웃음 속에 많은 축하객들이 새로운 도약을 축복해 주었다.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후원교회들과 각 기관들의 인사들, 그리고 많은 재학생들 및 졸업생들이 참석하였으며 항공선교회의 비행기가 축하 비행을 하면서 ACTS의 새로운 도약(跳躍)과 비상(飛上)을 기원하였다.

홍성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며 막힌 담을 허물고 중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손잡고 나아가자”라며 화합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 총장도 학교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의 사명감과 현주소 그리고 학교가 나아가갈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우리 대학의 본래적 설립목적은 다시금 분명히 인식하고 중차

1 “학내 구심점이 될 이사회 정상화 완료”, ACTS NEWS 30(2011.7.1), 2. 새로 구성된 이사진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홍성개 목사(동도교회) 2) 이사: 원광기 목사(잠실교회), 강신원 목사(노량진교회), 이용남 목사(장석교회), 김성길 목사(시은소교회),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김경윤 목사(목포초대교회), 최남수 목사(의정부 광명교회),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 노원복 장로(수송교회), 감사: 이강봉 장로(개포동교회).

2 2011학년도 임명된 보직교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대학원장/우심화 교수, 대학원 교학처장/장해경 교수, 국제교육원장/원종천 교수, 국제교육원 교학처장/이한영 교수, 선교대학원 교학처장/정홍호 교수, 교육대학원 교학처장/이숙경 교수, 상담대학원 교학처장/김준수 교수, 복지대학원 지도교수/정채욱 교수 2) 학부: 교무처장/정홍열 교수, 학생처장 및 생활관장/박응규 교수, 문헌정보관장/한상화 교수, 교목 및 학생상담소장/안경승 교수, 교지학보사 주간교수/금동철 교수, 학과장-신학과/허주 교수, 선교학과/우심화 교수, 기독교교육학과/김준수 교수, 선교영어학과/김택영 교수, 교양학부/금동철 교수.

대한 사명감에 불타 올라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동문들의 보다 활발한 기여와 보다 깊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³ 그리고 이 날 취임식에서는 그동안 학교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한 길자연 전(前) 이사장을 비롯한 전(全) 이사들께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한철하 박사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는 예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고난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ACTS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애쓰고자 노력하였다. 김 총장도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저는 맡겨주신 학교를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학생들과 교수진들과 함께 새벽기도회에 거의 매일 참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에 전력하였다.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구성원들 사이의 막힌 담을 헐고 사랑으로 화합되기를 간절하게 회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새벽마다 울려 퍼졌다. 무엇보다도 ACTS에 부여하신 귀한 사명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자 노력하면서, 면학분위기가 심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1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ACTS 학부생과 신학대학원생들 그리고 국제교육원생들이 1박 2일 동안 경기도 양수리 십자수수양관에 서 박노철 목사(서울교회)를 주강사로 초청하여 1학기 신앙수련회를 은혜 중에 가졌으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수양회에서는 조휘 교수를 주강사로 별도의 신앙수련회를 진행하였다. 5월 4일 화요일에는 김 총장의 사회로 개교 제37주년 기념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강당을 가

3 “ACTS 제7대 이사장 홍성개 박사, 제8대 총장 김영욱 박사 취임”, ACTS NEWS 30(2011.7.1), 1.

4 “제발간사”, ACTS NEWS 30(2011.7.1), 2.

득 매운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우리 대학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귀중한 시간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홍성개 이사장은 “신앙전승과 인재”(딤후 1:1-5)라는 설교를 통하여 ACTS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재양성임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전승하기 위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인재를 양육해야 하는 곳이 바로 신학대학교”이며 이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개교 37주년 기념예배를 통하여 “새 아시아의 교회와 사회건설”이라는 목적으로 세워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앞으로 더욱 밝고 찬란한 역사와 비전으로서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아시아의 교회를 위한 섬김의 자세를 더욱 여미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년 만에 학부 학생들의 축제가 5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제31대 크레센도 총학생회와 제17대 야간 하모니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ACTS Festival 2011”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점점 크는 ACTS”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2학기 신앙수련회는 2011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소망교회 수련원에서 김성길 목사(시은소교회, 본 대학 이사)를 주강사로 초청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거행되었다.

개회예배에서는 국제교육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각 나라의 전통 복장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해 주었다. 또한 신앙수련회 기간 중에 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을 하지 못한 학우들을 위한 헌금시간을 별도로 갖는 등, 예배와 경건 그리고 나눔이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간의 연속이었다.

2. 학부 및 대학원 재정비

2.1 새로운 교수진 보강, 교수 신규임용

재도약기를 맞이한 ACTS는 교수진 보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김영욱 총장도 2012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서 교육과 선교에 더욱 박차를 기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 국내·외 여러 사역지에서 흩어져 섬기는 ACTS 동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힘을 기울일 것
- ② AIGS를 통한 외국인 학생들의 신학 및 선교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
- ③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준비된 지도자 양성을 계속해 나갈 것
- ④ 다문화 가정의 교육과 그들을 통한 또한 그들과 함께 하는 사역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
- ⑤ ACTS의 영성을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에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가 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⁵

이러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임교원의 확보가 우선적 과제였다. 재도약기를 맞아 일반전임교원으로 김다니엘 교수가 2011년 2학기에 임용됨으로 그 물꼬를 텃다.

2011년 12월에 개최된 제110회 이사회의 주요한 안건 중의 하나도 신규교원 임용이었으며, 새로운 교수진을 보강해 나가는 일은 2012년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일반전임교원으로 선교학과의 안점식 교수,

5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ACTS NEWS 32(2012.1.16), 2.

선교영어학과의 김한성 교수, 기독교교육학과의 전병철 교수, 신학과의 정성국 교수가 임용되었고, 초빙교원으로 백효죽 교수, 겸임교원으로 윤현기, 윤석호 교수 등이 보강되었다. 이들은 모두 미국과 한국의 우수한 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마친 자들이었다.

2012년 2학기에도 신입 교원들이 임용되었다. 설교학을 전공한 신성욱 교수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손신 교수 등이 보강됨으로 ACTS 교수진은 다양한 분야에 진용을 갖추어 나갔다. 또한 연구전담교원으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한 박영주 교수를 신규 임용하여 학습개발센터의 책임을 맡겼다. 반면에, 비교종교학을 전공하고 선교학 교수로 봉직해 온 이동주 교수가 2012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하였다.

또한 2학기에는 지난 24여 년간 본 대학에서 성실하게 봉직해 온 강창희 교수가 정년퇴임하게 되었다. 강 교수는 신약학 분야에서 학술이 탁월하고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음이 인정되어 2012년 9월 1일부로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두 교수가 정년퇴임하는 가운데, ACTS 역사에서 2012학년도야말로 가장 많은 교수진이 임용된 한 해였다.

2013년도에 들어서면서 교수임용은 4명의 일반전임교원과 11명의 연구전담교원들을 대폭 신규 임용함으로써 전임교원 확보를 제고(提高)할 뿐만 아니라, 지역학 연구와 각 선교연구원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일반 전임교원들로는 신학과의 조지신학을 전공한 김재윤 교수와 구약학을 전공한 김성진 교수가 그리고 선교학에서는 조은아 교수가 그리고 교양학부에는 권오윤 교수가 임용되었다. 그리고 연구전담 교원들로는 강대홍 교수를 비롯한 10명이 새롭게 임용되었다.

새로 임용된 교수들은 대부분 학적인 소양과 선교지에서의 경력을 겸비한 자들이다. 또한 영어교육과 AIGS(ACTS 국제교육원) 교육을 위해 미국 기독교개혁교단(Christian Reformed Church: CRC)에서 파송한 레오나드 벤더지(Leonard J. Vander Zee) 교수와 진 로간(Jeanne Logan) 교

수가 보강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15년간 기독교교육학과 권택조 교수가 2013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했고, 또한 오랫동안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강의해 왔던 더크 넬슨(Dirk Nelson) 박사 부부가 퇴임하고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리고 2014년 1학기에도 김진욱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연구전담교수들과 1명의 강의전담교수와 1명의 초빙교수를 보강하였다. 이와 함께 교직원들도 보강되고 보직 이동도 있었다.

2.2 학부 및 각 대학원의 안정과 발전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고 바쁘게 한 해를 보내고, 2012년 2월 14일에는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양평 캠퍼스에서 거행되었다. 명예신학박사 1명, 신학박사 1명, 석사 108명, 학사 189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으며, 이로써 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숫자가 총 6,678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잠실교회에 부임하는 림형천 목사에게 기독교지도자로서 국내·외에서 초교파적인 기독교 활동을 비롯해 한국 교회의 부흥발전에 공헌한 바에 대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학내사태로 졸업할 수 없었던 학부 및 대학원생 8명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의미 있는 순서도 진행되었다.

학교가 회복되자,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이 본 대학에 입학하는 일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 정원을 무리 없이 채워 나가는 작업은 그렇게 녹록한 과제는 아니었다.

본 대학 학부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해 신입생들을 모집해 왔다. 2013년도 수시 모집부터는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선교학과, 선교영어학과 외에, 선교중국어학과를 신설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선교중국어학과는 학생들이 중국어를 통·번역할 수 있도록 언어능력을 제고시키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중국의 현대정치와 경제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21세기 선교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지하고 비전을 확인하게 되며, 졸업 후 본 대학의 대학원 또는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습득한 중국어를 활용하여 대중국 분야에서 기독교 전문인으로 사역할 수 있다. 신입생들은 1년간 생활관에 의무적으로 입학하여 철저한 학업과 신앙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한 “원어민 TA”(Native Teaching Assistant)제도를 통하여 중국어 습득에 큰 도움을 받게 되고, 스터디 그룹을 통해 중국 문화와 언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또한 방학 때에는 중국 어학연수의 기회를 통해 본 대학과 자매결연한 중국의 대학에서 중국어를 연마하고 중국 문화와 역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 신설된 선교중국어학과 학생들은 6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중국 북경건축대학에서 중국연수가 실시되었다. 중국어 집중강의와 중국 현지답사와 현지 교회 방문 등으로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45일간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수를 마치는 수료식에서 참가한 학생들은 중국어로 소감을 나누었고 저마다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한국어 신학대학원은 개원한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갔다. 야간에 공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여건상 어려웠지만, 학생들 간의 교제와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자 공동체 모임을 배정하기도 했고, 목요일 채플 시간을 통하여 모든 신학대학원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공동체로 견고해지고 있으며, 설교대회와 다양한 특강시간 그리고 동문 홈커밍데이와 AIGS 외국인 대학원생들과의

선교의 밤 행사 등이 매년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내에 성경강해설교학 신학석사 과정을 2012년 1학기부터 개설했는데, 상당수의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성경강해와 설교 준비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 목회자와 강단을 섬기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원은 신학대학교 최초로 2012년부터 다문화교육 석사 과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 다문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다문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였다. 교육대학원은 기존의 교육 과정, 상담 과정에 다문화교육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모두 3개 전공 과정을 운용하게 되었다. 다문화교육 과정은 급속하게 글로벌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 필요성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교육적 고려라고 할 수 있다. 본 대학이 이러한 교육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초·중등 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업무 담당자 등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문화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2014년에 본 대학의 교육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기독교교육상담학과는 국제기독교학교연맹(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ACSI)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국제기독교사 양성기관 인증을 받았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ACSI는 전 세계 29개국에 지역 사무실을 개설하고, 1백여 개 국가에 있는 2만 4천여 개의 회원학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교육단체이다. 기독교학교의 교사와 행정가들을 위한 인증프로그램, 학교교육 과정인준 프로그램, 교재 및 교육 과정개발 보급 등을 전 세계에 걸쳐 하고 있으며, 본 대학이 ACSI로부터 양성기관으로 인증을 받음으로 본 대학 졸업생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를 무대로 기독교학교 교육에 활발

히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최근 들어, 본 대학이 학내사태를 해결하고 대내·외적으로 재도약하는 상징적인 행사는 2013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양평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이하 한복신) 주최 제62차 정기논문 발표회 및 제4차 국제학술대회였다. “창조신학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7개국에서 초청된 11명의 해외학자들과 수십 명의 국내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귀한 논문들을 발표하고 450여 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본 대학 교수들도 분과 발표와 좌장 그리고 논평자로 참여하였다. 본 대학의 명예총장 한철하 박사를 비롯한 ACTS의 초기 교수진은 한복신 태동 때부터 초창기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고, 서대문 캠퍼스에서 전체 학술대회도 여러 번 개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오랫동안 회장을 배출하지 못했음은 물론, 본 대학에서 전체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만큼 ACTS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6년에 시작된 학내사태라는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교수진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ACTS의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본질적 사명에 충실함에 있어서 화합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다. 한복신 회원교수들도 어려움을 겪는 ACTS가 학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도 흔쾌하게 서명해 준 숫자가 수백 명이 넘었다.

학내사태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강당 증축 공사가 완료되었고, 김영욱 총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한복신 임원으로 수고하고 있었던 박응규 교수의 중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ACTS 공동체 모두의 헌신적인 협조로 제62차 정기논문발표회 및 제4차 국제학술대회를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은 새로 증축한 강당에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다. 개최예배시에 AIGS 학생들이 각 민족의 고유한 의상을 입고 찬양 드리는 모습

은 국제학술대회의 면모에 걸 맞는 ACTS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멋진 장면이었다. 이 학술대회야말로 강당 증축이 완공되고 치른 첫 대외행사였으며, 참석한 많은 학자들은 입을 모아 회복된 ACTS의 모습에 감동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학회에 감사의 인사를 연발하였다.

또한 재도약기에 들어선 ACTS에 개설된 가장 독특한 과목 중의 하나는 2014년 1학기에 학부생 50여 명과 AIGS 20여 명이 수강한 English Drama라는 과목이었다. 김다니엘 교수가 지도한 이 과목은 신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신학적 개념인 창조, 타락, 구속, 화목, 그리고 연합 등의 주제들을 다양한 예술방식으로 무대에서 표현하는 종합예술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와 언어와 문화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는 소위 Theo-Drama “Imago”라고 할 수 있다. 한 학기 내내 준비한 이 드라마를 1학기 말인 6월 10일에 학생들과 외부 관객까지 초청하여 공연을 가졌다. 참여한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공연했고, 참석한 관객들을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간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되었다. 특히 음악, 댄스, 마임, 연기, 디자인, 테크노아트 등의 다양한 예술방식들의 무대 연출은 신학적으로 승화시킨 종합예술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또한 이 드라마는 2014년 8월 중순에 본 대학에서 개최된 ATA Theological Consultation on Christology 세미나 기간 중에도 공연되어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참가한 학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다.

2.3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는 ACTS

선교지향적인 본 대학의 특성상, 국제화는 반드시 지속시켜야 하는 주요한 교육목표 중의 하나이다. 초기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복음주의

적 신학대학교와 교육기관들과 교류해 온 ACTS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여 더욱 활발하게 자매결연과 교류(MOU)를 확대하였다. 2012년 5월 17일 캐나다 매니토바 주에 소재한 프로비던스대학(Providence College)에서 국제관계 담당 책임자인 존 존슨(John Johnson)이 본 대학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맺었다. 양교의 학생들은 교환학생으로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면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한 협정 내용은 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프로비던스대학의 전공 및 교양학과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부에 편입할 수 있으며, 대학과정의 1/3 이상을 프로비던스대학에서 수강한 경우, 그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양교 간에 맺은 협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휘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명의 학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프로비던스대학에서 수학 중에 있다.

본 대학은 해외의 여러 학교들과의 자매결연도 확대해 나가면서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방문하였다. 2012년 10월 26일에는 미국 보스턴에 소재한 고든콘웰신학교(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데니스 홀린저(Dennis Hollinger) 총장 내외와 한국사역을 담당하는 박홍수 목사가 본 대학을 방문하여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홀린저 박사는 채플에서 설교하고 학생들에게 귀한 감화를 끼쳤다.

11월 13일에는 국제구호단체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정정섭)와 교육, 연구 및 학술, 사회봉사활동 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맺었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선교연구와 훈련과 실행을 위하여 인성 및 선교교육을 위한 인적교류, 선교를 위한 학술공동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학술자료교류, 선교현장실습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있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은 본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나눔을 위한 일에 앞장

서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고, 학교 당국도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3학년도 봄 학기부터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와 협약을 통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학업(M.Div., M.A.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해외 유수의 신학대학원에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원하는 학생들은 유학갈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약은 칼빈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와도 체결되었다. 5월 2일에 칼빈신학교 총장인 올리우스 메덴블링크(Julius Ted Medenblink) 박사와 ACTS 미주 이사회 이사인 오용주 목사가 방문하여 설교와 특강을 했고, 양교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협의를 하였다.

6월 26일에는 CRC의 해외선교부 총무인 게리 베커(Garry Bekker) 박사가 본 대학을 방문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CRC 교단은 본 대학에 교수를 파송하여 국제적인 신학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10일에는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선교대학장인 스캇 선퀴스트(Scott Sunquist) 박사가 방문하여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Christian Mission as our Participation in Christ”라는 제목으로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연하였다.

본 대학의 국제화의 발걸음에는 북미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일본 내에 있는 학교들과의 관계개선으로도 이어졌다. 2013년 6월 3일에는 일본갓스이여자대학(Kwassui Womens University)에서 가노 타카요(Kano Takayo) 학장, 웨일라 노리스(Sheila A. Norris) 교수, 유이치로 시나(Yuichiro Shina) 교수 그리고 최병일 교수 등이 방문하여 본 대학과 국제교류를 증진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양교 간의 교육·학술교류 협정은 10월 29일 일본 갓스이여자대학을 방문한 김영욱 총장과 가노 타카요 학장 간에 체결되었다. 이번 협정을 통하여 양교는 학생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등에 있어 상호간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ACTS 국제화의 주요한 목적은 선교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데에 있다. 2013년 11월 13일에 본 대학과 SIM 국제선교회는 영어선교훈련 영역에서 상호 자원을 공유하고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두 학기에 걸쳐 소정의 영어로 선교훈련 캠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훈련 과정은 타문화권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집중적으로 영어와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교사로 오랜 기간 경력과 인품을 갖춘 강사들로부터 받는 인격과 사역의 기술 그리고 언어의 능력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에 교육의 국제화와 함께 선교지향성을 강화하는 데에 귀한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여름 방학 기간 중에는 선교영어학과 학생들 12명이 김한성 교수의 인솔 하에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네팔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하였다. 산간 지역을 트레킹하면서 종교교육활동, 현지 학교시설 개선사업 참여 그리고 현지 한인 중고등학생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한국과 네팔 사이의 친선관계에 기여했고, 더 나아가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현지 네팔 관계자들은 감사의 뜻을 전해 왔고, 이번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도 국제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영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는 계기도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봉사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깨닫는 기회였다. 이러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단기 선교활동을 통하여 ACTS 학부생들은 누구보다도 대학시절에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학문연

구와 미래의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3. AIGS 개원, ATA 그리고 선교대회 개최

3.1 AIGS의 개원과 발전

2011년은 ACTS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분주한 한 해이기도 했다. 봄 학기부터 ACTS 내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신학교육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ACTS 국제교육원(ACTS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AIGS)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개원하였다. AIGS는 설립초기부터 실시해 온 학교의 국제화 이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발전방안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원장에 원종천 교수, 교학처장에 이한영 교수가 임명되었고 이로써 학내사태 이후 침체되었던 국제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비하고 개발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신학교육도 신속하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2011년 1학기에 학교가 정상화되었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도, 미얀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등 7개국에서 온 11명의 외국인 학생들과 2명의 한국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목회학석사(M.Div.)와 신학석사(Th.M.) 학위 과정이 회복되었다. 2학기에도 외국인 신입생 10명이 입학하였고, 그 숫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AIGS의 영어신학교육 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 학기동안에 두 번에 걸친 특별예배를 드리면서 교내 구성원들 모두에게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소개와 AIGS 현황에 대해 널리 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간구하였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만들어 “International Food Festival”을

개최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음식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또한 AIGS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교회적 후원을 도모하기 위해 선교실을 비롯한 행정업무도 강화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선교단체에 AIGS의 새로운 출발을 널리 홍보하고 선교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예비 지도자들을 추천할 수 있는 네트워킹도 강화해 나갔다. 특히 지난 37년 동안 ACTS를 졸업한 외국인 동문들과의 “Global Networking”을 통해서 학교 설립의 기반이었던 “아세아복음화”의 기치를 새롭게 드높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2012년에 들어서게 되면서 AIGS 신입생들도 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지원했는데, 다시금 아프리카나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지원서가 쇄도하게 되었다. 2011년 가을에 케냐, 카메룬, 방글라데시 등 14국에서 76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였고, 그 중에 20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외국인 학생들의 현저한 지원 증가 추세는 ACTS의 설립이념인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발걸음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13학년도에는 보다 많은 34명의 AIGS 신입생들에게 입학이 허가되었고, 학생들의 출신국가도 더 다양해졌다. 수년 동안 재학생이 없었던 태국과 부탄에서도 학생들이 지원했고, 남미의 도미니카 공화국과 덴마크에서도 학생이 입학하게 되었다. 남미 출신 학생은 두 번째이고 덴마크에서는 유학 온 학생은 이번이 개교 이래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약 20여 개국에서 76명의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AIGS에서 공부하게 됨으로, 학내사태로 중단되었다가 AIGS를 개원한지 2년 만에 학생 수에 있어서 이전의 규모를 회복하였다.

현재까지 약 50여 국가에서 460여 명이 졸업 이후 세계 곳곳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본 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기거할 생활관의 규모가 더 확보되고 교육체계가 더 갖춰진다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AIGS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과의 교제와 만남은 생활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목요일마다 함께 드려지는 영어예배를 통해서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2012년 5월 3일 목요일 저녁에 한국어 과정 신학대학원 원우회가 주최한 “선교의 밤”(Mission Night) 행사를 통하여 선교적 도전을 주고 받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행사를 통하여 서로 미래의 사역에서 기도하는 후원자로서 서로 동역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문화와 인종의 경계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다. 선교의 밤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아름다운 선교적 인연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마치 ACTS 안에 작은 세계를 이루어 선교공동체로 영글어가는 귀한 모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AIGS 학생들의 학문적 변화 중의 하나는 한국 기독교와 선교 역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수진의 권고가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정기적으로 Korean Church History 과목이 M.Div. 과정과 Th.M. 및 Ph.D. 과정에 정기적으로 개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예전에는 발견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어 과목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도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13년 4월 5일에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을 방문하여 한국 교회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현장 방문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100주년 기념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3.2 AIGS 세계석학 초청 세미나, 국제포럼

AIGS가 발전해 가면서 추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계석학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학문적 자극과 지평을 넓혀 주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ACTS의 초창기부터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ACTS에 와서 강연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신학대학들이 발전해 가면서 그러한 기회들은 다른 대학들과 공유하게 되었다.

2012년 5월 7일, 18일, 그리고 23일에는 미국과 뉴질랜드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국제신학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월 3회에 걸친 연속 강연회는 참석한 학생들에게 귀한 학문적 도전과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다. 첫 번째로 미국 비블리컬신학교(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의 총장인 데이빗 던바(David G. Dunbar) 박사가 “미국 문화가 복음주의 신앙에 끼친 영향”에 대해, 두 번째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 피터 릴백(Peter Lillback) 박사의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온타카대학(Ontaga College)의 학장인 머레이 래(Murray Rae) 박사는 “성경해석의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러한 신학포럼은 “국제적인 포럼을 통한 바른 신학 정립과 나의 신학조명”이라는 취지에 따라 개최되었고, AIGS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신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한국 학생들도 참여하여 많은 유익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다.⁶

그 후에도 신학포럼은 계속되었는데, 10월 29일에는 미국 개혁기독교개혁교단(CRC)의 세계 선교 총무인 게리 베커 박사가 “변화를 위한 성경적 기초”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고, 12월 3일에는 미국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의 구약학자인 빌렘 반게메렌(Willem A. VanGemeren) 박사가 “예언해석 모델 2가지”라

는 제목으로 의미 있는 강연을 해 주었다. 그 후에도 칼빈신학교의 총장과 역사신학 교수를 역임한 제임스 드용(James A. DeJong) 박사가 방문하여, “John Calvin’s ‘Golden Book’ on the Christian Life”라는 특강과 “A Review of the Dutch Further Reformation, 1600 to 1915”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칼빈과 화란 종교개혁에 대해 강연하였다. 또한 2013년 봄 학기에 본 대학을 방문한 미국 반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의 교수인 폴 림(Paul Lim) 박사가 “The Promise of Trinitarian Ministry and Theology”라는 제목으로 삼위일체사역과 신학에 대해 강연함으로써 참석한 학생들의 신학적 지평을 열어주고 학문적 자극을 준 유익한 시간이었다. 2013년 가을학기에도 국제포럼은 미국 비블리컬신학교의 데렉 쿠퍼(Derek Cooper) 박사의 “Christianity vs. Christianities”라는 주제의 강연과 필리핀 비블리컬신학교(Biblical Seminary of the Philippines)의 총장인 조셉 샤오(Joseph Shao) 박사의 “Serving the Unchanging God of Missions”라는 주제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14년에도 세계적인 석학들의 ACTS 방문은 계속되었다. 4월 30일에는 미국 비블리컬신학교의 총장인 프랭크 제임스(Frank James) 박사가 내한하여 “The Missionary Impulse of John Calvin”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는데, 이 특강은 참석한 AIGS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학우들에게 칼빈 이해의 시각을 새롭게 열게 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제임스 총장은 옥스퍼드대학교(Oxford University)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문적으로나 지도력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5월 21일에는 영국의 세인트앤드류대학교(St. Andrews University)의 알랜 토랜스(Alan Torrance) 박사를 초청하여 귀한 포럼을 가졌다.

10월 22일에도 본 대학을 방문한 영국의 하워드 라이트(Howard Wright) 목사가 “목회 기본요소”에 대해 특강했고, 11월 5일에는 캐나

6 “국제교육원(AIGS) 주관 국제신학포럼 성공적 개최”, ACTS NEWS 34(2012.8.6), 3.

다 토론토대학교(Toronto University) 위클리프칼리지(Wycliff College)의 글렌 테일러(Glen Taylor) 박사가 “시편에서의 기독교론”에 대하여 유익한 강연을 해 주었다. 이러한 세계석학들의 연속적인 학술적 강연들과 본 대학 교수들의 수업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의 ACTS에 대한 자부심과 학술적인 의욕은 더욱 고양되어 갔다.

3.3 ACTS 후원운동의 확산

본 대학이 정상궤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후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ACTS 후원 10만 명 기도후원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주님의 위임명령은 계속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ACTS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달라고 하는 선교요청이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ACTS를 후원하는 손길이 널리 확산되었고 많은 독지가들, 교회들 그리고 기관들의 후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교단의 후원이 없는 본 대학으로서는 더 많은 후원이 있어야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실정이다.

ACTS는 설립 초기부터 외국인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에 전액 장학금 혜택을 주어 왔다. 그 주된 이유는 대부분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로서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 북미나 유럽으로 유학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아시아 국가인 한국에 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주 가난한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항공료와 전액 장학금을 주도록 했다.⁷ 최근에 들어서, ACTS의 전통적

⁷ 부르스 니콜스(Bruce J. Nicholls) 박사에 의하면, 초창기에 ACTS에 아시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 학생들을 원활하게 모집하려면 “항공료와 함께 전액 장학금을 주도록 자문”했다고 하였다. 아마도 인도의 Union Bible College에서 20여 년간 교수와 학장으로서 교육자로 그리고 선교사역을 감당한 그로서는 누구보다도 인도를 비롯한 가난한 아시아 국가의 신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한 제안과 자문을 하였다. “부르스 니콜스 박사님과 인터뷰”, ACTS NEWS 41(2014.10), 11.

인 선교와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AIGS Partnership”이라는 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CTS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 1명에게 1년에 2백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시면, ACTS는 2백만 원을 추가하여 학생에게 장학금(matching scholarship)으로 지급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라는 후원문구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나갔다. 학교가 회복되고 원래의 설립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증가해 갔다. 또한 영락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과 한국여성복음봉사단 임원들을 비롯한 많은 관심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양평 캠퍼스로 이어졌고, 후원자들의 숫자도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다.

ACTS를 후원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2013년부터 AIGS는 “북뱅크 제도”(Elder Jeong Yeon-Guk Book Bank)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도는 수강과목에 읽어야 할 필수도서와 참고서적을 수강 학생 전원에게 한 학기동안 대여했다가 다음 학기 학생들을 위해 회수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책들이 값비싼 영문서적들이고 외국인 학생들이 구입하기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출신 사업가인 정연국 장로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3년 1월 8일에는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ACTS 미주 이사회가 열렸다. 그동안 ACTS 교수를 역임했고 이사회 실무 책임자로 오랫동안 봉사했던 나일선(Marlin L. Nelson) 박사의 소천 이후 이사회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던 터라 시의적절한 시기에 개최되었다. 김영욱 총장 외에 박기호, 송천호, 최경욱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장주영 목사와 오용주 목사를 이사로 추가 선임하였다. 미주 이사회는 향후 ACTS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할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추천하여 이사수를 15인 정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음 미주 이사회는 2013년 7월에 미국 LA 또감사선교교회에서 열기로 하고 그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기로 하였다.

2014년 6월 18일에는 그동안 본 대학 이사로 재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계를 주도하는 많은 영향력 있는 교육학자와 교육자들을 양성한 고(故) 이영덕 박사의 자녀들이 교육연구기금으로 2억 8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 박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를 지냈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초대 및 2, 3대 원장을 맡았으며,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 분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근본적인 관심의 초점은 교육이었고, 결국 가장 참된 교육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육임을 강조해 왔으며, 그런 교육을 “큰 교육”이라고 부르면서 교회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이러한 교육적 비전을 가졌던 그는 본 대학 내에 교육연구원(현 교육연구소)을 설립하여 하나님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기독교사들을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재교육하는 교육대학원을 설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숭고한 뜻을 담아 기금으로 쾌척한 고 이 박사 내외와 자녀들의 소망이 ACTS를 통해 널리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대학의 교육연구소에서 목적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을 통하여 이영덕 박사의 유지가 귀한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아름답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개교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ACTS를 향한 사랑과 후원의 손길은 계속되었다. 2013년부터 AIGS 원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한영 교수의 모친 김성기 사모가 선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부동산을 본 대학에 기증하였다. 평생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 온 김성기 사모는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지만 마지막 남은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싶다”고 말하며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⁸

이런 귀한 헌신과 후원을 통하여 ACTS는 더욱 더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매진해 나아갈 때, 더 많은 독지가들의 격려와 후원이 뒤따를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인 후원과 기증 외에도, ACTS를 다양하게 후원하는 단체들도 생겨났다. 2014년 9월 16일, ACTS는 다일공동체 천사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의료지원을하기로 하였다. 이 날 학교를 방문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ACTS가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에 맞게 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복지가 확충되고, 제3국 지도자 양성에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⁹

또한 외국인 학생들을 의료적으로 지원하는 분당우리교회 의료 선교팀은 매 학기 본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여 “메디 페어”(방문 진료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특히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는데, 선교부장 성기양 박사의 인솔 하에 16명의 지원팀이 방문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직접 약을 조제해 주고 있으며, 내과, 치과, 초음파, 한방 침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

최근 들어, 특기할만한 변화 중의 하나는 ACTS에서 공부하고 귀국하여 사역하는 외국인 졸업생들 중에 모교를 위해 후원하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ACTS를 후원하는 대표적인 외국인 졸업생은 인도네시아에서 2000년에 유학과 목회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사역하다가, 다시 신학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학위를 마치고 현재 자카르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낸시 디나르(Nancy Patricia Dinar) 이다.

⁸ “본교 국제교육원장 이한영 교수, 부동산 기증”, ACTS NEWS 41(2014.10), 12.

⁹ “ACTS, 다일공동체 천사병원과 협약”, <http://www.newspower.co.kr>, 2014.9.19.

그녀는 본국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모교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년 후배양성을 위해 6천 불을 후원하고 있다.¹⁰

3.4 ACTS와 아시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 ATA)

아세아복음화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ACTS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던 아시아신학연맹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였다. ATA는 아시아 21개국의 130여 개 복음주의 신학교육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 초기부터 ACTS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1년 10월 29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정기학회 모임 후에 ATA 관계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본 대학의 김영옥 총장, 우심화 대학원장, 원종천 국제교육원장 그리고 정홍호 선교대학원 교학처장이 참석하여 향후 ATA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다시금 ACTS가 ATA의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 후 김영옥 총장은 2012년 3월 16일 유네스코 컬처센터에서 열린 ATA-Korea의 회장을 맡게 되었으며, 총무는 정홍호 교수가 그리고 회계는 박응규 교수가 맡아 봉사하게 됨에 따라 ACTS와 ATA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 지게 되었다. 2012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2012 ATA Korea-Japan Conference”가 열려 본 대학의 김영옥 총장과 원종천, 정홍호, 한상화 교수들을 비롯한 16명의 한국 교수들과 일본 측에서도 25명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신학적인 토의와 교제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김 총장은 이 대회 후에 일본개혁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일본 교회의 현황을 듣고 현지 목회자들과 교제하였다.

¹⁰ “인도네시아에서 온 Nancy Patricia Dinar 이야기”, ACTS NEWS 42(2014.12), 9.

ATA-Korea의 회장을 맡게 된 김영옥 총장의 활동 범위도 넓어져 갔다. 201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비블리컬신학교(Biblical Seminary of the Phillipines)에서 ATA 이사회가 열렸다. 김영옥 총장은 정홍호, 박응규 교수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ATA 설립 초기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ACTS가 다시금 그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김 총장은 ATA-Korea의 대표자격으로 처음으로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되었고, 정홍호 교수는 ATA 인증심사위원회(Accreditation Committee) 위원으로서 향후 ATA 활동에 ACTS와 한국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ATA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아세아복음화를 위해서는 아시아 선교 학자들과 선교단체장들과의 다양한 만남도 필수적이었다. 2011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개최된 선교포럼이 본 대학과 ASM(Asia Society of Missiology)이 공동주최하여 아시아 선교에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모임은 더욱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2014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ATA Theological Consultation on Christology”가 본 대학에서 열리게 되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온 많은 학자들이 모여 진지하게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었다. 16개국에서 외국학자 53명과 국내학자 44명이 참가하여 “2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The Lordship of Jesus Christ in the 21st Century)이라는 주제로 8편의 전체 토론 논문과 26편의 분과별 논문들이 발표되는 국제학술대회였다.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아시아의 신학발전과 신학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본 대학의 설립취지를 재확인하고 ATA 소속 회원학교 및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추진하며, 아시아신학계에서 ACTS의 위상을 드높이고 신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학술대회를 주관한 본 대학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준비위원회 교수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AIGS 학생들이 진행 요원을 전담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Imago Dei” 드라마 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이 대회에 참석한 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 ATA 회장이자 동경기독교대학교 총장인 타카노리 코바야시(Takanori Kobayashi) 박사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모든 참가자들에 대한 진정한 환대와 아시아 신학연맹 학회모임의 효과적이면서도 매우 원만한 진행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행사에 관련된 모든 교수님들과 학교 직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최대의 경의를 전합니다. 저도 이러한 학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이렇게 완성도 높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저와 모든 참가자들의 최대의 찬사를 전합니다.”

4. 다시 열린 “ACTS 선교대회”와 “2013 영국기도선교”

4.1 다시 열린 ACTS 선교대회들

2011년 10월 6일에는 제33회 선교대회가 “세계복음화는 ACTS로부터”라는 주제로 ACTS 양평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개최해 온 선교대회가 중단되었지만, 학교가 회복되자 선교대회가 다시 열렸고 9개국에서 유학 온 25명의 학생들과 24개 선교연구원을

11 타카노리 코바야시, “감사 편지문”, ACTS NEWS 41(2014.10), 11.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여하여 오랜 만에 선교의 열정이 양평 캠퍼스에 확산되었다. 이 날 예배에 설교를 맡았던 오대원(David E. Ross) 목사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선교의 기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의정부 광명교회는 강당 증축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후원금을 전달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동역자로 섬기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날 오후에는 예전처럼 각국 선교연구원 별로 담당 연구교수와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후원하는 성도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3회 선교대회는 ACTS 본연의 사명이 회복하고 다시금 한국 교회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고,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선두주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2012년 10월 25일에는 제34회 선교대회가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ACTS로부터!”라는 주제로 열렸다. 본 대학 선교연구원 후원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16개국에서 유학 온 45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비롯한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선교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많은 선교단체들도 참여하여 선교박람회를 열어 각 선교단체들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의미가 더 깊었다.

이 날 예배 설교자는 중남미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헌신해 온 최광규 도미니카 세계선교연맹 대표가 말씀을 선포했고, 미국 기독교 개혁교단(CRC)의 세계선교부 디렉터인 게리 베커 박사도 참석하여 축사해 주었다. 예배 후에는 예전과 같이 각국 선교원별로 모임을 갖고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교열정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었다.

2013년 가을에 열린 제35회 선교대회는 “ACTS, 선교를 깨우다!”

(Awake Missions!)라는 주제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22일, 23일 양일 간에는 본 대학 재학생과 동문들을 위하여 박기곤 교수(중앙아시아), 김종구 교수(중국), 정중기, 송원근 교수(북한), 김종일 교수(중동), 송기정 목사(유럽), 소윤정 교수(아랍), 조영태 교수(필리핀), 안순철 교수(러시아)가 선교세미나와 외부 선교단체에서 참석하여 여러 선교단체를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도 가졌다.

그리고 24일에는 예년처럼 선교헌신예배와 ACTS 교내·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선교코이노니아를 가졌다. 선교헌신예배에는 영국기도선교를 위해 크게 협력한 로이 루이스(Roy Lewis) 목사가 초청되어 “Feeding the Multitudes”라는 제목으로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다.

그 후에도 여러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초대교회 사진전”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감사와 헌신의 시간을 가졌다. 본 대학의 여러 연구교수들의 선교세미나가 돋보인 이번 선교대회는 그야말로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깨우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며, ACTS가 조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한 복음의 불씨로 계속 타오르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다.¹²

2014년 10월 23일에 개최된 제36회 ACTS 선교대회는 “가슴 뛰는 40년, 함께 뛰는 40년!”(40 Years of Mission, 40 Years of Co-mission!)이라는 주제로 1부는 선교헌신예배로, 2부는 각국 선교협의회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1부 예배에 설교자는 영국 선한목자교회 담임인 하워드 라이트 목사가 “예수님의 선교의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번 선교대회의 독특한 점은 졸업 후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기독교교육학과 학생 1명을 졸업 후 아프리카의 한 나라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식을 가졌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초대교회 사진전”을 통해 한 세

12 “ACTS, 선교를 깨우다”, ACTS NEWS 39(2013.12), 6.

기 전에 은둔의 나라 조선에 찾아 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역사적 현장들을 보면서 선교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는 점이다. 또한 단기선교 사진전을 열어 그 선교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ACTS인들의 선교현장을 둘러보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민족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함께 나누었다.

본 대학이 새롭게 도약하기 시작하자, ACTS 학생들의 선교열정도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예전에도 그러했지만, 근래에 들어 방학을 이용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기선교에 임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만 갔다. 대상 국가들이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동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나아가 젊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ACTS 선교대회는 기존의 선교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다. 효과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ACTS는 초창기부터 각국 선교연구원을 설립하여 각 나라의 선교를 위한 연구와 기도를 수행해 왔다. 다양한 각국 선교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매년 ACTS 선교대회를 개최해 왔다. 그동안 선교의 대세는 서구교회에 의해 일변화 주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ACTS는 직접적인 선교사 파송과 함께 현지의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양방향 선교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방안은 상당히 혁신적인 선교패러다임이었다.

또한 이러한 선교방법은 아세아복음화를 보다 효과적이고도 역동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기여했는데, 그것은 바로 각 교회가 선교연구원과 연계하여 직접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훈련에 동참하게 하였다. 선교열정에 고무된 성도들은 그들이 마음에 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공동체”가 되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기도선교를 구성케 하였다.

결국 이러한 선교방법은 ACTS와 각국 선교연구원, 연계된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각 선교지가 삼각으로 연결되어 기도선교공동체를 구현하여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동역하는 운동이었고, 매년 열리는 ACTS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책임을 절감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의 선교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2 “2013 ACTS 영국기도선교”

2013년은 여러모로 분주했던 한 해였다.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ACTS의 학생과 교직원들 253명이 영국 런던을 비롯하여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10개 지역의 교회에서 영성집회와 기도회를 통해서 “영국기도선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기도선교운동은 이사장으로 학교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최남수 목사의 선교적 열정을 통해 시작되었다. 평소 기도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최 이사장의 격려에 힘입어 학교공동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했던 김준수 교수는 이렇게 그 시작을 설명하고 있다.

2013 ACTS 영국기도선교는 2013년 3월, 봄 학기 신앙수련회 주강사로 오신 최남수 이사장님이 ACTS 학생들의 뜨거운 기도를 체험하시고 제안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수련회 이후 처음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3년 3월 15일 첫 모임을 하면서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명의 추진위원으로는 김준수 교목실장, 박응규 교무처장, 정홍열 학생처장, 한상화 신학대학원장, 정홍호 선교대학원장이 선정되었으며, 3월 25일 준비모임에서 최

남수 이사장님의 영국 상황을 보고받은 후 28일과 29일에 학생들에게 공지할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¹³

2013년 3월 30일에 열린 임시 교수회의에서 영국기도선교 진행상황을 알리고 선교실습학점 인정을 위한 결의를 하고, 4월 2일 생활관 특별새벽기도회에서 메시지와 합심기도를 통해 영국기도선교에 대한 의미를 학부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도 추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홍보하고 기도한 결과, 4월 19일 신청마감일에 신청인원이 269명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항공권 구입이 완료되고 실제로 9월 6일부터 기도선교 여행에 떠난 인원은 ACTS인 225명과 광명교회 성도 28명으로, 총 253명이 2013 ACTS 영국기도선교에 참여하였다.¹⁴ 영국기도선교 신청자들은 각 팀별로 구성되어 지도교수들의 감독 아래 모두 8번의 준비모임을 통해 훈련받았고, 8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친 연합수련회를 개최하였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복음화와 영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회를 열었고 안전교육 및 위기관리 워크샵, 한국교회사와 영국교회사 특강 그리고 각 조별 발표회를 가짐으로 준비를 완료하였다.

8월 27일에는 본 대학 이사이자 시인이 고훈 목사가 시무하는 안산 제일교회의 기증으로 “토마스 기념비 제막식”을 본 대학 학생주차장 입구에서 거행하였다. 그 기념비에는 “ACTS 최남수 이사장, 김영욱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18명을 포함한 240여 명의 리틀 토마스들이 복음의 빛을 갠기 위해 영국으로 단기 기도선교를 떠나는 것을 기념해 여기에 기념시비를 세운다”라고 새겨져 있다.¹⁵ 그리고 9월 3일에는 본 대학 강

¹³ 김준수, “2013 영국기도선교 스케치”, 『2013 ACTS 영국기도선교』 (고양시: 올리브나무, 2013), 12.

¹⁴ 김준수, 『2013 ACTS 영국기도선교』, 13.

¹⁵ 『2013 ACTS 영국기도선교』, 19.

당에서 영국기독교 선교 참여자 파송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ACTS인들이 함께 선교적 마음을 모았다.

1866년 9월 2일,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선교사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되어서 대동강 가에서 말씀을 전하며 그 생명을 복음을 위해 바쳤다. 복음에 빛진 자 된 우리들이 영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전도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달려갔다. 9월 6일부터 20일까지의 일정으로 청교도의 나라요, 또한 우리 조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영국의 여러 지역을 11개 팀으로 나누어 방문하면서 그 지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대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연합으로 감당하였다.¹⁶

워십댄스, 4영리 드라마 그리고 태권도 시범이나 한국 고유의 부채춤 공연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선교사역과 참가자들이 기도로 하나되고, 방문하는 교회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압이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났고, 성도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현지 학교를 방문하거나 길에서 만난 자들에게 상황에 맞게 전도하기도 했으며, 새벽기도와 심야기도, 그리고 릴레이 철야기도를 통해 영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사역을 전개하였다. 11개 지역으로 흩어졌던 ACTS인들이 9월 16일, 런던 올네이션스 교회(All Nations Church)에 모여 그간의 체험들을 서로 나누며 영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연합하여 기도했고, 그 다음 날인 9월 17일에는 약 600여 명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모여 현지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6 "ACTS, 영국으로 '기독교 선교' 펼쳐: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집회 및 프로그램으로 진행", <http://www.newspower.co.kr>, 2013.7.24.

이러한 ACTS인들의 기독교사역에 동참하고 직접 목격했던 영국의 로이 루이스 목사는 "영국을 방문한 ACTS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었으며 그들이 방문한 모든 교회들을 깊이 만지고 영감을 주었으며, 새로운 힘과 활력을 공급하였습니다. 제가 사역한 수년간의 세월 동안 이러한 일은 처음 경험한 것 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다.¹⁷

또한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영국기독교선교로부터 경험하고 깨달은 소감을 글로 남겼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앞으로 ACTS와 한국 교회가 단기선교뿐만 아니라,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윤정 교수도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소감문을 받아 읽고 준비 과정을 정리하면서 선교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이번 영국기독교선교가 ACTS 선교운동에 새 지평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운동을 위해 설립된 ACTS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한국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이번 영국기독교선교는 훌륭한 선교교육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교지는 단순히 주고 베풀기 위해 가야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교지에서 배우고 동화되지 못하면 우리의 복음은 결코 토착화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전트립은 먼저 배우러 가는 자세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본국에서는 체험치 못한 선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국기독교선교는 7조 HARMONY에게 선교지를 경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17 "영국에서 온 편지: 로이 목사로부터", 『2013 ACTS 영국기독교선교』, 23.

실감하게 한 훌륭한 선교교육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¹⁸

5. ACTS의 지역 사회 봉사의 확대

선교는 땅 끝으로 멀리 나가는 것에만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도 선교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2012년 우리 대학이 “양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양평군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 및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이 센터는 가정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과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구이다.

앞으로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사업, 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과 지역 사회의 자원 활용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학생들 교육에 지대한 노력을 해온 ACTS가 양평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400여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 상담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며,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통번역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가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고, 양평군으로부터 선정된 것은 아세아복음화와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새로운 사

18 소윤정, “보고서를 마치면서”, 『2013 ACTS 영국기도선교』, 178-179.

역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¹⁹

2012년 5월 5일, 양평군에서 개최된 “다문화가정 어린이 날” 행사에 본 대학 AIGS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연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어린이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8월 30일에는 본 대학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고 KB카드사가 후원한 “친정 엄마와 4박 5일” 행사가 본 대학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양평군 내에 거주하는 9가정, 50여 명의 다문화가족들과 본 대학 총장과 김준수 교수 그리고 여러 명의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사는 다문화가정의 친정 엄마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으로 시집 온 딸들 가정을 방문하여 귀한 시간을 나누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본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양평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축제에 참여하여 양평 주민들과도 뜻깊은 시간을 나누며,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2학기부터는 우리 대학은 양평군 교육청을 통하여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학부모교육 및 상담”, “청소년중독” 그리고 “상담교사 파견” 등을 주제로 교육 기부를 시작하였다. 양평군 내에 있는 여러 학교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육기부를 통하여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을 가꾸는 데에 협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대학 내에 사회봉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2014년 1학기 중에 양평군 내에 있는 네 개의 기관들(신망원, 양평군 노

19 “ACTS, 양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 ACTS NEWS 32(2012.1.16), 1.

인복지 회관, 지역아동센터/포도밭의 아이들, 양평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과 MOU 협약을 맺었다. 이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앞으로 본 대학은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교류하며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본 대학은 사회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고아들, 노숙자와 독거노인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자원 봉사활동을 돕고 있다. 땅 끝까지 가는 선교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성숙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는 헌신임을 배운 학생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봉사하는 자신들에게도 보람된 시간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하였다. 특히 학부 동아리인 “아이사랑”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형편 때문에 가정 이 해체되거나 결손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인 신망원을 20여 년간 매주 월요일마다 방문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²⁰

6. ACTS 신학운동과 신학연구원 그리고 「신학과 선교」 복간

2011년 1학기에 신학연구원 활동이 재개되었다. 제2대 신학연구원장으로 강창희 교수가 임명되어 ACTS 신학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학내사태를 통하여 교단이 없는 가운데 ACTS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지를 직접 체험한 교

수들은 예전보다 더욱 더 분명하게 ACTS의 사명과 ACTS 신학운동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강창희 교수가 주장하고 있듯이, “신본주의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의 우선성과 절대성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이나 세계의 존재와 운명에 대한 포괄적인 ‘하나님 중심적 사고’(God-centered thought)”이며 “복음주의란 죄인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신분과 생애와 사역 즉 탄생, 죽으심, 부활, 재림을 성경의 핵심적 주제로 가르치는 신학사상”이다.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는 상호보완적으로서, 신본주의는 복음주의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신학적 구심점, 또는 정체성을 얻고, 복음주의는 신본주의에서 복음의 계시적 근거와 일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²¹

이러한 ACTS의 신학적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모든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일치를 이루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나갈 때에, 다가오는 새로운 40년과 미래에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ACTS 신학연구원이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 과제는 ACTS의 원초적 신학과 비전의 창조적 전승”이며, 현재까지의 ACTS 신학 전통을 바로 이해하고 새로운 단계로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ACTS 신학운동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단계로 심화되어 교육·교과 과정에도 반영되고 각 교수의 가르침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단계에 있다.”²²

그러나 ACTS 신학운동의 의미는 교내로만 국한될 수 없는 보다 광범위한 방향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의 각성과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돈독한 기반이 있다고 확신한다. 박응규 교수는 그 교회사적 의미를 이렇게 진술하였다.

²¹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신학과 선교」, 12 (2011): 50-71, 91-93.

²² 한상화, “ACTS 신학운동과 신학연구원”, ACTS NEWS 32(2012.1), 5.

²⁰ “ACTS 학생들, 광야교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ACTS NEWS 42(2014.12), 11-12.

ACTS 신학공관의 과제는 신학 및 신앙운동이며, 신학의 각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전제로 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이며 회개와 죄사함에 이르는 영적 각성운동이라 할 수 있다. 구원이 단순히 고백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즉, 구원에 이르는 삶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의 관계를 전제하면서,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균형 있게 믿고, 인식하며 그리고 삶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ACTS의 신학과 신앙운동은 한국 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구원의 포괄적인 특성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간주된 성도들이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학적 안목과 신앙적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²³

2011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ACTS는 지체 없이 신학공관 작업과 세미나를 재개하였고, 신입교수들이 대거 합류한 2012년에는 그동안의 신학연구원의 활동과 논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12년 5월 9일에 열린 교수세미나 시간에 한상화 교수가 “ACTS 신학연구원의 약사(略史)”라는 소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에서도 주장되었지만, ACTS 신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신학공관 연구와 논의의 과정을 고찰해 보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초기에는 한철하 박사의 제안과 그것에 대한 교내·외 반응들과 기독교

23 박용규, “ACTS 신학공관과 교회사 연구·해석에의 적용”, ACTS 교수세미나(2012.10.31) 때에 발표한 미출판 논문, 1-2.

교 중심진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다면, 2003년부터 성경비평학에 대한 논의를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신학공관운동의 핵심적인 부분인 각 분과의 연구사 및 방법론 탐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구약신학과 신약신학 그리고 선교학과 역사신학 분야에서 논의를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재개된 것이다.²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임용된 신입교수들이 신학연구원이 주관하는 ACTS 신학공관 작업에 동참하여 많은 연구의 성과들을 내었다. 재도약기 전반기에 신학연구원에 참여한 전임연구교수들로는 강창희, 원종천, 우심화, 장해경, 정홍호, 한상화, 박용규 교수 등이었고, 신입교수들로는 김다니엘, 김한성, 손신, 신성욱, 안점식, 전병철, 정성국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²⁵

강창희 교수가 은퇴한 후에는 장해경 교수가 원장직을 맡아 수고하고 있으며, 새로 참여한 전임연구교수들로는 안경승, 조휘 교수이고, 원종천, 우심화 교수는 빠졌으며, 새로 참여한 신입교수들로는 권오윤, 김재운, 조은아, 그리고 김성진 교수 등이다. 신학연구원은 정기적으로 주례신학회 모임과 교수세미나 시간을 통해 ACTS 신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토론을 통하여 교수공동체 안에 신학과 신앙의 공동성 확립을 도모하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 온 ACTS 신학공관운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신학연구원’은 2014년부터 ‘신학연구소’로 개명하고, 이러한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2014년 가을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연구소 산하 출판물로 「ACTS 신학저널」, 『신학과 선교』 그리고 영문논문집인 ACTS Theological Journal 등을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24 한상화, “ACTS 신학연구원의 약사(略史)”, ACTS 교수세미나(2012.5.9) 때에 발표된 미출판 논문, 19-20.

25 신입교수들이 발표하고 게재한 ACTS 신학공관에 관한 논문들에 대한 언급.

2011년 수년 만에 복간된 첫 논문집인 『ACTS 신학과 선교』 제12호는 지난 24년간 본 대학에서 사역하고 정년퇴임하는 강창희 교수의 은퇴 기념호로 발간되어 그 의미를 더해 주었다. 1부에는 강창희 교수의 “ACTS 정체성과 신학교육”이라는 논문과 그의 연보(연혁) 및 저술목록, 후배교수들이 강 교수를 회고하는 글들이 실렸고, 2부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한 교수들의 옥고들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

- “구약신학에서 구약윤리까지의 해석학적 논평” / 이한영
 “아모스 9장 11-15절에 대한 아모스의 저작권 논의” / 조휘
 “예수의 비유의 해석에 대한 소고-비유의 대조법을 중심으로” / 강창희
 “요한 칼빈의 사도행전 해석에 대한 이해와 평가” / 허주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 원종천
 “존 크리소스톰의 설교세계: 성경해석학, 설교 그리고 사회개혁” / 박응규
 “원죄 되짚어 보기” / 정홍열
 “20세기 WCC 신학적 동향과 세계 선교 문제연구” / 이동주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중국교회용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우심화
 “WEA와 WCC 선교신학의 방향성 비판” / 정홍호
 “성인의 유치성에 관한 심리학적 성서적 연구” / 권택조
 “한국의 평가 문화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고찰” / 이숙경
 “교회의 화평사역과 회복적 정의” / 김준수
 “다문화시대와 기독교상담” / 안경승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교육의 사명과 지혜” / 정채욱
 “EFL 교실에서 영화를 활용한 영어 듣기 지도에 관한 연구” / 김덕영
 “기독교적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 금동철²⁶

2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CTS 신학과 선교』, 12(2011)를 참조하라. 그 외의 논문집 목록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7. ACTS 예배의 전당, 강당 증축 공사 재개 및 완공

학내사태의 여파는 신학생들이 예배드리던 강당 증축 공사에도 영향을 미쳐 수년 동안 중지되고 있었으며, 시공회사의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하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학교 강당은 원래 300석 규모로 건축되었고, 1400석 규모로 확장하고자 2005년도에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학내문제로 200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ACTS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봉헌 헌금을 드리고 있었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그리고 교수들과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루 속히 같은 공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채플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10월 6일, 선교대학원 앞 광장에서 열린 제 33회 선교대회에서, 최남수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강당 증축기금으로 1억 원을 헌금하였다. 당회원들을 대표하여 이종득, 김주성 장로는 선교에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광명교회가 선교에 열정이 있는 ACTS의 강당 증축을 위해 담임목사와 장로들의 뜻을 모아 헌금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고 언급하였다. 김영욱 총장과 모든 학교 구성원들도 강당 증축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이 일은 강당 증축 공사를 재개하는 데에 귀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²⁷

드디어 2012년 11월 20일부터 강당 증축 공사가 재개되었다. 그동안 ACTS 공동체는 예배를 한 장소에서 드리기에 협소하여 다락방과 두 강의실에 분산되어 모니터를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약 1년여에 걸친 공사기간

27 “의정부 광명교회, 강당 증축기금 1억원 헌금”, ACTS NEWS 31(2011.10.24), 2.

을 통해 증축 공사가 마무리 되어 2013년 2학기부터 모든 예배와 주요 행사가 강당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증축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간절한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은 완공의 시금석이 되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채플이 완공되자 2013년부터 본 대학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최남수 목사와 의정부 광명교회에 서는 알렌 오르간을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는 부산 풍성한교회(담임목사 김성곤)에서 기증해 줌으로 예배가 더욱 장엄하게 드러졌다.

강당 증축 공사를 끝낸 김영욱 총장은 또 다른 건물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한 일환으로 “글로벌 리더들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는 ACTS 국제센터(ACTS International Center) 건축”이었다.²⁸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신축이 막 끝난 새로운 강당에서 2013년 12월 19일에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감사예배를 드렸다.

서울교회를 시무하는 박노철 목사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설교를 통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긴 후에, ACTS 국제센터 건립모금을 위한 성악가 김영미 교수 초청 음악회가 이어졌다. 이 음악회에는 김영미 교수 뿐만 아니라, 한국종합예술학교 출신 젊은 음악가들이 스승과 함께 많이 참여했고, 눈발이 날리는 날씨 속에서도 모든 자리를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또한 1980년대 초반에 건축된 양평 캠퍼스 건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본 대학의 개방이사인 최경욱 목사가 시무하는 미국 LA 또감사선교교회가 23만 불을 후원하였으며, 이 후원금은 강의동 건물의 보수공사를 위해 사용

²⁸ “김영욱 총장 인사말”, ACTS NEWS 39(2013.12), 3.

되었다. 최 목사는 2012년 3월 1학기 신앙수련회의 주강사로 방한하여 전교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었고, 또감사선교교회의 장도원 장로를 비롯한 선교위원회 소속 성도들이 몇 차례 본 대학을 방문한 바 있다.

10월 26일에 학교를 방문한 선교위원회 성도들에게 AIGS 초대원장인 원종천 교수가 본 대학의 선교지향적 발자취와 함께 현재 상황과 미래의 비전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감사선교교회는 세계 선교에 가장 귀중한 가치를 두고 정진하고 있는 선교지향적인 교회이며 선교를 위한 귀한 동행의 걸음이 크게 기대된다.

8.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ACTS, “가슴 뛰는 40년, 함께 뛰는 40년”

개교 40주년을 전후로 ACTS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다. 2014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학기 신앙수련회를 “광야 40년을 지난 세대여,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주제로 LA 베델한인교회를 시무하는 김한요 목사를 초청하여 은혜 중에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달려 온 ACTS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각오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또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ACTS 모든 공동체가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최남수 이사장은 바쁜 목회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들린바 되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새롭게 되어 다가오는 40년을 준비하고 도약하는 영적 바탕으로 삼자고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2014년 4월 29일 화요 채플은 개교 40주년 기념예배로 드러졌다. 본 대학 이사이자 새에덴교회를 시무하는 소강석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성소권을 스스로 버려 블레셋에게 모욕당하는 이

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복음의 중요성과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ACTS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임과 “사무엘과 같이 한국 교회를 지키고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는 자리에 준비된 것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일”임을 강조했다.²⁹

이어 김영욱 총장은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내·외빈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이런 기쁜 날에 전(全) 국민이 애도하는 세월호 참사로 생명을 잃은 고인들과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그리고 유가족을 위한 특별 헌금순서도 마련하여 ACTS인의 정성을 모아 고통에 동참하기도 했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감사예배에서는 박종순 총신교회 원로목사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했고, 일본 갓스여자대학의 유이치로 시나 교수의 오르간 연주가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또한 2014년 5월 8일에는 제117회 이사회가 본 대학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재적이사 14명 중에 11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 안건으로는 학교 현황 보고와 임기만료 및 결원 임원보선이 있었으며, 특히 후임 이사장과 총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안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5년 1월 23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남수, 강신원 이사들과 이승열 감사는 중임되었고, 원광기 이사의 후임으로 립형천 목사가, 노원복 이사의 후임으로 이규현 목사가 추천되어 그대로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로 임기만료 되는 최남수 이사장의 중임을 전원 찬성하여 제9대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으며, 이어 후임총장추천위원회에서 조직보고를 한 후, 김영욱 현 총장을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장시간 논의한 후에, 그대로 받기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제9대 이사장과 제9대 총장으로 각각 선임된 최남수 이

29 “본교, 40주년을 맞이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가져”, 『아신학보』 73 (2014.12.8), 1.

사장과 김영욱 총장이 2019년 2월 28일까지 직무를 계속 감당하게 되었다.³⁰

예전처럼 2014년 2학기도 신앙수련회로 시작했는데, “기본점검”(Back to the Basic)이라는 주제로 LA 코너스톤교회를 시무하는 이종용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로서 1970년대에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고 회심을 경험한 후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 ACTS 서대문 캠퍼스에서 출발한 연예인교회임을 언급하면서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였다. 그는 수련회 얼마 전에 전립선암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CTS 강단에서 감격해 하며 과거 자신의 마음의 고향이었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자체가 기적임을 밝혔다.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ACTS의 모든 구성원들도 우리 모두가 신앙과 삶의 기본을 점검해 봄으로써 더 단단해지는 학교, 더 튼튼해지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의 당부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왔다.

2013년 2학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2014년 10월 1일과 2일까지 이틀 동안 대학인증평가단이 방문하여 본 대학에 대한 대학기관평가인증 심사에서,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그리고 사회봉사” 등의 6개 분야에서 이루어진 평가영역 전체를 충족하여 “평가인증”을 획득하였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하며 인증을 통해 대학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인증 획득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보증과 국제적 통용성을

30 제117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과 감사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강신원, 고훈, 김경원, 김관선, 김기홍, 김영욱, 김인성, 소강석, 원광기, 장주영, 최남수(이상 11인) 2) 감사: 이승열, 이강봉 그리고 박기호, 장영춘, 최경욱 이사들은 불참하였다.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제117회 이사회 회의록 (2014.5.8), 1-5.

재확인하게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본 대학은 아세아복음화와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³¹ 이번 평가 인증을 위하여 본 대학은 자체진단평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기획처장 김준수, 기획위원들로 선교대학원장 정홍호, 교무처장 박응규, 학생처장 정홍열, 총무처장 김정관, 기획실장 위현숙 그리고 연구위원들로 안경승, 안점식, 정성국, 금동철, 손신, 김한성 등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또한 실무위원으로 합류한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학생들의 아름다운 협조는 “대학인증평가 위원들도 놀란 ACTS”가 되고 말았다. 평가인증을 받은 본 대학은 앞으로도 더욱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과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복음 사역자 양성”과 “국제적 소양을 지닌 선교전문가 자질 함양”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기르고자 더욱 매진할 것이다.³² ACTS 공동체 전체가 기쁨으로 하나 되었던 귀한 계기였다.

2014년 10월 21일-22일에는 이틀 동안 개교 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첫째 날에는 ACTS 초창기에 겸임교수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고신대학교 석좌교수인 손봉호 박사가 “ACTS 교육의 회고와 전망”을, 둘째 날은 본 대학 신학연구소장인 장해경 교수의 “ACTS 신학의 회고와 전망”과 선교대학원장인 정홍호 교수의 “ACTS 선교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지난 40여 년 동안 노력해 온 ACTS의 역사를 교육, 신학, 그리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평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³³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를 통해서

ACTS의 신학적 입장과 교육적 역량 그리고 선교적 과제를 점검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조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 신학교육과 연구를 통한 인재양성을 통해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한 ACTS의 발걸음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또한 학부 총학생회에서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ACTS 축제인 “어울림제”를 개최하였다. 첫째 날 오전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장애체험학습, 송페스티벌, 동아리공연 그리고 ACTS God Talent 등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여 학우들의 교제를 도모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을 나누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 극단 엑스트라는 21일 오후 1시와 4시 두 번에 걸쳐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뮤지컬 “날 찾아와요”를 공연하여 많은 학생들의 사랑과 환호를 받았다.

31 “ACTS, 2014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http://www.newspower.co.kr>, 2014.12.9.

32 “대학인증평가 위원들도 놀란 ACTS”, 『아신학보』 73 (2014.12.8), 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4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14), 3-4.

33 “신학대, 교과 과정서부터 목적과 특성 살려야”, 『크리스천투데이』, 2014.10.22.



ACTS 40년사

ACTS 40년사

닫는 말

지난 40년 동안 ACTS는 아세아복음화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의 복음주의운동이 활화하고 확산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ACTS는 그동안 구미중심의 선교운동과 복음주의운동을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파급시키는 데에 중심점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 배출한 외국인 졸업생들이 그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¹

또한 ACTS는 세계복음화운동의 일환으로 세계복음주의운동을 배경으로 아시아의 피선교지 교회들의 자국복음화 및 아세아복음화를 이룩하겠다는 이상 속에서 시작되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기 때문에 선교지향성과 선교의 역동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금은 다변화 되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ACTS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선교지도자들이 한국 및 아시아 교회가 연결될 수 있는 교차로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국내 신학대학원으로서는

¹ 박용규, 『한국 교회를 깨운 복음주의 운동』 (서울: 두란노, 1998), 140.

최초로 국제적인 명망이 있는 우수한 신학대학원들과의 공동학위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해 오는 선구자적 역할도 자임해 왔다. 무엇보다도, ACTS는 복음주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교파연합적인 특성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 속에 자리 잡도록 구심점 역할도 수행해 왔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교단의식이 매우 강하고, 교파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장로교나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와 그 외의 여러 교단의 학생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신학적이고 선교적인 전당의 역할을 해 온 것은 교회사적 의미가 있는 공헌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바야흐로 개교 이래 40주년을 맞이한 2014년까지 ACTS의 다양한 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한 학생들의 숫자는 외국인 학생들을 포함하여 총 7,130명에 이르게 되었다. 본 대학의 설립 이념에 따라 1977년 서사모아에서 온 사무엘루 아페레티(Samuclu, Afereti)에게 신학석사 학위를 수여한 이래 4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399명(수료 88명 포함)을 포함한 박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가 3,385명이고, 학사 학위 취득자는 3,745명이다.

앞으로도 ACTS는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나갈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수준에 이르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갈 것이다. ACTS를 졸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왕성하게 아세아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매진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교적 소명과 교육적 책임을 다해 나갈 때에 ACTS의 미래는 더욱 더 밝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ACTS가 설립될 당시에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 신학위원회의 주요한 의도는 ACTS가 아시아에서의 복음주의 신학발전을 위한 신학연구 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이었다. 물론 신학교육기관으로서 현재까지 수행해 온 노력과 결실에 많은 공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의 복음

주의 신학발전을 위해 연구기관으로서 해 온 역할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ACTS 설립에 깊이 관여했던 부르스 니콜스(Bruce J. Nicolls) 박사의 “그 후 ACTS는 신학교육기관으로 확장·발전되어 가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ACTS가 연구기관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라는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앞으로 ACTS가 명실공히 설립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행해 왔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 목적을 바르게 완수하기 위한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학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연구와 그 업적이 아시아와 세계 교회와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CTS는 분명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ACTS의 미래는 고훈 목사의 “ACTS여 영원하라”는 시(詩)처럼 설립이념에 철저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더욱 밝아질 것이다. 그의 시귀는 이렇게 외친다.

오직 아세아복음화를 위해
찬란히 세워진 ACTS여
선교동산으로 영원하라

네가 용서이면 이 땅에 죄는 없고
네가 사랑이면 이 땅에 미움은 없고
네가 복음이면 이 땅에 멸망은 없다
네가 빛이면 이 땅에 어둠이 없듯이

가고 싶은 곳으로가 아니라 가야할 곳으로

2 “부르스 니콜스 박사님의 인터뷰”, ACTS NEWS 41(2014.10), 11.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돕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도와야 할 사람을 돕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라

주님이 헐벗고 계시면 너는 따뜻한 한 벌 옷이 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너는 흐르는 눈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너는 환한 미소가 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데리고 가소서” 하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면
 주님이 신고 갈 한 켤레 신발이 되라

보라
 이 기록함이어
 이 영광이어

오직 아세아복음화를 위해
 찬란히 세워진 ACTS여
 선교동산으로 영원하라.³

3 고훈, “ACTS여 영원하라”, ACTS NEWS 38(2013.8), 14.

통계

1. 이사회 현황

직 명	성 명	현 직
이 사 장	최 남 수	광명교회 담임목사
이 사	원 광 기	잠실교회 원로목사
	강 신 원	노량진교회 원로목사
	김 영 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최 경 옥	미국 또감사선교교회 담임목사
	김 인 성	생명교회 담임목사
	박 기 호	풀러신학교 교수
	장 영 춘	미국 퀸즈한인장로교회 원로목사
	김 관 선	산정현교회 담임목사
	김 경 윤	창조교회 담임목사
	고 훈	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김 기 흥	응암교회 담임목사
	소 강 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장 주 영	미국 새누리교회 담임목사
감 사	이 강 봉	충현교회 장로
	이 승 열	사랑의교회 장로

2. 교원

1) 명예교수

	직책	성명	최종출신학교(학위)
1	명예원장	마삼락(Samuel H. Moffett)	Yale University(Ph.D.)
2	명예총장	한철하	Union Seminary(Th.D.)
3	명예교수	나일선(Marlin L. Nels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D.Miss.)
4	명예교수	강창희	Fuller Theological Seminary(Ph.D.)

2) 총장

	직책	성명	최종출신학교(학위)	전공
1	총장	김영욱	Fuller Theological Seminary(D.Mi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D.Min.)	실천신학

3) 일반전임교원

	직급	성명	최종출신학교(학위)	전공
1	교수	원종천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Ph.D.)	역사신학
2	교수	우심화	Beijing University(Ph.D.)	동양사학
3	교수	장해경	Eberhard-Karls-Universität Tübingen(Dr.theol.)	신약신학
4	교수	정흥호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Ph.D.)	선교학
5	교수	이숙경	Université de Paris 10(Ed.D.)	기독교교육
6	교수	한상화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Ph.D.)	조직신학
7	교수	김준수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D.Min.)	목회상담
8	교수	정홍열	Friedrich 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Dr.theol.)	조직신학
9	교수	박응규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Ph.D.)	역사신학
10	교수	이한영	Universteit vir Potchefstroom(Ph.D.)	구약신학

11	교수	안경승	Fuller Theological Seminary(Ph.D.)	목회상담
12	부교수	정재욱	숙명여자대학교(이학박사)	유아교육
13	부교수	허 주	Sheffield University(Ph.D.)	신약신학
14	부교수	금동철	서울대학교(Ph.D.)	국어국문
15	부교수	조 휘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Ph.D.)	구약신학
16	부교수	김영희	University of Stellenbosch(Th.D.)	목회상담
17	부교수	김덕영	Florida University(Ph.D.)	영어교육
18	부교수	안점식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Ph.D.)	선교학
19	조교수	김다니엘	Fuller Theological Seminary(Ph.D.)	선교신학
20	조교수	권오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Ph.D.)	구약신학
21	조교수	신성욱	University of Pretoria(Ph.D.)	설교학
22	조교수	손 신	Columbia University in NYC(Ph.D.)	사회복지학
23	조교수	김한성	Biola University(D.Miss.)	선교영어
24	조교수	김재윤	Kampen Theologishe Universiteit(D.Th.)	조직신학
25	조교수	전병철	Biola University(Ph.D.)	기독교교육
26	조교수	정성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Ph.D.)	신약신학
27	조교수	김성진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Ph.D.)	구약신학
28	조교수	조은아	Fuller Theological Seminary(Ph.D.)	선교학

4) 강의전담교원

	직급	성명	최종출신학교(학위)	전공
1	조교수	안효영	Michigan State University(Ph.D. Cand.)	교양, 영어
2	조교수	정은영	Wheaton College Graduate School(M.A.)	영어
3	조교수	박경호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Ph.D.)	기독교교육
4	조교수	김수연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Dr. Phil.)	기독교상담
5	조교수	정지웅	서울대학교(Ph.D.)	정치사회

5) 연구전담교원

	직 급	성 명	최종출신학교(학위)	전 공
1	부교수	김종일	이스탄불대학교(Ph.D.)	터키역사
2	조교수	박영주	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Ed.D.)	기독교교육
3	조교수	김성환	Fuller Theological Seminary(Ph.D.)	아프리카 선교
4	조교수	소윤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Ph.D.)	이슬람선교
5	조교수	안순철	Grace Theological Seminary(D.Miss.)	러시아선교
6	조교수	엄경섭	Fuller Theological Seminary(D.Min.)	동서선교
7	조교수	윤춘식	Fuller Theological Seminary(D.Min.)	남미선교
8	조교수	정득수	Howard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D.Min.)	중미선교
9	조교수	홍 근	연세대학교(M.S.)	항공선교
10	조교수	강대홍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D.Min.)	태국선교
11	조교수	김종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Ph.D. Cand.)	중국선교
12	조교수	김진학	University of Stellenbosch(D.Th.)	이스라엘 선교
13	조교수	박기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Th.M.)	카자흐스탄 선교
14	조교수	송원근	명지대학교(Ph.D.)	북한선교
15	조교수	정종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Th.M.)	북한선교
16	조교수	조기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Th.M.)	북한선교
17	조교수	조영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Ph.D.)	필리핀선교
18	조교수	조은호	Jawaharlal Nehru University(Ph.D.)	인도선교
19	조교수	홍정수	한세대학교(Th.M.)	유럽선교
20	조교수	신종철	총신대학교(Ph.D.)	교회사
21	조교수	김진욱	Louisiana Baptist University(Ph.D.)	오아시스 선교
22	조교수	오영철	Fuller Theological Seminary(D.Min.)	태국선교
23	조교수	유동윤	University of Wales(Ph.D.)	인도선교
24	조교수	윤석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Ph.D.)	파키스탄 선교
25	조교수	정형남	Fuller Theological Seminary(D.Min.)	중동선교

6) 겸임교수

	직 급	성 명	최종출신학교(학위)	전 공
1	조교수 대우	윤현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Th.M.)	북한선교학
2	조교수 대우	노창영	Providence Theological Seminary(D.Min.)	기독교교육
3	조교수 대우	김윤권	고신대학교(Ed.D.)	기독교교육

7) 초빙교수

	직 급	성 명	최종출신학교(학위)	전 공
1	부교수 대우	백효죽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D.M.A.)	지휘법
2	부교수 대우	남여명	한국외국어대학교(Ph.D. Cand.)	중국어

3. 직원 현황

소속		직명	성명	비고
교무처	교무지원팀	팀장	육상근	
		팀원	김진화 송경렬	
	입학	팀원	박명기 정지은	
학생처	학생지원팀	팀장	정영일	
		팀원	조현중	
대학원 교학처	대학원교학지원팀	팀장	채광석	
		팀원	고지은 김상현 조진우	
국제교육원		팀원	강문현 오한나	
대외협력처		처장	강구도	계약직
총무처	총무처	처장	김정관	
		총무지원팀	팀장	하정길
	회계팀	팀원	나직균 이명기	
		팀장	위현숙	
	시설관리팀 I	팀원	전수진	
		팀원	이광호 고재권	
시설관리팀 II	팀원	이정진		
	기획처	기획팀	실장	위현숙
팀장			김용환	
팀원			심재영	
부속실	비서실	비서	강성경	
		기사(총장)	임규석	계약직
		기사(명예총장)	김병화	계약직
부속기관	문헌 정보관	도서관	팀원	유은영 박영진
		정보지원팀	팀장	최현식
			팀원	김창환
	교목실	팀원	조진우	대학원교학팀 겸직
	선교실	팀원	류승희	
	예비군중대본부	중대장	박명기	교무처 입학업무 겸직
	평생교육원	팀장	김동일	국제언어교육원 겸직
	식당	팀원	김현아(영양사) 김맹엽(조리사)	
	생활관	사목/사감	황용기	계약직
	국제교류협력실	팀원	박명기 정지은	교무처 입학업무 겸직
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		과장	김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파견
산학협력단		처장	최창덕	
합계		39명 (정규직 35명, 계약직 4명)		

4. 재학생 현황

1) 학부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신학과	78	75	67	46	266
선교학과	30	30	31	29	120
기독교교육학과	45	41	32	44	162
선교영어학과	31	31	35	40	137
선교중국어학과	19	10	-	-	29
신학과(야간)	-	2	17	23	42
합계	203	189	182	182	756

2) 대학원

대학원별	과정 및 세부전공		인원	
대학원	신학박사(Ph.D.)		32	
	석박사통합(Th.M. & Ph.D.)		24	
	신학석사(Th.M.)		36	
	문학석사(M.A.)		21	
신학대학원	신학석사(Th.M.)		35	
	문학석사(M.A.)		4	
	목회학석사(M.Div.)	한국어 과정	1학년	86
			2학년	72
			3학년	78
영어 과정		59		
선교대학원	신학석사(Th.M.)		13	
	문학석사(M.A.)		26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M.Ed.)	교육 과정	30	
		상담	22	
		다문화교육	13	
상담대학원	상담학석사(M.A.C.)	기독교상담	38	
		가정상담	45	
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M.S.W.)	사회복지학	12	
합계			646	

3) 국제교육원(AIGS) 외국인학생

국가	인원	국가	인원
Bangladesh	2	Myanmar	9
China	5	Nepal	9
Cameroon	2	Nigeria	5
Cambodia	4	Pakistan	3
Denmark	1	Philippines	1
Dominica	1	Tanzania	2
Ghana	1	Thailand	1
India	10	Uganda	1
Indonesia	2	Vietnam	4
합 계			63

4) 평생교육원

구분	과정명	인원
전문가 과정	3927 성경연구	8
	ACTS전문인선교연구	21
	가정사역전문지도자	48
	교회지도전문가과정	18
	기독교사회복지지도자	14
	로템성경연구	12
	목회연구원과정	12
	바리스타 카운슬러	19
	음악콘서바토리(개인레슨)	6
	전도전문지도자과정	13
	전문인선교사	5
	치유상담전문연구	22
	치유임상	10
학점은행제	신학, 사회복지학	26
합 계		234

5. 동문 현황

1) 학부

학과 년도	신학과	아세아 학과	아세아 선교 학과	선교 학과	기독교 교육 학과	선교 영어 학과	신학 과(야)	아세아 선교 학과 (야)	선교 학과 (야)	합 계	비 고
	1986	34									34
1987	39	25								64	
1988	37	26								63	신학과 외국인 3명
1989	30	27								57	
1990	26	36								62	
1991	39	24								63	
1992	36	41								77	
1993	48	33								81	
1994	37	32								69	
1995	40	37		12						89	
1996	23	29		15						67	
1997	36	44		16						96	
1998	49	23		14						86	
1999	46	23	29	11					37	146	
2000	51	39	-	18			38		32	178	
2001	42	12	24	5			35	17	8	143	
2002	47	4	42	5			43	34	1	176	
2003	41	-		44	15	10	22			132	
2004	49	-		37	31	12	29			158	
2005	57			52	28	18	33			188	
2006	53			35	31	26	31			176	
2007	27			27	21	29	27			131	
2008	56			46	42	31	52			227	
2009	70			28	26	29	42			195	
2010	81			47	29	36	35			228	
2011	80			42	54	41	34			251	
2012	67			35	32	32	30			196	
2013	53			24	41	20	20			158	
2014	61			28	29	22	14			154	
합계	1355	455	95	541	379	306	485	51	78	3,745	

2) 대학원 및 연구원

대학원	일반 대학원	신학 대학원	선교 대학원	교육 대학원	상담 대학원	복지 대학원	연구원 (이수 포함)	합계
1974							9	9
1977							1	1
1982							19	19
1983							34	34
1984							45	45
1985							58	58
1986							73	73
1987							110	110
1988							43	43
1989	1	5					55	61
1980	7	1					37	45
1991	4	7					48	59
1992	3	3					57	63
1993	10	3					71	84
1994	6	3					82	91
1995	10	5					78	93
1996	13	7					78	98
1997	18	10					84	112
1998	28	10					70	108
1999	33	8					68	109
2000	39	11	9				29	88
2001	51	8	16				38	113
2002	57	37	7	29			32	162
2003	43	37	8	49			25	162
2004	33	37	10	32	26		2	140
2005	50	38	16	36	22	2	14	178
2006	39	43	13	30	21	3	4	153
2007	35	7	20	29	11	2	14	118
2008	21	42	9	26	24	12	5	139
2009	26	53	14	17	21	12	3	146
2010	34	84	7	14	21	7		167
2011	22	50	4	14	21	5		116
2012	18	46	4	6	29	3		106
2013	28	63	5	8	26	6		136
2014	15	78	14	10	21	8		146
합계	644	696	156	300	243	60	1,286	3,385

3) 목회학박사(D.Min.)

년 도	성 명
1982,7,1	이수중
1983,7,18	김기현 문홍지 정영관 황대식 김은곤 박종렬 이만신 홍순우
1983,12,5	김기돈 윤주봉 박찬섭 전찬원 라선철 박종순 김정훈 이광선 이홍관
1984,6,19	송치현 이종태 오신주 원광기 홍종각 배동운 백천기 유부용 원두혁 김욱기
1985,3,5	김기태 김학만 안행래 이성환 조정식 최원진 한학수
1985,9,24	박영배 박종무 방광덕 이윤철 장자천 최침수
1986,3,18	김찬중 김천수 박상협 박재천 우문선 이철주 최기석
1986,9,23	고해성 김학도 박용식 방재항 소의수 안광성 정진구 황방남
1987,3,24	권용평 김석인 김수진 김신국 김오현 박영철 박위근 백도웅 백자홍 백학기 손영호 손학봉 염시동 원종국 전광석 조정용 최정성 피정식 허달수 허양수
1987,9,22	권용각 김관수 김문희 김창민 김해철 김홍도 나경일 문성남 박춘화 손중세 신창수 원종홍 유종철 이상섭 이석중 이송관 이수인 이용남 이용식 이정익 이현덕 조근천 조명호 주성호 한관용 한영성 홍근기 홍선기 황 양
1988,3,22	김상철 김소암 김용수 김제건 박도재 배영국 송성학 오창학 유연환 이상운 임신영 장세중 전봉운 전을성 조유택 천정웅 황장욱 황천영 황태주 허광섭 허남기
1993,10,26	김 규 김남승 서정주 유종만 임익근 장명덕 조기덕 주경덕 홍재구
1994,9,27	곽동선 권영복 김동엽 김정호 박현섭 송석산 유기문 윤대영 이규학 이제훈 장항희 정주채 주준태 최웅진 최유환 황영복
1995,3,21	김동수 김병복 김성천 김수근 김원태 김춘환 문인현 민정웅 박문옥 서창수 이현갑 정문호 정재훈 조석원 하용삼 허성호 호태석
1995,9,26	고 훈 고희식 김재술 나현주 윤희구 이길근 이필로 지영택 최철식 최정홍
1996,3,19	고문수 길영환 김석관 김중신 박기영 백성남 신명호 오세호 윤영한 윤태영 임홍기 장현운 정광석 조연모 조정해 주영철 지용수 황주룡
1996,9,24	고종명 공병진 권오태 김명기 김석은 김청수 민기태 박상철 박순대 박현모 배경국 배치영 오창우 옥성석 원석준 이덕승 정두섭 정병업 정찬수 조광연 최준혁
1997,3,18	김광식 김성철 김수영 김문태 이갑형 정삼수 최금남
1997,9,30	구금섭 김용상 박수만 설동주 안호상 이기혁 임준택 장기영 장덕순 전성준
1998,3,17	김상기 김정태 김지호 김찬기 남정웅 송홍도 안광춘 안민수 안재은 윤장운
1998,9,29	고영기 김기곤 김영동 박래문 박정희 서병업 신정환 양서규 이춘수 조기성 조병태 최덕운
1999,3,23	이성수 한주근
1999,9,21	김성규 김용택 김정욱 김춘근 박세훈 손춘엽 윤길창 이종태 이종찬 임덕순 전성진 정봉기 최남규
2000,3,21	김보영 김용식 김정하 도미환 문재용 박노진 신광준 윤춘식 이성오 임정석 장기홍 최중혁 한태수 황삼익
2000,9,19	고창덕 김 강 김성준 김홍권 남용우 이용길 이정규 이정서 장홍수 전인식 지영철 최성준 홍병호
2001,9,18	강일만 고종혁 김기선 박효진 원종현
2002,3,19	권영만 권오윤 남기탁 문용만 박인호 이명형 임인섭 최제봉 한경석
2004,2,24	윤경학
2005,2,22	박대관 윤수현 이화영 임훈식 하종성 황인찬
2006,2,21	김성철 이성호 이정규 하학봉
2007,2,15	김학현 박민재 송영식 신민철 이정인 이형로 임종주 임훈식 정명식 주명갑 황만선

4) 외국인학생(AIGS)

번호	국가	학위 과정						이수 과정					합계	
		Ph.D./Th.D.	D.Min	Th.M.	M.Div.	M.A.	B.Th.	R.P.	M.T.P.	A.C.L.T.P.	S.T.P.	Research		
1	Bangladesh			1	9	1	1							12
2	Brazil											1		1
3	China				3									3
4	Egypt		1			3								4
5	Ethiopia				3									3
6	Gabon					1								1
7	Ghana				1	2								3
8	India		7	48	14	14	1	3	5		1	4		97
9	Indonesia	1	1	15	6	2						1		26
10	Iran			1	1									2
11	Ireland			1										1
12	Japan			1	3	1								5
13	Kazakhstan				3									3
14	Kenya			5	2	6								13
15	Kiribati		1											1
16	Laos							1						1
17	Malawi				1		1							2
18	Malaysia				2					1				3
19	Mongolia				2									2
20	Morocco				1									1
21	Myanmar		1	22	17	7		2						49
22	Nepal		1	3	14	1	2	4	1					26
23	Nigeria		3		5	2								10
24	Pakistan			5	3	1		2						11

번호	국가	학위 과정						이수 과정					합계	
		Ph.D./Th.D.	D.Min	Th.M.	M.Div.	M.A.	B.Th.	R.P.	M.T.P.	A.C.L.T.P.	S.T.P.	Research		
25	Philippines	1	4	12	6	3		1					2	29
26	Romania					1								1
27	Russia	1			1									2
28	Singapore					2							1	3
29	Sri Lanka			4	1	1		1	1				1	9
30	Sudan				4	5	1							10
31	Taiwan			1	1	1			2				3	8
32	Tanzania			1	6	4	2							13
33	Thailand			1	7	2			1	2				13
34	Uzbekistan				1									1
35	Uganda		2	1		3	1							7
36	USA			1	2	1							1	5
37	Vietnam			4	7									11
38	West Samoa			3					1				1	5
39	Zambia					1								1
	Unknown												1	1
합계		3	21	130	126	65	9	11	14	3	1	16		399

◆ Incompleted : 43명

- R.P. : Rural Program
- M.T.P. : Missionary Training Program
- A.C.L.T.P. : Asian Church Leadership Training Program
- S.T.P. : Special Training Program
- Research : Research Program

6. 평생교육원 수료자

과정명	인원
ACTS 전문인선교(ACTS 교회성장연구)	40
CEO 전문인선교사(기독교최고위)	43
CRC	26
가정사역	40
교회여성전문지도자	24
교회지도자전문	19
기독교노인상담	16
기독교사회복지	91
목회연구원	53
미술치료	15
바리스타 카운슬러	10
북한선교지도자 아카데미	23
사모상담	118
사이버교육원	3
성경전문과정	23
전도전문지도자	16
청소년 치유상담가	19
치유상담	176
목회연구원(1-9기)	1,139
합계	1,894

부록

교수 논문집

1. ACTS Theological Journal

Vol. 1 (1984)

- Preface/The of Evangelical Theology / Han, Chul-Ha
- The Literary Structure of Genesis 1:1-2:3 / Lee, Jin-Tae
- 구약 신학의 과제와 방법론 / Jung, Kyu-Nam
- Leben-Jesu-forschu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 F. Strauss / Lee, Jong-Yun
- He Eucharistic Words of Jesus as the Words of "the 'Son of Man'" / Kim, Seyoon
- A Critical Evaluation of Western Theology toward a Reappraisal of the Biblical Faith / Han, Chul-Ha
- Ein Horizont der Theologie Barths / Ahn Bong-Ho
- An Ecclesiological Perspective on Presbyterian Fundamentalism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 Kim, Ki-Hong
- The Modern Non-Western Mission Movement / Marlin L. Nelson
- A Comparative Study of Bavinck's View of Dialogue with the WCC's / Jun, Ho-Jin
- Factors of Universalistic Value Commitment among Middle Management Personnel in Thailand / Kim, Sung-Chul
- Can Biblical Teaching Produce Behavioral Change? / Dirk Nelson

Vol. 2 (1986)

- The Problem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Fourth Kingdom in Daniel Seven / Jung, Kyu-nam
- Chrdtianity and Culture in Korea: Nationalism, Dialogue, Indigenization and Contextualization / Kim, Seyoon
- The Holy Spirit and Church Renewal / Kenneth N. Leestma
- Knowing Jesus / Eugene P. Heudeman
- The Crisis in the Doctrine of God the Creator and Redeemer in Modern Westsrn Theology / Han, Chul-Ha
- "Tao" und "Te" bei Laotse Als "Religion" und "kultur" in der Terminologie Paul Tillichs / Yu, Kwang-Woong

An Exposition and Evaluation of Whitehead's Philosophical Theology / Peter Ying-Yuk Au
 Machen's Struggle for a Doctrinally Pure Church / Kim, Ki-Hong
 Some Assumptions on Health and Healing / Lee, Myung-Soo
 Some Strategies for the Evangelization of Asia / Marlin L. Nelson
 Kuts, The Rituals of Mudang—An Anthropological Point of view / Kim, Jong-Il
 The Church as Community: A Biblical Source for Relational Christianity / Dirk Nelson
 To Be Or Not To Be A Leader? A Christian Perspective / Jack P. Hahm

Vol. 3 (1988)

The Need and Scope of an International Theological Establishment in Asia / Han, Chul-Ha
 The Need for a New Theological Basis for the Evangelization of Asia: A Cross-Cultural Approach or
 a Historical Approach? / Han, Chul-Ha
 Meaning and Reality to the Theology of the Evangelization of Asia The Theological Task of ACTS
 Jesus and the Temple / Kim, Seyoon
 Some Secrets of Koran Church Growth / Marlin L. Nelson
 The Task and Methodology of Old Testament Theology / Jung, Kyu-Nam
 Faith and History / Kim, Ki-Hong
 Krise der europäischen Kirche: Geistvergessenheit / Yu, Kwang-Woong
 Guidelines for Cpmunication in Church and Mission / Ruth M. Eshenaur
 Healing Ministry: A Christian Perspective / Lee, Myung-Soo
 Die Redchtfertigunglehre Calvins / Wilhelm Neuser
 An Expositon and Evaluation of Whitehead's Philosophical Theology, Part II : The Whiteheadean
 Epistemology / Peter Ying-Yuk Au
 Israel, the Son of Yahweh / Sohn, Seock-Tae

Vol. 4 (1991)

The Global Church Today / Samuel Hugh Moffett
 Theology of Ministry in John Calvin / Han, Chul-Ha
 Ethics in Healing: Oriental Perspectives / Lee, Myung-Soo
 From text to Contexts: Case Studies in Asia / Ro, Bong-Rin
 The Eschatology of Karl Barth / Kim, Sang-Bok David
 A Critique of Korean Church Growth(1975-1989) / Marlin L. Nelson
 Puzzling Questions about MENE MENE TEKEL UPARSIN in Daniel 5:25 / Jung, Kyu-Nam
 Toward Training Cross-Cultural Missionaries: Overcoming Cultural Barries / Ruth M. Eshenaur
 Syllogismus Practicus bei Calvin / Yu, Kwang-Woong
 Anti-Paulinism in the Sermon on the Mount / Kang, Chang-Hee
 A Sketch of the Puritan Concept of Covenant / Won, Jong-Chun
 Worldview and Ministry / Ahn, Young-Kwon
 Quelques Polemiques sur l'Inimitabilite' du Coran et la Critique Evange'lique / Kwon, Hyeong-Gi

Higher Education as Service to the King / H. G. Geertsema
 Healing: Magic, Method, Mystery / H. Newton Malony
 Spirituality and Environment in Hosea / Elmer A. Martens

Vol. 5 (1994)

The Great Task of Ministerial Form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Asia: A Theological Foundation
 for Theological Education / Han, Chul-Ha
 The Korean Church: God's Chosen People Today / Ro, Bong-Rin
 The Place of Miracles Today / Kim, Sang-Bok
 New Hope for Missions / Marlin L. Nelson
 Yada in the Book of Hosea / Jung, Kyu-Nam
 Reformation and Mission: A Brief Survey of the Missi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Reformers
 / Jun, Ho-Jin
 History of Doctrine of Salvation / Kim, Ki-Hong
 Syllogismus Practicus bei Calvin / Yu, Kwang-Woong
 Religion and Women's Political Culture in Korea / Joo, Jun-Hui
 Righteousness in Paul's Gospel / Kang, Chang-Hee
 Calvin's View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Context of Modern Evangelicals' Views / Won, Jong-
 Chun
 Biblical Foundation for Ministry to the Urban Poor / Ahn, Young-Kwon
 Les religions dans l'ouvrage de Mas'udi / Kwon, Hyeong-Gi

Vol. 6 (1996)

Calvin's Doctrine of the Divine Election and Pastoral Ministry / Han, Chul-Ha
 Korean Seminarians in N. America: Untapped Resource for World Missions / Ro, Bong-Rin
 How to Learn a Foreign Language (Secret for an Effective Cross-cultural Ministry / Marlin L. Nelson
 A Bed of Roses or a Bed of Thorns: A Biblical Theology of Prosperity Wasted / Kim, Sang-Bok
 The Identity of the "Sons of God" in Genesis 6:1-4 / Jung, Kyu-Nam
 Religious Pluralism: Its Challenges and Dangers Against Christianity in Asia / Jun, Ho-Ji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 Kang, Chang-Hee
 "Theocentric Natural Fitness": Jonathan Edwards' View on the Role of Faith in Justification in
 comparison with John Owen / Won, Jong-Chun
 Developing a Model of Ministry to the Urban Poor in Asia / Ahn, Young-Kwon
 La vie et la pensee de Mas'udi / Kwon, Hyeong-Ki
 Ethnotheology in Action / Kim, Young-Ook
 A Rationale for Adult Christian Education in the Church / Glenn A. Jent
 Transfer of the Ark into Jerusalem (1 Chr. 15 and 16): A Study in Inter-Biblical Interpretation
 / Choi, Jong-Tae
 Die vorpaulinisch hebraisierten LXX - Rezensionen / Chang, Hae-Kyung

Vol. 7 (1998)

- Justification by Faith in the Synoptic Gospels / Kang, Chang-Hee
 A Proposal of the ACTS Theological Synopsis in the Field of Theology of Mission / Lee, Dong-Joo
 Theological Method of Church History / Won, Jong-Chun
 Foundations for a Relational Theology / Dirk John Nelson
 Law and Prophets in the Light of the ACTS Synopsis / Choi, Jong-Tae
 The Activity of God: Missiological Central Truth / Chong, Hung-Ho
 A Study on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Salvation Related with Sanctification in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ducation / Kwon, Tack-Joe
 'Iustificatio' in Paul-'sola fide' and 'sola gratia' / Chang, Hae-Kyung
 On the Identity and Nature of the Central Truth of the Christian Religion:
 A Response to Dr. Han Chul Ha's proposal for Theological synopsis / Han, Sang-Hwa
 The Relationship between Sin and Death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 Chung, Hong-Yul
 Counseling and Central Truth of the Gospel / Kim, Jun-Soo

Vol. 8 (1999)

- The 7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alvin Research Opening Address-A Search for the Roots of
 Korean Calvinism in the Religion of John Calvin(I Jn 5:18) / Han, Chul-Ha
 Justification by Faith in the Gospel of John / Kang, Chang-Hee
 The Syncretism of Christianity and Buddhism in the Twentieth Century / Lee, Dong-Joo
 Mission and Contextualization / Ahn, Young-Kwo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and Contextualization for intra-cultural Amerasians context
 / Kim, Young-Ook
 Creation of Man: Its Significance for OT Theology / Choi, Jong-Tae
 Biblical Foundation on Divorce for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 Chong, Hung-Ho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 of Christlikeness and Lawrence Kohlberg's Theology of Moral
 Development / Kwon, Tack-Joe
 The Mutually Indispensable Relationship between Biblical Theology and Systematic Theology from
 the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 Han, Sang-Hwa
 The Problem of Jesus' Resurrection in the Theology of W. Pannenberg / Chung, Hong-Yul
 Christian Marriage Conflict Management / Kim, Jun-Soo
 Eschatology in Mission: The Evangelical Impulse for the Rise of the Modern Mission Movement in
 America with a Brief Reference to Korean Eschatology / Pak, Ung-Kyu

Vol. 9 (2000)

- Jesus and Jeremiah in the Synoptic Gospels / Kang, Chang-Hee
 An Evangelical Understanding of the Deconstructivism of Postmodernism / Lee, Dong-Joo
 Critique of Calvin's Tradition of Theology of Sabbath / Won, Jong-Chun

- The Motivation and Message of Evangelism in Evangelical Theology / Kim, Young-Ook
 Model of Sanctification for Missioners: The Missiological /Theological Synopsis / Chong, Hung-Ho
 Christian Education and Discipleship / Kwon, Tack-Joe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Romans / Chang, Hae-Kyung
 The Centrality of the Cosmomic Idea in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cism / Han, Sang-Hwa
 Christian Understanding of Self-Esteem / Kim, Jun-Soo
 George Whitefield's View of New Birth Revisited in Terms of the ACTS Theological Synopsis / Pak, Ung-Kyu

Vol. 10 (2001)

- A Study of Buddhism for the Indigenization of the Gospel / Lee, Dong-Joo
 John Calvin and the Seventeenth Century English Puritans on the Spirituality of the Lord's Supper
 / Won, Jong-Chun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Art and Its Role in Mission / Ahn, Young-Kwon
 The Role of Lay Christian Mission for the North Korea / Kim, Young-Ook
 Christian Anthropology in Relation to the Issue of Suicide / Chong, Hung-Ho
 Cornelius Van Til's View of the Unity of Christian Theism and Its Critical Evaluation / Han, Sang-Hwa
 "From England to New England: The Millennial Impulse for Puritan Migration to and Settlement in
 the New World / Pak, Ung-Kyu
 Reading Strategies in the Exodus Narrative(Exodus 1:1-15:21) / Lee, Han-Young
 An Approach to Integration / Ahn, Kyung-Seung
 The Genre and Plot of Luke-Acts / Hur, Ju

Vol. 11 (2002)

- The Concept of Grace in Gen 6:8 Sin, Judgment, and Grace / Lee, Han-Young
 Textlinguistics as an Alternative Tool for Evangelical Exegesis / Cho, Hwi
 Theological Motifs i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Gospel of John / Kang, Chang-Hee
 The Holy Spirit as a Divine Character with Special Reference to Direct Definitions in Luke-Acts / Hur, Ju
 Three Evangelical Responses to Postmodernism: Stanley J. Grenz, Douglas Grothuis and Millard J.
 Erickson / Han, Sang-Hwa
 Calvin's Understanding of Conscience / Chung, Hong-Yul
 The Problem of Pantheism in Moltmann's Theology / Chung, Hong-Yul
 Richard Sibbes on Covenant Theology / Won, Jong-Chun
 Evangelism and Social Concern in American Evangelicalism / Pak, Ung-Kyu
 The Syncretism of Buddhism and Expansion of Tantrism / Lee, Dong-Joo
 Christian Anthropology and Ministry in Pauline Theology: Body, Soul, and Spirit / Chong, Hung-Ho
 A Biblical Approach Evangelism / Kim, Young-Ook
 Christian Education for Affective Development / Kwon, Tack-Joe
 A Counseling Oriented Visitation Ministry / Kim, Jun-Soo
 The Work of the Counsel and Healing Ministry / Ahn, Kyung-Seung

The Task of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and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 Yie, Sook-Kyung

Vol. 12 (2003)

Evaluation on the "Skeptics Movement" in Current Old Testament Studies As It Concerns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 Koh, Sejin

Biblical Found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New Testament / Kwon, Tack-Joe

A Study on Korean EFL learners' Acquisition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 Kim, Duk-Young

Understanding Church Conflict Caused by Troublesome People / Kim, Jun-Soo

A Looking at the Contribution of Reformed Faith to American Evangelicalism / Pak, Ung-Kyu

Calvin's Doctrine of the IMAGO DEI / Park, Hae-Kyung

Calvin's View on the Noetic Effect of the Fall / Won, Jong-Chun

On the Nature of Old Testament Historiography / Lee, Han-Young

Tertullian's Understanding of Person in His Doctrine of the Trinity / Chung, Hong-Yul

Issues Between the Baptism and Infilling of the Holy Spirit for Missioners / Chong, Hung-Ho

A Reformed Critique on Richard Rorty's Neo-Pragmatic View of Knowledge / Han, Sang-Hwa

Study on Korean Syncretistic Anthropology of Schamanism / Lee, Dong-Joo

Dependency, A Deadly Disease / Kenneth Bender

Vol. 13 (2004)

Law and Grace in the Sinaitic Covenant / Lee, Han-Young

God's Blessing upon Israel and Universal Recognition of His Righteous Rule : Psalm 67 / Kim, Sung-Soo

Jesus' Prayer as the Source of Heb 5:7-8 / Kang, Chang-He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uritan Church Covenant Idea / Won, Jong-Chun

Herman Dooyeweerd's Contribution to the Christian Philosophy of History / Pak, Ung-Kyu

Luther on Sanctification / Chung, Hong-Yul

Calvin's Doctrine of the Session of Christ / Park, Hae-Kyung

The Meaning of Holy Spirit in Islam / Lee, Dong-Joo

'Kubla Khan' and the Theology of Samuel Taylor Coleridge / Chong, Hung-Ho

Victor W. Turner's Theories of Rituals and Their Missiological Implications for Baliness Context / Lee, Jang-Ho

Hristian Education for Volitional Development / Kwon, Tack-Joe

Career Counseling Ministry in the Local Church / Kim, Jun-Soo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 Ahn, Kyung-Seung

Acquisition of Pragmatic Competence in Making English Refusals by Korean English Speakers / Kim, Duk-Young

Pastoral Counseling for the Korean Family in an Age of Change / Kim, Young-Hee

Vol. 14 (2005)

The Christian Life in a Dialectical Tension? Romans 7:7-25 Reconsidered / Chang, Hae-Kyung

Development of the Puritan Use of Social Covenant / Won, Jong-Chun

Triologue on Conversion among Edwards, Finney and Bushnell / Pak Ung-Kyu

Some Reflections on the Evangelical Theological Method in Postmodern Context: Evangelical Fideism, Biblical Foundationalism and Ethical Justification / Han, Sang-Hwa

Cyprian's View of the Church / Chung, Hong-Yul

A Study in Tibetan Buddhism / Lee, Dong-Joo

Sociological Dominion of Pakistani Muslims and Mission Strategies / Chong, Hung-Ho

A Study on Meditation as a Way of Spirituality Development / Kwon, Tack-Joe

Biblical Understanding of Human Motivation / Kim, Jun-Soo

The Spiritual Dimensions of Forgiveness in Christian Counseling / Ahn, Kyung-Seung

Study on the Inclusive Education System for the Disabled Early Childhood / Chong, Chae-Ok

Vol. 15 (2006-2010)

Do Various Structures Entail Different Meanings? / Cho, Hwi

The Creation Motif in the Gospel of John / Kang Chang-Hee

The Usaga and the Meaning of Ruach in 1QS, 1QM, CD and 1QH / Hur, Ju

Social Reform and Theology in the Ministry of Charles G. Finney / Pak, Ung-Kyu

A Study on the Contribution of Imam Din Shabaz for the Pakistani Indigenous Christian Hymns / Chong, Hung-Ho

A Study on the Formulating the Concept of Christian Spirituality: S= RGP, P2E / Kwon, Tack-Joe

Le double personnage de lecole chretienne et son identite en coree / Yie, Sook-Kyung

Comparing the Child Abuse Prevention Systems of South Korea and Japan / Chong, Chae-OK

The Healing Presence of God in Pastoral Counseling for a Sufferer in Crisis: A Pastoral Theological Approach / Kim, Young-Hee

A Study of Request Perspectives for College Learners of English / Kim, Duk-Young

Vol. 16 (2011)

A Critical Evaluation of Western Theology: Toward a Reappraisal of the Biblical Truth / Han, Chul-Ha

Is Amos 7:10-17 a Striking Anomaly, an Interlude, or Part of the Tapestry? / Cho, Hwi

An Examination of John 3:5: "Born of Water and Spirit" / Kang, Chang-Hee

Luther and Puritans against Antinomianism / Won, Jong-Chun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the Theology of Francis Turretin / Pak, Ung-Kyu

The Essence of Missionary Theology in John Calvin's Theology / Chong, Hung-Ho

Incarnational Christology as the Crux of Spiritual Theology / Kim, Daniel Johnguk

Ethical Issues in Pastoral Counseling / Ahn, Kyung-Seung

The Use of Adverbials and Pragmatic Tone in EFL Students' Speech / Kim, Duk-Young

Holistic Child Development: A Mission Agenda that Cannot be Ignored Today / Jesudason Baskar Jeyaraj

Vol. 17 (2012)

- Rabbinic Understanding of "Messianic Predictions" in the Book of Ezekiel / Cho, Hwi
 A Critical Evaluation on Rudolf Bultmann's Hermeneutical Principles / Jung, Sung-Kook
 The Constitutional Nature of Human Being: Towards a Dichotomistic Holism / Han, Sang-Hwa
 A Study on the Analyzing the Congregation for Effective Preaching / Shin, Sung-Wook
 Integrated Thinking on Spirituality for Missioners / Chong, Hung-Ho
 Presence Theology: A Subcategory of Spiritual Theology / Kim, Daniel Johnguk
 Relationship, Order, Consciousness: The Concepts for Worldview Analysis in Comparative Religion and Missional Apologetics / Ahn, Jum-Sik
 A Psychological and Biblical Study on Cognitive Therapy for an Effective Christian Education / Kwon, Tack-Joe
 The Response of Social work to a Multi-cultural Society / Son, Shin
 The Prospects for Re-Integration between Church Education and Family Life Education / Jun, Byoungchul Joseph
 A Study of Korean College Students' Improvement of Reading Competence through English Newspapers / Kim, Duk-Young
 Korean Bib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their English Learning Experience / Kim, Han-Sung

2. ACTS 신학저널**18집 (2013년)**

- 쿰란나훔주석(4QpNah)의 해석적 경향 연구 / 조휘
 신학의 '과학성': 성경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법 / 장해경
 성경적 리더십을 통한 선교적 리더십에 관한 고찰 / 정홍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강단의 위기와 설교학적 대안 / 신성욱
 설교학의 디다케 이해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논의 / 이숙경
 과업중심학습 활동을 통한 대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 김덕영

19집 (2014년)

- 누가 성령론 이해와 평가: 서구 신학자를 중심으로 / 허주
 기독교 인구수치로 본 중국교회의 현황과 과제 / 우심화
 한국 교회가 확립해야 할 종교신학의 방향성에 관한 소고 / 안점식
 기독교인 취업모의 자녀양육과 일의 양립에 관한 연구 / 정채욱
 행복과 기독교 상담 / 안경승
 타문화권 사역을 위한 통합 영어 훈련 시스템을 위한 예비 연구 / 김한성

20집 (2014년)

- Paul the Social Worker: -Yet Another Self Portrait of Paul Displayed in the Pauline Epistle- / 손신

- Application and the Role of Preacher in the Expository Preaching / 신성욱
 Is Israel's Universal Call to Praise Evangelistic? / 조휘
 Paul's Hermeneutics in His Use of Deut 30:12-14 in Rom 10:6-8 / 정성국
 A Close Reading of Genesis 38:1-30 / Saleem
 The Imperatives of the Gospel in Romans 6 / Rolex M. Cailing

21집 (2014년)

- 성경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이동원 목사의 설교와 신학적 특징 / 신성욱
 ACTS신학-신앙운동 이해와 나아갈 길 / 김성진
 ACTS신학-신앙운동소고 / 권오윤
 1920년대 미국 북장로교 내의 근본주의 對 현대주의 논쟁에 관한 연구 -해리포스틱(Harry E. Fosdick)과 클라렌스 맥카트니(Clarance E. McCartney)를 중심으로- / 신종철
 태국 카렌민속불교권을 향한 선교전략 -프레와 람폰사레를 중심으로- / 오영철
 아랍인과의 소통에서 수사학적 및 화용론적 기능 / 공일주

22집 (2014년)

- 신이해와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복음주의적 고찰 / 권오윤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아들과 대제사장 예수: 히 1:5에서의 시 2:7과 삼하 7:14의 사용 / 정성국
 ACTS신학-신앙운동과 ACTS 신학공관작업 이해와 "중심진리"에 대한 선교학적 고찰 / 조은아
 기독교 중심진리에 기초한 목회상담학에 대한 이해 / 김영희
 아랍어 성경 번역과 아랍 기독교인의 언어 사용에서 무슬림 아랍어의 영향 / 공일주
 OMF의 한국선교 35년사에 나타난 선교의 장단점 연구 / 김성환

3. ACTS 神學과 宣敎**제1호 (1997년, 창간호)**

- 성례에 대하여 / 한철하
 할례와 출애굽기 4:23-26의 해석 / 정규남
 바울과 예수의 전승 -elachistos를 중심으로 / 강창희
 고염(담)무의 정치개혁론 / 우심화
 어거스틴의 철학과 교육 과정에 관한 그의 견해 / 글렌젠티
 시편 68편에 관통하는 사고가 있는가? / 최종태
 기독교교육 실천과 문화의 관련범주들 / 이숙경
 선교와 교회의 관계성 고찰 / 정홍호
 Cornelius Van Til의 인식론과 Postmodern 상대주의: 형태적 병행성과 근본적 차이점 / 한상화
 코메니우스(1592-1670)와 청교도의 관계에 대한 일 고찰 / 오춘희

제2호 (1998년)

야고보서의 주제와 적용문제 / 강창희
 복음의 토착화를 위한 불교연구 / 이동주
 “16세기 영국 청교도 언약사상 형성의 역사적 배경” / 원종천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와 항공선교사역 / 김영욱
 창 1, 2장의 창조론 / 최종태
 한국 기독교 교육의 공동체적 접근에서의 문화적 한계 / 이숙경
 선교적 관점에서 복음주의 신학교육의 방향 / 정홍호
 영적 지도력을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적 맥락에서의 지도력으로서의 피지도력 / 권택조
 바울신학의 중심으로서의 ‘iustificatio sola fide’ (1) / 장해경
 해방신학의 성서해석관 비판 / 정홍열
 기독교 인식상담 / 김준수

제3호 (1999년)

요한복음의 말씀의 음미 / 강창희
 21세기 이단의 교리적 특징 -기독론을 중심으로- / 이동주
 마틴루터의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조명 / 원종천
 21세기 선교전략으로서의 코이노니아 선교 / 안영권
 옥부지의 화이관 / 우심화
 밀레니엄을 앞둔 북한선교제안 / 김영욱
 “사회화론”의 교육목적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 -기독교의 “중심진리”에 기초하여- / 이숙경
 결혼으로서의 시내산 언약 / 최종태
 문화와 상황화 / 정홍호
 인격발달에 대한 연구 -감성지능을 중심으로- / 권택조
 신학대학교 교양교육 과정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오춘희
 환생사상에 대한 신학적 비판 / 정홍열
 태국인의 민속 세계관 / 이교육
 설교문: ACTS의 사람들 / 권영복

제4호 (2000년)

공관 복음서의 구원 / 강창희
 꾸란의 윤리성과 그 영성 연구 / 이동주
 칼빈 인식론의 신학적 접근 / 원종천
 21세기 선교전략 모색을 위한 선교역사 고찰 / 안영권
 공자의 ‘인’ 사상 연구 / 우심화
 사이버 시대의 전도 전략 / 김영욱
 시가서의 동사 시제 연구 / 최종태
 효과적인 선교교육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정홍호
 21세기의 학교발전을 위한 새 학습 모델 / 권택조

바울신학의 중심으로서의 iustificatio sola fide(II) -ACTS 신학공관을 위한 신약신학 분야의 직업(I/b)- / 장해경
 복음주의 개념정립을 위한 소고 -용어의 혼란에 대한 하나의 제안- / 한상화
 그리스도의 인격임재설에 관한 연구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 임재방식에 관한 연구- / 정홍열
 구원론을 중심으로 본 미국 북장로교 내의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 연구 / 박응규
 구약학에서 본 ACTS 신학운동과 신앙운동의 이해와 의미 / 이한영
 ACTS 신학운동과 신앙운동의 이해와 의미 / 안경승

제5호 (2001년)

한국 교회의 진로 -Calvin-Wesley의 신앙을 따라- / 한철하
 존 웨슬리의 성화와 복음서 / 강창희
 존 웨슬리의 선교 연구 / 이동주
 J. Calvin과 J. Wesley 목회신학의 중심구조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의 원리 / 이숙경
 기독교의 중심진리와 기독교 교육 -웨슬리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 권택조
 John Wesley와 중심진리 / 김준수
 존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난 종교적 감성에 관한 연구 / 박응규
 웨슬리의 회심의 이해 -웨슬리의 회심과정과 그의 구원론 설교를 중심으로- / 이교육
 웨슬리의 신학과 구약 / 이한영

제6호 (2002년)

토라(tora)의 신학구성 초안 / 이한영
 예언서 메시지를 통하여 본 ACTS 신학 공관의 의의 / 조휘
 찬송하는 신학(롬 11:33-36) / 장해경
 존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난 죄 이해 / 정홍열
 요한 웨슬리 부흥운동의 여성 / 원종천
 구원의 심각성과 종말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 박응규
 성경과 꾸란의 언어 비교연구 -꾸란의 영과 성령을 중심으로 / 이동주
 칼빈의 인간론 연구 / 우심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파키스탄의 관계와 선교전략 / 정홍호
 시편 110편의 선교적 의미 / 이교육
 복음주의적 기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에 관한연구 / 권택조
 내적치유의 이해와 치유목회적 적용 / 김준수
 존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난 강조점 / 안경승
 현대 기독교교육의 목적들에 나타난 문화의 위치 문제 / 이숙경

제7호 (2003년)

룻의 누명을 벗기다: 룻기 3장의 새로운 번역과 ‘문화언어적’ 석의 / 고세진
 고레스와 이사야의 역사: 신학적 지평 / 이한영
 에스겔의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 조휘

고린도후서 5:1-10 주석 / 강창희
 미국 대각성운동 회심체험에 나타난 성령사역의 이해에 대한 평가 / 원종천
 신사참배반대운동의 신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 한부선을 중심으로 / 박응규
 라마교 연구 / 이동주
 경교: 상황화에 성공인가, 실패인가 / 정홍호
 기독교교육의 구약성서적 근거(Biblical Found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Old Testament) / 권택조
 현대 문화 현상에 내포된 자아이해의 성격과 기독교교육적 과제 / 이숙경
 청소년기의 자기에적 성격에 대한 이해와 제언 / 안경승
 박목월 후기시의 기독교적 이미지 연구 / 금동철
 성인 EFL 학습자에 대한 화용 능력개발과 문화지동에 관한 연구 / 김덕영

제8호 (2004년)

自由主義 神學이 敎會에 끼친 영향 / 김의환
 나의 사고와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 한철하 박사님 / 김명혁
 영광스러운 교회 현대신학에의 반성과 21세기 신학의 중심과제 / 김재성
 B. Childs와 J. A. Sanders의 정경 비평적 접근 비교를 중심으로 본 정경비평 / 조휘
 칼빈의 성경해석 시편 주석을 중심으로 / 김성수
 고린도후서에서의 바울의 사도직 이해 / 강창희
 ACTS가 제창해야 될 신약성경신학 / 허주
 은혜의 수단에 나타난 루터의 영성 / 원종천
 구 프린스턴신학과 한국장로교회 / 박응규
 성경 비평신학에 대한 조직신학적 반성 / 한상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삼위일체론 / 정홍열
 칼빈의 신학방법론 / 박해경
 “大秦景教流行中國碑” 비문(碑文) 역주(譯註) I / 우심화
 파키스탄 무슬림의 사회적 지배와 복음화를 위한 전략 연구 / 정홍호
 성경적 선교신학 / 이교육
 ACTS 신학공관과 치유사역 / 이장호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6-1 원리 / 권택조
 이미지 지향적 문화현상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논의 / 이숙경
 신입교수 수업능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오춘희
 소그룹 모임을 통한 집단상담 / 김준수
 성격의 변화와 죄에 대한 이해 / 안경승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에 관한 인식 연구 / 정채옥
 한국 EFL 학습자들의 “칭찬” 화행에 관한 연구 / 김덕영
 한국 아동의 영성 이해와 치유 / 김영희

제9호 (2005년)

화있을지어다! / 이한영

에스겔 34장을 중심으로 본 에스겔(Ἐζεκι엘)의 연구 / 조휘
 시편 3-14편의 문맥 속에서 시편 8편과 14편 읽기 / 김성수
 바울의 회심, 소명, 증거: 사도행전 9장 주해와 적용 / 허주
 영국 청교도 영성 발전 과정의 역사적 조명 / 원종천
 이용도의 신비주의, 부흥주의, 그리고 종말사상에 관한 연구 / 박응규
 루터의 만인제사장직 / 정홍열
 칼빈과 부르너의 기도론 비교 / 박해경
 “大秦景教流行中國碑” 비문(碑文) 역주(譯註) II / 우심화
 선교와 성령,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 정홍호
 한국 선교사의 인간관계 문제 진단과 대처 방안 모색 / 이장호
 기독교교육의 목표와 방법 / 권택조
 “소그룹 신앙운동” 과목개선을 위한 연구 / 이숙경
 기독교상담과 영적지도 / 김준수
 목회자의 지도력과 상 / 안경승
 아동학대에 관한 기독교학생들의 인식 연구 / 정채옥

제10호 (2006-2007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의 회개와 평양대부흥운동의 회개에 대한 상호관계 / 허주
 티어도어 제이콥 프렐링하이젠과 미국의 대각성운동 / 박응규
 성경적 여성 리더십의 실제와 여성교사로서의 역할과 적용 / 이동주
 선교적 지도력 / 정홍호
 두뇌 과학적 입장에서 본 학습의 영역 재설정에 관한 연구 / 권택조
 친밀감 향상을 통한 부부관계 회복 / 김준수
 한국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거시적 방안 연구 / 정채옥
 한국어의 존칭어 사용의 사회문화적 요소 / 김덕영

제11호 (2008-2010년)

고린도후서의 화해 / 강창희
 신학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개념 / 장해경
 Edward Joseph Young의 구약신학 이해와 평가 / 허주
 찰스 핫지의 후천년설에 대한 재고찰 / 박응규
 인간의 구성적 본성에 관한 소고: 이원적 전인론의 성경적 근거들 / 한상화
 한국 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상 / 정홍열
 이슬람의 도전과 성령 강림의 역사성과 속죄의 사실성 연구 / 이동주
 칼빈의 신학에 비추어본 선교신학의 본질 / 정홍호
 영성발달의 단계에 관한 연구 / 권택조
 결혼에서의 용서 / 안경승

제12호 (2011년)

- 1부 : 강창희 교수 은퇴를 기념하며
강창희 교수 연보(연혁) 및 저술 목록
강창희 교수 정년퇴임 기념호 발간을 축하하며
감사의 글
은퇴와 회고
회고의 글: 원종천 / 우심화 / 장해경 / 한상화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 강창희

- 2부 : ACTS 신학과 선교
구약신학에서 구약윤리까지의 해석학적 논쟁 / 이한영
아모스 9장 11-15절에 대한 아모스의 저작권 논의 / 조휘
예수의 비유의 해석에 대한 소고 -비유의 대조법을 중심으로- / 강창희
요한 칼빈의 사도행전 해석에 대한 이해와 평가: 성령 강림 본문을 중심으로 / 허주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 원종천
존 크리소스톰의 설교세계: 성경해석학과 설교 그리고 사회개혁 / 박응규
원죄 되짚어보기 / 정홍열
20세기 WCC 신학적 동향과 세계 선교 문제 연구: WCC의 교회연합운동과 대화신학을 중심으로 / 이동주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중국교회용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우심화
WEA와 WCC 선교신학의 방향성 비판 / 정홍호
성인의 유치성에 관한 심리학적 성서적 연구 / 권택조
한국의 평가 문화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고찰 / 이숙경
교회의 화평사역과 회복적 정의 / 김준수
다문화시대와 기독교상담 / 안경승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교육의 사명과 지혜 / 정재욱
EFL 교실에서 영화를 활용한 영어 듣기 지도에 관한 연구 / 김덕영
기독교적 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 금동철

제13호 (2013년)

- 붉은 암송아지의 하타트(**חַטָּאת**): 민수기 19:1-2 / 이한영
벤전 3:18-22의 석의를 위한 텍스트언어학적 접근 / 조휘
신약해석학 입장에서 본 액츠(ACTS) 신학공관운동의 의의 / 정성국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영적 대각성운동: 노샘프턴교회 목회사역을 중심으로 / 박응규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 의로움의 전가' 교리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원종천
도예베르트의 이론적 사고에 대한 선형적 비판과 우주법 이념의 중심성 / 한상화
차등상급론 연구 / 정홍열
ACTS 신학운동과 신앙운동의 의의와 설교학적 적용 / 신성욱

중국의 소수민족선교 사례연구 Samuel Pollard(柏格理, 뽀꼬어리)와 석문감(石門坎, 스먼칸) / 우심화
ACTS 신학-신앙 운동과 영성신학적 의의 / 김다니엘
ACTS 신학-신앙 운동과 선교지 신학교육에의 적용 가능성 / 안점식
정서의 구속사적 이해와 성경적 상담 / 김준수
“21세기 인류의 살길”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적용 / 손신
ACTS 신학과 신앙의 공관운동의 이해와 기독교교육 / 전병철
미국영화를 활용한 한국대학생들의 영미문화습득에 관한 연구 / 김덕영
ACTS 신학-신앙 운동 이해와 교육 선교적 의의 / 김한성
박두진 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像 연구 / 금동철

제14호 (2014년)

Hermeneutics and Millennialism in Augustine's Eschatology / 박응규
Integrating Adult Learning Principles into an Effective Teaching / Preaching Ministry / 전병철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Their Korean EFL Instructors: Metaphor Analysis / 김덕영
이슬람 선교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에 대한 고찰 / 김진욱
선교사역과 우울증에 관한 소고(小考) / 유동윤
파키스탄 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선교전략 / 윤석호
이라크, 레반트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선교에 있어서 자신확화와 자선교학화 개발 / 정형남
히브리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시편 126편 연구 / 김동진
루터의 『로마서 강의』에 나타난 성 버나드의 사상 고찰 -성 버나드의 『숙고에 관하여』(De Consideratione)를 중심으로- / 조주희
기독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 및 요구분석 / 변우진
对两种连词的考察及其对教学的建议 / 管延增, 丁 帅

색인

인명 색인

가

가노 타카요(Kano Takayo) 225, 226
 강대홍 218, 268
 강승삼 186
 강신원 163, 210, 214, 256, 257, 265
 강안삼 97, 101, 104, 105, 108, 110, 113, 127, 207
 강창희 108, 128, 138, 177, 196, 218, 248, 249, 251, 252, 266
 게르하르트 마이어(Gerrhard Maier) 94
 게리 베커(Garry Bekker) 225, 230, 239
 겐간 일라이자(Gergan Elijah Spalbar) 61
 고세진 194, 195, 196, 198, 206, 207, 208, 211
 고인호 97
 고 훈 243, 263, 265
 구즈테 카이자송(Guzte Kaizasong) 63
 권영복 164, 275
 권오윤 218, 251, 267, 275
 권택조 219
 권형기 108
 글렌 젠트(Glenn Jent) 127, 130, 134
 글렌 테일러(Glen Taylor) 232
 금동철 196, 203, 214, 258, 267
 길보룬 48, 49, 50, 52, 54, 74
 길자연 107, 108, 110, 113, 127, 131, 132, 134, 207
 김경래 67, 68
 김경원 257
 김경윤 210, 214, 265
 김계용 96, 97, 100, 104, 110

김관선 210, 214, 257, 265
 김국도 69
 김기태 164, 197, 198, 275
 김기홍(아름다운 교회) 78, 83, 98, 99, 108, 110, 257
 김기홍(응암교회) 265
 김다니엘 217, 223, 251, 267
 김택영 196, 203, 214, 267
 김동수 54, 59, 82, 97, 105, 108, 113, 275
 김동일 138, 270
 김동호 164
 김명로 108
 김명혁 90
 김문희 101, 110, 275
 김삼환 107, 108, 113, 131, 132, 134, 175, 194, 195, 202, 206, 208, 210, 211
 김상복 97, 108, 110
 김성곤 254
 김성기 234
 김성길 210, 214, 216
 김성섭 52, 54, 58
 김성수 67, 184, 196, 203
 김성욱 69
 김성진 218, 251, 267
 김성철 78, 275
 김성환 268
 김세운 60, 71, 76, 78, 98, 99, 101
 김세진 52, 54, 55, 57, 59, 67, 83, 84, 97
 김수연 267
 김엘리 198, 202
 김영미 254
 김영수 68
 김영욱 31, 34, 114, 125, 127, 130, 138, 164, 208, 209, 210, 211, 213, 214, 217,

222, 226, 233, 236, 237, 243, 253, 254, 256, 257, 265, 266

김영재 186
 김영조 113
 김영희 196, 267
 김옥인 110
 김원기 97
 김윤권 269
 김윤정 159
 김윤찬 48, 49
 김의환 46, 47, 48, 49, 52, 96, 97
 김인득 52
 김인성 211, 257, 265
 김재운 218, 251, 267
 김재혁 163
 김정관 258, 270
 김정준 60
 김종구 240, 268
 김종일 78, 240, 268
 김종호 52
 김주성 253
 김준수 164, 182, 196, 214, 242, 247, 258, 266
 김진수 57, 58, 82, 162
 김진욱 219, 268
 김진학 268
 김창경 97
 김창식 70
 김창용 134
 김창인(충현교회) 54, 59, 84, 100
 김창인(광성교회) 96, 107, 113, 126, 127, 131
 김철현 60
 김치복 52
 김한성 203, 218, 226, 251, 258, 267
 김형도 83
 김홍도 101, 107, 108, 110, 113, 127, 131, 134, 141, 172, 194

나

나일선(Marlin L. Neslon) 60, 78, 80, 82, 88, 96, 108, 233, 266
 남여명 269
 낸시 디나르(Nancy Patricia Dinar) 235
 넬슨 나심(Nelson Nasim) 64
 노봉린 60, 89, 108, 128, 130, 132
 노원복 210, 214, 256
 노이저(W. H. Neuser) 94, 156, 157
 노창영 269
 뉴튼 말로니(H. Newton Malony) 93
 니체르 에메리토 크루즈(Nicer, Emerito Cruz) 62

다

다니엘 커프라(Daniel Y. Cofflah) 69
 더크 넬슨(Dirk Nelson) 60, 78, 219
 데니스 클라크(Dennis Clark) 46
 데니스 홀린저(Dennis Hollinger) 224
 데렉 쿠퍼(Derek Cooper) 231
 데이빗 던바(David G. Dunbar) 230
 데이빗 썬(Lim, David Sun) 62
 데이빗 폴리슨(David Powlison) 157
 데이빗 웨어하우저(C. Davis Weyerhaeuser) 50, 55, 57, 58, 96

라

라의도(Paul A. Rader) 52, 54
 랄프 윈터(Ralph Winter) 51
 레오나드 벤더지(Leonard J. Vander Zee) 218
 로버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244
 로 슈 추(Lo Shu Chu) 64
 로이 루이스(Roy Lewis) 240, 245
 룯 에쉬나워(Ruth Eshenaur) 108
 리차드 개핀(Richard Gaffin) 94
 림택권 96, 97, 100, 102, 141, 194
 림형천 219, 256

□
 마삼락(Samuel H. Moffett) 48, 49, 50, 54, 60, 74, 96, 108, 266
 말레아키 아구스티누스 (Maleachi Agustinus) 62
 머레이 래(Murray Rae) 230
 메덴블릭(Julius Ted Medenblink) 225
 모펫 에일린(Moffett, Eleen F.) 50, 61
 문난영 207
 문희석 60
 민관식 48
 민석홍 84
 민순구 100, 104
 밉구 린 (Ming Hu, Lin) 62

ㅂ
 바로이 수브로토 쿠마르(Baroi Subroto Kumar) 63
 바이어하우스(Beyerhaus) 157
 박경호 267
 박기곤 240, 268
 박기호 82, 211, 233, 257, 265
 박노철 215, 254
 박대인 60
 박삼열 164
 박성수 105, 106, 107, 108, 113, 131, 207
 박영주 218, 268
 박용규 45
 박용만 78, 108, 128
 박윤선 46
 박응규 35, 37, 182, 189, 214, 222, 236, 237, 242, 250, 251, 258, 266
 박일철 134, 177
 박조준 54, 59, 101, 103, 108, 110, 113, 126, 132
 박종렬 68
 박중순 256
 박태진 54, 69
 박해경 195, 196

밤방 드위 비안토로 라덴(Bambang Dwi Byantoro Raden) 63
 방해주 101, 110
 백효죽 218, 269
 버나드 프리먼드(Bernard Freymond) 94
 벤자민 리디아(Benjamin, Lydia) 61
 변춘하 104
 부르스 니콜스(Bruce J. Nicholls) 44, 45, 48, 93, 232, 263
 비스와스 월터 딥티 란잔 (Biswas, Walter Dipty Ranjan) 63
 비아몽구 매튜(Bya-Mungu Matthew) 64
 빌렘 반게메렌(Wilem A. VanGemeren) 157, 230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43, 48, 50, 55, 56, 57

ㅅ
 사무엘 카말레이슨(Samuel Kamaleson) 71
 사무엘루 아페레티(Samuclu, Afereti) 61, 262
 샤희 카우사르(Shaheen Kausar) 64
 서광선 60
 서정운 60
 성기양 235
 소강석 255, 257, 265
 소윤정 240, 245, 268
 손봉호 60, 71, 90, 108, 258
 손석태 78, 98, 99, 101
 손 신 218, 251, 258, 267
 송기정 240
 송상섭 48, 49
 송원근 240, 268
 송천호 233
 송치현 67, 68, 101, 110
 셰일라 노리스(Sheila A. Norris) 225
 슈반 다니엘(Subhan Daniel) 64
 슈수무 우다(Susumu Uda) 47
 스캇 선퀴스트(Scott Sunquist) 225

스탠리 무니햄(W. Stanley Mooneyham) 44, 54, 71
 신길균 57
 신동혁 68
 신명균 83
 신성욱 218, 251, 267
 신성중 114
 신의경 69
 신종철 268
 실라스 싸이 라우투(Silas Sai S. Routhu) 63
 싹피르 아티알(Saphir Athyal) 44, 46, 47, 48
 쉐바라지 카루티아 데이빗 (Selvaraj, Karuthiah David) 63
 싹 슈칠 쿠마르(Singh Shuchil Kumar) 64
 ○
 아더 그라서(Arthur F. Glasser) 51, 93
 아라사라트남 데이빗 야두라이 (Arasaratnam David Iyadurai) 64
 아미투아나이 테비타(Amituana'i Tevita) 63
 안경승 37, 195, 196, 214, 251, 258, 267
 안봉호 78
 안순철 240, 268
 안영권 89, 108, 127, 128, 130, 138
 안점식 217, 251, 258, 267
 안토니 얀(Antoni, Yan) 62
 안행래 110
 안효영 159, 203, 267
 알랜 토랜스(Alan Torrance) 231
 알랜 핀리(Allen B. Finley) 96
 야우찌 쇼지(Yauch Shoji) 47
 양성람 68
 엄경섭 268
 에파오 베프라리(Epao, Veptari) 62
 여철원 83
 오대원(David E. Ross) 239
 오병세 44, 47, 90, 186
 오영철 268

오용주 225, 233
 오재경 52, 54, 96, 108, 113
 오춘희 138
 오토 베프(Otto Betz) 93
 와타나베 노부오(Watanabe Nobuo) 94
 왕 웨유(Wang, Wen You) 50
 우심화 108, 125, 127, 138, 159, 163, 183, 196, 214, 236, 251, 266
 운 허버트(Woon S. N. Herbert) 62
 원광기 101, 110, 163, 210, 214, 256, 257, 265
 원종천 37, 108, 127, 138, 164, 188, 189, 196, 214, 227, 236, 251, 255, 266
 위현숙 138, 270
 유광용 78, 108, 128, 129, 134
 유동윤 268
 유부용 70, 94
 유이치로 시나(Yuichiro Shina) 225, 256
 유진 하이드만(Eugene P. Heideman) 93
 윤석호 218, 268
 윤춘식 268
 윤현기 218, 269
 율리우스 메덴블릭(Julius Ted Medenblink) 225
 이강봉 214, 257, 265
 이광길 206
 이광선 101, 104, 110
 이교육 97, 131, 163, 187
 이규현 256
 이동주 163, 188, 218
 이마드 샤하다(Imad Shehadeh) 157
 이명수 78, 108
 이 밉시웅(Lee Ming-Hsiung) 64
 이병희 97
 이봉수 52, 54, 56, 58, 74, 105, 107, 108
 이상현 157
 이상훈 60
 이수영 210, 214
 이수중 164

이숙경 138, 182, 196, 214, 266
 이승열 256, 257, 265
 이승운 97
 이승재 97
 이영덕 100, 105, 106, 107, 108, 113
 이영무 163
 이영수 49, 52
 이영학 99
 이용남 210, 214
 이원설 60
 이원순 60
 이원희 198
 이장호 195, 196
 이종득 253
 이종성 44
 이종용 257
 이종윤 60, 78, 81, 82, 84, 90
 이진태 60, 76, 78, 84
 이철신 163
 이태웅 186
 이한영 183, 195, 196, 214, 227, 234, 235, 266
 이형기 90
 이형자 101, 110
 이혜인 198
 이화영 163
 임동선 97, 108
 임영수 101, 107, 108, 110, 113
 임 옥 67, 68, 82, 101, 103, 104, 105, 107, 108, 110, 113, 117, 126, 127, 134, 137, 157
 임용의 97, 107, 108
 임종현 163
 임춘복 68

ㅈ
 자야싱 조수아 마틴(Jayasingh, Joshua Martin) 62
 장영춘 97, 102, 108, 113, 117, 131, 132,

134, 207, 211, 257, 265
 장점연 97, 99, 101, 105, 108, 110, 113
 장주영 233, 257, 265
 장해경 78, 131, 159, 177, 185, 203, 214, 251, 258, 266
 전병철 218, 251, 267
 정득수 268
 정성국 218, 258, 267
 정은영 267
 정종기 240, 268
 정지웅 267
 정채욱 195, 196, 203, 214, 267
 정형남 268
 정홍열 37, 196, 242, 258, 266
 정홍호 237, 134, 138, 139, 159, 163, 177, 187, 236, 237, 243, 251, 258, 266
 조기연 268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90
 조영태 240, 268
 조은아 218, 251, 267
 조은호 268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190
 조 휘 196, 203, 215, 251, 267
 존 반 스텔판(John Van Stephen) 156
 존 웨슬리(John Wesley) 190
 조수아 페핀(Iosua Pepine) 157

ㄷ
 최경욱 265
 최광규 239
 최남수 33, 210, 211, 214, 242, 243, 253, 254, 255, 256, 257, 265
 최창근 52, 54, 58, 59, 67, 82, 83, 86, 96, 98, 100, 105, 108, 113, 131, 211
 최태섭 53, 54, 58, 59, 82, 95, 96, 98, 101, 105, 107, 108, 110, 113, 131, 162

ㅋ
 칼슨(D. A. Carson) 156

칼 헨리(Carl F. H. Henry) 93, 48, 49, 50, 60, 93, 94
 케네스 리츠마(Kenneth N. Leestma) 93
 코디아투 폴 바르키(Kodiyattu Paul Varkey) 64
 코 칭유안(Ko, Ching Yuan) 62
 키쇼레 두타(Kishore, Dutta) 62

ㅅ
 타오 방루에(Thao Vang Lue) 64
 타이와트차라마스 닐루본 풍사구아 타이(Thaiwatcharamas Nilubon Phongsaguanthai) 64
 타카노리 코바야시(Takanori Kobayashi) 238
 탄자 빈(Tanja Bin) 47

ㅇ
 페드 앙스트롬(Fed Engstrom) 96
 폴 림(Paul Lim) 231
 폴 피어슨(Paul E. Pierson) 93
 폴 히버트(Paul Hiebert) 93, 94
 프랭크 제임스(Frank James) 231
 피터 릴백(Peter Lillback) 230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51
 피터 장(S. Peter Chang) 93
 피터 톤(Peter Toon) 83, 93

ㅎ
 하용조 72
 하워드 라이트(Howard Wright) 231, 240
 한경직 44, 48, 49, 52, 82, 83, 108
 한기원 59, 60, 107
 한도성 60
 한상일 60
 한상화 37, 131, 164, 181, 183, 195, 203, 214, 236, 242, 250, 251, 266
 한익하 52, 54, 57, 58, 59, 82, 97, 107, 108
 한진관 96, 97, 110, 113, 132
 한철하 33, 35, 46, 47, 48, 49, 50, 54, 55, 58,

59, 60, 71, 74, 76, 77, 78, 81, 83, 84, 87, 90, 91, 93, 95, 96, 97, 98, 101, 104, 106, 108, 110, 113, 114, 116, 117, 118, 126, 127, 128, 131, 132, 134, 135, 137, 141, 177, 178, 179,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9, 190, 191, 211, 215, 222, 251, 266

한태동 60
 허용범 207
 허 주 184, 185, 196, 203, 205, 214, 267
 헤르드룬 60
 홍 근 268
 홍반식 48, 49, 52
 홍성개 208, 210, 213, 214, 216
 홍성현 78
 홍정수 268
 홍창표 93
 황방남 110
 황철수 101, 110

주제 색인

ㄱ
 갈보리교회 110, 162
 강당 증축 175, 222, 223, 239, 253, 254
 개교 30주년 77, 186
 개교 40주년 33, 234, 237, 251, 255, 257, 258, 263
 건강가정지원센터 246
 게스트하우스 57, 58
 공동학위 53, 81, 109, 129, 130, 132, 225, 262
 공산권 선교연구기금 57
 교수세미나 177, 178, 182, 250, 251
 교수주례세미나 114
 교육대학원 155, 165, 166, 167, 169, 221, 234

교육연구원 107, 109, 113, 165, 234
 교회연합 33, 37, 72, 80, 81, 108, 126, 149, 153, 168, 174, 176
 국제교육원(AIGS) 216, 218, 227
 국제기독교학교연맹(ACSI) 221
 국제영빈관 102
 금란교회 110, 141, 162
 글로벌 리더 양성 147, 148, 235, 258
 기독교교육학과 135, 154, 218, 219, 240, 271
 기독교 중심진리 179, 181, 186, 251
 길균 아시아연구기금 56, 57
 김세진 이사장 기념 장학기금 57

L
 나성영락교회 110, 113, 162

C
 다문화교육 221
 대균기금 56
 대신감리교회 110, 162
 대학기관평가인증 257
 대학원기금 56
 대학종합평가 137, 142, 143, 144, 151, 172, 194
 대학 특성화 계획 152
 도서관 신축 172
 독립교단 198
 동아시아교회협의회 45
 동안교회 110, 162, 164
 드림교사연수원 167, 168

Q
 마펏기금 56
 마펏 선교학 교수 석좌기금 96
 마펏 홀 96
 명예교수 218, 258, 266
 명예총장 33, 141, 215, 222, 266
 목회학박사 53, 79, 81, 109, 129, 158, 275

미국 기독교개혁교단(CRC) 218, 225, 230, 239

B
 밥 피얼스기금 56
 배광감리교회 110, 162
 변춘하 아세아 선교기금 104
 복음주의 33, 35, 36, 37, 38, 43, 45, 46, 53, 54, 60, 73, 74, 78, 79, 80, 83, 88, 90, 91, 108, 114, 115, 118, 126, 127, 132, 134, 135, 139, 152, 153, 168, 169, 170, 174, 176, 177, 180, 181, 183, 186, 187, 191, 223, 230, 236, 249, 261, 262
 복음주의신학한국위원회 47
 복지대학원 155, 170
 북뱅크제도 233
 분당우리교회 235
 빌리 그래함 도서기금 56, 57, 102

人
 사회복지사 171
 산정현교회 57, 265
 상담대학원 155, 169, 198
 새 아시아 건설 36, 153, 173
 서대문 캠퍼스 49, 55, 57, 58, 72, 75, 91, 93, 99, 102, 125, 129, 157, 160, 165, 166, 168, 175, 176, 206, 222, 257
 서울교회 215, 254
 서울 전도대회 50
 서울중앙교회 113
 선교대학원 95, 97, 101, 102, 104, 109, 110, 113,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31, 134, 136, 137, 139, 147, 155, 159, 160, 161, 164, 165, 169, 174, 236, 253
 선교사연장교육 129, 160
 선교실 114, 139, 228
 선교언어학부 154
 선교연구소 137, 139, 159, 162
 선교영어학과 218, 219, 226, 271

선교중국어학과 219, 220, 271
 선교중심 148, 149, 150, 151
 선교지향적 60, 81, 95, 114, 148, 150, 151, 152, 176, 185, 223, 235, 255, 258
 선교학과 109, 130, 135, 146, 154, 217, 219, 251, 271
 선명회 50, 58, 60, 71
 성경강해설교학 221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 35, 44, 45, 262
 세계복음화 43, 44, 70, 85, 118, 123, 161, 170, 186, 187, 233, 238, 239, 261
 세계선교협의회(KWMA) 186
 세계선명회 48, 68
 세계전도대회 43
 세계학술대회 157
 수영로교회 114, 162
 시은소교회 214, 216
 신본주의 38, 53, 60, 80, 108, 118, 152, 168, 169, 170, 176, 191, 249, 262
 신앙고백서 107
 신앙수련회 194, 215, 216, 242, 255, 257
 신일교회 104, 110, 162
 신학과 75, 76, 83, 109, 121, 135, 146, 147, 160, 168, 218, 219, 271
 신학과 선교 80, 109, 118, 135, 136, 149, 154, 186
 신학과 신앙 114, 144, 205, 251
 신학대학원 33, 79, 91, 120, 139, 168, 175, 198, 201, 218, 220, 221, 225, 229, 243, 261, 262
 신학선교 36, 90, 180
 신학연구센터(CATS) 44
 신학연구소 176, 251
 신학위원회 35, 131, 177, 262

O
 아름다운교회 110, 162
 아세아농촌진흥원 173, 174
 아세아복음화 31, 44, 53, 58, 60, 70, 72,

74, 75, 79, 83, 86, 89, 94, 97, 146, 148, 151, 156, 159, 161, 164, 170, 176, 191, 227, 228, 235, 236, 237, 239, 241, 242, 246, 254, 258, 259, 261, 262, 263
 아세아복음화 장학회 67, 71, 94, 130, 164
 아세아 선교의 날 57, 67, 68, 70, 71, 72, 94, 130
 아세아선교학과 74, 121, 130
 아세아신학대학원(AGST) 91, 124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1, 33, 34, 35, 36, 51, 54, 97, 113, 114, 147, 148, 149, 161, 167, 174, 216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48, 52, 54, 55, 74, 96, 97, 103, 105, 106, 176, 213
 아세아연합신학원기금 56
 아세아학과 75, 76, 77, 98, 109, 130, 146
 아시아 교회 지도자 양성 51, 61
 아시아-남태평양 전도대회 33, 43, 46, 49
 아시아농촌복음화 174
 아시아복음주의신학자대회 45, 47
 아시아복음주의신학협의회 45, 46, 47, 48, 49
 아시아신학연맹(ATA) 53, 73, 91, 129, 135, 236, 238
 아시아신학연맹 신학자협의회 90, 91
 아신학보 201, 202
 아프리카복음화위원회 67, 69, 70, 94
 안국동교회 84
 야간학부 124, 125, 130
 양평 캠퍼스 59, 75, 76, 83, 97, 99, 109, 125, 136, 164, 193, 219, 222, 233, 238, 239, 254
 여전도회전국연합회 110, 162
 연예인교회 72, 257
 연합선교대학원 95, 96, 97, 100, 109, 110
 영국기도선교 32, 238, 240, 242, 243, 244, 245
 영락교회 48, 59, 83, 106, 110, 119, 162, 163, 164, 233

영암교회 110,162
 오류동감리교회 110,162
 웨스트민스터 채플 244
 웨어하우스저기금 57
 응암교회 110,265
 의료선교교회 72
 의료선교학 72,79
 이신칭의 179,181,185

ㄸ

자국복음화 156,261
 자매결연 220,224
 자체평가 137
 잠실교회 110,162,163,219,265
 장·단기 발전계획 141,147,148,149,
 151,152,172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52,54,
 96,97,99,106,125,211
 재미 연합선교대학원 102,104
 재미 이사회 96,97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 47
 제3세계신학자대회 91
 종합감사 206,208
 종합정보시스템 173
 주례신학연구회 177,178
 중국선교학 134

ㄹ

초교과 61,75,112,168,176,219
 최영 아세아 선교기금 57
 충현교회 59,100,114,265
 치유선교학과 135

ㅍ

태국선교연구원 119,122,162,163
 토착신학수립 46
 특성화 37,131,148,149,150,151,152,
 153,155,166,191

ㅊ

평북노회 장학기금 57
 평생교육원 145,147,272,278
 평신도선교훈련원 163
 풀러신학교 53,81,82,93,109,129,130,
 132,206,225,233
 피어스 홀 17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141

ㅎ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48,49,
 54,55,74,96,97,103,105,106,134,
 176,213
 학내사태 98,99,100,101,175,176,191,
 193,197,198,200,201,202,204,205,
 206,208,209,211,212,213,219,222,
 227,228,248,253
 학생회관 175,247
 한국복음주의신학위원회 46,47,49
 한국복음주의신학회(KETS) 47,90,91,93,
 132,178,222,236
 한국세계선교사훈련원 128
 한국세계선교협의회 128
 한국여성복음봉사단 56,82,233
 한국연합신학대학원 48,49
 한국항공선교회 114,125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186
 항공선교사훈련원 113
 해외선교회 도원회 83
 후암교회 46,47

ACTS 국제센터 254
 ACTS 선교대회 94,123,163,164,238,
 240,241,242
 ACTS 선교연구원 137
 ACTS 신앙운동 182,183,205
 ACTS 신학건설 110
 ACTS 신학공관 115,116,178,179,180,

181,183,185,186,190,250,251
 ACTS 신학과 선교 109,191,248,252
 ACTS 신학연구원 176,177,249,250
 ACTS 신학저널 129,251,292
 ACTS 심포지움 205,206
 CATS 국제이사회 48,49

ACTS 31,35,36,37,38,43,44,45,46,48,
 49,50,51,52,53,54,55,57,59,61,
 67,69,70,71,72,77,81,85,87,89,
 94,95,96,98,99,100,101,103,105,
 106,107,109,110,111,112,114,115,
 116,117,118,121,122,125,126,127,
 128,129,130,131,132,136,139,143,
 144,159,160,165,166,167,168,169,
 170,176,177,178,180,182,185,187,
 190,197,199,201,205,212,214,215,
 216,217,218,222,223,224,226,227,
 228,229,230,231,232,233,234,235,
 236,237,238,239,240,241,242,244,
 245,246,249,250,253,255,256,257,
 259,261,262,264

ACTS in U.S.A. 96

ACTS Mission 2012 147,148,152

ACTS Theological Journal 114,129,180,
 191,251

International School of Theology-Asia 92

ISA(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156

KESA(Korean English Student Association)
 156

OSA(Overseas Student Association) 130

ACTS 40년사

40 Years History of ACTS

2015년 10월 01일 초판 발행

발행인 | 김 영 욱

편집인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발행처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등록: 1990.11.22 제 1990-000001호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 151-1
031) 770-7700(대표)

www.acts.ac.kr

press@acts.ac.kr

편집인쇄 | 사)기독교문서선교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로 68

02) 586-8761~3(본사)

www.clcbook.com

clckor@gmail.com

가격: 15,000원

ISBN 978-89-92193-21-4 (03200)

* 낙장·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